언론사: 국민일보-3-402.txt

제목: 김성훈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교수팀, 암 유발하는 염증 원인 첫 규명  
날짜: 20170704  
기자: 최예슬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04204855002  
ID: 01100201.20170704204855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김성훈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교수팀은 암이 유발하는 염증에 중요 역할을 하는 분비체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팀은 대장암세포를 분석한 결과 엑소좀(세포외소낭) 내에 존재하는 ‘라이실-tRNA 합성효소(KRS)’가 염증 유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br/> <br/> 염증 반응은 세균,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원이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 생기는 면역반응이다. 일반적인 면역세포는 감염원을 제거하지만 암세포는 주변에 있는 면역세포를 역으로 이용하고 스스로 성장·전이에 활용해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암이 유발하는 염증의 원인을 찾은 만큼 앞으로 암의 성장·전이를 조절해 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세포생물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 ‘Journal of Cell Biology(JCB)’에 게재돼 주목할 만한(spotlight) 논문으로 선정됐다. <br/> <br/>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03.txt

제목: LPGA 대니얼 강, 138번 도전 끝에 우승컵  
날짜: 20170704  
기자: 박구인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04190255001  
ID: 01100201.20170704190255001  
카테고리: 스포츠>골프  
본문: 재미교포 골퍼 대니얼 강(25)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첫 우승을 메이저대회에서 장식하는 기쁨을 맛봤다. 2012년 LPGA 투어에 데뷔한 이후 138번의 투어 대회 출전 끝에 따낸 우승컵이다. <br/> <br/> 대니얼 강은 3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올림피아필즈 골프클럽(파71·6588야드)에서 열린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총상금 35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3언더파 68타를 써내 최종합계 13언더파 271타로 정상에 올랐다. 그는 17번홀까지 ‘디펜딩 챔피언’ 브룩 헨더슨과 동타를 이뤘으나 마지막 18번홀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1타차 짜릿한 우승을 거머쥐었다. LPGA 투어에서의 생애 첫 우승이 확정되자 대니얼 강은 어머니를 안고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br/> <br/> 대니얼 강은 199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다. 그는 골프광이었던 아버지의 권유로 골프채를 잡았다. 대니얼 강은 2010년과 2011년 US 여자 아마추어 챔피언십을 연달아 제패하며 유망주로 떠올랐다. 당시 대니얼 강의 캐디는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항상 딸의 곁을 지켰다. 하지만 대니얼 강은 2012년 프로로 전향한 뒤 우승과 인연이 닿지 않았다. 게다가 이듬해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겪었다. <br/> <br/> 대니얼 강은 아버지에게 반드시 우승을 선물하겠다는 각오로 이를 악물었다. 꾸준히 대회에 나섰고 138번째 도전 속에 맞닥뜨린 메이저대회에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마침내 지켰다. 대니얼 강은 2014년 브리티시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모 마틴(미국) 이후 3년 만에 LPGA 투어 첫 우승을 메이저대회에서 거둔 선수가 됐다. <br/> <br/> 대니얼 강은 경기 후 미국 골프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5년간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 메이저대회에서 첫 우승을 했다니 정말 놀랍고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br/> <br/> 이어 “이번 우승은 분명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라 생각한다. 아버지는 항상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r/> <br/>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04.txt

제목: 법원, 월성 1호기 운전중단 신청 기각  
날짜: 20170704  
기자: 양민철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04185855003  
ID: 01100201.20170704185855003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상열)는 3일 월성 1호기 인근 거주 주민 등이 “<span class='quot0'>월성 1호기 운전을 중단해 달라</span>”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이해되지만, 본안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법으로 운행을 막아야 할 정도로 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다. <br/> <br/> 재판부는 “원전과 갑상샘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연구결과가 다수 존재한다”며 “월성 1호기가 인근 주민들에게 암을 유발할 정도의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경주 지역에 여진이 계속된다는 점만으로는 월성 1호기 주변에 대규모 지진 발생이 임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span class='quot1'>현재 월성 1호기는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돼 있고,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후속조치를 시행했다</span>”고 했다. <br/> <br/>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span class='quot2'>월성 1호기의 10년 수명연장 결정은 위법하다</span>”며 이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원안위는 월성 1호기를 계속 운행할 수 있게 해 달라며 항소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열린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행사에서 “<span class='quot3'>월성 1호기도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span>”고 밝혔었다. <br/> <br/>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05.txt

제목: 서울아산병원, 파킨슨병 진단 신약(FP-CIT) 해외에 기술 수출  
날짜: 20170703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03114444001  
ID: 01100201.201707031144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사진] 서울아산병원 핵의학과 오승준 교수와 호주 싸이클로텍사 데이비드 크레누스(David Krenus) 대표, 서울아산병원 핵의학과 김재승 교수, ㈜듀켐바이오 김종우 대표, 독일 BGM 프레드리히 가우제(Friedrich W Gause) 대표가 수출입계약서에 사인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br/>서울아산병원은 핵의학과 김재승 오승준 교수팀과 이상주 박사 연구팀이 지난 2008년 독자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약 허가를 획득한 방사성의약품 ‘FP-CIT'를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쾌거를 올렸다고 3일 밝혔다. <br/> <br/>FP-CIT란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을 할 때 주입하는 약물로 사람의 뇌 속 도파민 운반체의 분포와 밀도를 측정해 파킨슨병을 진단해내는 방사성의약품을 말한다. <br/> <br/>FP-CIT는 지금까지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하여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약 4만 명의 파킨슨병 환자들의 진료에 사용돼 왔다. <br/> <br/>김재승 오승준 교수팀은 그동안 ㈜듀켐바이오를 통해 이 의약품을 상용화해 독일BGM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시장도 개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br/> <br/>호주의 싸이클로텍사와의 수출입계약은 그 첫 결실이다. 듀켐바이오는 이 회사에 약 100억원 상당의 파킨슨병 치료제를 공급하기로 했다.  <br/> <br/>호주 싸이클로텍사는 이 약을 호주와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지역 병원에 파킨슨병 치료제로 시판할 예정이다. <br/> <br/>파킨슨병 환자들은 뇌의 신경물질인 도파민이 정상인보다 훨씬 적게 만들어지는데, 김재승 교수팀이 개발한 FP-CIT는 도파민과 결합력이 강해 PET검사를 통해 파킨슨병을 감별하는데 효과적인 신약으로 그동안 우수한 임상 결과들이 세계 유수 학술지인 ‘자마뉴롤로지’ 등에 발표되어 왔다. <br/> <br/>또한 국내 의료기관에 의해서 개발된 첫 번째 방사성의약품 신약이라는 점에서 국내외 핵의학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으며, 신약 허가 이후에도 기존 기술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 특허를 독자적으로 취득해왔다. <br/> <br/>특히 해외에서 개발되어 국내에 도입된 신약들과는 달리, 신약 판매 초기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 환자들에게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r/> <br/>김재승 교수팀은 FP-CIT의 독자기술 특허 및 임상연구와 품목허가 자료에 대하여 해외 라이센스 수출을 추진하고자, 지난 2016년 ㈜듀켐바이오/BGM(독일, 컨설팅사) 컨소시엄과 해외 수출 위임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br/> <br/>계약 체결 후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협상 결과, 첫 번째 수출 계약(Exclusive Contract)이 호주,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FP-CIT의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할 ‘싸이클로텍사(Cyclotek, 호주)’사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현재 미국, EU 등 총 10개국과 최종 계약 조율을 진행 중으로, 연내에 대규모 추가 계약 또한 기대하고 있다. <br/> <br/>파킨슨병 진단 시장 규모는 미국, 유럽 등에서 약 2천 억 원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국적 기업들의 분석에 따르면 지속적인 환자 증가와 신약의 우수한 임상 효과를 고려할 때, 향후 큰 규모의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 <br/>또한 국내와는 달리,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는 높은 가격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여, 그 동안 국내 환자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제공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환자 유치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r/> <br/>김재승 교수는 “<span class='quot0'>FP-CIT는 최근 수년간 급격히 증가해온 대표적인 노인성, 난치성 질환인 파킨슨병을 정확히 진단하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용 방사성의약품으로 뇌의 선조체내 도파민신경을 영상화하여, 파킨슨병 및 파킨슨병과 관련된 질환의 감별진단에 활용되고 있다</span>”면서 <br/> <br/>“<span class='quot1'>이번 FP-CIT의 해외수출은 병원이 중심이 되어 신약을 개발하고 허가를 위한 연구개발은 물론, 허가 이후에도 임상적 적응증 확대와 신약의 우수성을 밝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온 결과를 해외에서 인정받은 좋은 선례</span>”라고 설명했다. <br/> <br/>김재승 오승준 교수팀은 현재 치매, 암, 혈관질환 등 기존의 진단 기술로는 진단이 어려운 질병의 조기 진단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의약품을 새로 개발 중이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06.txt

제목: ‘메디컬푸어’… 우리가 보듬어야 할 이웃입니다  
날짜: 20170703  
기자: 조민규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03173655001  
ID: 01100201.201707031736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실과 쿠키뉴스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채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메디컬푸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중증환자의 보장성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달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는 살기위해 메디컬푸어가 됐다’를 주제로 H콘서트를 개최했다. <br/> <br/>◇참석=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이대호 교수, 한국백혈병환우회 이은영 사무처장,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변루나 서기관 <br/> <br/>◇진행=김범수·원미연 아나운서 <br/> <br/>◇연출=홍현기 쿠키건강TV <br/> <br/>◇작가=송현경 <br/> <br/>◇방송=2017년 7월6일 목요일 19시30분 <br/> <br/>“완치 기회가 있습니다. 신약을 쓰면 치료 가능성이 높지만, 약값이 비싸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이대호 교수는 지난달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나는 살기위해 메디컬푸어가 됐다’를 주제로 열린 제 2회 쿠키뉴스 H(Happy·Healthy) 콘서트에서 “환자들의 메디컬푸어 전락을 막을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교수는 ‘항암치료제 발달과 메디컬푸어’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항암제의 효능은 과거에 비해 향상됐고, 여러 치료법과 더불어 치료의 효과를 누리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높은 효능만큼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치솟아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br/> <br/> 그는 “10년 전만 해도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는데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완치가 어려운 4기 환자도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약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문제는 최근에 개발된 약이다보니 가격이 만만치 않아 환자와 가족들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한다. ‘완치 기회가 있습니다. 약값이 비쌉니다. 해보겠습니까’라고. 사실은 외래에서 의사로서 이렇게 이야기할 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회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는데 사회도 감당하기 힘들다. 앞으로는 더 그럴 것이다”라고 말했다. <br/> <br/> 또한 의료기술 발전 현황에 대해 소개하며 “의료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보다 새로운, 보다 효과적이, 그렇지만 비싸다. 2016년 나온 약들은 급여가 거의 되지 않았다. 가격을 보면 앞의 약은 월 500만원 정도였는데 2015년 이후 나온 약들은 월 1000만원이 넘는다. 1년 약값이 1억원이 넘는 것이다”라며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소득순위를 보면 연봉 1억원 이상 40만명 정도 된다. 1억원 이하는 1000만명이다. 연봉 1억원인 사람은 급여를 모두 약값으로 급여를 다 써야한다. 2017년 란셋이라는 저널에 실린 내용인데 전 세계에서 오래 사는 나라 1등 대한민국이다. 평균수명 90세라고 한다. 반대로 말하면 암환자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60세 넘어가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의료비는 자녀들이 감당한다. 그렇지만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다. 메디컬푸어, 가정적 파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담스러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br/> <br/> 이 교수는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까. 일본의 경우 신약 하나를 허가해줬다가 난리가 났다. 약 하나에 1조2000억원의 보험재정이 투입된 것이다. 많은 환자가 혜택을 봤을 것이고, 생존도 늘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감당하기는 힘든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항암제 부담비용이 1조원이 안된다”며 “환자, 의료진, 건강보험, 시민단체 등이 논의해야한다. 건강보험료를 얼마쯤 더 낼 수 있을까. 내는 건강보험료를 암환자, 4대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얼마나 부담할 수 있을까를 공론의 장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좀더 의료기술이 발전해 (질환의) 완치가 더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br/> <br/> 이날 H코서트에서 이대호 교수는 “<span class='quot0'>우리에게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준비해야 한다</span>”며 ▶약가 제도 효율성 제고 ▶항암제 급여결정과정 개선 ▶암환자 비급여 항암제 본인부담률 탄력 적용 ▶암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재정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방안 ▶암환자 메디컬푸어 전락을 막을 재정지원 방안 ▶‘환자중심’ 암보장성 향상을 위한 상설 공론의 장 마련 등을 제안했다. <br/> <br/> 강연 후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대표로 나온 출연진과의 토크가 이어졌다. 출연진들은 메디컬푸어와 관련해 각각의 입장에서 현 상황과 대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룰 나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변루나 서기관은 “<span class='quot1'>재난적 의료비의 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4년 비급여 등으로 인해 약 10만가구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 이어 변 서기관은 “암환자 또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통상 5∼10%로 일반질환에 비해 낮다. 비급여 해소를 위해 670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한바 있다. 또 갑작스런 질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본인부담상화제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을 받는 공통점이 있는데 소득수준에 따라 7개 구간으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소득 낮은 1군은 1년에 122만원을 부담한다. 514만원까지만 본인부담을 내면 되는 상황이다.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변루나 서기관은 “재난적의료비는 의료급여나 차상위 가구의 경우 의료비가 100만원 이상 발생하면 신청할 수 있고, 중소 80%이하 가구는 200만원 의료비가 발생하면 신청이 가능한 제도다. 여기에서 비급여나 선택급여는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br/> <br/> 신약 허가에서 급여까지의 시간차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변 서기관은 “<span class='quot1'>우선 고가 항암신약 같은 경우 위험분담제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신청하고 등재되기까지 오래 걸린다는 지적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제약사 요구하는 실질적인 약가와 경제성평가를 통해 이뤄지는 조정,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조정하는 기간, 타당성 근거자료 찾는 등에 시간이 걸린다</span>”고 말했다. <br/> <br/>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은 “10여년 전 백혈병투병을 한 계기로 환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암환자는 장기간 치료를 하기 때문에 치료비가 많이 든다. 여기에 고가의 신약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 경우 당시 민간보험이 없어 내가 치료비를 부담해 집을 팔지는 않았지만 줄였다. 지금 많은 메디컬푸어가 일단은 카드 빚내고, 집을 팔고, 전세 전환하는 등 이렇게 계층이 하락하는 경우가 암환자 등 중증환자에서 많이 본다”고 환자들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이 사무처장은 “정부의 보장률을 환자가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체감률이 다른 것은 현장에서의 빠르게 나오는 신약이나 비급여 신의료기술에 있어 건강보험제도가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료는 재정에 한계가 있고 분배 형평성이 있어 정부가 고민이 있는 것 같다. 보장성은 확대됐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실은 어쩔 수 없이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r/> <br/> 또한 이 사무처장은 “최근의 신약은 효과는 많이 올라가고 부작용은 줄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전처럼 중환자실이나 병실에서 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며 사회에도 기여하면서 생을 마감한다. 그래서 환자들은 고가이지만 신약을 찾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치료약이 있고, 치료방법도 있는데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이 여전히 있다. 환우회에 가족이나 환자들이 치료방법이나 완치율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그보다 치료비가 얼마인지 더 많이 질문한다. 치료비가 비싸 약을 본인이 임의대로 줄이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화이다. 암·희귀질환 본인부담 5∼10%이기 때문에 급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r/> <br/> 강의를 진행했던 이대호 교수는 “의사로서 치료하고 예후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3분의1만 그런 이야기, 3분의1은 비용이야기, 마지막은 ‘가족과 상의해 결정해 오세요’라고 말한다. 그런 환자를 진료현장에서 매일 본다. 메디컬푸어 걱정하는 환자 70만명, 100만명 될 것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더 늘 것으로 생각된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r/> <br/>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span class='quot2'>의료비로 고통받는 가계 국가가 책임져야</span>” <br/> <br/>“<span class='quot3'>의료비로 고통 받는 분들이 충분히 배려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spa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나는 살기위해 메디컬푸어가 됐다’를 주제로 열린 제 2회 쿠키뉴스 H(Happy·Healthy) 콘서트에서 이같이 말했다. <br/> <br/> 기동민 의원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게 정치이다. 나는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이고, 정치에서 건강과 복지는 큰 영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 또 국회에 들어오기 이전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시절 보건복지부에서 정책보좌관으로 일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보건의료와 복지분야에 대해 관심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H콘서트 주제가 ‘메디컬푸어’이다. 마음이 무겁다. 국가가 다 책임져야 하는 부분인데 재정 등 여러 문제로 다 책임지지 못하고, 개인과 가족에 고통을 전가시키는 부분도 있어 그런 면에서 마음이 무겁다”라고 안타까워했다. <br/> <br/> 기 의원은 “내 경우도 어머니가 10여년 전에 다발성 암이 발견돼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고, 장인어른도 폐암으로 투병을 하셨다. 당시 스트레스가 무섭다고 느꼈는데 어머니가 당시 걱정이 많으시니까 암이 생기신 것 같다. 다행히 어머니나 장인어른 모두 좋아지셔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신다”며 “(메디컬푸어) 문제도 암을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되지 못해 계속 메디컬푸어로 살 수밖에 없는 분들은 계속 고통 속에 살고계실 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마음이 무거운 것은 사회적 합의와 공론의 장이 필요한데 현업에 있는 분들, 환자의 입장, 재정 운용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각각 강조점이 다르다. 지금 건강보험 누적분이 20조가 넘는다. 많이 쌓여 있는데 환자입장에서 전부 보장성 강화에 쓰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고령화는 지속될 것이고,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저출산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올해부터 진행되는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으로 연 3조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돈 쓸데가 많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br/> <br/> 이와 함께 기동민 의원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 입장, 고통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분의 처지를 존중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사회적 합의의 과정도 중요하다”며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어 그러한 난제들을 잘 풀어내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일 것이다.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고통 받는 충분히 배려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말씀 경청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법과 제도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 찾고,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r/> <br/>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3-407.txt

제목: [안기종의 환자 샤우팅] 항암신약의 생존연장 효과가 2.1개월이라니…  
날짜: 201707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03170955001  
ID: 01100201.201707031709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나는 최근 ‘고가 항암 신약의 재정독성 해결방안’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했다가 충격적인 발표를 들었다. “<span class='quot0'>2002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FDA가 승인한 48개 항암 신약의 생존기간 연장 효과를 조사해 봤더니 기존 항암제에 비해 평균 2.1개월에 불과했다</span>”는 내용이다. <br/> <br/> 2001년 세계 최초 표적치료제 백혈병 신약 글리벡 시판 이후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은 폐암 신약 이레사, 유방암 신약 허셉틴 등 표적항암제가 줄줄이 출시됐다. 최근에는 전체가 아닌 일부 암환자이기는 하지만 효과와 부작용에 있어 표적항암제에 비해 훨씬 개선된 면역항암제도 등장했다. 그런데도 항암 신약이 기존 항암제에 비해 평균 2.1개월 밖에 생존기간을 연장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나는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 <br/> <br/> 나의 아내는 16년 전인 2001년부터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투병중이다. 과거에는 조혈모세포(골수)이식을 받지 않으면 5년 이내 대부분 사망하는 무서운 질환이었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지금 만성골수성백혈병의 10년 생존율은 90%가 넘는다. 지난 6월26일에는 1세대 글리벡과 2세대 스프라이셀, 타시그나, 슈펙트로도 치료가 되지 않았던 T315I 염색체 내성마저 치료하는 3세대 아이클루시그도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이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표적항암제만 꼬박꼬박 잘 복용하면서 건강관리까지 잘 하면 평생 자기 수명만큼 살 수 있게 됐다. 백혈병 치료제 이외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골수이형성증후군 치료제, 림프암 치료제 등으로 치료 받고 1년 이상 또는 5년 이상 장기생존하고 있는 혈액암 환자들은 상당수 존재한다. 표적항암제 치료로 삶의 질이 대폭 개선되어 직장생활, 결혼생활 등을 하면서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혈액암 환자들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 신약의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2.1개월 밖에 안 된다는 팩트(fact)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br/> <br/> 만일 이것이 진실이라면 암치료 의사들이나 항암제 관련 기사를 쓴 기자들은 암환자들과 국민들에게 암치료 효과에 대해 그동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왔고, 정부도 잘못된 암치료 정보로 잘못된 약가제도를 설계해 암환자들과 국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준 꼴이 되기 때문이다. <br/> <br/> 항암 신약의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정말 2.1개월 밖에 안 된다고 가정하고, 한번 해법을 찾아보자. 첫째 글리벡·허셉틴 등과 같이 대체제가 없으면서 생명과 직결된 탁월한 효과의 극소수 항암 신약에 대해서는 식약처 허가 직후 곧바로 건강보험 급여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약 긴급 건강보험 등재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생존기간을 평균 2.1개월 밖에 연장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항암 신약 개발 제약사가 정부에 고가의 약값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해당 암환자들도 약값을 인하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인 경제성 평가(약값이 효과 대비 비용이 적합한지 평가)를 무시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br/> <br/> 둘째 대다수의 항암 신약이 평균 2.1개월 생존기간 연장 효과 밖에 없다면 의료진은 말기암 환자에게 항암 신약 치료를 권유하기보다는 진료시간을 대폭 늘려 양질의 상담을 전제로 항앙 신약 치료를 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늘어난 진료시간과 양질의 상담에 대해서는 의료수가를 통해 충분히 보상하는 제도개선도 해야 한다. <br/> <br/> 최근 의사가 사전에 치료방법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는 기존 방식(Informed consent)을 넘어 환자와 의사가 함께 최적의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방식(Sharing Decision Making: SDM)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의사가 말기 암환자에게 항암치료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 치료 가능한 여러 항암제의 장단점 등에 관한 정보를 환자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환자의 의견, 가치, 선호도,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자와 함께 항암치료를 할지 여부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항암제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br/> <br/>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언론사: 국민일보-3-408.txt

제목: [쿡기자의 건강톡톡] 흡인성 폐렴… 노년기 대표적 사망원인, 최대한 발생 억제 해야  
날짜: 20170703  
기자: 전미옥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03170855001  
ID: 01100201.201707031708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유난히 기운이 없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노년 환자라면 폐렴을 의심해보는 것이 좋겠다. 폐렴은 감기와 증상을 쉽게 구별하기 어렵고, 일부 환자들에게서는 의심증상이 아예 나타나지 않아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 폐렴은 말 그대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으로 인해 폐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기침, 가래, 고열 등 증상을 유발한다. 심하면 호흡부전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질환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국내 10대 사망원인 중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이어 폐렴이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폐렴은 주로 면역력이 약한 영ㆍ유아와 노인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특히 면역력이 아주 취약한 경우에는 증상 없이 나타나기도 한다. 장승훈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염증반응은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과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면역력이 아주 낮은 상태에서는 세균을 몰아낼 힘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환자가 비실비실하거나 기운 없이 축 늘어져 있다면 폐렴을 의심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 세균성 폐렴의 경우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다. 2세 이하 소아와 60대 이상과 만성 심부전, 만성 심질환, 당뇨, 뇌졸중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접종이 권고 된다. 김신우 경북대병원 감염내과교수는 “아직까지 백신이 폐렴구균의 100%를 막아주지는 못한다. 최근에 나온 13가 단백질 결합백신이 효과가 좋은 편이지만 가격이 비싼 편이다. 65세 이상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시행되는 23가 다당백신의 경우 시간에 따라 예방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재접종하도록 권한다”고 말했다. <br/> <br/> 뇌졸중, 치매, 마비 등 누워서 생활하는 환자 또는 노환으로 인해 연하장애가 있는 이들은 ‘흡인성 폐렴’을 주의해야 한다. 흡인성 폐렴은 음식물이나 침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잘못 넘어가 발생한다. 위액 속의 염산, 구강 내 세균 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백신으로는 예방이 어렵고 사망위험도 높다. 전문가들은 맑은 정신과 기침 반사 가능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흡인성 폐렴은 노년기 환자들의 대표적 사망원인”이라며 “흡인성 폐렴이 여러 번 발생한다면 그만큼 사망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노화를 막는 약은 없는 만큼 현재 상태에서 내에서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br/> <br/> 장 교수는 “흡인성 폐렴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화학성 폐렴”이라면서 “위액 속 염산 등이 기도로 흘러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위속 내용물이 세균덩어리는 아니지만 토하면서 입 안의 세균과 섞여 들어가거나 기존의 세균성 폐렴이 있는 경우에서 심화되는 등 대부분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를 눕힌 상태에서는 음식물이 역류되기 쉬우므로 반드시 환자를 앉힌 상태에서 음식을 먹이고, 식후에는 2∼3시간 정도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폐렴 예방의 첫 번째는 청결이다. 손을 자주 씻고, 이를 깨끗하게 닦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r/> <br/>전미옥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409.txt

제목: [전문] '한·미 공동성명' 발표…대북공조·경제협력 등 6개 분야 채택  
날짜: 20170701  
기자: 박효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01102244001  
ID: 01100201.20170701102244001  
카테고리: 정치>외교  
본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공식 결과문서인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br/> <br/>공동성명은 모두 6개 분야로 구성됐다. 한미 동맹이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라는 내용과 동맹 발전의 합의, 안보·국방·경제 등 실질협력 방안 모색, 확장 억제 고위급 전략협의체 정례화, 전작권 전환 조속 달성 위해 한미 협력 등이다. <br/> <br/>다음은 한·미 공동성명 전문이다. <br/> <br/>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고, 양국 간 우의를 심화시키기 위해 6월 29일에서 30일간 백악관에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하였다. 한·미 동맹은 그 태동부터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으로 역할해 왔으며, 이는 점차 전세계로 확대되어 왔다.  <br/> <br/>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한국전쟁 발발 67주년이 되는 지금도 철통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공약을 확고히 하였다.  <br/> <br/>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한·미 양국 간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br/> <br/>▶한·미 동맹 강화 <br/> <br/>양국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안보 증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임무를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래식과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게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br/> <br/>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 등 정례 협의 채널은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민국은 상호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하여,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다. <br/> <br/>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증대되고 있는 평화·안보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동맹 현안 관련 공조 강화를 위해 외교·국방 당국으로 하여금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br/> <br/>▶북한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지속 <br/> <br/>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과 언사를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공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br/> <br/>양 정상은 북한의 핵 실험과 전례없이 많은 빈도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며,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br/> <br/>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해나가기 위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북한을 외교적·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br/> <br/>양 정상은 중국이 이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퇴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br/> <br/>양 정상은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미 양국이 공히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br/> <br/>양 정상은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통해, 비핵화 대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포함한, 양국 공동의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 <br/> <br/>양 정상은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끔찍한 인권 침해와 유린 행위를 포함, 북한 주민들의 안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책임 규명 및 북한의 개탄할만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br/> <br/>양 정상은 역내 관계들을 발전시키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3국 안보 및 방위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억지력과 방위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기존의 양자 및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br/> <br/>양 정상은 또한 암연구, 에너지 안보, 여성 역량 강화, 사이버 안보와 같은 범세계적 도전에 대응하는데 있어 한·미·일 3국 관계를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오는 7월 G20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될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함께 3국 협력을 보다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br/> <br/>▶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한 무역 발전 <br/> <br/>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또한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공약하였다. <br/> <br/>양측은 한국과 미국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협력대화」 절차의 일부로서 양국 간 투자를 증진하고, 기업인들을 지원하며, 양국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br/> <br/>▶여타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양자 협력 증진 <br/> <br/>양측은 또한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여타 경제적 이슈에서의 협력을 증진 및 확대하고, 민관합동 포럼을 통해 경제적 기회 증진을 모색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공약하였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있어 과학, 기술과 혁신의 역할을 감안하여 우리는 사이버안보, 정보통신기술과 민간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양측은 여성의 경제적 권한신장을 증진하기 위한 양자 파트너십을 출범하기로 약속하였다. <br/> <br/>▶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공조 <br/> <br/>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범세계적 사안에 관한 한·미 양국 간 협력이 우리의 동맹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며 동맹의 외연을 넓혀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글로벌 보건안보 협력과 관련하여, 양 정상은 협력 대상 국가들이 감염병의 위협을 예방, 감지하고 대응하는데 있어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ISIS가 초래한 이라크 및 시리아에서의 참혹한 고통과 폭력을 규탄하고, 반(反)ISIS 국제연대에서의 강력한 한·미간 파트너십을 재확인하였다. <br/> <br/>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이라크에 대한 1000만불 지원 약속을 포함하여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증대해 나가겠다는 대한민국의 공약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재건하기 위해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프간 국민과 정부에 대한 지원 노력을 함께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br/> <br/>▶동맹의 미래 <br/> <br/>양 정상은 양국 간의 강력하고 역동적인 유대가 한미 동맹의 토대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경제·무역, 재생·원자력 에너지, 과학·기술, 우주, 환경, 보건, 방산 기술 분야에서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br/> <br/>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규범에 기초한 질서를 지지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공조해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의 강력함이야말로 결국 자유,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의 힘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점을 확인하고, 170만명 이상의 한국계 미국인, 매년 대한민국을 방문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수십만의 미국인들, 그리고 문화 및 학생·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성된 양국 국민들 간의 긴밀한 관계 등 인적 유대가 양국의 미래를 상호 연결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br/> <br/>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함으로써 공동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강력한 역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양국 경제 관계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진전시키는데 이르기까지, 한·미 동맹이야말로 동맹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간 우정과 파트너십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계속 강해지고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br/> <br/>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연내 방한을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기쁘게 수락하였다. 양 정상은 향후 국제 다자회의 등 여러 계기에도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br/> <br/>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10.txt

제목: EMW, 미세먼지 대처법… 백금공기청정살균기 ‘클라로(CLARO)’ 동참  
날짜: 201706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29090044001  
ID: 01100201.20170629090044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밀폐된 공간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비롯하여 전기·전자제품을 사용할 때 생기는 화학오염물질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쌓여 실외보다 실내에서 심각한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고 한다. <br/> <br/>아울러 육류 등을 튀기거나 기름을 사용한 조리에서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1460μg/㎥ 나왔고, 삶는 조리 방식에서도 초미세먼지가 119μg/㎥ 나왔다. 또 건강에 치명적인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등도 요리할 때 함께 검출됐다. 실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연기, 먼지 등의 물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요리가 직업인 주방장들의 폐암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br/> <br/>따라서 실내공기오염의 주요 원인물질로는 주방에서 굽는 요리 후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가장 주된 오염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음식 조리 후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거나 환풍기를 통해 오염 공기를 밖으로 배출할 것을 권하고 있다. <br/> <br/>‘2017 대한민국 고객만족브랜드대상’ 에서 대상을 수상한 백금 공기청정살균기 클라로(CLARO)는 백금 열 촉매 방식을 도입해 공기 중의 세균, 미세먼지, 바이러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과 같은 화학물질을 제거하고, 새집증후군 물질, 스모그 원인물질, 생활오염냄새까지 잡아주는 기능의 필터를 탑재하여 신선한 공기로 재 배출하는 제품이다. <br/> <br/>또한 주로 산업용으로만 쓰이던 백금열촉매방식이 가정용으로도 등장했는데 클라로는 농도와 온도 차이로 인한 자연 대류로 실내공기를 순환시켜 빨아들인 후, 다시 정화해 배출하는 방식으로. 백금에 열을 250도까지 가하면 살균과 탈취 반응이 일어나는 열촉매 원리가 활용된 것이 특징이다. <br/> <br/>제품의 기능으로는 전원, 취침, 예약의 간편한 기능 및 음성안내 기능을 탑재한 편리성, 실내 오염의 강도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LED로 표시해주는 스마트함, 강력한 살균 효과 등에 높은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어떤 인테리어에도 어울리는 심플, 모던한 디자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 <br/> <br/>최근에는 생활의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는 ‘SBS생활경제’에 해당 백금 공기청정살균기 클라로가 방송에 소개되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있다. <br/> <br/>EMW관계자는 “<span class='quot0'>요즘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으로 상쾌한 실내공기를 선사하고 싶다</span>” 며 “<span class='quot0'>유해물질은 물론 초미세먼지까지 잡는 백금 공기청정살균기 클라로를 통해 쾌적한 공기를 만끽하길 바란다</span>”고 전했다.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11.txt

제목: 부산대병원, 29~1일 벡스코 시민건강박람회 체험형 부스 운영  
날짜: 20170628  
기자: 부산=윤봉학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28095444002  
ID: 01100201.20170628095444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부산대병원(병원장 이창훈)은 29일부터 7월 1일까지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부산시 주최 ‘메디부산 2017! 시민건강박람회’에 참가해 시민 체험형 부스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br/> <br/>박람회는 제12회 복지·재활·시니어전시회(KORECA)와 제5회 부산국제항노화엑스포와 함께 ‘행복한 시민, 건강한 부산 대제전’이라는 큰 전제 아래 공동 개최된다. <br/> <br/>부산대병원은 이번 전시회에 양산부산대병원 , 부산대한방병원, 융합의학기술원, 의생명연구원, 부산지역암센터, 부산금연지원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감염관리실, 영양팀, 해바라기센터 등 역대 최다 부서가 참여해 부스를 방문하는 시민을 위한 각종 검사와 건강상담 및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br/> <br/>부산대병원 부스에서는 혈당·혈압 측정, 손위생 측정, 기념품 증정, 부산금연지원센터에서는 폐기능 검사, CO(일산화탄소) 측정, 금연·의학 상담, 에어볼 추첨, 부산대한방병원 부스에서는 한방차(십전대보차) 배부, 수양명경락기능검사(스트레스·혈관상태), 한방 건강상담, 한약재 및 침 안내, 부산지역암센터 부스에서는 암 예방식 전시 및 영양상담, 시식회, 암관련OX퀴즈, 유방자가검진 실습, 암예방실천수칙게임 등 풍성한 체험거리와 볼거리 제공할 계획이다. <br/> <br/>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정밀의료 선도병원으로서 진료정보교류 시스템과 해양의료연구센터 원격세트 전시 및 인공지능 ‘왓슨 포 온콜로지’시스템을 이용해 환자 치료 시연을 할 예정이다. <br/> <br/>또한 매년 참가중인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지역암센터(센터장 조홍재)는 암 예방 컬러푸드 전시 및 암예방 시식회와 영양상담, 유방암자가검진 실습 등을 체험할 수 있다. <br/> <br/>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12.txt

제목: 암 투병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절절한 편지  
날짜: 20170628  
기자: 정지용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28024444001  
ID: 01100201.20170628024444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외롭고 쓸쓸하다. 태연한 모습 보이려고 했는데 힘들구나.” <br/> <br/> <br/>위암 수술을 앞둔 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온라인에서 심금을 울리고 있다. 예기치 못한 암 판정을 받은 아버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심경을 전했고, 편지를 받아 든 아들은 아버지의 완치를 돕겠다고 다짐했다. <br/> <br/>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버지가 편지를 남기시고 여행을 가셨네요”라는 제목으로 사진과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20대라고 밝힌 아들은 “책상에 편지 두장 남겨 두셨네요”라며 당황스러워 했다. <br/> <br/>아들은 아버지의 암투병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했다. 글쓴이의 부친은 여느 아버지처럼 암 판정을 받고는 가족들에게 내색하지 않았다고 한다. 편지를 본 아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서 혼자 2주간 고민했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br/> <br/>“몇자 적어 본다”로 시작하는 아버지의 편지는 담담하면서도 꾸밈없었다. <br/> <br/>부모님을 떠나보낸 이후 가장 가슴 아픈 시기라는 아버지는 “위암 판정을 받고 처음 며칠 두려움과 공포에 무척 힘들었다”며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어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동안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이제 수술만 남겨놓고 있다. 며칠간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남들이나 식구들한테 태연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힘들다”며 “마음 가다듬고 수술하련다”고 했다. <br/> <br/> <br/> <br/> <br/>아버지는 지난 26일 저녁 이 편지를 아들 책상 위에 남겼다. 아들은 편지를 공개하며 "글을 읽고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동안 부모에게 잘못한 일만 자꾸 생각났다며 자책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편지를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조심히 잘 다녀오시라고 연락했다"면서 "아버지 완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br/> <br/>담담하게 써내려간 아버지의 편지는 네티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쾌유를 기원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자신의 아버지가 10년 전 위암 수술을 받았다는 한 네티즌은 “우리들의 아버지는 강하십니다. 항상 웃으며 마주해 달라”고 조언했다. 부모의 투병 사실을 알리는 댓글도 줄을 이었다. 이들은 수술을 앞둔 아버지를 위해 가족사랑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br/> <br/>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13.txt

제목: ‘교회의 심장이 다시 뛴다’ 책 낸 삼척 큰빛교회 김성태 목사 “양육의 새 패러다임 제시합니다”  
날짜: 201706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28211755001  
ID: 01100201.20170628211755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제 저서 ‘교회의 심장이 다시 뛴다’(물맷돌)가 호응을 얻는 이유는 전도의 중요성만 강조한 게 아니라 양육의 중요성과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전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바로 바로 양육입니다.” <br/> <br/> 삼척 큰빛교회 김성태 목사는 6년 전 단 2명의 성도를 1500명으로 부흥시킨 목회자다. 그가 자신의 목회경험과 전도, 양육이야기를 담아 펴낸 이 책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왜 헌신해야 하는지를 소상히 가르쳐 준다. <br/> <br/> “저를 내려놓고 성도에게 최선을 다할 때 성도 마음이 열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도 숫자 보다 내적변화에 집중하고 따뜻함과 사랑, 때론 질책으로 성도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br/> <br/> 삼척 큰빛교회 성도들은 김 목사가 ‘눈물 나도록 따사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목사, 매주 듣는 설교에서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목사’라고 말한다. <br/> <br/> 자신을 희생하고 성도 양육에 모든 걸 건 그의 목회는 성도를 충성스럽게 만들고 100% 순종하게 만드는 힘을 갖는다. 한 성도가 암에 걸려 쓰러졌을 때 김 목사는 그날 밤 100여명의 성도를 모아 밤새 철야 기도회를 열었다. 모든 사역을 열정과 감사함으로 매진하면 그 결과는 언제나 풍성한 은혜로 채워졌다. 큰빛교회는 이웃사랑과 선교, 나눔에도 앞장서고 있다. 매주 여성도들은 집밥이 그리운 타지 대학생들에게 따뜻한 식탁을 제공한다. <br/> <br/> 삼척 큰빛교회를 이룬 목회보고서격인 ‘교회의 심장이 뛴다’는 이 교회의 전도 이야기가 큰 테마이지만, 양육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그리고 재미있게 다뤘다. 생생한 경험 위주의 내용들로 채워졌다. 책은 빠른 시간에 교보문고와 갓피플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책을 읽은 목회자와 성도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한다. <br/> <br/> 한 독자는 “많은 신앙서적을 읽었지만 이렇게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책은 처음”이라며 “특별한 기술이 없이 자연스레 서술되는 전도와 양육 이야기는 그 과정과 진솔한 경험에서 색다른 메시지를 준다”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br/> <br/> 김 목사는 “<span class='quot0'>이 책이 영혼사랑과 전도, 양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나누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도 큰빛교회 목회를 통해 계속 열정적이고 참신한 목회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span>”고 했다. 전도대, 소그룹 리더, 휴가철 여행 필독서로 딱 알맞은 책이다. <br/> <br/><기획특집팀>

언론사: 국민일보-3-414.txt

제목: 복강경 탈장수술, 퇴원 이후 주의해야 할 사항은...  
날짜: 201706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26144544001  
ID: 01100201.201706261445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나이가 들면 근육이 약해지게 되는데 내장을 받쳐주는 근육인 복벽도 예외는 아니다. <br/> <br/>복벽이 느슨해지면 몸 안의 장기가 복벽을 밀고 나오면서 만들어진 주머니 모양의 탈장낭으로 장이 밀려들어가 피부가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탈장이 생긴다. <br/> <br/>탈장은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매년 약 6만 명의 환자가 탈장으로 병원을 찾고 있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10배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그렇다면 탈장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보건복지부 지정 외과전문병원 안산 한사랑병원을 통해 자세히 알아봤다. <br/> <br/>우선 탈장수술을 계획하고 있다면 수술 후 며칠은 쉰다는 생각으로 스케줄을 잡아야 한다. 모든 수술은 환자에게 상당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주기 때문에 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이다. <br/> <br/>또한 탈장수술 후에는 기침, 구토, 재채기 등이 날 때 복부에 너무 강한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때 베개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베개를 복부에 대고 있으면 통증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과하게 복부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줄 수 있다. <br/> <br/>탈장수술 후 첫 배변은 사람에 따라 1일에서 5일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역 증상이나 복통이 지속되지 않는 한 수술 후 바로 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br/> <br/>수술 부위는 3일 정도 통증이 이어질 수 있다. 멍이나 압통, 이상감각이 생길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호전된다. <br/> <br/>또한 탈장수술 후 식사를 걱정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탈장수술을 했다고 식사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주일 정도 식욕부진 증상이 나타난다는 이들도 있지만 이는 스트레스로 인한 반응일 가능성이 높다. <br/> <br/>안산 한사랑병원 의료진은 “<span class='quot0'>탈장수술 후 샤워는 2일 정도 지난 후부터 가능하다</span>”며 “<span class='quot0'>하지만 욕조를 이용한 목욕이나 수영장 이용 등은 탈장수술 후 2주 정도 지나서 하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다. <br/> <br/>한편 안산 한사랑병원은 총 8개 특성화센터(단일통로복강경, 유방. 갑상선, 담낭, 위. 대장. 항문, 치료내시경, 당일수술, 화상, 암센터)가 구성돼 있으며, 개원 6주년을 맞아 최근 기념식을 개최해 향후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15.txt

제목: “이혼 후 사실혼 관계 아내도 유족연금 자격”  
날짜: 20170626  
기자: 이가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26213555001  
ID: 01100201.20170626213555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전직 소방관의 아내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span class='quot0'>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span>”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br/> <br/> A씨는 2001년 2월 소방관이었던 B씨와 결혼한 뒤 2010년 11월 이혼했다. 그러나 A씨는 이혼 후에도 B씨와 함께 경기도 이천에 주소를 두는 등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다. <br/> <br/> 그러다 2014년 4월 B씨는 암 투병을 위해 양평군에 위치한 딸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했다. 휴양림이나 공원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2016년 6월 B씨는 사망했고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다. <br/> <br/>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span class='quot1'>B씨 사망 당시 A씨는 부양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span>”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br/> <br/>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니고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곳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했다면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br/> <br/>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사실혼 관계를 지속해 왔다는 딸과 지인의 확인서, 사망 5개월 전 함께 찍은 사진, A씨가 미망인으로 기재된 장례식 기록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br/> <br/>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16.txt

제목: “충치균, 살아서 심장까지 간다”, 구강청결제의 중요성  
날짜: 201706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24110844001  
ID: 01100201.20170624110844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평소엔 그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치아는 우리 몸의 건강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존재다. 충치가 생기거나 치아를 잃게 되면 당장 생존의 가장 기본인 식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해 점점 건강이 악화된다. 심지어 치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충치가 생길 경우, 충치균이 심장 질환은 물론 뇌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 <br/> <br/>그렇다면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익히 알려져 있듯 바른 칫솔질이1순위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칫솔질만으로는 입 속의 약25%만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양치질만으로 끝내면 칫솔이 닿지 않는75%의 공간에는 수백만 마리 세균이 방치되어 충치와 치주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br/> <br/>칫솔과 치실로 치아 구석구석에 낀 음식물과 치태를 열심히 제거하더라도 언제나 사각지대는 남기 마련. 때문에 구강청결제를 통해 입 속에 남아 있는 유해 세균들을 제거해줄 필요가 있다. 실제로 칫솔질과 치실, 구강청결제까지 병행해 6개월간 사용할 경우 칫솔질과 치실만 했을 때보다52%의 플라그가 추가로 감소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br/> <br/>뿐만 아니라, 구강청결제는 입속 세균의 성장을 억제시키고 세균 내독소를 중화해 새로운 세균이 기존의 균막에 부착되는 것을 방해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간혹 구강청결제의 맵고 자극적인 맛 때문에 물로만 가글한다는 이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기존 구강청결제의 맵고 쓴 맛을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제품도 다수 판매되고 있다. <br/> <br/>전 세계 판매1위를 기록하고 있는 구강청결제 리스테린은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는 순한 맛의 제품을 새롭게 선보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만 7세 이상 사용 가능한 ‘리스테린 제로’, 만 13세 이상 자녀를 위해 불소 성분을 함유한 ‘리스테린 그린티’, 충치와 치석, 잇몸케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리스테린 토탈케어 제로’ 등으로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순한 맛으로 치아를 보다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br/> <br/>구강 위생에 소홀할 경우 충치균을 비롯한 각종 세균이 혈관으로 흘러 들어가 심장질환은 물론 당뇨, 치매, 심지어 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신질환의 발생률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입 속 유해 세균들을 해결해주는 구강청결제 사용 습관을 통해 이러한 질환에 걸릴 위험을 낮추고 보다 오랫동안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려보는 것은 어떨까.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17.txt

제목: 코미디언 배영만 전도사 내달 21일 한양대병원서 간증  
날짜: 20170624  
기자: 유영대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24143244001  
ID: 01100201.20170624143244001  
카테고리: 문화>미술\_건축  
본문: 코미디언 배영만(사진) 전도사는 다음달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병원 3층 강당에서 간증한다.   <br/> <br/>간증 제목은 '두경부암 이렇게 이겨냈습니다'이다.   <br/>  <br/>다소 생소한 이름이지만 두경부암은 연간 4000여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흔한 암으로 전체 암 발생 장기 중 5~6위에 해당한다. <br/> <br/>코와 목, 구강, 혀, 침샘, 갑상샘에서 발생하는 두경부암은 발생 부위가 얼굴과 목이니만큼 치료에 있어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를 안고 있다.  <br/>  <br/>  <br/> <br/>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18.txt

제목: 박지성, 맨유 전설로 다시 뛴다… 자선경기 바르샤와 2차전  
날짜: 20170624  
기자: 신태철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24121044001  
ID: 01100201.20170624121044001  
카테고리: 스포츠>축구>한국프로축구  
본문: 은퇴 후 학업에 열중인 '축구 전설' 박지성(36·사진)이 다시 그라운드를 누빈다.  <br/> 박지성의 전 소속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4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2일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포드에서 열리는 바르셀로나와 '소아암 환자 돕기' 자선경기인 레전드 매치에 박지성이 출전한다 발표했다. <br/> 맨유에 따르면 레전드 매치는 모두 2차례 경기를 갖는데 다음달 1일 FC바르셀로나의 홈구장인 스페인 캄프누에서 1차전을, 9월2일엔  맨유의 홈경기장인 올드트래포드서 2차전을 치르는데 박지성은 모두 맨유 레전드 소속으로 1·2차전 모두 출전한다. <br/> 맨유는 박지성을 포함해, 베르바토프, 브라운, 사하, 실베스트르 등의 전설들이 출전하고 바르셀로나는 호나우지뉴와 히바우두, 패트릭 클루이베르트, 멘디에타 등 과거 슈퍼스타들이 함께한다. <br/> 박지성은 맨유 TV를 통해 "나는 레전드 매치를 즐긴다. 맨유 유니폼을 다시 입는 것과 어렸을 때 TV에서 보았던 레전드와 함께 그라운드를 뛰는 건 매우 설렌다"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두 클럽의 위대한 선수들과 함께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는 소감을 밝혔다. <br/> <br/>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19.txt

제목: 암 생존자의 코칭, 암 극복에 큰 힘 돼  
날짜: 20170623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23092244001  
ID: 01100201.20170623092244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암을 성공적으로 이겨낸 환자가 다른 환자의 암 극복을 조언하는 프로그램이 완성됐다. <br/> <br/>서울대학교병원 암통합케어센터는 윤영호( <br/>사진) 교수 연구팀이 국내 9개 상급종합병원 의료진과 함께 ‘건강리더십과 코칭’(LEACH) 프로그램을 개발, 임상현장에 시험 적용해본 결과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br/> <br/>윤영호 교수에 따르면 국내 암경험자는 130만 명에 이르는데, 상당수가 운동부족 등 잘못된 건강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과체중, 스트레스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투병 중 겪는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고 암 극복에 도움이 되는 몸 만들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br/> <br/>미국의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도 암 경험 및 생존자가 늘면서 암을 만성질환처럼 관리하는 새로운 치료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암환자 스스로가 본인의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자기경영’(Self-Management)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br/>윤영호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LEACH는 완치 판정을 받은 암환자(치료 후 5년 이상 생존)가 치료가 끝난 암경험자를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br/> <br/>연구팀은 ‘건강파트너’와 ‘건강마스터’를 각각 훈련시켰다. 건강파트너는 암완치자로 암경험자가 치료 후 스스로 암을 극복하도록 신체건강은 물론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에 코칭을 제공한다. 건강마스터는 이 건강파트너에게 의학적 자문을 하는 의료진과 코칭 전문가로 구성됐다. <br/> <br/>연구팀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암경험자 206명(치료 후 2년 이내)을 실험군(134명)과 대조군(72명)으로 나눠 LEACH의 유효성을 검증했다.  <br/> <br/>실험군과 대조군이 1:1이 아닌 이유는 본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더 많은 환자(실험군)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윤영호 교수는 “<span class='quot0'>실험군과 대조군이 1:1인 경우가 많으나, 이번 연구와 같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span>”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br/> <br/>실험군에는 건강교육자료와 리더십 강화 워크숍, 16회에 걸친 건강파트너의 전화코칭 등 LEACH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대조군에는 일반적인 암 치료 후 관리를 받게 했다. 대신 건강교육자료와 리더십 강화 워크숍은 제공했다. <br/> <br/>그 결과, LEACH 프로그램을 시행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3개월 후 불안, 사회적 기능, 식욕, 경제적 어려움 등의 개선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 12개월 후에는 피로, 건강습관 등이 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윤영호 교수는 “암 치료 직후는 동기부여가 강해 건강습관을 개선하기에 좋은 시기다. 이번 연구는 암환자가 다른 암환자의 건강경영을 코칭한 최초의 연구다”면서  <br/> <br/>“<span class='quot1'>이 연구가 암을 이겨낸 생존자와 암환자 간의 파트너십 형성에 기여하길 바란다</span>”고 말했다. <br/> <br/>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바이오메드센트럴 캔서(BioMedCentral Cancer)’ 최근호에 게재됐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20.txt

제목: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항암면역요법과 병행하면 간암 치료효과 배가  
날짜: 20170622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22162044001  
ID: 01100201.201706221620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하이푸’ 치료 광경> <br/>4년 전 우연히 간암을 조기 발견한 안모(55·제주시) 씨는 수도권 한 대학병원에서 간동맥색전술(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해 젖줄 역할을 하는 혈관을 방사성동위원소 등으로 막아 암세포를 굶겨죽이는 방법)을 6차례나 받았다. <br/> <br/>지난해 봄에는 항암제 주사도 두 번이나 맞았다.  <br/> <br/>그러나 지난해 말 폐에서 암이 새로 발견됐다. 그동안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간 셈이다. <br/> <br/>안씨는 결국 올들어 모든 항암치료를 포기하고, 한라산에서 자연요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숨이 차서 전화도 받기 힘든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br/> <br/>특별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던 안씨는 현재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고강도 초음파 집속치료기 ‘하이푸’로 암을 치료한다고 입소문이 난 서울하이케어의원(원장 김태희)을 찾아 항암치료를 재개했다. 이른바 하이푸 항암면역요법 병용요법이다. <br/> <br/>안씨가 치명적인 간암에 A씨의 간암 발병원인은 과도한 음주와 B형 간염바이러스였다. <br/> <br/>우리나라 발생 6위인 간암은 여러 요인에 의해 일어나지만 만성 B·C형 간염이 가장 큰 원인이다. <br/> <br/>대한간암학회가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암 환자의 72%는 B형 간염바이러스(HBV), 12%는 C형 간염바이러스(HCV)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9%가 알코올, 4%가 기타 원인과 연관이 있었다. <br/> <br/>따라서 40세 이상이면서 B형, C형 간염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간경변증으로 진단 받으면 6개월마다 복부 초음파검사와 혈청 검사를 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김태희 서울하이케어의원 원장은 당부했다. <br/> <br/>B형 간염 예방백신 접종도 필수적이다. 산술적으로 B형간염 예방백신만 맞아도 간암의 약 70%를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혈 등에 의한 전파를 막고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면 간암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다. <br/> <br/>간암의 주요 증상은 대부분 상복부 통증, 복부 팽만감, 체중 감소, 심한 피로감, 소화불량 등이다. 하지만 간은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이 붙을 증상이 늦게야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 검진이 필수다. <br/> <br/>간암을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 등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항암제나 다른 치료법이 잘 듣지 않는다. 또한 재발되는 사람도 많이 있다. <br/> <br/>이럴 때 이용해 볼 수 있는 것이 고강도 초음파집속치료기 ‘하이푸’다. 방사선을 쏘이듯 고강도 초음파를 모아 암세포를 때리는 방법으로 열에 약한 암세포를 괴사시키는의료 장비다. <br/> <br/>보건복지부도 이 치료법을 지난 2013년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했다. <br/> <br/>김태희 원장은 간동맥색전술, 면역항암요법 등과 하이푸 치료를 병용하면 항암효과가 배가된다고 설명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21.txt

제목: 수면중 무호흡증, 암 성장도 부추긴다  
날짜: 20170622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22152344001  
ID: 01100201.201706221523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민 10명 중 2명이 가지고 있는 수면 무호흡증. 일반인이 흔히 겪는 수면장애로 심혈관계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br/> <br/>이런 수면 무호흡증이 발암 뿐만 아니라 암 성장 속도에도 영향을 미쳐 진행을 부추긴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 <br/>서울대학교병원은 이비인후과 신현우( <br/>사진) 교수 연구팀이 실험쥐에게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해 간헐적으로 저산소 상태에 빠지도록 한 다음 종양 크기의 변화 속도 및 정도를 관찰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br/> <br/>실험은 피부암 세포를 쥐에게 이식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 진행됐다. 암세포 이식 전 실험군의 경우엔 미리 간헐적 저산소 상태에 노출시킨 암세포를 쥐에게 이식했다.  <br/> <br/>반면 암세포 이식 후 실험군은 경증 저산소군(저산소 노출: 시간당 10회)과 중증 저산소군(시간당 20회)으로 나누어 강도를 달리각각 실험을 진행했다. <br/> <br/>그 결과 암세포 이식 전 실험군은 대조군(정상산소)에 비해 19일 후 종양 무게가 1.5배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암세포 이식 후 실험군은 중증 저산소군도 경증 저산소군과 대조군에 비해 종양의 무게가 22일 후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측정됐다. <br/> <br/>신현우 교수는 “<span class='quot0'>수면무호흡증과 같은 간헐적 저산소 상태가 암세포 성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 확실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중등도 이상의 수면 무호흡증은 저산소 상태가 빈번히 나타나기 때문에 암의 성장을 부추길 위험성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span>”고 경고했다. <br/> <br/>연구 결과는 종양학 분야 국제 학술지 ‘온코타깃(Oncotarget)’ 최신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22.txt

제목: 수면 무호흡증, 암세포도 키운다  
날짜: 20170622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22115944001  
ID: 01100201.201706221159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잠 자면서 잠깐씩 숨을 쉬지 않는  수면무호흡증이 암 세포도 키운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신현우 교수팀은 수면 무호흡증상인 '간헐적 저산소'에 노출시킨 쥐의 암 종양 크기 변화를 관찰한 결과, 암 성장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22일 밝혔다. <br/> <br/>수면 무호흡증은 말 그대로 자는 중에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산소 공급이 부족하게 된다. 한동안 숨이 막혀 컥컥거리다가 한계점이 지나면 ‘푸’하고 숨을 몰아 쉬는 모습이 관찰된다.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횟수가 시간당 5번 이상이면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할 수 있다. <br/> <br/> 연구는 피부암 세포를 쥐에게 이식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 진행됐다. 암세포 이식 전 실험군에서는 미리 암세포를 간헐적 저산소에 노출시킨 후 이를 쥐에게 이식했다.  <br/> <br/>  암세포 이식후 실험군에서는 경증 저산소군(저산소 노출: 시간당 10회)과  중증 저산소군(시간당 20회)으로 나누어 강도를 달리 했다. <br/>  <br/> 그 결과 암세포 이식 전 실험군은 대조군(정상 산소)에 비해 19일간 종양 무게가 1.5배 더 증가했다. 암세포 이식 후 실험군은 중증 저산소군이 경증 저산소군과 대조군에 비해 22일간 종양 무게가 2.5배 증가했다. <br/>  <br/> 종양 조직의 유전자 발현을 확인한 결과, 저산소 적응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HIF-1알파' 단백질이 해당 하위 단백질과 함께 발현이 높아짐을 확인했다. <br/> 연구팀은 "세포가 저산소 환경에 빈번히 노출되면 HIF-1이라는 단백질을 증가시켜 저산소 환경에 적응한다. 암세포의 경우 이 과정에서 신생혈관이 늘어나고 산소와 영양 공급을 늘려 성장을 촉진한다"고 말했다. <br/>  <br/> 신 교수는 "<span class='quot0'>특히 중등도 이상의 수면 무호흡증은 저산소 상태가 빈번히 나타나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연구결과는 종양 분야 국제학술지 '암 표적' 최신호에 발표됐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23.txt

제목: 무릎인공관절수술, 필요한 만큼 부분치환으로 해결  
날짜: 201706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21163044001  
ID: 01100201.201706211630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5대암 질환만큼 중·장년층에 부담되는 질환이 관절암이라 불리는 ‘무릎관절염’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0만명 이상 환자가 무릎관절염으로 병원을 찾고 있는데, 문제는 치료부담으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연세건우병원 김성국 교수 연구팀의 말기관절염 환자 내연지연 원인에 대한 연구에서 53% 응답자가 비용부담을 토로했고, 인공관절 수명과 수술 후 운동기능 등에 대한 부담이 뒤를 이었다. <br/> <br/>무릎관절염 치료에서 인공관절은 대단한 성과로 여겨진다. 이전까지 관절염 앞에 인간은 한없이 초라한 존재였으나 손상된 관절을 대체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도입초기와 현재까지 많은 부담요인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br/> <br/>우선 상당량의 수혈 문제이다. 인공관절 전치환술의 경우 인공물 삽입을 위해 슬개골을 탈구시켜 뼈를 잘라내고 다듬어야 하는데 뼈는 혈관이나 피부와 달리 지혈이 어렵다. 특히 인공관절의 경우 뼈 제거 범위가 커 무려 1500㎖라는 출혈량으로 수혈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곧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br/> <br/>긴 입원기간도 부담요인으로 꼽힌다. 인공관절 전치환술의 경우 광범위 절개와 삽입물의 안정된 고정을 위해 평균 3~4주의 긴 입원기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 손상이 부분적이더라도 모든 관절을 인공구조물로 대체하기 때문에 온전한 관절임에도 보존이 불가능했고, 이는 관절기능의 완전한 상실을 의미했다. <br/> <br/>인공관절 도입 당시부터 위 문제점 해결을 위해 70년대 후반 부분치환술이 처음 시행되었으나, 당시에는 정확한 계측과 수술 시 시야제한에 따른 부정확한 삽입문제로 제외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문 컴퓨터 장비가 도입되며 부분치환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br/> <br/>부분치환술은 손상된 관절만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것으로 슬개골 탈구 없이 미세절개로 시행해 수혈부담이 없고, 평균 10일 정도의 짧은 입원기간으로 입원부담도 크게 경감되었다. 특히 환자의 관절을 보존할 수 있어 수술 후 정상에 가까운 관절기능 회복이 가능하다. <br/> <br/>연세건우병원 김성국 교수는 “고식적 부분치환술의 문제는 X선·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의료진의 육안과 경험에 의존했다. 인공관절을 정확하게 삽입하지 못해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인공관절 수술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br/> <br/>이어 “그러나 최근 인간의 한계를 전문 컴퓨터 장비를 통해 극복하면서 무릎관절의 위치나 뼈의 두께, 인공관절의 각도 등을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정확히 맞출 수 있고, 어떤 각도로 어떻게 뼈를 자를지나 적합한 절개 각도와 범위, 수술 도구 삽입 구간 등을 알려주기 때문에 오차범위 없이 정확한 수술시행이 가능해졌다. 사전에 미리 계측값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어 완전에 가까운 수술 시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24.txt

제목: 내가 서비스업을 그만둔 이유…'진상손님의 6부류'  
날짜: 20170621  
기자: 박세원 인턴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21144044002  
ID: 01100201.20170621144044002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얼마 전까지 모 패스트푸드점에서 점장으로 일하다가 퇴사한 사람이 '네이트 판'에 '내가 서비스업을 그만 둔 이유'라는 글을 올렸다. <br/> <br/>나름대로 능력도 인정받고 빨리 점장을 달았다는 그는 2년 가까이 점장으로 일 하다가 "도저히 못 해 먹겠어서 그만뒀습니다"라며 퇴사 이유를 밝혔다. 그가 패스트푸드점에서 퇴사한 이유는 '진상 손님' 때문이었다. 그는 진상 손님을 총 6가지로 분류했다. <br/> <br/>글쓴이는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점원을 괴롭히는 '얌생이족'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배달 서비스를 하면서 주문이 잘못 전달될 때가 있는데 당연하게 서비스를 요구하는 손님이 많았다고 한다. 주문 실수를 빙자해 서비스를 챙겨가는 손님도 있었다. 이에 그는 이런 손님들이 거주하는 집주소 목록을 만들어서 주문이 들어오면 아주 철저하게 배달 하도록 신경썼다고 한다. <br/> <br/>하지만 보내기 전에 완벽하게 확인했는데도 "소스가 안 들어있다"며 새 상품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손님이 있었다. 이에 그는 "기존 상품을 회수해 알바생들 교육용으로 쓰겠다"고 했지만 손님은 "이미 거의 다 먹었다"고 답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그렇게 다 먹었으면 괜찮으니까 먹은거지 왜 전화한거냐?'라고 말하고 싶은데도 꾹꾹 참고 다시 보냈다"고 하소연했다. <br/> <br/>'충전기 구걸족'도 만만치 않다. 카운터에 찾아와 핸드폰을 충전해 달라고 하고 충전기가 없다고 하면 "서비스가 뭐 이래요? 그럼 충전 어디서 해요!!"라고 소리치는 손님이다. 그는 "나보고 뭐 어쩌라고, 집에 가"라는 말을 삼키며 친절하게 응대하지만 서비스 불만으로 클레임이 들어온다며 헛웃음을 지었다. <br/> <br/> <br/> <br/>"<span class='quot0'>우리 애기가 먹을 건데 잘 좀 만들어 주세요~~~</span>" "애 줄 건데 좀 더 줘~"하는 '맘충'도 있다. 매장에서 아이가 우는데도 더 울려서 다른 손님들 밥 먹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러고서는 아기 달래게 먹을 거를 달라고 요구하는 맘충에 그는 매번 화를 억누르며 응대해왔다. <br/> <br/>쿠폰 사용기간이나 행사 진행시간에 관심 없는 '해태눈족'은 쿠폰 기간이 지났음에도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 이 쿠폰 어떻게 해요? 버려요?"라고 따지곤 한다. 이에 그는 "<span class='quot0'>진짜 답답해서 암 걸릴 거 같습니다</span>"라며 '내가 안 썼냐? 너희가 안 썼지?'하는 생각이 뭉게뭉게 피어오른다고 전했다. <br/> <br/> <br/> <br/>백화점 안에 위치한 매장에서는 "나 이 백화점 VIP인데!!"라고 외치는 '내가짱족'이 판을 친다. 이들은 백화점이랑 전혀 관계 없는 매장이라고 설명해도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친다고 한다. <br/> <br/>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종처럼 부리는 '난'갑' 넌 '을'족'도 있다. 그는 "사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만두길 잘했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화의 시작부터가 반말이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이 난무하며 음식을 직원들한테 던지기도 한다. <br/> <br/>'난'갑' 넌'을'' 손님이 음료 리필을 요구하며 음식과 음료수를 직원에게 집어던진 날, 그는 퇴사를 결심했다. 그날 한 고객은 음료 리필을 계속 요구하며 아르바이트생을 무서운 표정으로 노려봤고 알바생은 결국 음료수를 리필해줬다. 이에 고객은 "되는데 왜 안 된다고 했냐"며 알바생에게 음료와 제품을 던지고 '듣도 보도 못한'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당장 뛰어가 손님을 진정시키려 했으나 진정이 안 됐고, 점장이라고 하니 욕설이 자신에게 향했다고 설명했다. <br/> <br/>응대를 잘못하면 클레임이 들어오니 어루고 달래려 했지만 진정이 되지 않아 함께 싸웠다고 한다. 주먹다짐만 오고가지 않았을 뿐 "거의 전쟁터"였다. 그 순간 '아 못해 먹겠네'라는 생각이 더 컸다던 그는 사건이 마무리되고 바로 퇴사를 통보했다. 이렇게 부당한 일이 일어나도 본사는 전부 매장 탓만 하고 보호해주지 않았다고 그는 씁쓸해 했다. <br/> <br/>4년 넘게 서비스업에서 일하며 문제 일으킨 적이 없었다는 그는 "저 외에도 많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저와 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힘내세요"라며 사연을 끝맺었다. <br/> <br/>박세원 인턴기자 sewonpar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25.txt

제목: [로컬 브리핑] 도봉구 ‘힐링숲속캠프’ 개최  
날짜: 201706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21214055004  
ID: 01100201.20170621214055004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서울 도봉구는 20∼21일 북한산생태탐방연수원에서 암과 고혈압, 당뇨 등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 30명에게 친환경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힐링숲속캠프’를 연다. ‘병과 나의 삶’을 주제로 건강 특강을 진행하고 작품 만들기, 음악치료 등 감성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도봉옛길을 걷거나 도봉계곡 바위글씨에 얽힌 옛 이야기를 듣는 등의 친환경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김상준 도봉보건소장은 “<span class='quot0'>힐링숲속캠프를 통해 질환자들이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스트레스 및 정서적 위축감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국민일보-3-426.txt

제목: 일본 와카야마 대학, 진행성 췌장암 환자 대상 수지상세포백신 세포치료 시행  
날짜: 201706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20103044001  
ID: 01100201.20170620103044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일본 세렌클리닉 그룹의 수지상세포 백신 R&D를 주도하고 있는 모기업 바이오회사 ㈜테라는 공립대학법인 와카야마 현립의과대학(이하 와카야마 의과대학)과 수지상세포 백신치료를 임상에 도입키로 계약을 체결했다. <br/> <br/>최근 소식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2017년 미국임상종양학회(ASCO：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의 연차 총회에서 와카야마 의과대학의 진행성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WT1펩티드·펄스(Pulse) 수지상세포백신(TLP0-001) 세포치료에 관한 발표논문이 채택됐다. <br/> <br/>와카야마 대학에서 실시해온 이번 연구논문은 표준요법으로 반응이 없는 진행성 췌장암 환자에 대해 S-1 병용 WTI펩티드를 로딩(Loading)한 수지상세포백신(TLP0-001)을 이중맹검법으로 랜덤화하여 임상에 적용한 치료법으로 알려졌다. <br/> <br/>세렌클리닉 병원그룹의 수지상세포 백신치료는 현재 치료실적이 1만1200건에 달하고 있으며 췌장암의 경우에는 치료실적이 2300건에 달한다. 그 외에도 대장암, 위암, 폐암, 담도암, 유방암 등 많은 치료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는 일본 내국인 뿐 만아니라 중국, 한국 등 동남아에서 오는 환자들도 많다고 병원 관계자가 밝혔다. <br/> <br/>한편, 국내 다수의 암환자들이 현재 세렌클리닉 그룹의 한국지사 Agency법인회사 ㈜세렌코리아를 통해 수지상세포 백신치료를 받고 있다.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27.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116) 한양대병원 유방암센터] 암 제거·미용 효과 ‘종양성형수술’ 최고  
날짜: 20170620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20050057002  
ID: 01100201.20170620050057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예전에는 병만 잘 고치면 명의(名醫) 소리를 들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환자와 소통을 잘하는 태도가 명의의 조건에 추가됐다. 모바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편화와 더불어 누구든지 쉽게, 언제 어디서나 의료정보를 얻게 되면서 의사가 더 자세히 설명해주기를 바라는 까닭이다. <br/> <br/> 한양대학교병원 유방암센터는 그런 점에서 현대식 명의의 조건을 두루 갖춘 의사들의 집합소라고 할만하다. 유방암 수술과 유방재건성형 분야에서 누구보다 깔끔하고 정교한 칼 솜씨를 자랑하는 유방내분비외과 정민성 교수와 성형외과 안희창 교수를 포함해 유방암 환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완치를 위해 온 정성을 다하는 의사들이 많아서다. <br/> <br/> 탄탄한 팀워크와 빈틈없는 협진 <br/> <br/> 유방암은 특히 환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은 암이다. 진행 정도와 범위에 따라 수술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환자 개개인의 상황과 각 수술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같은 병기의 유방암이라도 수용체 발현 여부 등 암 유형에 따라 전신 치료가 달라지기도 한다. <br/> <br/> 한양대병원 유방암센터는 이렇듯 복잡하고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은 유방암 치료 시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한 개도 놓치지 않고 충족시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br/> <br/> 정민성 교수와 안희창 교수를 중심으로 핵의학과 최윤영 교수, 영상의학과 박정선·구혜령 교수팀, 종양내과 박병배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전하정 교수, 병리과 장기석·신수진 교수팀, 산부인과 배재만·이원무 교수팀, 재활의학과 이규훈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김석현 교수 등이 수시로 다학제 협력진료를 펼쳐온 덕분이다. <br/> <br/> 미용과 삶의 질 고려 <br/> <br/> 유방암 수술 시 최우선 고려사항은 암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다. 나아가 수술 후 삶의 질과 미용 효과까지 도모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br/> <br/> 현재 정민성 교수팀의 유방보존 비율은 약 75%다. 한국유방암학회에 보고된 국내 유방암 수술 환자의 평균 보존율 65%보다 10% 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br/> <br/> 이는 비교적 절제 범위가 큰 수술을 할 때도 정 교수팀이 유방주변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특유의 ‘종양성형수술’로 암 제거와 미용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는 얘기다. <br/> <br/> 정 교수는 “<span class='quot0'>암 조직을 최대한 걷어내고도 수술 후 보기에 흉하지 않은 가슴을 만들어주자</span>”는 자세로 수술에 임한다. 수술 시 유방 원형을 충분히 보전해 만족도를 높여주자는 것이다. <br/> <br/>절제수술 후 유방 복원 완벽 <br/> <br/> 문제는 암 치료목적으로 여성성의 상징인 유방을 모두 잘라내야 하는 경우다. <br/> <br/>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발견과 수술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들은 암 절제수술로 유방을 잃는 경우가 아직도 10명 중 약 3명에 이른다. <br/> <br/> 암 발병 사실을 진행단계에서 늦게 알게 되거나 조기에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암세포가 다발성으로 여러 군데 퍼져 있고, 미세석회 형태로 분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미세석회란 혈액 중 칼슘 성분이 세포 사이에 쌓여 미세한 입자나 덩어리 또는 널빤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br/> <br/> 어느 경우든 예기치 않게 암으로 유방을 잃은 환자들은 여성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잃었다는 상실감으로 좌절하게 된다. 한양대병원 유방암센터는 이들 유방전절제 환자들의 상실감과 절망감, 좌절감 극복을 위해 신체 맞춤형 유방 절제와 동시에 유두까지 유방 원형을 복구해주고, 정신건강 치료도 병행해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br/> <br/> 최단시간 논스톱 서비스 <br/> <br/> 유방암이 의심돼 조직검사를 받은 환자들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시도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한다. 유방암 확진 후에도 마찬가지다. 수술 날짜를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일 년같이 길게 느껴지기 마련. 환자들 입장에서 볼 때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이다. <br/> <br/> 한양대병원 유방암센터는 유방암 환자들의 이 같은 고통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 각 파트간 유기적인 소통과 논스톱 서비스를 통해 외래 방문 후 2주 이내에 모든 검사와 수술을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br/> <br/> “의사와 환자 간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호 신뢰관계 형성도 어려워 치료 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없다.” <br/> <br/> 정민성 교수와 안희창 교수는 한양대병원 유방암센터를 찾은 환자들의 아픈 가슴을 깨끗이, 완벽하게 치료하기 위해 언제든지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소통하려 애쓰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br/> <br/>■정민성·안희창 교수는 <br/> 정민성 교수, 유방암 발병 초기 나타나는 '종양 표지자' 연구 <br/> <br/> <br/>정민성 교수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7년 2월까지 서울아산병원 유방갑상선외과에서 임상강사로 일했다. 이후 한양대병원 유방내분비외과로 옮겨 유방암 환자와 갑상선암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br/> <br/> 2007년 한국유방암학회가 시상하는 로슈학술상을 수상했다. 현재 한국유방암학회와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에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br/> <br/> 특히 유방암 발병 초기에 나타나는 특이 '캔서 마크'(종양 표지자)를 발굴하는 연구와 환자 개인 맞춤형 치료법 개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환우회 '핑크한양'을 통해 환자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유방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영양관리와 생활습관 개선 등 다양한 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최, 환자들에게 유방암 극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br/> <br/> 병원 관계자는 "(정민성 교수가) 수술계획을 짤 때나 수술실에서나 최고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노력한다. 평소 늘 환자 편에 서서 고민하는, 가슴이 따뜻한 참 의사란 평을 듣는다"고 전했다. <br/> <br/> 안희창 교수 역시 마찬가지다. 유방재건성형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린다. 경험 많은 장인이 명검을 연마하듯 혈류가 좋은 조직을 고르고 골라 부드럽고 보기 좋은 유방을 만들어줘서다. <br/> <br/> 안 교수는 유방암 절제 수술 후 유방재건성형을 필요로 할 때 제왕절개나 이미 다른 복부수술을 받았던 경우, 중년의 비만 체형, 고령자, 미혼 여성 등 저마다 다르기 마련인 환자들의 사정을 일일이 고려해 개인맞춤 시술을 하기로 유명하다. <br/> <br/> 안 교수는 몸이 말라 지방조직이 적은 환자도 자가 조직을 이용해 충분한 크기의 동산 모양 유방 원형을 재건해주는 노하우를 갖고 있다. 방사선 치료 후 피부가 딱딱해지거나 괴사된 경우에도 뱃살, 등살 등 자가조직으로 재건해준다. 안 교수는 미세수술을 이용한 자가 뱃살조직 이식 유방재건술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했다. <br/> <br/> 안 교수는 미국 스탠포드 및 UCLA 메디컬센터 성형외과에서 선진 재건성형수술 기법을 익혔다. 그동안 대한성형외과학회장 대한두경부종양학회장 대한수부외과학회 및 대한 미세수술학회 이사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사진= 서영희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428.txt

제목: 청구성심병원, 2년 연속 폐렴적정성평가 1등급 획득  
날짜: 201706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19163050001  
ID: 01100201.20170619163050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은평구에 위치한 청구성심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폐렴적정성평가에서 작년에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하였다. <br/> <br/>폐렴은 암, 심장, 뇌혈관 질환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환으로 확진 시 환자 개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에게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폐렴 적정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br/> <br/>청구성심병원은 폐렴적정성평가에 있어서 100점 만점 중 99.1점의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최고 평가등급인 1등급을 획득하며 폐렴 진료에 있어 우수한 의료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받게 되었다. (전국 종합점수 전체평균 : 71.4점) <br/> <br/>폐렴적정성평가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개발한 총 15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 지는데 다음과 같다. 병원 도착 24시간 이내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병원 도착 시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병원 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 객담도말검사 처방률 등이 포함되어 있다. <br/> <br/>청구성심병원 여유미 과장(호흡기내과 전문의)은 “<span class='quot0'>폐렴 같은 기관지 질환의 경우 호흡기내과 전문의를 통해 정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span>”고 강조하며 “<span class='quot0'>청구성심병원은 은평구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지역 주민들 곁에서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건강지킴이가 되고자 전 의료진과 직원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span>”고 전했다.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29.txt

제목: 50년 이상 연극·드라마·영화서 족적 남긴 윤소정씨 타계  
날짜: 20170619  
기자: 장지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19000019001  
ID: 01100201.20170619000019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윤소정은 타고난 배우였다. 하지만 누구보다 노력하는 배우였다.” <br/> <br/> 지난 16일 패혈증으로 별세한 배우 윤소정(73·사진)씨에 대해 연극계는 이렇게 회고했다. 50년 넘게 연극 드라마 영화를 오가며 활동했지만 연극은 고인의 배우인생에서 뿌리이자 가장 큰 족적을 남긴 분야다.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은 동료 및 선후배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br/> <br/> 1966년 극단 자유에 함께 입단했던 배우 박정자(75)씨는 “<span class='quot0'>불과 2∼3주 전에 배우 손숙 윤석화 김성녀 등과 함께 전남 해남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다니 믿을 수 없다</span>”고 말했다. 그동안 고인과 무려 연극 14편에서 호흡을 맞출 만큼 각별했던 배우 이호재(76)씨는 아예 말을 잇지 못했다. 이씨는 “<span class='quot1'>생각도 못한 일이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span>”며 울먹였다. <br/> <br/> 고인의 남편인 배우 오현경(81)씨와 함께 다음 달 연극 ‘봄날’을 공연하는 연출가 이성열(55)씨는 “오 선생님이 윤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타계로 쇼크를 받으셨다. 오랜 암 투병 끝에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무리하면 안 되는 만큼 건강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br/> <br/> 연극계 관계자들은 맺고 끊는 것이 분명했던 그의 성격, 후배에게는 각별했던 그의 씀씀이, 노력파였던 그의 연기 열정에 대해 추억했다. <br/> <br/> 박명성(54) 신시컴퍼니 예술감독은 “윤 선생님은 매우 쿨한 성격이지만 후배들을 잘 챙기는 분이었다. 그래서 따르는 후배들이 많았다”고 말했고, 연출가 김광보(53) 서울시극단 단장은 “윤 선생님은 소녀 같은 순수함이 있는 배우였다. 일상의 그런 아름다움이 작업에 들어가면 진지함과 더해져 큰 힘을 발휘했다”고 회고했다. <br/> <br/> 평론가 출신인 김윤철(68) 국립극단 예술감독은 “<span class='quot2'>윤 선생님은 배우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분이었다</span>”고 추모했다. <br/> <br/> 한편 고인의 장례는 대한민국연극인장으로 치러진다. 20일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엄수된다. 유족과 연극인들은 영정을 들고 고인이 평소 즐겨가던 대학로 곳곳을 둘러볼 예정이다.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 장지는 천안공원묘원이다. <br/> <br/>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30.txt

제목: [인터뷰] 윤택림 전남대병원장(국립대병원장협회장) “수도권 중심 의료집중화 변화 절실”  
날짜: 20170619  
기자: 김양균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19194855001  
ID: 01100201.201706191948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수도권 중심의 의료 집중화 현상은 국내 의료 전체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의료 발전을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 윤택림 전남대병원장의 말이다. 국립대병원장 협의회장이기도 한 윤 병원장은 의료평준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병원 특성화 등 병원 자구책만으론 지역 의료 개선이 요원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난 8일 전남대병원에서 만난 윤 원장은 “<span class='quot0'>지역 인재가 만족하고 지역민을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span>”고 목소리를 높였다. <br/> <br/> Q. 지역 의료기관은 수도권 중심 의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를 타개할 전남대병원만의 전문 분야가 있다면. <br/> <br/> - 수도권의 의료 집중화 현상은 지양되어야 한다. 지역별 고른 의료 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등이 새 정부에서도 시행되어야 한다. 지역의 인재가 서울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민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지역 의료 발전은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전남대병원은 자구책으로 특성화 전략을 꾸준히 추진해 ‘암’, ‘관절’, ‘심혈관질환’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키웠다. <br/> <br/> Q. 병원장 취임 이후 시행한 공공의료사업을 꼽는다면. <br/> <br/> - 2015년 광주아시안게임 개막 직전 전국에 메르스 광풍이 불었다. 병원은 메르스 예방에 집중, 의료진이 나서 12차례 가두 캠페인을 선보였다. 덕분에 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네팔 지진 당시 구호 의료진을 파견했고, 의료 환경이 열악한 국내 지역 및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의료봉사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의 ‘국립대병원 공익적 비용 계측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공공의료를 가장 활발하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Q. 공공의료와 의료 수익 사이의 간극은 어떻게 메우고 있나. <br/> <br/> - 전남대병원은 호남권 300만 명의 건강을 책임지는 만큼 지역 공공의료의 책무를 가진다. 물론 공공서비스에 지출이 많아지면 직원 처우 개선 등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설득이 필요하다. <br/> <br/> Q.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 <br/> <br/> - 병원 업무 특성상 여성의 비율이 높다. 육아휴가등을 위한 대체인력은 비정규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통상 전남대병원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무와 간호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맡는다. 그러나 상시·지속 업무 종사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고용 정원은 정부 통제를 받고 있는 만큼 정규직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국립대병원이 정원 증원 권한을 갖거나 재정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 <br/> <br/> Q. 보건시민단체와 노조는 의사성과급 등 우회 방식의 ‘유사 성과연봉제’가 국립대병원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남대병원은 어떤가. <br/> <br/> - 의사직에 한해 선택진료제에 의한 성과제 성격의 제도가 있어 왔던 게 사실이다. 정부의 선택진료제 폐지 계획에 따라 선택진료수익 중심의 의사직 수당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안 마련을 고심 중이다. <br/> <br/> Q. 지날달 발간한 <5·18 10일간의 야전병원>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국립대병원장으로서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었을 텐데. <br/> <br/> - 5·18 당시 시민들을 살리고자 최선을 다한 의료인들의 기록을 더는 미룰 수 없었다. 병원장으로서 부담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그만큼 정확히 만들었다.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동안 자료 및 증언을 수집했고 감수를 거쳐 발간했다. 당시 의료진들에게 5·18의 기억은 깊은 상처이다. 5·18 바로잡기와 병원 역사 정리를 위해 아픔을 감내하며 증언에 임한 선배 의료인들에게 감사와 죄송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 <br/> <br/> Q.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br/> <br/> - 응급실은 총상환자들로 넘쳐 응급수술이 쉴 새 없이 진행됐다. 특히 80년 5월 21일과 27일 병원을 향한 계엄군의 사격이 자행되기도 했다. 책에는 극한 의료진이 맞닥뜨려야만 했던 극한의 상황과 감정이 담겨있다. 최근 헬기사격 등 진실 규명 목소리도 높았지만, 전두환 회고록 파문 등 사실을 왜곡·펨훼하는 일도 많았다. <5·18 10일간의 야전병원>은 5·18 역사바로잡기를 위한 자료이자 단일병원이 처음 발행한 5·18의료 활동집이라는 점에서 여러 의미를 갖는다. <br/> <br/>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3-431.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환자도 임신 가능… “암종과 시기따라 결정”  
날짜: 20170619  
기자: 박예슬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19194655001  
ID: 01100201.20170619194655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아기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마의 몸 상태가 건강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암’을 겪고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과연 아기를 가질 수는 있는 것인지, 임신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암환자도 임신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의견이다. 김미경 단국대의과대학 제일병원 부인종양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자궁암이나 난소암 등 부인암이 아닌 경우에는 임신에 필요한 자궁이나 난소가 보존돼 있기 때문에 임신이 가능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암을 치료하는 중이라면 항암치료가 다 회복된 이후에 임신과 출산이 모두 가능하다</span>”고 말했다. 항암치료 중에는 일시적으로 난소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 시기만 피하면 된다는 것이다. <br/> <br/> 부인암인 경우와 관련해서는 “특히 자궁경부암인 경우, 초기에는 자궁은 살려놓고 자궁경부만 일부 절제함으로써 암 치료가 가능하다”며 “자궁이 온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이어 “물론 일반인에 비해서는 조산율이 높아지긴 하지만 우리 병원 데이터에 따르면 자궁경부만 일부 절제하신 분들 중 임신에 성공한 케이스가 50% 정도 된다”고 강조했다. <br/> <br/> 임신 후에 암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임신 시기에 따라 치료를 결정해야 한다. 김 교수는 “진행성 암인 경우 임신 1분기(3개월)만 아니면 된다. 그 기간 동안에는 태아의 기관이 발생하는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이라면서 “2분기 이후부터는 항암치료 진행이 가능하다. 단 이러한 경우 치료 시기나 임신 유지 여부 등은 전문의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r/> <br/> 또한 임신 전에 암 치료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이미 항암치료가 다 끝난 후라면 특별히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없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일반 산모와 같은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방사선 치료의 경우, 복부 쪽에 방사선을 쪼이면 자궁이나 난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 이땐 임신을 계획하신다면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검사해본 다음 계획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br/> <br/> 암 완치 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뒤에는 충분히 임신이 가능하다. 단, 유방암처럼 여성호르몬이 증가했을 때 재발 위험성이 높아지는 암인 경우는 예외다. 유방암은 치료 종료 후부터 임신되는 시기까지의 기간이 너무 짧으면 재발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보고 임신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조언했다. <br/> <br/> 안전한 임신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자궁경부암은 ‘전암성 병변(전암 병터)’이라고 해서 암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암으로 진행되기까지 약 2∼5년 정도가 걸린다. 즉 사전에 충분히 조기 진단과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산전검사 때 꼭 자궁경부 등 선별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임신 전에 미리 발견하는 게 가장 좋다”며, “임신 중에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치료를 임신 이후로 미뤄야하기 때문에 예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산전에 반드시 자궁경부암 검사, 초음파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br/> <br/>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3-432.txt

제목: [암과의 동행] 인하대병원 호스피스센터 이현규 교수 “완화의료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 남은시간 행복”  
날짜: 20170619  
기자: 박예슬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19194555002  
ID: 01100201.20170619194555002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span class='quot0'>더 이상 효과적인 치료가 없다는 말을 주치의에게 들으셨다면 그 순간부터 하루라도 빨리 호스피스 병동을 찾으셔야 환자분도, 가족들도 보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span>” <br/> <br/> 이전까지는 암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의료진의 역할은 주로 의학적인 부분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다 호스피스 병동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환자의 정신적인 부분, 나아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전인적인 돌봄이 제공되고 있다. 인하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 이현규 교수(혈액종양내과)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 “<span class='quot1'>죽음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고, 환자와 가족이 죽음이라는 것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돕는 일</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편이다. 이 교수는 “부모 중 암환자가 있는 경우, 자식들은 더 해드려야 하는데 이대로 포기해버리는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 이렇다보니 호스피스로 진입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우려했다. 하지만 막상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나면 대부분의 환자 분들은 다 만족해하시고, 특히 가족들의 경우에는 장례를 치른 후에 고맙다면서 많이 찾아온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br/> <br/> 이 교수는 그중 말기 폐암환자였던 어르신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다소 투박하고 무뚝뚝한 분이셨다. 자식들도 다 커서 모두 흩어져 살아온 탓에 특별히 정을 나눌 일도 없었다. 그러다 호스피스병동에 들어오게 되면서 가족들이 한데 모이게 됐는데, 그동안 못했던 얘기도 나누고 아내에게 사랑표현도 하시면서 같이 웃고 대화하는 시간을 보내셨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다녀온 여행사진을 보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시고서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 환자도 가족들도 슬프지만 행복해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소중한 시간을 보내셨다”면서 당시 상황을 술회했다. <br/> <br/> 인하대병원은 2년 전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를 개설해 운영해오고 있다. 이곳에서 의료진들은 근본적인 치료 외에도 갖고 있는 증상과 고통들을 줄이기 위한 전반적인 완화의료 돌봄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사가 환자의 경제적 지원, 가족과의 회복, 수녀나 목사 등 영적 지도자 연결을 돕고 자원봉사자를 개발한다. 자원봉사자들은 목욕이나 이발, 말벗 등을 해주며, 요법치료사가 매주 방문해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을 진행한다. <br/> <br/> 또한 지난 5월부터는 완화의료 돌봄도우미(간병서비스제도)를 시행해 가족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전까지는 보호자가 환자 곁에서 항시 돌봐야 했지만 이제는 돌봄도우미가 모든 케어를 담당해준다. 또 기존 간병비는 200만원 정도였지만 이제 10만원으로 줄어들어 경제적인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이 교수는 “인하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는 일하는 분들이 모두 진심을 담아 마음으로 돌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완화의료는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일어나는 치유 과정이기 때문에 환자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듣고 위로해주면서 심리적인 부분을 위해 많이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br/> <br/>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스피스병동에 오시고 나면 후회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 이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도록 미리 직접 접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다”며, “고민하다 너무 늦게 오시면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하루라도 빨리 완화의료를 받아야 환자도 행복한 마무리를 하고 가족들도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가능한 빨리 오셔서 최대한 많이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r/> <br/>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3-433.txt

제목: [쿡기자의 건강톡톡] 암환자 식단은 ‘골고루’… 건강기능 식품은 자제를  
날짜: 20170619  
기자: 전미옥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19194455001  
ID: 01100201.20170619194455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암환자들에게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 암환자들의 식단을 책임지는 병원 영양사들은 ‘골고루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민영 고대구로병원 임상영양사는 “암환자라고 해서 먹는 것들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영양소는 같기 때문이다. 오히려 항암치료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균형 잡힌 세끼 식사를 통해 건강을 챙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br/> <br/> 암환자 식단의 특징은 ‘고열량·고단백’이다. 항암치료 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거나 흡수하는 데 장애를 초래해 기존보다 영양 요구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때 암을 치료하는 특별한 식품이나 영양소는 없으며, 균형잡힌 식사로 좋은 영양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영양사는 “암치료를 위해서는 체력이 중요하다. 체중이 많이 빠진 상태로는 치료를 지속하기 어렵고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쉽다. 또한 좋은 세포가 우리 몸에 자리 잡게 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종종 매스컴에 ‘고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기가 걱정된다면 생선, 두부, 계란 등으로 충분히 단백질을 보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br/> 식단을 구성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가급적 찌거나 데치거나 삶는 담백한 조리법을 선택하고, 조리과정에 단백질 성분을 강화하거나 불포화지방산이 함유된 식재료를 사용하기도 한다. 유제품이나 샐러드 등 간식의 빈도도 일반식보다 높게 구성하는 편이다. 김 영양사는 “항암제가 대표적으로 유발하는 부작용이 오심, 메스꺼움, 구토증상 등이고, 대대수 환자들이 미각변화를 경험한다. 음식 본래의 맛이 아니라 유달리 시거나 짜게 느끼고 육류에서는 누린내를 강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br/> <br/> 암환자들이 병원 내 푸드코트 등 외부 음식을 섭취해도 괜찮을까. 김 영양사는 “입원기간 동안에는 병원식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환자들의 경우 면역력이 취약해 감염 우려가 있고, 환자들이 사용한 식기를 통해 위생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경고했다. 이어 그는 “다만 꼭 외부음식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담당 의료진에게 알려 허가를 받고 드시도록 해야 한다. 멸균음식을 이용하거나 반드시 전자렌지로 가열해 살균 후에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br/> <br/> 치료 중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도 지양해야한다. 항암치료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고, 무엇보다 간 기능, 신장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음식은 되도록 원재료를 조리해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버섯을 달이거나 환이나 분말형태로 만들어 섭취하는 것 보다는 조리해서 먹도록 한다. 김 영양사는 “같은 성분이라도 즙, 가루, 환 등은 농축돼있기 때문에 몸에 무리를 줄 가능성이 높다”며 “1000mg이상의 비타민C, 오메가3 등 단일성분으로 구성된 건강기능식품도 지양해야한다”고 조언했다. <br/> <br/>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3-434.txt

제목: [쿠키가 만난 명의] 서울하이케어의원 김태희 원장, 종양 콕 찍어 괴사 ‘하이푸’ 시술 선도  
날짜: 20170619  
기자: 송병기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19194355001  
ID: 01100201.201706191943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하이푸(HIFU) 시술은 환자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선택이 중요하고, 의료진의 술기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항상 ‘환자가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통해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결정합니다.” <br/> <br/>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1700례의 하이푸시술을 시행해 하이푸 전문가로 평가받는 서울하이케어의원 김태희 원장(사진·외과전문의)은 환자에게 좋은 결과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0년 외과의사로서 우연한 기회에 하이푸를 접하게 된 그는 자궁근종은 물론 간암과 췌장암 등 하이푸가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에 주목해 환자 치료는 물론 꾸준한 연구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하이케어의원은 자궁근종과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이푸 시술을 행하고, 혈관색전술(암혈관을 파괴해 암세포를 억제하는 방법)과 암면역 혈관치료, 면역세포치료 등 비수술적 암치료로 환자 치료에 임하고 있다. <br/> <br/> 하이푸(HIFU,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는 초음파 유도 ‘고강도집속초음파’ 장비다. 종양이나 암병변에 고강도 초음파 열에너지를 집중시켜 종양을 괴사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종양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주변 장기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간암,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종에 대한 적응증 인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췌장선암, 유방암 등으로 적응증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r/> <br/>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간암의 경우 간암의 경우 진단환자의 20%만 수술이 가능하며 방사선과 항암에 잘 반응하지 않는데, 하이푸는 간 기능을 보전하면서 항암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3기 이상 말기 환자의 경우 기존 치료와 병행하면 항암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span>”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지난 3월 열린 대한통합암학회 학술대회에서 ‘하이푸를 이용한 간암과 기타 종양 치료 사례’ 임상결과를 발표했다. 김 원장은 “하이푸와 암 혈관을 막는 색전술을 병행치료하면 생존율이 11.3개월로 늘었다. 색전술 단독치료 시 1년 후 생존율은 0%였으나 하이푸와 색전술을 병행하면 42.9%였다”면서, 하이푸가 간암 환자에서 생존율을 높이고 종양의 크기를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br/> <br/> 이러한 하이푸 시술 노하우를 인정받아 서울하이케어의원은 현재 하이푸 장비 생산업체인 충칭하이푸 공식파트너로 지정을 받았다. 또한 충칭하이푸 인중 국제하이푸교육기관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의료진들에 대한 하이푸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br/> <br/> 김 원장은 “이탈리아 밀라노 유럽종양연구소에서는 유방암, 독일 본대학교 하이푸센터에서는 췌장암, 간암 치료에 하이푸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초기 암은 완치, 말기 암은 통증 완화와 기대 여명 증가를 목표로 향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의료진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그 신뢰는 최상의 치료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료진에게 달린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br/> <br/>송병기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435.txt

제목: [원자력병원 암전문의가 전하는 ‘건강톡’] 대장암 젊다고 안심 못해… 용종은 꼭 제거를  
날짜: 20170619  
기자: 이영수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19173355001  
ID: 01100201.20170619173355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장암 환자는 2012년 13만6000여 명에서 2016년 15만6000여 명으로 5년 간 15%가 증가했다. 고지방음식, 인스턴트식품 등의 과다섭취로 젊은 연령층의 대장암 발생이 늘어 전체 대장암 환자 중 30∼40대도 약 10%를 차지했다. 특히 젊은 층은 대장암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br/> <br/> 대장암도 치질처럼 대변에 피가 보이나요 <br/> <br/> -대장암 증상으로 일부에서 대변에 피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 치질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치질은 항문과 항문 주위에 발생하는 질환들을 폭 넓게 부르는 말로 이 중 가장 흔한 질환인 치핵은 배변 중 선홍색의 출혈, 항문통증 등이 있습니다. 대장암은 치핵과 마찬가지로 혈변이 있을 수 있고, 진행됨에 따라 배변과 관계없이 항문에서 검붉은 피가 나오기도 합니다. 체중변화가 없는 치핵에 비해 대장암은 체중이 감소하고 변이 가늘어지거나 변비, 설사 등 배변습관에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br/> <br/> 대장내시경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br/> <br/> -대장암 진단은 항문직장수지검사, 대변잠혈반응검사, 대장내시경검사 등을 합니다. 이중 대장내시경검사는 의심부위를 조직검사로 확진할 수 있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검사법은 검사 전 약을 먹고 장을 깨끗이 비운 후 항문을 통해 대장의 끝부분까지 튜브모양의 특수 내시경을 삽입해 대장 내부를 관찰합니다. 용종이 있으면 용종 절제기구로 용종을 절제하고 조직검사도 할 수 있어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까지 가능합니다. <br/> <br/> 대장 용종은 모두 떼어내야 하나요 <br/> <br/> -용종은 대장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 장 안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장내시경검사에서 흔히 발견되는 용종은 암이 될 가능성이 적은 과증식성 용종, 염증성 용종 등과 암으로 변할 수 있는 선종성 용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장암은 용종에서 진행되어 발생하고, 용종을 완전히 제거하는 경우 대장암의 위험을 75%까지 감소시키므로 반드시 절제해야 합니다. <br/> <br/> 수술로 치료 되나요 <br/> <br/> -대장암의 치료원칙은 수술로 암을 완전히 절제하는 근치적 완전절제입니다. 수술은 대장암을 중심으로 앞·뒤 정상대장을 포함해 대장암에 영양을 공급하고 암세포의 전이 경로가 되는 혈관과 주위 림프절의 광범위한 절제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병기 2기 이상 진행성 직장암은 수술과 함께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병행합니다. <br/> <br/> 직장에 암이 생기면 항문을 제거하나요 <br/> <br/> -대장은 크게 결장과 직장으로 구분하고, 항문과 연결된 부위를 직장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직장부위에 암이 생기면 항문을 모두 제거하고 인공항문을 만드는 복회음절제술이 많이 시행되었습니다. 원자력병원의 경우 수술 전 방사선치료와 항암제를 같이 투여하는 병용요법으로 항문보존은 물론 국소재발을 줄이고 있습니다. 항문 가까이에 상부의 결장을 연결하여 직장을 대신하게 하는 저위 혹은 초저위전방절제술은 항문을 제거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어 수술 후 환자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br/> <br/> 예방은 어떻게 하나요 <br/> <br/> -대장암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불규칙적이고 서구화된 식습관 및 음주, 흡연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발병률을 높이는 위험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요소를 잘 이해하고 평소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섬유질은 발암물질이 장벽과 접촉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장내 발암물질을 희석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 합니다. 붉은 색 육류와 동물성 지방은 제한하고, 고칼로리 음식을 줄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정체중을 유지하고, 금연과 함께 과음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50세 이후 5∼10년마다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대장암 가족력, 용종 등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검진 연령과 주기를 조절합니다. 또한, 30∼40대의 젊은 층도 혈변, 빈혈, 배변 습관 등의 변화가 있으면 빨리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br/> <br/>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br/> <br/>\*도움말=원자력병원 대장암센터 문선미(외과)·양기영(소화기내과)

언론사: 국민일보-3-436.txt

제목: 입원 암환자 39만명… 요양급여 3조5121억원  
날짜: 20170619  
기자: 조민규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19172755001  
ID: 01100201.201706191727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지난해 암으로 입원한 진료인원이 3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행한 2016년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2016년 암질병으로 입원한 진료인원은 38만9366명이었다. <br/> <br/> 요양급여비용은 전년대비 20.8% 증가한 3조5121억원에 달했다. 다빈도 암 중에서 입원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은 ‘유방암’(29.3% 증가, 602억원)이었고, 진료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암은 ‘폐암’(609억원, 18.9% 증가)으로 나타났다. <br/> <br/> 암 종별로 입원 진료인원은 위암이 4만36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관지암 및 폐암 4만2044명 ▲유방암 3만8006명 ▲간암 3만7236명 ▲갑상선암 3만2002명 ▲결장암 2만7230명 ▲직장암 1만5229명 ▲전립선암 1만4500명 ▲방광암 1만1572명 ▲췌장암 1만585명 순이었다. 요양급여비용은 기관지암 및 폐암이 383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간 및 간내 담관의 암 3559억원 ▲위암 3242억원 ▲결장암 2745억원 ▲유방암 2657억원 ▲직장암 1467억원 ▲췌장암 1107억원 순으로 많았다. 건당 요양급여비용은 ▲간 및 간내 담관의 암 341만6264원(317만4048만원) ▲기관지암 및 폐암 269만6887원(248만8340원) ▲위암 268만4799원(급여비 243만7239원) ▲갑상선암 214만5442원(177만2578원) ▲유방암 166만9625만원()147만405원) 등이었다. 급여비는 요양급여비용에서 환자 본인부담을 제외한 비용이다. <br/> <br/> 지난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분석(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체 적용인구(전체 세대당) 중 ‘암’ 진료인원은 78만5000명(74만4000세대)이며, 월 급여비는 37만3694원(38만4333원)이었다. <br/> <br/> ‘희귀질환’ 진료인원은 56만3000명(54만8000세대)이며, 월 급여비는 40만9939원(42만1210원)이었다. 전체 세대기준 질환별 보험료 대 급여비는 암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낸 보험료보다 3.69배(2015년 3.38배), 심장질환 8.02배(7.51배), 뇌혈관질환 7.67배(7.30배), 희귀질환 4.05배(3.91배), 경증질환 0.42배(0.42배)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2015년에 비해 중증질환은 혜택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암질환자가 있는 세대의 보험료 대 급여비는 1분위 13.69배, 5분위(보험료 상위 20%) 1.52배다. 분석대상 세대 전체 중 5분위의 보험료 대 급여비는 1.13배(2015년 1.08배)인데 반해 암질환 1.52배(1.39배), 심장질환 3.45배(3.24배), 뇌혈관질환 3.27배(3.08배), 희귀질환 1.68배(1.63배)의 급여를 받아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계층의 급여비 혜택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br/> <br/> 특히 전체 적용인구 기준 1인당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에서는 암질환이 낸 보험료보다 8.17배(2015년 7.62배), 심장질환 18.20배(17.37배), 뇌혈관질환 17.42배(16.92배), 희귀질환 8.96배(8.83배), 경증질환 0.46배 등 중증희귀질환의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암질환자의 보험료 대 급여비는 1분위가 20.44배(19.32배)이고, 5분위는 4.10배(3.83배)였다. 보험료 상위 20%의 5분위만 분석했을 때는 암질환 4.10배(3.83배), 심장질환 9.65배(9.27배), 뇌혈관질환 9.25배(8.86배), 희귀질환 4.60배(4.55배)의 혜택을 봤다. 이와 관련 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운영실 김재식 차장은 “<span class='quot0'>지난해에 비해 암 등 중증질환의 혜택이 늘어난 것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3-437.txt

제목: 한수련 직업상담가 “암생존자 사회복귀 따뜻한 관심 필요”  
날짜: 20170619  
기자: 전미옥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19172655003  
ID: 01100201.20170619172655003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암치료 이후 사회복귀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들이 다시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기까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직업상담가 한수련(사진) 씨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환자와 가족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씨는 국방전직교육원 소속 직업상담가로 지난 2012년 말부터 경희의료원에서 암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진로상담 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br/> <br/> 암은 더 이상 ‘죽을 병’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질환’으로 변모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암 경험자(암 투병 또는 치료 후 생존자)가 146만 명으로 국민 35명 중 1명꼴로 암을 경험했으며, 암 생존율은 70%에 육박한다. 그러나 암 생존자들이 투병 이전의 삶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아직 쉽지 않은 일이다. 한 씨를 찾는 이들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많다. 한 씨는 “<span class='quot0'>암 투병 중에는 환자 본인 외에도 병간호를 맡은 가족도 직장생활을 계속하기가 어렵다보니 암 치료가 종료될 시점에 생계가 막막해지는 가정이 적지 않다</span>”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회복기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은 암 발병 이전의 직장 또는 비슷한 업무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크다”며 “암 발병 이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고용시장이 불투명하고 또 불경기다보니 암 이력을 갖고 새로 취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br/> <br/> 진로 컨설팅은 내담자의 현재 상황과 기존 경력에서부터 시작된다. 한 씨는 “기존의 활동반경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업체를 추천하거나 국가 지원책 등을 소개한다. 일례로 한 환자의 경우 기존에 강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관련 분야에 대해 상담했고, 현재는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고 계신다”며 “종종 본인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담 내용은 명백하게 비밀로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br/> <br/> 한 씨는 “상담을 하면서 ‘왜 나를 도와주느냐’며 의심하거나 도움 받는 것 자체를 어색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점이 안타까웠다. 암 투병을 거치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힘들어지고, 관계에서 소외된 상태가 오래되다보니 새로운 상황을 두려워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며 “환자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알릴 필요가 있다. 또 국가나 사회의 지원체계도 지금보다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r/> <br/> 한편, 암경험자의 치료 이후 사회복귀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 인식이 높은 편이다. 충북대병원 박종혁 교수팀이 암경험자 사회복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통증으로 작업능력이 떨어질 것이다’(70.4%), ‘암경험자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약할 것이다’(55.3%)등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하지만 암경험자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겠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암환자 동료가 일반처럼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조성’(88.0%), 암경험자 동료가 승진하는 것에 찬성(79.4%) 등 긍정적인 답변이 높았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 등 기반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br/> <br/>전미옥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438.txt

제목: 심한 입냄새에 쉰 목소리 나오면 두경부암 의심해봐야  
날짜: 20170619  
기자: 전미옥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19172655002  
ID: 01100201.20170619172655002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입냄새가 유독 심하게 난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다. 드문 경우 두경부암이 그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두경부암은 음식을 먹거나 목소리를 내는 기관에 생기는 암을 총칭하는 말이다. 상악암, 설암, 인두암, 구강암, 후두암 등이 있으며, 최근 유명 연예인이 앓고 있다고 알려진 비인두암도 두경부암에 해당한다. <br/> <br/> 두경부암의 증상은 심한 입냄새, 쉰 목소리, 잘 낫지 않는 궤양, 급격한 체중감소 등이다. 특히 치료를 받았음에도 구내염이 잘 낫지 않는다면 구강암을, 수개월 동안 쉰 목소리가 차도없이 계속될 경우 후두암을 의심해볼 수 있다. 또한 별다른 원인 없이 목에 있는 임파선이 커지는 증상도 두경부암의 의심인자 중 하나다. <br/> <br/> 암으로 인한 구취의 경우 고기 썩은 듯한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박일석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암세포가 자라면서 우리 몸의 조직 일부는 계속해서 괴사된다. 이때 조직이 썩으면서 나는 냄새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입냄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두경부암으로 한정짓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br/> <br/> 무엇보다 구강의 청결이 중요하다. 구강의 문제가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잘 맞지 않는 틀니, 보철 등이 구강암, 설암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맞지 않는 틀니가 한 쪽만 자극 해 나타난 궤양이 수년 이상 계속되면 암으로 발전하기도 한다”며 “흡연을 안 하시는 구강암 환자들에게서 이런 사례가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br/> <br/> 조정환 서울대치과병원 구강내과 교수는 “대부분 치태나 설태, 치석, 충치 등에서 냄새가 유발된다. 특히 혀는 가장 큰 원인이다. 혀에는 오돌토돌한 유두가 있어 치태나 잔존물이 침착하기 쉽다. 또 혀 뒷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잇솔질뿐 아니라 혀를 잘 닦고 치실과 치간 칫솔 등을 사용해 구강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통해 충치나 혀 질환, 불량보철물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br/> <br/> 두경부암의 가장 큰 원인은 음주와 흡연이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음주와 흡연은 일반적인 두경부암 원인의 95%를 차지할 만큼 가장 큰 원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최근에는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HPV)도 구인두암(편도, 혀뿌리 부위)의 원인으로 지목된다</span>”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인두암이나 설기저부암의 경우 암이 커질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어 발견이 어려운 편이다. 목에 이물감이 있거나 쉰 목소리가 3주 이상 지속되면 이비인후과를 찾아 후두내시경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일단 금연해야한다. 과음도 금물이다. 또한 HPV 바이러스는 성병에 속하므로 결국 건전한 성생활도 예방법 중 하나”라고 조언했다. <br/> <br/>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3-439.txt

제목: 5년래 유방암 환자 40%대 증가… 남성도 552명  
날짜: 20170619  
기자: 조민규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19172655001  
ID: 01100201.201706191726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유방암 환자가 최근 5년간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방암(유방의 악성 신생물, 유방의 제자리암종)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12만4467명에서 2016년 17만1992명으로 약 40%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2012년 491명에서 2016년 552명으로 증가했고, 여성은 12만3976명에서 17만1440명으로 늘었다. 2016년 기준 연령별 분석에서는 남성의 경우 50∼70대가 80% 가까이 차지했다. 여성은 50대(6만7784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4만8715명). 60대(3만5710명), 70대(1만3553명), 30대(1만714명) 순으로 높았다. 유방암은 현재 국가암검진에 포함돼 있다. 유방암검사는 유방촬영술(X-ray)과 유방초음파가 기본검사이다. 국가에서는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에 한번씩 유방촬영술을 받도록 하고 있다. <br/> <br/>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유방암 국가암검진에서 암 또는 암의심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4772명에 달했다. 반면 국가암검진을 받은 여성은 대상자 3명 중 2명에 불과했다. 2015년 국립암센터와 국가암검진 권고안 제·개정위원회에서는 유방암 검진 권고안에 따르면 40세∼69세의 여성은 2년 간격으로 유방촬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70세 이상의 여성에서 유방촬영을 이용한 검진은 유방암 사망률 감소에 대한 근거수준은 낮다고 밝히고 있다. <br/> <br/> 유방암은 유전적 요인,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연령 및 출산·수유 경험, 방사선 노출, 음식물(특히 고지방식), 음주, 환경호르몬 등이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또 한쪽 유방에 암이 있은 사람은 다른 쪽 유방에도 암이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장암이나 난소암에 걸렸던 사람이나 비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방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 없는 멍울이 만져지는 것인데 병이 진행되면 유방뿐 아니라 겨드랑이에서도 덩어리가 만져질 수 있다. 또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거나 그 부위에 잘 낫지 않는 습진이 생기는 것은 유방암의 일종인 파제트병의 증세일 수 있다. 암이 겨드랑이 림프절에 전이되면 커진 림프절이 만져지기도 한다. 남성은 보통 젖꼭지 밑에서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질 경우 진찰을 받아 암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br/> <br/> 한편 유방암은 신약의 출시, 표적항암제 보험급여 등으로 치료옵션이 확대되고 있다. 이달 초 로슈 ‘퍼제타’는 4수 끝에 위험분담제(RSA)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며 환자 부담을 낮췄다. 퍼제타는 전이성 유방암에 대해 항 HER2 치료 또는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HER2 양성 전이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유방암 환자가 1차 치료요법으로 트라스투주맙 및 도세탁셀과 병용투여하면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화이자의 ‘입랜스’도 급여권 진입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은 됐지만 비싼 약가로 급여권 진입에 실패하며 보험적용은 좀 더 늦춰질 전망이다. <br/> <br/> 긍정적인 임상소식도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난소암표적치료제 ‘린파자’(올리파리브)는 최근 열린 2017 ASCO(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진행성 유방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고, 셀티리온 바이오시밀러 ‘허쥬마’는 글로벌 임상에서 오리지널 ‘허셉틴’과 유의한 치료 효과를 확인한 임상을 발표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삼진제약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향후 5년간 52억여원을 지원받아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개발에 나서며 국산 유방암치료제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br/> <br/>조민규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440.txt

제목: 연극계 “故 윤소정은 타고난 배우 하지만 노력파였다”  
날짜: 20170618  
기자: 장지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18162544001  
ID: 01100201.20170618162544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윤소정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배우였다. 하지만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배우였다.” <br/> <br/> 지난 16일 패혈증으로 타계한 배우 윤소정(73)씨에 대해 연극계는 이렇게 회고했다. 50년 넘게 연극 드라마 영화를 오가며 활동했지만 연극은 고인의 배우인생에서 뿌리이자 가장 큰 족적을 남긴 분야다. 17일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고 있는 동료 및 선·후배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br/> <br/> 1966년 극단 자유의 입단 동기인 배우 박정자(75)씨는 “불과 2~3주전에 배우 손숙 윤석화 김성녀, 연출가 손진책, 프로듀서 박명성 등과 함께 전남 해남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건강했던 소정이가 이렇게 갑자기 가다니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소정이에겐 늘 마음의 빚이 있었다. 2010년 연극 ‘33개의 변주곡’은 원래 내가 캐스팅 돼서 연습하던 작품이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내가 포기하면서 소정이가 급하게 투입됐다. 당시 미국에 있던 소정이에게 전화로 부탁하자 극본을 보지도 않고 승낙했다. 소정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면서 “그런데 이 작품이 워낙 어려운데다 공연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된 소정이가 무리한 탓에 대상포진이 걸리고 말았다. 내가 소정이에게 못된 짓을 한 거다. 소정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다”고 덧붙였다. <br/> <br/> 친분이 두터웠던 배우 김성녀(67) 국립창극단 예술감독도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김 감독은 “소정 언니가 병원에서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말을 듣고 손숙, 송도순 씨와 함께 문병갔다. 무균실 밖에서 ‘언니 눈 떠’라고 말했다. 언니가 우리 목소리를 듣고 있을 것만 같았는데, 이틀 뒤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에 멍하고 먹먹해졌다”고 말했다. <br/> <br/> <br/> <br/> 1973년 ‘초분’에서 처음 호흡을 맞춘 이래 지난해 국립극단의 ‘어머니’까지 무려 연극 14편에서 호흡을 맞춘 배우 이호재(76)씨는 아예 말을 잇지 못했다. 고인과 ‘무대 위 부부’로 불릴 만큼 각별했던 이호재씨는 “생각도 못한 일이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은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br/> <br/> 고인의 부군인 배우 오현경(81)씨와 연극 ‘봄날’(7월 28일~8월 6일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공연을 앞둔 연출가 이성열(55) 백수광부 대표는 “윤 선생님의 갑작스런 타계로 쇼크를 받으신 오현경 선생님의 건강이 걱정된다. 오 선생님이 오랜 암 투병 끝에 회복됐다곤 하지만 늘 힘들어하셨다”고 우려했다. <br/> <br/> 연극계 관계자들은 맺고 끊는 것이 분명했던 그의 성격, 후배에게는 각별했던 그의 씀씀이, 노력파였던 그의 연기열정에 대해 추억했다. 박명성(54) 신시컴퍼니 예술감독은 “윤 선생님은 매우 쿨한 성격이지만 후배들을 잘 챙기는 분이었다. 그래서 따르는 후배들이 많았다”고 말했고, 연출가 김광보(53) 서울시극단 단장은 “윤 선생님은 소녀같은 순수함이 있는 배우였다. 일상의 그런 아름다움이 작업에 들어가면 진지함과 더해져 큰 힘을 발휘했다”며 “연출가가 까마득한 후배라도 선배로서의 권위보다 연출가의 지시를 열심히 따르려는 배우였다”고 밝혔다. <br/> <br/> 연극 ‘첼로’  ‘그 자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배장화 배홍련’ ‘강철’에서 고인과 함께했던 연출가 한태숙(57)씨는 “윤 선생님은 나이가 들어도 그로테스크한 매력과 여성적인 매력이 공존하는 독특한 배우였다. 무대에서 집중력이 뛰어났고, 현장을 존중하는 철학을 가진 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선생님이 정말 재능이 없었던 게 있는데, 바로 노래였다. 음치라고 해도 좋을 만큼 노래를 못해서 예전에 ‘그 자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를 연습할 때 서로 고생하면서도 재밌었던 기억이 난다. 그래도 막상 본공연에서는 윤 선생님이 노련한 연기로 노래의 부족함을 많이 감췄다”고 덧붙였다.   <br/> <br/> 평론가 출신인 김윤철(68) 국립극단 예술감독은 “윤 선생님에 대해 늘 타고난 배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난해 국립극단의 ‘어머니’에서 연습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선천적인 재능을 바탕으로 부단히 노력하는 배우라는 것을 알았다. 당시 배우들 가운데 가장 먼저 대본을 외우는가 하면 너무 열심히 연습하다가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면서 “배우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높이 평가받던 분이 떠난 것은 연극계의 큰 손실이다”고 추모했다. <br/> <br/>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41.txt

제목: [월드뷰-박상은] 인공지능, 로보-사피엔스의 서막인가  
날짜: 2017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17213555001  
ID: 01100201.2017061721355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과학의 발전은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컬을 정도로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공지능, 유전자가위 기술, 3D프린팅, 나노기술 등 과거에는 100여년 걸리던 기술이 이제 수년 내 완성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유전자가위 기술은 선천성 유전병을 지닌 환자가 문제의 유전자를 잘라내면 유전병을 예방할 수 있는 첨단기술로 우리나라는 세계 2∼3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더 예쁘고 똑똑한 유전자로 바꾸려는 인간의 욕심과 맞물려 양극화와 획일화된 사회로 치달을 수도 있을 것이다. <br/> <br/> 그중에서도 인공지능은 최근 여러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알파고일 것이다. 한국의 이세돌 9단을 4대 1로 대파한 이후 1년 만에 중국 커제 9단과의 대결에서 전승을 거둬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격찬을 받았다. 이는 알파고가 인간의 바둑 경기를 반복적으로 학습해 온 방법과 달리 스스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자발적 학습을 해온 결과다. <br/> <br/> 중국에서 선보인 인공지능 스님인 알파승 썬얼은 불자들의 고민은 척척 풀어줘 불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스님이 되었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축복의 설교를 거침없이 쏟아내며 손과 얼굴에서 축복의 빛을 발하는 로봇 목사가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근로자나 기술자뿐 아니라 성직자의 영역도 이제 인공지능에게 내줘야 할지 모른다. <br/> <br/> 인천길병원에서 처음 선보인 인공지능 의학로봇 왓슨은 암환자들이 자신의 증상과 검사 결과를 입력하면 가장 적합한 치료 처방을 내주고 있는데, 원로교수들의 처방과 다른 경우 암환자들은 왓슨 처방을 더 신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도 왓슨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의사와 왓슨의 명령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 의사로 나뉜다고 한다. <br/> <br/> 더 혼란스러운 부분은 섹스로봇의 등장이다. 어비스 크리에이션사가 올해 말 시판키로 한 인공지능 섹스로봇 하모니는 1만5000달러(1700만원)의 고가임에도 남성들이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는 실정이다. 향후 결혼 풍속도에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오리라 예견된다. <br/> <br/> 무서운 사실은 군사 킬러로봇일 것이다. 이미 IS전투에 킬러로봇이 투입돼 적을 살상하고 있어 인간생명을 해하는 로봇이 실용화된 셈이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조디 윌리엄스가 킬러로봇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확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로봇에게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까? 킬러로봇이 오작동돼 아군을 대량 살상한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어느 날 드론이 집 안뜰까지 들어와 가족을 향해 사격한다면 어떻게 될까? 문틈으로 나노로봇이 들어와 인간을 살해하려 한다면 과연 이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br/> <br/> 우리는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은 해도 되고, 하고 있는 것은 계속 시행돼야 한다는 과학지상주의에 함몰돼 있는 건 아닌가?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은가? 인간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겨 봐야 한다. 인간생명은 단회적이며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우주보다 귀한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기에 생명에 대한 접근은 절대주의에 입각해 신중히 다뤄야 할 것이다. <br/> <br/> 인공지능과 로봇은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기에 물리적이며 디지털 수준인 약인공지능을 넘어 감성과 자율성을 지닌 인간과 같은 강인공지능 존재로, 나아가 인간보다 뛰어난 초인공지능 로봇으로 진화한다면 이는 인간 파멸을 가져오는 재앙이 될 것이다. 이러한 초인공지능 로봇에 유전자기술과 나노기술을 결합해 로보-사피엔스를 만들어 낸다면 이는 인류를 지배하는 새로운 신인류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단지 섹스로봇이나 감성로봇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족구성원이 되며, 나아가 스스로 복제하며 재생산해내는 로보-사피엔스는 자율적으로 판단하며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는 새로운 지배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br/> <br/> 과연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율성을 지닌 도덕적 존재라면 로봇은 인간의 형상을 닮은 준도덕적인 존재일 것이다. 어차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막을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인공지능에 대한 철학적, 사회적, 신학적 물음을 통해 적절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로봇과의 바람직한 공생의 길을 터득해야 할 것이다. <br/> <br/>글=박상은(샘병원 대표원장·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삽화=이은지 기자 <br/> <br/><br/>※이 칼럼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와 함께합니다.

언론사: 국민일보-3-442.txt

제목: [시온의 소리] 그가 지옥에 간 까닭은  
날짜: 201706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16000056002  
ID: 01100201.20170616000056002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죽음과 영혼은 납량특집의 단골 메뉴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영혼과 죽음, 현세와 내세, 천당과 지옥 등 모든 요소를 갖고 있는 성경 속 납량특집이라 할 수 있다. <br/> <br/>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다. 화려하고 값비싼 의상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그의 집 대문간에는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앉아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주린 배를 채우고자 하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나사로에겐 그의 종기를 핥으려는 개들만 다가올 뿐이었다. <br/> <br/>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이 그들의 죽음 후에 펼쳐진다.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만 부자는 지옥의 불꽃 속에서 고통 받는다. 부자는 심한 갈증과 고통, 단절과 거절을 겪는다. 그는 물 한 방울조차 얻을 수 없었다. <br/> <br/>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평안을 누릴 때 그는 왜 불꽃 속에서 고통 받게 됐을까. 살아 있을 때 그는 부자였고 나사로는 걸인이었기 때문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천국에서 나사로를 반겨준 아브라함 역시 살아있을 때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과 수백 명의 하인을 거느린 부자였다. <br/> <br/> 그럼 부자는 왜 지옥의 불꽃 속에서 괴로움을 받게 된 것일까. 아브라함의 말 속에 그 까닭이 담겨 있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너는 살아 있을 동안에 온갖 호사를 다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br/> <br/> 부자의 운명은 나사로의 운명과 붙어 다닌다. 그림자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고’이다. 부자의 운명과 나사로의 운명은 그렇게 깊이 연결돼 있지만 살아 있을 때 부자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br/> <br/> 부자는 나사로에게 무심하다. 거리의 개들이 나사로의 헌데를 핥을 때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나사로는 개와 동류였다. 놀라운 것은 그가 훗날 불꽃 속에서 드린 간청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제 그가 ‘개’가 돼 있다. <br/> <br/> 나사로에게 부자가 필요했던 만큼이나 부자에게도 나사로가 필요했다. 그러나 부자는 자신의 문을 닫아걸고 출입을 불허하며 살아간다. 그 문은 그에게 기회의 문이다. 문 밖에는 나사로가 있다.(마 25:31∼46) 그러나 그는 나사로에게 건너가지 않았고 나사로 역시 건너올 수 없도록 문을 닫아걸고 출입을 막았다. 거리는 지척이지만 지척이 천리다. <br/> <br/> 내세에선 그들의 사이를 큰 구렁텅이가 가로막는다. 큰 구렁텅이는 부자의 집 대문과 똑같은 일을 한다. 살아서 건너가지 못한 그의 대문이 죽어서 건너가지 못하는 구렁텅이로 발전해 있다. ‘오늘’ 건너올 수 없는 나사로의 문제가 ‘내일’ 건너갈 수 없는 자신의 문제가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자신의 문을 그렇게 닫아걸고 있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br/> <br/> 성문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라고 선포한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였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암 5:15) <br/> <br/> 올 여름 더위에도 많은 이들이 휴가를 얻고 비용을 써서 성문 밖으로 나아가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친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표정이 가득하다. 땀 흘리며 고생해도 그들에게 기쁨이 있는 것은 비유 속의 부자가 알지 못한 천국의 비밀을 알기 때문이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것이다. 이보다 더 더위를 물리치고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 납량특집이 또 있을까. <br/> <br/>박노훈(신촌성결교회 목사)

언론사: 국민일보-3-443.txt

제목: 건강보험 月 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날짜: 20170615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15182455001  
ID: 01100201.201706151824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가구당 10만4000원가량을 보험료로 내고 병원 진료 등으로 18만3900원의 보험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낸 보험료보다 받은 혜택이 적은 가구가 절반을 넘었다. <br/> <br/>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6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1년간 자격 변동 없는 1695만 가구, 3855만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4062원으로 처음 10만원을 넘었고 매달 18만3961원을 보험급여로 돌려받았다. <br/> <br/> 직역·소득별로 보면 보험료 하위 20% 지역 가구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는 12.8배, 직장 가입자는 4.0배의 혜택을 봤다. 반면 보험료 상위 20% 지역 가구는 1.0배로 나타났다. 직장 가입자는 1.2배로 지역 가입자보다 나았다. <br/> <br/> 심장질환자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가 8.0배로 가장 높았고 뇌혈관질환 7.7배, 희귀질환 4.1배, 암 3.7배, 경증질환 0.4배 순이었다. 저소득 중증 질환일수록 보험 혜택이 더 컸다. <br/> <br/> 하지만 1695만 가구 중 46.3%(785만 가구)만이 낸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 혜택을 누렸고 53.7%(910만 가구)는 혜택이 더 적었다. <br/> <br/> 저소득층인 보험료 하위 20% 가구의 인구 554만명 중 의료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8.4%(46만명)로 상위 20% 가구의 해당 비율(5.3%)보다 높았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44.txt

제목: ‘12년 동안 231회’ 헌혈왕 김현진씨 복지부 장관상… “헌혈, 이웃의 생명 살릴 수 있는 멋진 일”  
날짜: 20170614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14213655001  
ID: 01100201.20170614213655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span class='quot0'>잠깐 불편하지만 생사의 기로에 선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 아닌가요?</span>” <br/> <br/> 금융결제원 고객지원실에서 일하는 김현진(43·여·사진)씨는 13일 헌혈의 기쁨을 이같이 말했다. 서른한 살에 헌혈을 시작해 12년 넘게 한 달 평균 1.5회꼴로 생명나눔을 실천해 왔다. 지금까지 모두 231차례 헌혈에 참여했다. 그는 특히 백혈병 어린이들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90분 이상 시간이 걸리는 혈소판 헌혈을 많이 한다. 231차례 중 202회가 혈소판 헌혈이다. <br/> <br/> 혈소판은 재생불량성빈혈이나 암 백혈병 등에 걸리면 감소해 이들 환자에게는 절실하다. <br/> <br/> 김씨가 생명나눔에 적극 동참하게 된 계기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1998년 위암과 간암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을 때 수혈과 헌혈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면서다. 그때 가족이 헌혈증을 조달해야 했는데, 헌혈증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른 아픈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br/> <br/> 김씨는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14회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는다. 복지부는 김씨를 포함한 헌혈 유공자 29명과 9개 기관에 장관상을 수여한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45.txt

제목: [And 건강] 멍울 잡힌다면… 유방암도 ‘男의 일’  
날짜: 20170613  
기자: 글·사진=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13050058001  
ID: 01100201.2017061305005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이미지를 크게 보려면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클릭<br/><br/>하세요 <br/> <br/><br/>“오른쪽 젖꼭지 밑에 뭔가 딱딱한 게 만져져 이상하다고 여기긴 했는데…. 남자가 유방암에 걸리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지요.” <br/> <br/> 지난해 11월 뜬금없이 유방암 진단을 받은 이모(57)씨는 12일 “<span class='quot0'>불편함이나 통증이 없어 처음엔 병원에 가 봐야겠다는 생각도 안 했다</span>”고 했다. 하지만 1년 넘게 덩어리가 만져지자 병원을 찾았고 흔히 여성들이 하는 유방 촬영과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br/> <br/> 처음엔 ‘양성 물혹’(낭종)이나 ‘여성형 유방증’(마치 여성처럼 가슴이 커지는 증상)이 의심됐다. 그런데 물혹을 없애는 수술 도중 아주 초기 유방암에 해당되는 ‘상피내암’(흔히 유방암 0기로 불림)으로 최종 진단됐다. 다행히 유관(젖분비 통로)에 암이 머물러 있는 단계로, 제거수술 후 항암과 방사선 치료 없이 정기 검진을 계속하고 있다. <br/> <br/> 없는 것 같지만 남성에게도 유방 조직(유선·지방 등)이 있다. 다만 여성들에 비해 양이 적고 젖꼭지(유두) 밑에 몰려 있다. 여성은 가슴 전체에 흩어져 있다. 따라서 남성 역시 드물긴 해도 유방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br/> <br/> 중앙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4년 신규로 발생한 남성 유방암 환자는 77명이다. 전체 유방암 환자(1만8381명)의 0.41%다. 그 수가 굉장히 적긴 해도 매년 60∼80명의 남성이 새로 유방암에 걸린다. <br/> <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유방암 진료 현황을 보면 남성 환자가 2013년까지 400명대였다가 2014년부터 3년째 500명을 넘고 있다. 지난해 유방암 진료 남성 552명 중 60대가 31.5%(174명)로 가장 많았고 70대(24.1%) 50대(23.4%) 80대 이상(12.0%) 등 순이었다.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은 50세를 넘긴 장·노년층으로 여성보다 늦게 발병한다는 얘기다. <br/> <br/> 서울아산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정일용 교수는 “<span class='quot1'>전체 암 중에서 그 수가 적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남성 유방암이 증가한다고 볼 순 없지만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 미세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span>”고 설명했다. <br/> <br/> 문제는 여성암으로만 인식돼 남성의 인지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의심 증상이 있어도 병원을 뒤늦게 찾거나 유방암임을 알면서도 부끄러움과 어색함에 치료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정 교수는 “<span class='quot1'>모든 남성들에게 유방암 위험을 알리고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1'>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거나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된 경우 등 고위험군에 해당된다면 가족 안에서 인식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br/> <br/> 유전자 돌연변이 있으면 100배 위험 <br/> <br/> 남성 유방암의 가장 큰 위험인자는 ‘BRCA 유전자’의 돌연변이다. BRCA 유전자는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DNA 손상을 고치는 일종의 ‘수리공’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DNA 손상이 쌓여 여러 장기에 이상을 초래한다. 특히 남성에게 유방암과 전립선암을, 여성에게는 유방암과 난소암을 일으킨다. <br/> <br/> 해외 연구에 따르면 BRCA 유전자 변이를 물려받은 남성은 일반 남성에 비해 유방암 발생 위험이 100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한국유방암학회 조사에 의하면 일반 남성이 평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0.1%에 불과하지만 BRCA1 유전자 변이를 지닌 남성은 1.2%, BRCA2 유전자를 가진 남성은 7∼8%에 달했다. 가족 중에 2명 이상 유방암 환자가 있는 가계(가족성 유방암)에서는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을 확률이 10∼20% 더 높다. <br/> <br/> 김모(37)씨는 지난해 12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이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그의 가족 중에는 유방암 환자가 무려 4명이나 된다. 1남 7녀의 형제 중 막내인데, 누나 4명이 모두 30, 40대에 유방암에 걸렸다. 이모도 유방암 환자다. 이런 가계도를 눈여겨본 의사의 권유로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BRCA 유전자 변이가 발견됐다. 김씨를 포함해 4명이 모두 변이 유전자를 지녔고 특히 40대에 암이 발병한 한 누나의 두 딸 중 1명도 보인자로 밝혀졌다. 아직 암에 걸리진 않았지만 김씨는 6개월 단위 검진을 빠지지 않고 받고 있다. <br/> <br/> 정 교수는 “자녀 등에게 불이익이 될까봐 유전자 검사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 가족 간에도 비밀로 하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가족 중 여성이든 남성이든 유방암 확진을 받았다면 남성의 경우도 돌연변이 유전자를 물려받았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남성과 여성 호르몬의 비율에 이상이 생기는 희귀병인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나 방사선 노출, 비만 등도 남성 유방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br/> <br/> 한쪽 유방에 통증 없는 멍울 ‘의심’ <br/> <br/> 유방암 증상은 남녀가 비슷하다. ‘한쪽 유방에 통증이 없는 멍울’이 만져지는 게 가장 흔한 증상. 유두에서 피 섞인 분비물이 나오거나 주변 피부색이 빨갛게(혹은 시커멓게) 변하고 습진이 생기거나 심하면 괴사가 일어나 움푹 들어간다. 이 단계 정도면 암이 최소 3기 이상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남성은 대개 젖꼭지 바로 밑에서 딱딱한 게 만져지지만 여성은 가슴 어디에서든 멍울이 만져질 수 있다. <br/> <br/> 유두가 들어가거나 유방이 커지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여성형 유방증’과도 헷갈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춘기나 노년에 호르몬 불균형 등으로 유방이 커지는 여성형 유방증은 ‘양쪽 유방에 통증이 있고 단단하지 않은 멍울’이 만져지는 게 다르다. <br/> <br/> 서울대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이은신 교수는 “남성 유방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유두 포함 전부 절제) 등으로 치료가 비교적 잘된다. 다만 유전자 검사에서 암이 발견돼도 여성처럼 암 예방 목적으로 다른 쪽 유방 절제 수술이 권고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br/> <br/> 서울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유방센터장은 “<span class='quot2'>남성은 여성과 달리 유방암에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암세포가 가슴근육이나 피부로 침범한 상태로 늦게 발견돼 치료 성적이 나쁜 사례도 적지 않다</span>”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성 유방암은 5년 상대 생존율이 여성에 비해 5∼10%가량 낮다. <br/> <br/> 남성의 경우 유방암 진단을 받았거나 암 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족 중 변이 유전자가 발견됐다면 유전자 검사를 꼭 받아봐야 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3'>또 35세부터는 매달 유방암 자가 진단(스스로 유방을 만져보는 등 체크)과 함께 6∼12개월 간격으로 전문의한테 유방 검진을 필히 받고 40세부터는 유방촬영 및 전립선암 조기 진단을 위한 선별검사(PSA)와 직장수지검사(항문에 손가락 넣어 전립선 촉진), 혈액검사도 매년 받는 게 좋다</span>”고 조언했다. <br/> <br/>글·사진=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446.txt

제목: [And 건강] 국내도 암 예방 유방 절제술 급증  
날짜: 20170613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13050057001  
ID: 01100201.2017061305005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국내에도 예방 목적의 유방·난소암 치료가 크게 늘고 있다. 유전성 유방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와 암 예방을 위한 유방·난소 절제 수술이 급증했다. <br/> <br/>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BRCA1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건수는 2012년 1044건에서 지난해 4408건으로 4.2배 증가했다. BRCA2 유전자 검사도 2012년 957건에서 지난해 4430건으로 4.6배 늘었다. <br/> <br/> 한국유방암학회가 지난해 전국 28개 대학병원에서 한쪽 유방암 환자 중 BRCA 변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 717명을 조사한 결과, 암 예방을 위해 다른 쪽 유방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은 사례가 2012년 4건에서 2015년 20건으로, 양쪽 난소 절제 수술은 16건에서 75건으로 증가했다. <br/> <br/> 예방적 유방 절제 수술은 말 그대로 암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암을 막기 위해 유방을 미리 잘라내는 치료다. 다른 신체 조직과 달리 유방은 절제해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 이 때문에 암세포가 주로 생기는 유방 조직(유선·유관)을 제거하면 암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최근 활성화된 유방 복원 수술도 한몫했다. 난소 절제는 출산을 다 했거나 폐경된 여성들에게 권고된다. 특히 2013년 유방암 및 난소암 가족력이 많았던 할리우드 배우 앤젤리나 졸리가 예방적 유방 절제술을 받았다고 알려지면서 국내에 인식이 높아졌다. <br/> <br/> 유전성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의 10∼15%를 차지한다. 국내 보고에 의하면 BRCA1 변이 유전자 여성의 경우 70세까지 유방암 발생 위험은 72.1%, 난소암 발생 위험은 44%나 된다. BRCA2 변이의 경우는 각각 66.3%, 15.9%로 나타났다. <br/> <br/> 서울아산병원 손병호 교수는 “유방암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다 유전성 유방암은 아니다. 유전자 검사는 반드시 유전상담을 통해 BRCA 변이 확률이 높은 여성들을 대상으로만 이뤄져야 하며, 특히 예방적 유방·난소 수술도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득실을 충분히 따져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br/> 다만 BRCA 이상이 있는 여성은 일반 여성보다 유방 검진을 일찍 받아야 한다. 대개 19세부터 자가 진단을 시작하고 25세부터는 6개월 간격으로 전문의에 의한 유방검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유방암 예방을 위해 평소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1주일에 5회 이상 운동하는 게 좋다. 서울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유방센터장은 “<span class='quot0'>특히 BRCA2 변이 유전자를 가진 경우 콩 속의 제니스테인 성분이 암을 억제하는 효능이 입증된 만큼 콩 섭취를 늘릴 필요도 있다</span>”고 했다. <br/> <br/>민태원 기자, 그래픽=이석희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447.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115) 경희대병원 위암치료팀] 위암 치료 인프라 탄탄해 ‘적정성’ 2년 연속 1등급  
날짜: 201706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13205955001  
ID: 01100201.201706132059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span class='quot0'>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는 생명을 구합니다.</span>” 경희대병원 소화기센터 앞에 걸린 대형 액자 속 문구다. 치명적인 소화기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정기검진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오가는 이들에게 전하고 있다. <br/> <br/> 경희대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위암 적정성 평가에서 최근 2년 연속 1등급 판정을 받았다. 내시경 검사를 통한 조기발견 시스템을 기반으로 조기 위암 내시경 절제술, 복강경 및 로봇 위암수술, 항암화학요법 치료 등 위암 극복에 필요한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다는 뜻이다. <br/> <br/> 위암은 한국인에게 두 번째로 많이 발견되는 암이다. 그만큼 치료법도 많이 발전했다. 경희대병원 위암 치료팀도 그렇다. 장재영(47)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12일 “<span class='quot1'>발병 초기에 발견하기만 하면 완치율이 96% 이상에 이른다</span>”고 자랑했다. <br/> <br/>신속 정확한 내·외과 협진 유명 <br/> <br/> 경희대병원 위암 치료팀은 무엇보다 의료진 간 신속, 정확한 협력진료가 강점이다. 소화기내과 장재영 교수와 상부위장관외과 김용호(49) 교수, 종양혈액내과 맹치훈(38) 교수가 진료 중 수시로 실시간 협진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과 함께 환자 개인별 맞춤 치료계획을 수립, 좋은 결실을 얻도록 해줘 호평을 받고 있다. <br/> <br/> 예를 들어 내시경 치료가 가능한 조기 위암 환자가 외과로 먼저 왔을 경우, 김용호 교수팀은 위내시경 사진을 보고 곧바로 소화기내과 장재영 교수팀한테 연락한다. 내시경 시술만으로도 100% 암 퇴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br/> <br/> 반대로 장 교수팀이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위암을 확인한 경우에도 외과 김용호 교수와 종양혈액내과 맹치훈 교수의 의견을 구한다. 그 결과 수술하는 게 낫다는 판정이 내려졌을 때는 김용호 교수팀, 병기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수술로 암의 뿌리를 다 뽑기가 힘들다고 여겨질 때는 맹치훈 교수팀에게 각각 의뢰해 최적의 개인맞춤 치료를 도모한다. <br/> <br/> 검사에서부터 치료계획 수립까지 모든 과정은 암 환자들의 편의 향상에 맞춰져 있다. 방문 당일 일사천리로 검사에서 치료까지 전 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진다. <br/> <br/> 내시경 시술을 하든 복강경·로봇 수술을 하든, 위암 진단 후 본격 치료가 시작되기까지 아무리 늦어도 1주일을 넘기지 않으려 애쓴다.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믿는 까닭이다. 암 진단을 받은 환자와 그 가족들의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을 최단시간 내 치료로 씻어주려는 배려다. <br/> <br/>내시경 위암 절제 환자 5년 생존율 96% <br/> <br/> 암세포가 위 점막 아래층에만 머무는 단계의 조기 위암은 수술하지 않고, 소화기내시경 시술(내시경절제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br/> <br/> 장재영 교수팀이 주로 시술하는 내시경 절제술은 암 조직만 살짝 도려내는 게 장점이다. 다만 10명 중 1명꼴로 재발 위험이 있으므로 시술 후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진이 필수적이다. <br/> <br/> 내시경을 이용한 조기 위암 치료는 위를 보존하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삶의 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시술시간이 짧고, 회복이 빨라 입원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br/> <br/> 경희대병원 위암치료팀은 내시경 시술만으로는 암 퇴치가 쉽지 않을 때도 복강경 또는 로봇을 이용한 최소침습수술 또는 기능보존 축소수술로 상처를 최소화해주고 있다. <br/> <br/> 일반적으로 복강경 위절제술과 로봇수술은 1기 이하 조기위암이라도 이미 근육 층까지 침투, 내시경 시술만으로는 근치가 쉽지 않은 경우와 림프절 전이가 있는 위암 환자 치료에 적용된다. <br/> <br/> 수술 원칙은 위암이 자리 잡은 부위와 충분히 떨어져 안전한 곳까지 폭넓게 위를 잘라내고 주위 림프절도 모두 절제해 전이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br/> <br/> 로봇수술은 로봇 팔을 조수처럼 활용, 숙련된 집도의 한 명이 카메라 위치를 비롯한 모든 수술 기구를 혼자서 조종하며 수술을 진행하는 치료법이다. <br/> <br/> 김용호 교수팀은 특히 좁은 공간에서 360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 팔로 암 주위 조직을 단단히 고정하고, 암 조직만을 정교하게 깨끗이 도려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br/> <br/>정기 내시경검진과 HP균 치료 중요 <br/> <br/> 요즘 위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위험인자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감염이다. 위암 환자의 71∼95%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발견되고 있다. <br/> <br/> 장재영 교수는 “위암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폐암의 담배와 비슷한 관계다. 흡연을 하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자가 많은 나라일수록 위암 발생률도 높다”고 설명했다. <br/> <br/> 이는 이미 위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끝낸 환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감염을 막아 재발위험을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br/> <br/> 이를 위해선 회식자리에서 술잔 돌리기, 개인 접시를 사용하지 않고 한 냄비의 음식을 다 같이 떠먹는 식습관부터 고쳐야 한다. <br/> <br/>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을 막는 일도 중요하다. 위축성 위염은 위 점막이 만성 염증에 의해 얇아져 핏줄까지 보이는 상태, 장상피화생은 만성 위축성 위염으로 위 점막이 장점막처럼 변해 쭈글쭈글해진 상태를 가리킨다. 위축성 위염은 16세 이상 남성의 42.7%, 여성의 38%에서 발견된다. 장상피화생의 유병률은 남성 42.5%, 여성 32.7%다. <br/> <br/>경희대병원 위암치료팀 3인은 <br/> <br/>장재영 교수, 점막하 조기위암 내시경 절제술 명인 <br/> <br/>김용호 교수, 정교한 수술로 이름나 <br/> <br/>맹치훈 교수, 위암·폐암 등 전문진료 <br/> <br/>장재영 교수는 원내에선 점막하 조기위암 내시경 절제술 명인(名人), 원외에선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 잘해주는 명의(名醫)로 알려져 있다. <br/> <br/> 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맘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와 같이 푸근한 인상과 따뜻한 말씨에서 환자들이 마음의 안정과 위안을 얻게 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br/> <br/> 전문 진료 분야는 식도, 위, 대장질환 및 운동질환, 위장관암의 내시경치료다. 2015년부터 경희의료원 동서건강증진센터장을 역임하고 있다. 현재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내시경기기/스텐트연구위원장, 질관리위원, 자격심사위원, 글로벌 네트워크 교육위원 등 1인4역을 하면서 대한소화기학회 학술위원과 대한의학회 전시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br/> <br/> 김용호 교수는 평소 말수가 적고 신중한 스타일이다. 하지만, 수술에 임할 때는 늘 엄정하고 정교하며 세심하기로 정평이 난 ‘칼잡이’로 통한다. <br/> <br/> 서울아산병원 상부위장관외과 전임의와 강릉아산병원 외과 조교수를 역임하고 2006년 9월 모교인 경희대병원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위암 수술팀을 이끌고 있다. 전문 분야는 위암의 복강경 및 로봇 수술이다. <br/> <br/> 맹치훈 교수는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전임의를 거쳐 2013년부터 경희대병원 종양혈액내과에서 각종 진행 암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전문 진료 분야는 위암, 폐암, 대장·직장암, 비뇨생식기암의 진단과 치료다. <br/> <br/> 현재 미국 임상암학회(ASCO)와 유럽암학회(ESMO) 정회원으로 한국임상암학회 보험정책위원, 대한항암요법연구회 홍보위원,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기획위원회 간사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br/> <br/> 관계자는 “<span class='quot2'>(맹 교수가) 경희의료원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말기 암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span>”고 소개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48.txt

제목: 임재범 아내 뮤지컬배우 송남영, 6년 암 투병 끝 별세  
날짜: 20170612  
기자: 권남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12133244002  
ID: 01100201.2017061213324400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가수 임재범(55)의 부인인 뮤지컬배우 송남영씨가 암 투병 끝에 45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br/> <br/>12일 가요계에 따르면 송남영씨는 갑상선암이 간과 위로 전이돼 투병해오다 이날 오후 세상을 떠났다. <br/> <br/>서울예대 연극과 출신인 송남영씨는 뮤지컬 ‘명성황후’ ‘페임’ ‘겨울 나그네’ ‘하드록 카페’ 등에 출연했다. 임재범과는 2001년 결혼해 슬하에 딸을 뒀다. <br/> <br/>임재범은 2011년 MBC ‘우리들의 일밤-서바이벌 나는 가수다’ 출연 당시 팬카페에 글을 올려 아내의 투병 사실을 알렸다. 그는 “제 아내 송남영이 암 투병 중”이라며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r/> <br/>임재범은 “<span class='quot0'>결혼 10주년 기념일 즈음 아내가 병원에서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갑상선 암 제거를 했는데 간·위로 전이됐다는 추가 진단을 받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육체의 병보다는 아내가 무척 외롭고 힘들어할 때 한 여인의 남자로서 많이 아프고 힘이 든다</span>”고 털어놨다. <br/> <br/>20년간 방송에 거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던 그는 아내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이 프로그램 출연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4일 오후 12시, 장지는 에덴낙원공원(02-2227-7500). <br/> <br/>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49.txt

제목: 토종한약 편강탕, 혈관청소 HDL수치도 높인다  
날짜: 20170612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12110444001  
ID: 01100201.20170612110444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아토피 천식과 알레르기비염,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에 주로 처방되는 토종 한약 '편강탕'이 피를 맑게 하는 고밀도지단백(HDL)의 혈중 농도를 높여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건국대학교는 수의과대학 박희명 교수 연구팀이 개들에게 편강탕을 투여하고 혈청 단백 및 지단백 성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br/> <br/>연구결과는 한국임상수의학회가 발행하는 영문판 학술지 ‘저널 오브 베터러너리 클리닉스’(JVC) 최근호에 실렸다(사진). <br/> <br/>편강탕은 서효석 편강한의원 서초본점 대표원장이 오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독자 개발한 토종 한약이다. 맥문동, 도라지, 금은화, 창이자, 사삼을 포함한 10가지 이상의 한약재가 혼합 처방돼 있다. <br/> <br/>연구진팀은 혈액학, 혈액화학, 혈청 단백 및 지단백 성분에 편강탕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임상적으로 건강한 비글 개 15마리를 선정했다. <br/> <br/>이어 실험군인 A그룹 5마리에는 편강탕 33㎖, B그룹 5마리에는 편강탕 16.5㎖를, 대조군으로 삼은 C그룹 5마리에는 증류수 33㎖를 각각 하루에 3번씩 4주 동안 경구 투여하고 체내에서 어떤 변환가 일어나는지 관찰했다. <br/> <br/>[도표] <br/>편강탕 투여 전후 비글의 지질과 지질단백 EP평가표 <br/> <br/>그 결과 편강탕 투여 4주후, 편강탕을 투여한 실험군 A, B 두 그룹의 고밀도지단백질(HDL)은 유의미하게 증가한 반면, 대조군 C그룹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br/> <br/>박희명 교수는 이에 대해 “편강탕 투여 후 이 수치가 증가되어 편강탕이 향후 이 질환들의 관리에 도움을 주었다는 뜻”이라며 “HDL은 혈액에서 콜레스테롤 주요 전달 인자들 중 하나이다. 인간에서 HDL 기능 조절과 혈청 농도는 심혈관 질환, 암, 신경퇴행성 및 신경혈관 질환의 관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br/> <br/>박희명 교수팀은 이 같은 효과가 다른 동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쥐실험도 실시했다. 그 결과 특별한 부작용 없이 편강탕 투여 후 HDL 수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br/> <br/>박희명 교수는 “한약은 인간과 수의학에서 전세계적으로 널리 처방되어 왔으나 한약재는 간과 신장 손상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왔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편강탕의 안전성을 단기간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br/> <br/>“안전성과 효능을 완전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임상 시험과 장기간의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후속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오랫동안 한약의 효능입증을 좀더 과학화 하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50.txt

제목: 항생제＋비타민C 투여했더니… 항암제 효과의 100배  
날짜: 20170612  
기자: 구성찬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12050057001  
ID: 01100201.2017061205005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세포에 기존의 항암제 대신 흔히 구할 수 있는 항생제와 비타민C를 함께 투입했더니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100배 이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직 실험실 연구단계이지만 임상에서도 효과가 비슷할 경우 암 치료에 새 전기가 될 전망이다. 외신들은 특히 항생제나 비타민이 항암제에 비해 부작용이 거의 없고, 가격도 훨씬 싸다는 점에 주목했다. <br/> <br/> 영국 데일리메일은 9일(현지시간) 국제 의학전문지 ‘온코타깃’ 최신호에 실린 영국 샐퍼드대학 마이클 리산티 교수팀의 최근 암세포 제거 실험 결과를 소개했다. <br/> <br/> 이 팀은 실험실에서 배양된 암세포에 3개월간 항생제 독시사이클린을 투입했다. 독시사이클린은 여드름 치료 등에 쓰이는 흔한 항생제다. 3개월간 투입량을 점진적으로 늘렸고, 그 뒤에 비타민C를 추가 투입했다. 비타민C는 암세포가 체내에서 흡수하는 여러 영양소 가운데 포도당 한 가지만을 흡수하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 다음 영양소 중 포도당을 들어냈더니 포도당만 먹는 데 익숙해져 있던 암세포가 굶어 죽었다. <br/> <br/> 리산티 교수팀은 지난 3월에도 비타민C를 효율적으로 투입할 경우 항암제보다 암세포 제거에 최대 10배까지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다. 리산티 교수는 이번 결과에 대해 “<span class='quot0'>비타민C와 항생제의 결합제(compound)가 암세포 제거에 탁월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 미국의 건강 관련 매체 케어2는 이 연구결과를 전하며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싸지 않은 ‘소박한 비타민’이 암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신나는 연구결과”라고 평가했다. <br/> <br/> 암 치료와 관련해선 최근 일본에서도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요미우리신문 홈페이지에 따르면 도쿄 오모리적십자병원이 최근 도쿄와 가나가와현의 대형 병원 5곳에서 근무하는 의사 53명, 약사 29명을 조사한 결과 25.6%인 21명이 ‘항암 치료를 받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받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만약 당신이 위암 환자라면 항암 치료를 받겠느냐’는 질문이 던져졌다. 항암치료에 소극적인 까닭에 대해선 ‘완치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거나 ‘시간 낭비여서’, ‘수명 연장을 바라지 않기 때문’ 등이라고 답했다. <br/> <br/>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전체 응답자 중 1명을 제외하고는 현재 자신의 환자에게 항암제를 권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 ‘그게 내 업무니까’라고 설명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요미우리는 “<span class='quot1'>항암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의료 종사자들의 속내가 드러난 것</span>”이라고 지적했다. <br/> <br/> 조사를 수행한 오모리적십자병원의 사사키 마코토 외과부장은 “<span class='quot2'>항암제는 효과나 부작용에 개인차가 크다</span>”면서 “<span class='quot2'>환자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 <br/> <br/>글=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삽화=전진이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451.txt

제목: 또 ‘음주운전·위장전입’… 野 대공세 예고  
날짜: 20170612  
기자: 정건희 이종선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12050007001  
ID: 01100201.20170612050007001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야권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5개 부처 장관 인선과 관련해 비판을 쏟아내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청와대는 이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인사에서도 공직배제 5대 원칙(병역면탈·위장전입·논문표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을 위반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br/> <br/>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번 장관 인사를 “<span class='quot0'>전형적인 캠프 보은 인사이자 코드 인사</span>”라며 “<span class='quot0'>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능력을 ‘현미경 검증’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음주운전, 위장전입 자진 신고에 대해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사례를 볼 때 청와대 검증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이번에도 청와대가 발표한 인사들의 흠결이 빙산의 일각은 아닐지 염려가 앞선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송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span class='quot1'>원칙과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span>”며 “<span class='quot1'>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경시한 처사</span>”라고 비판했다. <br/> <br/>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조대엽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음주운전은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묵과할 수 없는 범죄다. 청와대의 선제적 고백이 면죄부가 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br/> <br/> 송영무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span class='quot2'>1988년 대전에서 군인공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당시 규정이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을 하라는 것이어서 주소를 옮겼다</span>”고 해명했다. 그는 “<span class='quot2'>아버지가 암으로 투병 중이었고 딸도 암에 걸린 상태여서 고향에 아파트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2'>투기지역도 아니었고 가격도 오르지 않았다</span>”고 말했다. <br/> <br/> 한편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그동안 사회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 이제야 문제가 되는 일들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인사검증 기준 개선의 방향성을 시사했다. ‘고의성’과 ‘기준 시점’을 감안해 기준을 세우겠다는 의미다. <br/> <br/>정건희 이종선 기자 <br/> <br/> moderat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52.txt

제목: 건강전문기업 이롬, 대한민국 첫 ‘면역관리사’ 125여 명 배출  
날짜: 201706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10090044001  
ID: 01100201.2017061009004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생식, 두유, 면역제품 등을 판매하는 건강전문기업 이롬이 지난 2일 단국대학교에서 ‘면역관리사 1기 과정’ 졸업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br/> <br/>이롬은 ‘고객들의 맞춤형 면역관리’를 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올 3월부터 3개월간 단국대학교와 제휴를 맺고 가맹점 헬스컨설턴트들을 대상으로 ‘면역관리사 과정 1기’ 과정을 진행했다. <br/> <br/>본 과정은 매주 금요일마다 이롬의 전국가맹점 직원 중에 125여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강의는 ‘생애주기별 영양목표와 영양관리법’, ’암과 면역에 대한 이해’, ‘상담이론과 실제’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br/> <br/>3개월간의 교육이 끝나고 진행된 ‘면역관리사 1기 과정’ 졸업식은 6월 2일 단국대학교에서 진행됐으며 단국대 부총장 예하 교수들과 이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한층 더 빛냈다. <br/> <br/>졸업식 일정은 졸업생들 개인 독사진 촬영 이후 단국대 부총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특히 수료자 대표 소감 발표 때에 졸업생들로부터 반응이 뜨거웠다. <br/> <br/> <br/> <br/>‘면역관리사 1기 과정’을 마친 졸업생이자 이롬 가맹점 직원인 경남단 김영숙 건강컨설턴트는 “<span class='quot0'>영양학 교수님이 세대별로 다른 오메가3, 단백질 등의 영양의 중요성을 강의해 줬는데 이 강의를 통해 앞으로 세대별로 고객들에게 정확한 맞춤형 상담을 해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span>”고 전했다. <br/> <br/>본 강의를 진행한 단국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전문적인 면역관리사’가 되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이롬의 헬스컨설턴트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었다. <br/> <br/>본 면역관리사 과정 1기를 담당한 단국대 식품영양학과 정윤화 교수는 “<span class='quot1'>처음에는 이롬의 헬스컨설턴트들이 학생들에 비해 나이도 많은 편이고 전국적으로 멀리 분포되어 있어 우려를 했었다</span>”며 “<span class='quot1'>하지만 멀리 강원도 부산 등에서도 매주 금요일마다 출석하는 등 높은 열의에 놀랐다</span>”고 말했다. <br/> <br/>또한 정 교수는 “강의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수업에 임하는 등 수업 태도가 매우 좋았다”면서 “이로 인해 시험 성적도 매우 우수했다. 향후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면역관리사로 훌륭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r/> <br/>‘면역관리사 1기‘ 과정을 진행한 이롬의 WU사업부 이성애 과장은 “<span class='quot2'>현장에서 올바른 면역력 관리법에 대한 고개들의 문의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추세</span>”라며 “<span class='quot2'>면역관리사 1기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 면역관리사를 배출함으로써 고객들 개개인에 맞는 올바른 면역 관리를 실천할 수 있게 돼 기쁘다</span>”고 전했다.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53.txt

제목: 내가 암환자라면…日 의사 4명 중 1명 “항암치료 안 받아”  
날짜: 20170609  
기자: 권중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09144044002  
ID: 01100201.20170609144044002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일본 의사 4명 중 1명은 자신이 암에 걸린다면 항암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제한적인 경우에만 받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일본 도쿄 오모리적십자병원의 사사키 마코토 외과부장이 5개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9일 요리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의사 53명과 약제사 29명 등 82명이 조사에 응했다. <br/> <br/>항암제는 재발이나 다른 장기로 전이가 진행되는 암 환자에 대한 표준치료지만 부작용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의료인 솔직한 생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br/> <br/>“<span class='quot0'>자신이 진행암 환자라면 항암제 치료를 받겠느냐</span>”는 질문에 25.6%(21명)가 “받고 싶지 않다” “한정된 경우에만 받겠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아서” “시간 낭비” “연명을 바라지 않기 때문” “부작용이 고통스러워서” 등의 답변이 있었다. <br/> <br/>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54.txt

제목: [사건 인사이드] 지하수에 천년초 섞어 ‘기적의 물’ 속여 폭리  
날짜: 20170609  
기자: 임주언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09050206001  
ID: 01100201.20170609050206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지하수에 천년초를 섞어 “각종 질병에 탁월한 기적의 물”이라고 속여 팔아 폭리를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br/> <br/>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위생법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염모(53·여)씨와 제품 홍보강사 A씨(58)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염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사실상 생수나 다름없는 제품의 가격을 10배 이상 부풀려 5억25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 이들은 경기도 가평군의 취수장에서 끌어올린 지하수에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약용 선인장인 천년초 즙을 소량 넣어 “세계 4대 성수(聖水)보다 천연유황과 게르마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신비의 기적수”라고 광고했다.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노인과 주부 등 1310명을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해 세트(2ℓ짜리 45병)당 19만8000원에 팔았다. 혈액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말을 믿은 피해자들은 일반 생수보다 10배 이상 비싼 값을 치르고 이 물을 샀다. 피해자는 60, 70대가 주를 이뤘으며 이들 중에는 암 환자도 있었고 가족 중에 암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r/> <br/>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이들이 판 물에서는 게르마늄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도 없었지만 사실상 시중에 파는 생수와 별 차이가 없었다. 제조 과정도 비위생적이었다. 경찰은 “<span class='quot0'>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는 제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 <br/>글=임주언 기자 eon@kmib.co.kr, 삽화=전진이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455.txt

제목: [한마당-정진영] 알자회  
날짜: 201706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09175555001  
ID: 01100201.20170609175555001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육군사관학교 출신 일부 장교들의 사적 모임인 ‘알자회’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달 초 국회에서 사드(THAAD)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의 배후에 알자회가 있다고 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한창일 때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span class='quot0'>알자회가 살아나고 있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안봉근 전 비서관이 봐주고 있다는 소리가 있다</span>”고 주장했다. <br/> <br/> 가까운 지인 가운데 알자회 회원이 있다. 육사를 최우등으로 졸업해 위관급 때부터 청와대 30경비단, 수도경비사령부, 용산 미8군 등 주요 부서에서 근무했다. 그러다 언젠가부터 최전방이나 서울과 멀리 떨어진 후방으로 전보됐다. 소령 이후는 동기들 보다 승진이 한참 뒤졌다. 알자회 불이익이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물어봤다. <br/> <br/> -알자회가 아직 있나. <br/> <br/> “<span class='quot1'>없지, 그게 언제 없어졌는데.</span>” <br/> <br/> -근데 왜 또 얘기가 나오나. <br/> <br/> “몰라, 난들 아나. 내가 얼마나 피해당했는지 당신이 잘 알잖아.” <br/> <br/> 공조직에서 사적 네트워크는 치명적 해악이다. 사적 충성은 반드시 공적 보상의 대가를 바란다. 결국에는 조직을 망친다. 위계가 어느 집단보다 엄격한 군의 사적 모임은 더더욱 경계돼야 한다. 12·12 하극상 쿠데타나 5·18 당시 강경진압 같은 비극은 ‘하나회’가 없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br/> <br/>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에 전격적으로 하나회를 손봤다. 권영해 국방장관을 불러 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예편시키도록 했다. 하나회 몰락의 시작이었다. 이어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하나회가 차지했던 군 요직을 비하나회로 채웠다. 이 시기를 전후해 육사 34기에서 43기 100여명으로 이뤄진 알자회도 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지인 말대로 알자회가 오래전에 사라졌는지, 홍 의원 주장처럼 존재하는지 명확지 않다. 분명한 것은 군은 물론 모든 조직에서의 사적 분파는 암적 요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점이다. <br/> <br/>정진영 논설위원, 그래픽=이영은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456.txt

제목: [오늘의 국민일보] 집에서 가족과…'이별'도 행복하다  
날짜: 20170608  
기자: 박효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08070044001  
ID: 01100201.2017060807004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6월 8일 오늘의 국민일보 입니다. <br/> <br/>▶[단독] '가정 호스피스' 집에서 가족과…'이별'도 행복하다 <br/> <br/>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가정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서비스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90점 가깝게 나와 입원형 호스피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br/> <br/>▶서울대병원도 8월부터 호스피스 병동 생긴다 <br/> <br/>국가 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에 말기 암이나 에이즈,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질환자에게 임종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 병동이 생깁니다. 서울대병원 고위 관계자는 7일 "<span class='quot0'>본관 12층에 독립된 형태의 호스피스 병동1개, 10개 병상을 마련해 오는 8월부터 본격 운영키로 했다</span>"고 밝혔습니다. <br/> <br/>▶'사드'도 감사원 감찰청구 한다 <br/> <br/>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부지 선정·배치와 관련한 전반적인 협상 과정과 환경영향평가 결정 방식 등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이 조만간 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이번에도… 野 ‘한방’없는 맹탕 청문회 <br/> <br/>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주요 공직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가 7일 국회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 후보자들의 여러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른바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 입니다. <br/> <br/>▶‘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수사 의뢰 <br/> <br/>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당시 참석자들이 서로 주고받은 돈봉투가 대가성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br/> <br/>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57.txt

제목: [단독] 서울대병원도 8월부터 ‘호스피스 병동’ 생긴다  
날짜: 20170608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08180755001  
ID: 01100201.20170608180755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국가 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에 말기 암이나 에이즈,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폐질환자에게 임종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 병동이 생긴다. 서울대병원 고위 관계자는 7일 “<span class='quot0'>본관 12층에 독립된 형태의 호스피스 병동 1개, 10개 병상을 마련해 오는 8월부터 본격 운영키로 했다</span>”고 밝혔다. <br/> <br/> 서울대병원은 그간 호스피스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말기 암 등 돌봄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지역 암센터나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다른 기관으로 보내 왔다.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br/> <br/>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지난해 6월 취임하면서 호스피스 등 공공성 강한 병원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했지만 백남기 농민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에 연루돼 실질적 정책 실현은 지지부진했다. 호스피스 병동의 규모와 실행 시기를 구체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br/> <br/> 서울대병원이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는 것은 상징성이 강하다. 지난 5월 25일 기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은 78곳(1297병상)이다. <br/> <br/> 이른바 ‘빅5’(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 중에선 가톨릭 계열인 서울성모병원만 호스피스 병동을 꾸려왔다. 투자에 비해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호스피스 기관은 일반 병동과 독립된 병동, 간호체계를 갖추고 이동식 목욕시설과 임종실, 가족실 등 시설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br/> <br/> 서울대병원의 한 교수는 “<span class='quot1'>그간 서울대병원이 수익을 좇는 민간 대형병원과 뭐가 다르냐는 정체성 문제에 대한 내부 지적도 많았다</span>”며 “<span class='quot1'>공공의료 강화에 초점을 둔 새 정부의 정책에도 맞다</span>”고 말했다. <br/> <br/>글=민태원 기자, 삽화=전진이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458.txt

제목: [단독] ‘가정 호스피스’ 만족도 90점 육박… 이별도 행복하다  
날짜: 20170608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08180555001  
ID: 01100201.201706081805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서울 용산구에 사는 고모(52·여)씨는 지난해 4월 22일 위암 말기였던 어머니(당시 85세)의 임종을 집에서 했다. 몇 개월 전 말기 판정을 받고서 ‘병원이 무섭다’며 한사코 집에 가자던 어머니였다. 가족들도 뜻을 받아들여 아버지와 40년을 함께 산 집으로 모셨다. <br/> <br/> 통증 완화와 욕창 관리 등 말기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와 간호는 서울성모병원 가정호스피스팀의 도움을 받았다.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2∼3명이 번갈아 주 2회씩 방문해 환자 상태를 살폈다. 의료적 판단이 필요할 땐 호스피스 전담 의사가 직접 찾아왔다. 자원봉사자도 함께 와서 어머니의 굳어가는 팔다리를 마사지하고 목욕도 시켜줬다. <br/> <br/> 고씨는 “<span class='quot0'>처음엔 집에서 어떻게 보살필지 걱정이 많이 됐지만 입원 때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고마웠다</span>”고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돼 서비스 비용은 5%만 부담했다. 고씨의 모친은 지난해 3월부터 1년여간 시행해 온 말기 암 환자 대상 가정호스피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혜택을 받았다. <br/> <br/>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가정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서비스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90점 가깝게 나와 입원형 호스피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지난해 10월 24일∼11월 14일 입원형과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자 234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만족도와 통증·증상 관리, 정서적 지지, 상담, 임종 관리 서비스 등을 평가했다. 가정호스피스는 100점 만점에 89.24점으로 입원형 호스피스(90.47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br/> <br/>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가정호스피스 시범사업 이용자는 1200여명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일명 웰다잉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가정호스피스 제공 의료기관을 지역별로 크게 늘려 2차 시범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21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br/> <br/> 대상 질환도 넓혀 기존 말기암뿐 아니라 에이즈와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현재는 가정호스피스 수요가 많은 포항 부산 전남 전북 등은 서비스 기관이 한 곳씩밖에 없고 제주나 강원은 단 한 곳도 없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크다</span>”고 말했다. <br/> <br/> 복지부와 심평원은 8월부터는 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첫 시범사업도 시작한다(국민일보 1월 13일자 사회면 참조). 호스피스 전담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종교인 등 영적 상담자 포함)가 한 팀을 이뤄 호스피스 병동이 아닌 일반 병동에 입원 중인 말기 환자를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이달 15∼16일쯤 의료기관 설명회를 열고 공모 절차를 통해 참여 기관 20곳가량을 선정할 방침이다. <br/> <br/>글=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일러스트=전진이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459.txt

제목: [내일을 열며-이기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절실  
날짜: 201706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08174855001  
ID: 01100201.201706081748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이거다 싶었다. 다름 아니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얘기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조를 이뤄 24시간 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80대 중반 아버지가 병들어 몸이 온전치 않은 어머니 돌보기를 포기하셨을 때 일이다. 아버지는 혈관성 치매와 중중 퇴행성관절염으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어머니를 더 이상 돌볼 힘이 없다고 선언했다. 어머니 간병을 홀로 책임진 지 10년째 되던 해. 아버지는 당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다. 바통을 이어받은 우리 부부는 한 달도 못 버텼다. 어머니를 요양병원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한 달, 1년….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나날이 계속됐다. 어머니는 이후 약 3년간 지방의 한 중소병원과 서울의료원의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동 일반병실과 요양원을 전전하다 돌아가셨다. <br/> <br/> 나로선 이 무렵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만난 게 천만다행이었다. 지금도 변함없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우리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아버지 부양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믿는 까닭이다. <br/> <br/> 나만 그런 것일까? 아니다. 서울의료원,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가보면 비슷한 얘기를 하는 환자 가족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다른 환자 가족들의 만족도가 무려 96.6%나 된다. 우리나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필수견학코스로 통하는 서울의료원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받고 퇴원한 환자 27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br/> <br/>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서울요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만나 “<span class='quot0'>치매 관련 본인 건강보험 부담률을 10% 이내로 낮추고,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안 되는 진료도 다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span>”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치매국가책임제’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br/> <br/> ‘원님 덕에 나팔 분다’는 말이 있듯이 차제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 관리 차원의 국가책임제가 필요한 것은 비단 치매 환자와 그 가족뿐이 아니다. 사실 치매는 여러 퇴행성 노인병 중 하나일 뿐이다. 치매와 더불어 고령화 사회의 걱정거리로 급부상 중인 병이 꽤 있다. 4대 중증질환으로 꼽히는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 심뇌혈관질환을 포함해 파킨슨병, 말기 퇴행성관절염, 노인성 우울증 등이 그것이다. 이들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져 몸져누운 환자 가족이 겪는 고통도 결코 치매 가족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 <br/> <br/> 5월 말 현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338곳(2만2289병상)이다.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정부가 당초 목표로 삼았던 1556개 의료기관의 21.7%밖에 안 되는 참여율이다. 환자 만족도가 높은 통합서비스 참여율이 이렇게 낮은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용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활동 간호인력은 조무사를 포함해 23만7744명에 그치고 있다. 가용인력 33만6268명 중 9만8524명이 일을 않고 쉬고 있어서다. 이 유휴 간호인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br/> <br/> 문 대통령이 구현하겠다고 공약한 ‘나라다운 나라’란 어떤 나라인가. 국민의 고통과 슬픔을 어루만져 잘 씻겨주는 나라다.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중증질환자, 특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바라는 입원환자들은 모두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확대 시행으로 얻는 파급효과는 긍정적이다. 전염병 전파위험 차단 효과는 덤이다. 환자 가족의 손발을 풀어줌으로써 얻는 국가적, 사회적 이득이 훨씬 더 크다. 또 간병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도 대폭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60.txt

제목: 태극기로 물든 ★들의 SNS… “현충일, 잊지 맙시다”  
날짜: 20170606  
기자: 권남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06141744001  
ID: 01100201.20170606141744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제62회 현충일을 맞아 스타들도 한마음으로 순국선열들의 뜻을 기렸다. <br/> <br/>6일 배우 이시영은 SNS에 “현충일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하여 정한 기념일입니다. <span class='quot0'>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span>”라며 태극기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br/> <br/>방송인 김지민은 “오늘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현충일입니다”라면서 “오늘날 (우리가) 웃으며 살 수 있게 해주신 호국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고 적었다. <br/> <br/>방송인 이혜영은 국가유공자였던 부친의 생전 모습을 추억했다. 아버지의 묘소에서 찍은 사진에 “국가유공자의 딸”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그는 “생전 아버지는 총알이 스쳐간 상처를 자랑스러워하셨다. 암 투병 중에는 ‘난 현충원으로 간다’고 자랑을 하셨다. 그땐 그 말이 듣기 싫어 다른 곳을 바라보며 못 들은 척 했는데 그때 말할 걸 그랬다. 저도 너무나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라고 썼다. <br/> <br/> <br/>아이돌 가수들도 추모의 뜻을 함께했다.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예성은 “<span class='quot0'>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span>”라고, 걸그룹 시크릿의 전효성은 “<span class='quot0'>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span>”라고 추념하며 각각 태극기 이미지를 올렸다. <br/> <br/>걸그룹 다이아 멤버 정채연은 “<span class='quot1'>숭고한 호국 정신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 태극기를 게양해요</span>”라며 조기게양을 독려했고, 같은 그룹의 기희현도 태극기를 들고 찍은 사진과 함께 “<span class='quot1'>나라를 빛내주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가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span>”고 전했다. <br/> <br/>걸그룹 모모랜드와 그룹 비에이 멤버 밀리는 직접 그린 태극기 그림을 공개했다. 모모랜드는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날입니다.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밀리는 “많은 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쉴 수 있는 것 같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br/> <br/>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61.txt

제목: 가짜 암도 모자라 자살까지 꾸민 남편… 알고 보니 유부남  
날짜: 20170606  
기자: 이형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06050044001  
ID: 01100201.20170606050044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20대 여성과 10년 동안 사귀다 결혼식을 미루려고, 암에 걸린 척 행세하는 등 거짓말을 일삼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결혼한 뒤에도 자살한 것처럼 꾸며 아내에게 유골을 전달하기도 했다. <br/> <br/>서울서부지법 형사 3단독 신영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대기업 연구원 A(4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br/> <br/>A씨는 지난 2006년 당시 25살이던 피해자 B씨(36)를 만났다. 그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교수 임용을 꿈꾸는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소개했다. A씨는 지난해 교수로 임용되려면 대학에 돈을 내야 한다며 800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br/> <br/>그러나 A씨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br/> <br/>교수 임용을 앞둔 것처럼 말했지만 그는 실제로 국내 유명기업의 연구원이었다. 지난 2015년 4월 청첩장을 돌리고 결혼식장도 예약했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 A씨는 집안 문제를 들먹이며 결혼을 미뤘다. <br/> <br/>A씨의 거짓말은 더 심해졌다. 올해 1월 B씨가 결혼을 서두르자 A씨는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고 둘러댔다. B씨가 "내가 병간호하겠다"고 했고,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br/> <br/>A씨의 사기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결혼한 뒤 잠적했다. 또 자살한 것처럼 꾸민 뒤  심부름센터를 통해 B씨에게 유골과 유서를 전달해 주기도 했다. <br/> <br/>신영희 판사는 A씨가 “<span class='quot0'>신뢰 관계를 이용해 거짓말로 돈을 챙긴 죄질이 불량하며, 범행 이후 거짓 결혼식·가짜 암 선고 핑계로 잠적·허위 자살 소동 등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방식도 매우 나쁘다</span>”고 판시했다.  <br/> <br/>이어 “B씨가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진심 어린 사과조차 받지 못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절망을 겪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r/> <br/>이형민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462.txt

제목: [And 건강] 가상현실 헤맸더니 마비됐던 팔이 움직이네！  
날짜: 20170606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06050005001  
ID: 01100201.2017060605000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지난달 31일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상현실클리닉. 기자가 입체영상안경(HMD)을 머리에 쓰자 눈앞에 많은 청중이 앉아있는 대형 강의실이 펼쳐진다. 여기저기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린다. 360도 사방을 볼 수 있어 실제 강의실에 와 있는 듯하다. 이어 눈앞 화면에 과제 패널이 나타나고 눈을 맞추자 다음 장면에서 한 남자가 나타난다. 가상현실 속 나, '아바타'다. 순간 모든 시선이 쏠린다. 손에 땀이 나고 말문이 막혀버린다.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 수없이 맞닥뜨리는 '발표 상황'이다. 이런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인 같으면 어렵지 않게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사회 대응력이 떨어지는 사회 부적응자나 정신질환자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br/> <br/> 가상현실 속 ‘아바타’로 공포증 이긴다 <br/> <br/>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과 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을 질병 치료나 수술, 의학교육에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가장 앞선 분야가 바로 정신건강의학과다. <br/> <br/> 가상현실은 3차원 환경과 시각 촉각 청각 등을 통해 실제와 같은 몰입감을 줌으로써 가상현실 속에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고 상호 작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사회생활에 애로를 겪는 사회공포증 조현병 등의 인성 재활치료 프로그램으로 도입됐다. <br/> <br/> 환자는 현실과 비슷한 다양한 가상현실 세계에서 정상적인 사회성 훈련을 받는다. 주어진 상황에 대해 환자가 적절한 답을 고르면 다음 과제로 넘어간다. 틀린 답에는 그에 상응하는 난처한 후속 상황이 전개된다. 이런 경험을 되풀이하면서 환자가 스스로 행동을 교정하게 만든다. <br/> <br/> 몇 년 전 강남세브란병원에 국내 처음 가상현실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한 김재진 교수는 5일 “<span class='quot0'>조현병의 경우 환청이나 피해망상 같은 급성기 증상은 약물로 치료할 수 있지만 매끄럽지 못한 대인관계 등 사회성 부족은 약물로 해결되지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0'>가상현실을 통한 반복 훈련은 이들에게 사회 적응력을 길러주는 보완 치료로 좋은 효과를 보인다</span>”고 설명했다. <br/> <br/> 크게 가족 친구 직장 등 세 경우의 다양한 상황을 가상현실로 구현한다. 환자는 다양한 곳의 체험을 할 수 있고 바로 옆 의료진은 환자의 반응 상태(심장박동 수, 생체리듬 등)와 그 시간을 평가해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운다. <br/> <br/> 지난해 이곳에선 조현병 사회공포증 등 35명(219건), 사회성 부족 7명(44건), 알코올 중독 14명(25건)에게 최첨단 가상현실을 접목해 치료 효과를 높였다. <br/> <br/> 조현병 후유증으로 심각한 사회성 결핍 상태였던 A씨도 가상현실 치료를 받고서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함은 물론 아르바이트에 나설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다. 그전에는 두려움이 많아 집 밖에 나가는 것 자체를 꺼렸던 그다. 김 교수는 “요즘 발표 공포나 대인 공포 등 사회공포증을 겪는 직장인이나 학생이 적지 않다. 얼마 전 인사말 하는 게 고역이었던 한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왔는데, 10주의 가상현실 치료를 다 마친 후 직원들 앞에서 말을 술술 하게 됐다고 만족해하기도 했다”면서 “또래 모임에 끼는 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도 많이 찾는다”고 했다. <br/> <br/>‘혐오 자극’으로 게임·알코올 중독 치료 <br/> <br/> 게임·인터넷, 알코올·니코틴 중독 치료에도 가상현실을 접목한다. 중앙대병원 과몰입힐링센터, 서울시립보라매병원 중독센터 등에서 앞장서 시도하고 있다. <br/> <br/> 신모(15)군은 집이나 PC방에서 하루 15시간 이상 온라인 게임을 하느라 밤을 꼬박 새우기 일쑤였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학교에 지각하거나 식사를 거르는 일도 다반사였다. 그러던 중 중앙대병원에서 가상현실 치료를 새롭게 접하게 됐다. <br/> <br/> 신군은 2개월간 8차례 가상현실 속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만났다. 3D 안경을 쓰면 나타나는 화면을 통해 PC방에서 신나게 게임하는 자신을 보며 실제 게임하는 듯한 흥분을 느꼈다. 하지만 이후 화면에서는 지나친 게임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는 모습이 보이고 미래에 대한 절망적 장면들이 펼쳐지면서 게임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게 됐다. <br/> <br/> 신군은 “과거 게임할 때는 죄책감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었는데, 가상현실 치료를 통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기고 죄책감도 들게 돼 게임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br/> <br/> 20년간 술독에 빠져 아내를 폭행하는 등 심한 알코올 의존증을 보인 김모(47)씨도 이곳에서 인지행동 치료와 함께 10여 차례 가상현실을 체험한 뒤 거의 술을 끊게 됐다. <br/> <br/> 김씨가 반복해서 본 가상현실 화면에는 평소처럼 술판이 벌어진다. 술 냄새를 맡다 보면 실제 술집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김씨에게 술잔을 건넨 이는 가상현실 속 자신의 ‘아바타’였다. <br/> <br/> 술자리 장면이 끝나고 김씨는 술병이 잔뜩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 피를 흘리고 구토를 하며 쓰러져 있다. 역한 냄새와 함께 메스꺼움이 올라오다가 마침내 김씨가 죽음에 이르러 관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끝난다.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br/> <br/> 중앙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덕현 교수는 “가상현실 치료 중 뇌파를 측정했더니 김씨의 뇌는 가상음주를 경험하는 상태에서 일반인보다 더 흥분하며, 안정된 상태에서 뇌 전두엽에서 나오는 알파파가 줄어들었다. 이후 구토 등 ‘혐오 자극’ 단계에서는 뇌가 정상인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갈망’이 급격히 줄면서 알파파가 증가해 흥분이 가라앉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가상현실 치료가 술 욕구를 줄여 알코올 의존성을 떨어뜨리고 재발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span class='quot1'>가상현실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몰입하기 쉽고 극복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1'>향후 입체 영상과 그래픽 기술이 발전할수록 치료 효과는 더욱 좋아질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 가상현실 치료는 이밖에 니코틴·도박 중독, 고소·비행공포증, 강박증 등 여러 정신과 질환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br/> <br/> 뇌졸중 팔 마비 재활… AR로 암 수술 <br/> <br/> 뇌졸중(뇌경색 및 뇌출혈)에 따른 후유증인 팔다리 마비 환자들의 재활치료에도 활용된다. 분당차병원 재활의학과 김민영 교수팀은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뇌졸중으로 팔을 잘 쓰지 못하는 환자 162명에게 가상현실 재활치료를 진행 중이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br/> <br/> 환자들이 머리에 HMD를 착용한 뒤 가상현실 바닷속에서 팔을 뻗어 사방으로 지나다니는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주면 뇌신경이 회복되는 가소성을 갖고 있다”면서 “가상현실을 통한 시각적 자극을 통해 환자들이 재미있어할뿐더러 팔을 계속 움직이게 돼 자연스럽게 상지(上旨) 기능이 회복된다. 뇌졸중에 따른 ‘편측 시각 무시’(한쪽을 보지 못해 부딪힘 등이 나타남) 증상 극복이나 보행 훈련에도 도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했다. <br/> <br/> 왼쪽 뇌경색으로 오른쪽 팔에 부분 마비가 온 최모(64)씨는 가상현실 치료를 받은 뒤 상지 근력이 30∼40% 향상됐고 주의력과 기억력도 좋아졌다. <br/> <br/>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팀은 가상현실보다 진일보한 ‘증강현실’을 활용해 세계 최초로 다리에 생긴 뼈암(골종양) 수술에 성공한 사례를 최근 발표해 주목받았다. <br/> <br/> AR은 현실 세계 이미지에 3차원 가상의 물체나 정보를 겹쳐서 보여줌으로써 현실감을 더 느끼게 해 주는 기술이다. 게임 ‘포켓몬고’가 대표적이다. 의료진은 태블릿PC를 통해 환자의 신체(다리)상에 암의 위치, 크기를 실시간 증강현실 기술로 구현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암 등 병변을 실제 이미지 위에 표시해 줘 수술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br/> <br/> 같은 병원 외과 윤유석 교수는 “<span class='quot2'>간암 수술의 경우 간 표면에 생긴 암은 내시경을 통해 파악할 수 있지만 깊숙이 생긴 종양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증강현실을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뇌 유방 췌장 같은 장기에 수술이 필요할 때도 마찬가지</span>”라고 말했다. <br/> <br/> 분당차병원 김민영 교수는 “<span class='quot3'>재활 분야에서 증강현실 이용은 세계적으로 아직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환자나 노인이 집 등 실제 환경 속에서 운동 등 재활 훈련을 할 때 도움을 받을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 증강현실은 또 가상수술이나 해부학 실습 등 의학교육, 원격 치료 서비스 등에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br/> <br/> 연말까지 VR·AR 가이드라인 제정 <br/> <br/> VR, AR 기술의 쓰임새가 의료 현장에서 점차 증가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기술을 접목한 의료기기의 허가 범위 및 기준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지난 4월 말 학계 산업계 의료계 등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해 2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br/> <br/> 식약처 관계자는 “<span class='quot4'>의료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VR AR을 단순 콘텐츠로 볼지, 의료기기로 분류할지에 대한 컨센선스도 아직 없는 상태</span>”라면서 “<span class='quot4'>앞으로 논의를 거쳐 질병치료 등 의료기기 사용 목적에 부합한 경우 그 범위와 허가 기준을 정해 올해 안에 공개할 방침</span>”이라고 말했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그래픽= 이은지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463.txt

제목: 항암치료 중 호르몬요법 유방암 여성의 절반 "아이 낳았다"  
날짜: 20170605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05163944002  
ID: 01100201.20170605163944002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유방암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는 독성이 강해 난소에 영구 손상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젊은 여성 암환자들의 불임 걱정이 컸다.  <br/>그런데 항암치료 도중에 호르몬 보조요법을 함께 받으면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 삼성서울병원 유방외과 이정언 교수팀은 2002년 1월~2012년 4월 유방암 수술을 받은 20세 이상 40세 이하 여성 82명을 추적 관찰해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5일 밝혔다. <br/> <br/> 국내에서 유방암 항암치료 동안 호르몬 요법을 병행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장기 실태조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br/> <br/> 연구팀은 환자들의 항암치료 동안 '성선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 작용제'를 함께 투여했다. 이는 뇌하수체에 작용해 일시적으로 환자를 폐경 상태로 유도하는 약물이다. <br/> <br/> 그 결과 41명의 기혼 환자 중 15명이 임신과 출산에 성공했다. 특히 기혼 환자 중 이미 아이가 있어 더는 출산 계획이 없거나 임신을 원하지 않았던 11명을 빼면 임신을 원했던 환자(30명)의 절반이 무사히 아이를 낳았다. 출산한 15명 중에는 항암치료 후 2명의 아이를 낳은 환자가 2명, 3명의 아이를 낳은 환자도 1명 있었다. <br/> <br/> 이 중 조산이 있었던 환자 1명을 제외하곤 유산이나 기형아 출산 사례도 없었다. 유산, 기형아 출산 등은 유방암 환자들이 항암치료 후 흔히 걱정하는 사례다. 출산한 환자 15명 중 12명(80%)이 모유수유를 6개월 안팎 지속할 정도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다. <br/> <br/>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젊은 유방암 환자가 임신과 출산을 미리 겁낼 필요가 없음을 보여준다</span>”고 말했다. 연구결과는 한국유방암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64.txt

제목: 부산 국제외국인학교, 암환자 돕기 ‘24시간 생명 릴레이’ 진행  
날짜: 20170605  
기자: 부산=윤봉학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05213956001  
ID: 01100201.20170605213956001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광안리해수욕장을 청소해 ‘자랑스러운 외국인 주민상’을 받았던 부산국제외국인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또 지역 사랑을 실천했다. <br/> <br/> 이 학교 학생과 교사 등 42개국 출신 500여명은 2일 오전 9시부터 3일 오전까지 ‘생명을 위한 릴레이(Relay For Life)’에 동참했다. 이 행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암환자를 위한 기금 모금 행사로 참가자들은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축구장 트랙을 뛰거나 걸으며 릴레이를 이어간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400여만명이 동참해 지금까지 50억 달러의 기금이 모였다. <br/> <br/>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행사에 참가한 부산국제외국인학교는 기금을 전액 ‘암환자 돕기’에 사용키로 했다. 기금은 머핀·바나나·과자를 판매한 수익금과 미리 계좌를 통해 기부받은 금액을 합쳐 500여만원에 달했다. 행사 취지에 공감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광모 의학원장과 의료진 10여명도 동참했다. <br/> <br/> 첫 주자는 사회과목 교사 카베 라네마(65)씨였다. 라네마씨는 2014년 8월 림프암 진단을 받고 2년 넘는 투병 기간을 꿋꿋이 버텨내 암을 이겨냈다. 그는 “암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br/> <br/> 라네마씨에 이어 학생과 교사들이 24시간 동안 릴레이를 이어갔다. 12학년 토마스 마이라르(19)군은 24시간 내내 걷기에 도전했다. 마이라르군은 “최근 무릎이 조금 아프지만 암환자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으로 도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함께 걷다가 지친 저학년 학생을 업고 트랙을 돌기도 했다. 케빈 베이커(54) 교장은 “<span class='quot0'>주변 친구와 처제까지 6명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내년에는 지역의 주요 기관과 함께해 규모를 더 키우고 싶다</span>”고 말했다. <br/> <br/>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광모 원장은 “<span class='quot1'>기부금은 어려운 암환자 치료 및 암 연구를 위해 소중히 쓰겠다</span>”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br/> <br/>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65.txt

제목: 이병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의약품 특성에 맞는 합리적 약제비 체계 구축”  
날짜: 20170605  
기자: 조민규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05195055001  
ID: 01100201.201706051950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면역항암제, 유방암치료제 등 신약에 대한 보험등재를 요구하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최근 나오는 신약은 주로 환자수가 적고, 중증의 희귀질환과 암질환 위주로 개발된다. 다만 가격이 높아 효능뿐만 아니라 적정 가격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여부 검토에서부터 등재 약제들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관장하고 있다. 이병일(사진) 약제관리실장은 “<span class='quot0'>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약품 특성에 따른 합리적인 약제비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이 실장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환자의 가계부담이 커져 신속 등재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항암 신약의 경우 허가 이후 건강보험 적용 소요기간이 길어 환자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심평원 뿐 아니라 제약사에서도 완결성 높은 신청자료 제출과 더불어 신속히 적정가격 제시 전략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평가기간 단축, 사전지원서비스(제약사 제출자료 검토확인, 대면상담)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제약업계와 TF팀을 구성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br/> <br/> 약제급여 과정에서의 경제성평가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 이 실장은 “경제성평가를 통해 임상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급여 등재함에 따라 한정된 건보재정의 효율적인 분배가 가능해진 것도 일부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또 기존 대비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높은 약제 등은 급여되지 않고, 양질의 의약품을 선별함에 따라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성평가 도입을 통해 근거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 체계 도입으로 의약품 등재에 있어 합리성·객관성·투명성이 제고됐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전문적 검토에 있어 시일이 소요돼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노력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그는 “<span class='quot0'>약제관리 업무의 투명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해고 여기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개선도 포함돼 있다</span>”라며 “<span class='quot0'>다만 약제의 급여평가 검토 과정은 임상적 유용성, 기준, 비용효과성 등 전문적 내용이 많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내용을 공개하더라도 국민의 시각에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은 필요해 보인다</span>”고 말했다. 이어 “ICER, 신청가격 등은 제약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비공개 사안인데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적정 공개 수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제약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자문 범위 및 방법 재설정을 통해 위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원 인력풀도 20명이 증가한 90명 내외로 확대한다. 위촉 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제도 도입 등으로 윤리성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br/> <br/>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 실장은 “급여화에 대한 국민 요구가 많아 비용효과성 입증 미흡 품목 등에 대해 급여화 및 사후관리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올해 심평원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됐던 난임시술 관련 약제에 대해 급여확대를 검토해 급여기준을 신설·변경할 것이다. 의학회에서 요청한 78개 항목 중 등재된 49개 항목에 대해서도 검토 예정”이라고 말혔다. <br/> <br/>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3-466.txt

제목: [건강기획-튼튼 심장 ①] 피 안도는 ‘心부전’… 심장질환 마지막 단계  
날짜: 20170605  
기자: 송병기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05194955001  
ID: 01100201.201706051949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심장은 강한 근육으로 이뤄진 펌프다. 하루 10만 번 넘게 펌프질을 통해 신체의 여러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을 공급하는 동시에, 노폐물을 내보내 생명을 유지시킨다. 나이가 들며 심장 기능이 점차 감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원인에 의해 심장이 부담을 받아 심장 기능이 심각히 감소하면 ‘심부전(Heart Failure)’이 된다. 심부전은 이미 심장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입원, 응급실 방문, 장기 외래 치료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유발한다. 또 환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고령층 주요 입원과 사망 원인인 심부전 환자는 앞으로 국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회에 걸친 ‘건강기획-튼튼 심장’을 통해 심부전 증상과 예방, 관리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br/> <br/> ◇심장질환의 마지막 단계 ‘심부전’=심부전은 신체에 필요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심장에 영향을 주는 무수한 심장질환의 마지막 단계다. 예후가 좋지 않아 심혈관계 질환 중에서도 사망률이 가장 높다. 2000년 영국에서 발표된 논문에서는 심부전의 5년 생존율이 유방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 일부 암에서보다 낮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지난 해 크리스마스에 세상을 떠난 팝가수 조지 마이클도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br/> <br/> 심부전의 원인은 심장 판막 질환,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등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질환이다. 흡연, 비만, 기름기 많은 식사, 운동 부족 등 생활 습관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호흡 곤란, 부종, 피곤함, 식욕 부진 등이 있다. 호흡곤란의 경우 움직이는 동안 주로 나타나지만 심부전이 진행되면 잠을 자다가 숨이 차서 깨기도 하고 누워 있는 경우 숨이 더 가빠진다. 혈액이 잘 돌지 않기 때문에 발, 발목, 다리가 붓는 부종도 생기는데, 이로 인해 몸무게가 증가할 수 있고 신발이 작아진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계단 오르기 등 단순한 활동에도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복부 포만감으로 인해 식욕을 잃는 등의 증상도 나타난다. <br/> <br/>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도 이를 단순한 노화 증상으로 여기기 쉽다. 실제 대한심장학회 심부전연구회와 한국심장재단이 성인 남녀 13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5%는 심부전의 증상을 정상적인 노화의 현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br/> <br/> ◇국내 심부전 환자와 진료비 해마다 늘어=심부전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심부전 환자수와 진료비 부담도 매년 증가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심부전 환자수와 진료비 부담은 2010년부터 작년까지 꾸준히 늘었다. 심부전 환자수는 2010년 9만9000여명에서 2016년 12만2000여명으로 22.9% 이상 증가했다. 진료비도 2010년 584억원에서 2016년 1065억원으로 7년간 82.3%가 늘었다. <br/> <br/>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강석민 교수는 “고혈압, 심근경색 등 심장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심장이 망가지면서 심부전이 마지막에 찾아올 수 있다. 심부전은 한 번 진단 받으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는 경우가 많고 퇴원하더라도 입원을 다시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기 때문에 진단을 받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심장 관련 질환이 있는데 체중이 증가하거나 숨 쉬기가 유독 힘들거나 발목이 붓는 등의 증상이 있다면 잘 확인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r/> <br/>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3-467.txt

제목: [이정렬 중앙보훈병원장에게 의사의 길을 묻다] “의료진에겐 365일이 보훈의 날”  
날짜: 20170605  
기자: 전미옥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05191955001  
ID: 01100201.201706051919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들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br/> <br/> 중앙보훈병원 구성원들에게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은 1년 중 가장 바쁜 달이다. 해마다 6월이면 각계각층 인사들의 방문과 문화예술단체의 위문공연이 줄을 잇고, 무궁화 꽃 달아주기, 병영으로의 추억여행 등 병원 자체 행사 준비에도 여념이 없다. 이정렬(사진) 중앙보훈병원장은 “의료진들에게는 모든 날이 보훈의 날이다. 의료는 항상 최선을 추구하고 있다”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br/> <br/>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90%는 애국지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다. 6.25전쟁 이후 수년이 지났지만 이곳 환자들은 지금도 전쟁의 상흔을 치료 중이다. 이 원장은 “대부분 전투 혹은 군복무 등 직무수행 중 상해나 질환을 입고 장애가 생긴 환자들이다. 때문에 다양한 합병증을 앓고 있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를 겪는 분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정신의학적 치료와 재활의 수요도 높은 편이다. 이 원장은 “전투 중 신체 일부를 잃은 환자들은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 때문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육체적 고통 이상의 정신적 아픔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를 위해 PTSD클리닉을 운영하며 이 분들의 정신적 재활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상·하지 로봇 재활치료, 수중치료실 등을 갖춘 센터형 재활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br/> <br/> 최근 맞닥뜨린 가장 큰 과제는 ‘고령화 대비’다. 세월이 흐르면서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들이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 환자들의 경우 뇌·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span class='quot0'>보훈대상자의 초고령화 및 만성 복합질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특화된 의료복지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 즉,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관점이 아니라, 몸이 아파서 병원을 방문한 순간부터 그들이 치료를 받고, 재활을 하고, 요양을 하며, 가정에서도 치료를 받는 상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비롯한 양질의 통합의료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정확하고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보훈병원은 암 치료용 인공지능(AI) 왓슨 도입, 국가 유공자 맞춤형 첨단 정밀의학연구를 위해 보훈의학연구소 설립 등을 앞두고 있다. <br/> <br/> 아울러 이 원장은 “<span class='quot0'>국가에 헌신한 분들에게 최고의 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보훈병원의 인프라를 잘 활용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가 보건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의료품질 혁신에 박차를 가해 국가유공자 진료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는 병원으로 만들고자 한다</span>”고 힘줘 말했다. <br/> <br/>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사진=박효상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468.txt

제목: 다발골수종 환자 보장성 강화… “허가된 신약은 하루빨리 급여 등재돼야”  
날짜: 20170605  
기자: 정리=박예슬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05181655001  
ID: 01100201.201706051816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쿠키뉴스는 지난달 30일 '재발 많은 다발골수종, 환자 보장성 현황-신약 보험적용 방안 모색' 주제로 제38회 고품격 건강사회만들기 방송토론회를 열었다. 희귀질환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림프종, 백혈병에 이어 발생률이 높은 3대 혈액암 중 하나로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다. 이번 토론회는 재발률이 높은 다발골수종 치료 보장성 강화와 효율적인 신약 보험 적용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br/> <br/>◇참석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등재부 김국희 부장, 대한혈액학회 다발골수종연구회 이제중 위원장(화순전남대병원 교수), 다발골수종환우회 백민환 회장, 쿠키뉴스 조민규 보건의료 전문기자 <br/> <br/>◇진행=원미연 쿠키건강TV 아나운서 <br/> <br/>◇연출=홍현기 쿠키건강TV PD <br/> <br/>◇방송=6월 9일(금) 오후 7시20분 <br/> <br/>Q. 희귀질환(희귀난치성질환)이란? <br/> <br/>이제중=우리나라 희귀질환 기준에 따르면 환자들이 2만명 이하인 질병을 희귀질환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거기에 다발골수종이 속한다. 다발골수종은 혈액종양 중 하나로 희귀질환에 포함된다. <br/> <br/>백민환=지금 국내 희귀질환 환자수는 70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br/> <br/> <br/> <br/>Q. 희귀질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이며, ‘희귀질환관리법’이란 무엇인지? <br/> <br/>김국희=희귀질환이라고 따로 통계를 잡고 있지 않지만 정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에서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희귀질환관리법은 우선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책이다. 희귀질환관리법을 통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낮추거나 신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데 있어 특례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br/> <br/>조민규=우선 정부의 희귀질환관리 정책 중 하나는 신약의 임상시험을 신속히 실행토록 돕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위험분담제를 통해 신속하게 약제를 급여등재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화를 느끼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었고, 따라서 새 정부의 희귀질환관리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br/> <br/>이= 경제성평가 등의 제도를 통해 희귀질환 치료제들이 국내에 빨리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국내 의료계에는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실제 신약 처방을 위해서는 우선 국내 허가를 획득하고 그 후에 보험급여에 등재돼야 하는데,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약의 국내 허가부터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을 원한다. 다만 환자들이 신약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급여 등재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즉 신약의 국내 허가부터 급여 등재까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br/> <br/> <br/> <br/>Q. 희귀질환 관련 새 정부 정책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br/> <br/>이=다발골수종은 국내에서 림프종 다음으로 흔한 혈액암이다. 현재 기준 내에서는 다발골수종이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희귀질환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따라서 우선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가 고가인 만큼 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급여화가 필요하다. 김 부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경제성평가 면제를 통해 급여 등재되는 약제들도 있지만, 환자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신약은 경제성평가 대상 약제인 경우가 많은 만큼 급여 등재까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자들의 어려움은 커진다. <br/> <br/>백=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환자들의 질병 극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제다. 따라서 신약이 출시 후 빠른 시일 내에 급여 등재되어 환자들이 적시에 복용·투여할 수 있도록 희귀질환 관련 제도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br/> <br/> <br/> <br/>Q. 다발골수종은 반복되는 재발이 특징이라던데 어느 정도인지? <br/> <br/>백=환우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재발을 겪는 것 같다. 즉 다발골수종은 ‘재발하는 암’이라는 인식이 있다. 또한 재발 후에는 대부분 예후가 좋지 않고 완치가 불가하다. 다발골수종은 고령의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 가족들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 본인이 적극적인 치료제를 찾기 보다는, 당장 부담이 적은 치료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br/> <br/> 또한 환자들이 고령이다 보니, 자녀들이 기존 생활비에 더해 치료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환우회 커뮤니티에 실제로 며느님이 시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비급여 약제를 쓰고 싶어 하는 상황에 대해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효과가 좋은 치료제로 치료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자식 입장에서 선뜻 고가의 신약 비용을 부담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br/> <br/>조=다발골수종의 경우 재발이 잦고 환자 연령대 자체가 높다 보니 자녀들이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동시에 환자들은 살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고민과 갈등이 깊어진다. <br/> <br/>이=1차 치료제 이후 병이 재발해 2차, 3차, 4차 치료를 하다 보면 달리 치료할 수 없는 시점이 찾아온다. 이럴 경우 의사로써 신약을 권고해야 하지만, 동시에 신약으로 인해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야 한다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br/> <br/> <br/> <br/>Q. 현재 환자들이 치료받는 약제 급여 현황은? <br/> <br/>백=환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재발했을 때 어떤 치료옵션이 있는지, 그 약의 보험급여가 되는지 여부다. 실제로 재발에 사용할 수 있는 키프롤리스라는 신약의 무진행 생존기간이 26.3개월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비급여로 남아있다. <br/> <br/>이=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선진국 도약을 했지만 다발골수종 치료에 있어서는 선진국이 아닌 것 같다. 미국 국립암종합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과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가 드러난다. 현재 우리나라 1차 요법 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약제가 레날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손을 병용하는 요법이다.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표준요법으로 권고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재발·불응성 다발골수종 치료에서 사용하는 키프롤리스의 3제 병용요법(KRd)과 2제 병용요법(Kd)이 급여 적용을 기다리고 있다. <br/> <br/>백=다른 항암제도 마찬가지지만 다발골수종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급여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항암제라는 약 자체가 아주 독하기 때문에 환자 상태가 호전된 상태에서 신약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듯 독한 항암치료를 계속해서 상태가 70∼80% 악화됐을 때 신약이 겨우 등재되어 쓰다 보니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자가 신약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꼭 등재됐으면 좋겠다. 몸이 90% 정도 악화되고 나서 약물 부작용을 겪고 있을 때서야 급여에 등재되는 것은 너무 늦다. <br/> <br/> <br/> <br/>Q. 키프롤리스 약제 효과와 안전성은 어떤가? <br/> <br/>이=키프롤리스는 기존에 사용하던 벨케이드를 개선한 치료제로, 벨케이드의 부작용인 신경병증을 줄이고 약제의 효과를 강화시킨 특성이 있다. 최근 키프롤리스의 대규모 3상 연구 2건이 발표됐다. 먼저 키프롤리스+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KRd)과 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Rd)를 비교한 ASPIRE 연구에서는 KRd가 Rd에 비해 무진행생존기간(PFS)을 8개월 이상 연장했다. KRd의 무진행생존기간은 26개월 정도로 나타났는데, 그간 20개월 이상의 PFS를 입증한 2차 치료제는 없었다. <br/> <br/>또 다른 임상은 키프롤리스+덱사메타손(Kd)과 기존 치료법인 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Vd)를 비교한 ENDEAVOR 임상이다. 해당 임상에서 Kd는 Vd에 비해 2배 이상 개선된 무진행생존기간을 입증했다. 이렇듯 최근 출시된 약제들이 기존의 약제보다 적은 부작용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 현재 많이 논의되고 있다. KRd 병용 시 키프롤리스에 대한 급여는 인정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하루 빨리 키프롤리스가 급여에 등재돼야 한다. <br/> <br/> <br/> <br/>Q. 경제성 평가가 어려운 신약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br/> <br/>백=누구나 알고 있듯 환자들은 약가 때문에 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런데 제약사는 약값을 올리려 하고 정부는 내리려 하는 상황에서 환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다. 이런 상황이 빨리 타개되었으면 좋겠다. <br/> <br/>김=경제성평가의 문제는 결국 약가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성평가가 어려운 약제를 위한 면제 특례제도를 마련해 두기도 했다. 환자들은 ‘약이 없으면 포기하겠는데, 약은 있는데 돈이 없어 못 쓰는 것이 희망고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치료제가 급여등재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겠다. <br/> <br/> <br/> <br/>Q. 신약의 보험등재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 <br/> <br/>백=돈이 없어서 신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하는 환자들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이미 허가된 약은 하루빨리 급여 등재될 수 있었으면 한다. 거는 기대가 크다. <br/> <br/>조=취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던 말이 ‘살기 위해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였다. 예전에는 약이 없어서 ‘살려주세요, 해외에는 약이 있나요’ 이런 문의가 많았는데,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웬만한 치료제 정보는 다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환자의 목소리에 응답해줄 필요가 있다. <br/> <br/>김=우리 모두 마음은 동일한 것 같다. 환자가 중심에 있는 것은 맞다. 요즘 허가되는 약들은 기존 치료제들보다 효과를 개선한 약들이 많아 상당히 고무적이다. 다만 가격이 비싸지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가격을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들을 찾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급여등재를 통해 국민들이 효과 있고 안전한 약을 저렴한 가격에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노력하겠다. <br/> <br/>정리=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3-469.txt

제목: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 나만을 높이려던 소프라노 부활의 주님을 높이는 최고의 노래를 부르다  
날짜: 201706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05173755001  
ID: 01100201.20170605173755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어릴 때부터 성악가의 꿈을 키웠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엄두를 못내다 재수하면서 성악레슨을 받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같이 음악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토록 원하던 꿈을 이뤘는데도 마음은 허전했다. <br/> <br/> 술 담배 이성 밤문화를 즐겨봐도 만족함이 없었고, 노래실력이 좋아질수록 화려한 무대에 대한 동경과 해외 유학의 꿈은 커졌지만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한숨만 늘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던 음악은 우상이 돼 갔고 성가대 솔리스트로 사례비를 받으면서부터 교회는 음악활동하는 곳일 뿐이었다. <br/> <br/> 시립합창단원이 되고 결혼하면서 이젠 좀 안정이 되는가 싶었는데 삶의 문제에 또 부딪혔다. 나처럼 성악을 공부했던 남편은 음악을 포기하고 직장을 구했지만 잘되지 않았다. 그런 남편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했더니 남편은 자신은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조차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다. 그 대답은 우리 부부 서로에게 충격이었다. 우리 부부는 다른 문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부터 찾자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그 때 삶 속에서 말씀으로 고민하며 진짜 삶의 변화를 보여주었던 한 친구와 대화하면서 신앙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뿐 아니라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감사하게도 그 때부터 수없이 반복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말씀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했다. <br/> <br/>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부활밖에 없다고 하셨다”는 말씀이었다.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는 것인데 나의 믿음의 근거는 엉뚱한 것들이었다. 그러니 항상 세상 앞에 흔들리는 신앙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나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됐다. 그분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회개 뿐이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다 이뤄 주셨고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는데 어떻게 그 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을 수가 있냐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악한 중심을 정확히 찔러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마음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br/> <br/> 왕이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시라고 얼마나 많은 찬양을 불렀었는데 내 안엔 그저 나 자신만 있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살았던 것이다. 나는 끝도 없이 높아지려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영광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어떻게 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지 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었다. <br/> <br/> ‘내 마음의, 내 재능의,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후부터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다. 그 이후로 나의 삶은 자연스럽게 전도와 양육에 맞추어지게 됐다. 한번은 같은 동네 언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간 시어머님께 잘못했던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부둥켜 안고 눈물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그러고 2년쯤 후에 그 언니는 예전에 앓았던 암이 재발되어 위급하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병원에서 만난 언니는 나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불러달라고 했고, 나는 언니 앞에 쪼그리고 앉아 찬양을 불렀다. 어떤 화려한 무대도 부럽지 않은 최고의 무대였다. <br/> <br/> 한 때 음악을 통해 세상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으며 노래할 것을 꿈꾸던 나는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부활하신 주님께 발성법도 필요 없고 악보도 필요 없이 영원토록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릴 것을 소망한다.

언론사: 국민일보-3-470.txt

제목: '의혹'으로 시작해 '스토리'로 끝난 김상조 청문회… 결과는?  
날짜: 20170604  
기자: 진서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04085744001  
ID: 01100201.20170604085744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지난 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각종 '의혹'으로 시작했다가 그에 관한 여러 '스토리'를 대중에 알리며 막을 내렸다. 위장전입, 아내 취업, 아들 병역 등의 의혹이 쟁점이었던 청문회에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건 오히려 그의 낡은 가방과 아내의 암 투병 사연, 너무 돈을 안 써 이상하다는 생활 방식 등이었다.  <br/> <br/>청문회 때문에 빼먹은 학교 강의를 바로 다음날 온종일 보충했다는 뒷얘기까지 전해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낳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br/> <br/>대통령의 지명철회 또는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강경하게 반대하는 한국당과 달리 국민의당·바른정당은 반대의 강도나 상대적으로 약한 데다 채택 가능성에 여지를 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경우처럼 캐스팅보트를 쥔 두 소수 야당의 선택이 중요해졌다. 장관급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와 달리 국회 인준 절차가 없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br/> <br/> <br/> <br/>◇ 낡은 가방 <br/> <br/>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에 들고 온 커다란 가죽 가방은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됐다. 가방은 한눈에 봐도 낡아 있었다. 손잡이는 원래 색깔을 알 수 없을 만큼 누렇게 변질됐고, 옆면은 곳곳이 긁히고 변색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이 분의 삶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겠다</span>” “<span class='quot0'>문재인 대통령의 낡은 구두가 생각난다</span>”는 반응을 보였다. <br/> <br/>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 후보자의 제자'라는 사람이 이 가방에 관한 글을 올린 터였다. 2000년대 초반 한성대에서 김 후보자에게 수업을 들었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는 “교수님은 제 가치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라며 김 후보자와의 일화를 공개했다. <br/> <br/>그는 “정말 물욕이 없는 분이다. 애초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다. 옷이나 신발, 이런 거 관심도 없고 당시에 진짜 거적대기 같이 너덜너덜하게 다 떨어진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대학원생 때부터 쓰던 거라 하셨다”고 회상했다. 그가 말한 가방이 김 후보자가 들고 온 가죽 가방이었다. 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span class='quot1'>대학 다닐 때부터 들고 다니던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글쓴이는 김 후보자에게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가방 꼴이 그게 뭐냐고” 말했던 적이 있는데, 오히려 “사회적 지위가 뭐냐"고 반문하더라고 했다. 그가 “(경제개혁센터) 소장님이지 않느냐”고 하자 김 후보자는 웃으며 “맞긴 한데 그냥 대학원 때부터 쓰던 거라 편해서 쓴다. 이 가방이 뭐 어떠냐”고 말했다고 한다. <br/> <br/>글쓴이는 “김 후보자는 늘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했다”며 “학생 가르치는 사람이 뭐 차가 필요하냐. 이러고 다니는 게 편하다고 말하시곤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교수님의 카드 신고액이 ‘0'원이라는 걸 사람들이 의심할 줄 몰랐다. 옆에서 잠깐만 지켜보면 이상하지 않다는 거 안다. 생활에서 돈 쓸 일이 없는 양반”이라고 덧붙였다. <br/> <br/> <br/> <br/>◇ 주말 보강 <br/> <br/>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김상조 후보 멘탈이 대단하다”며 트위터로 그의 근황을 알렸다. 민 의원은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이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어젯밤 10시30분까지 청문회 하고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학생들에게 빼먹을 강의를 보강했다고 한다. 보통 같으면 스트레스 푼다고 한 잔 할 텐데”라며 이같이 전했다. <br/> <br/>김 후보자는 청문회가 끝난 뒤 "채택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무엇을 하며 지낼 거냐"는 질문에 “아직 학교에 강의도 남았고, 보강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일들을 마무리하겠다”고 답했었다. <br/> <br/>민 의원이 김 후보자의 '멘탈'을 언급한 건 청문회의 강도와 수위가 어느 때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청문회라기보다 고문”이라고 지적했고, 청문회가 끝난 뒤 트위터에 “야당이 종합비리세트라며 시작했지만 결말은 우체통 게이트다. 해외체류 시 우편물 수취를 위한 주소 이전이 본인과 직접 관련된 의혹의 전부(이고) 나머지는 관행이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br/> <br/> <br/> <br/>◇ 위장전입 사연 <br/> <br/>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청문위원들에게 아파트 특혜 매입, 다운계약서 작성, 위장전입, 논문표절과 부인 취업특혜 등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 추궁 받았다. 청담동 아파트 매입 의혹에 대해 그는 “2동짜리 작은 아파트이고 그늘진 1층이라 미분양 상태였다. 복덕방을 통해 재건축 사무실에 찾아가 직접 계약했다”고 해명했다. <br/> <br/>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내가 대장암 2기 판정을 받아 수술했고 수술한 병원이 강남에 있어 치료차 이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졌던 위장전입 문제의 사유가 주로 부동산 투자나 자녀 교육 때문이었던 것과 달리 암 투병 아내의 치료를 위해서였다는 게 알려지면서 큰 주목을 끌었다.  <br/> <br/>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문제에선 “당시 관행이었다”고 사과했다. 또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철저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br/> <br/>◇ 정의당 "합리적이고 성실·겸손" <br/> <br/> <br/>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김상조 후보자가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개혁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고, 엄격한 도덕성 검증에도 성실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며 적격 인사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의 의혹 해명에 대해서도 "솔직했다"며 긍정적은 입장을 내놨다. <br/> <br/>한 대변인은 "청문회에서는 보수 야당이 던진 '폭로성' 의혹에 대한 신상검증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정책검증도 진행됐다. 김 후보자가 재벌 중심 한국경제의 불공정 해소에 제대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br/> <br/>이어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보수야당은 인사청문회를 정부와의 힘겨루기 장으로 전락시키거나, 협치의 이름으로 적격인사를 부적격으로 낙인찍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br/> <br/>◇ 한국당 "부적격… 불공정위원장" <br/> <br/>정준길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부적격 후보자고, 불공정위원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정 대변인은 "위장전입, 논문 표절, 청담동 아파트 분양 특혜, 다운계약서, 부인 건보료 문제 등 나열하기도 어렵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br/> <br/>그는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협조로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문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협치를 하려는 전정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br/>진서연 객원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471.txt

제목: [사설] 김상조의 해명에도 세간의 시선 곱지 않다  
날짜: 201706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03172755002  
ID: 01100201.20170603172755002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국회에서 2일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초반부터 삐걱댔다. 야당은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 배우자 취업 및 아들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야당은 ‘지나친 요구’라고 반박해 논란이 벌어졌다. 어떻게 해서든 김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는 야당과 결코 밀릴 수 없다는 여당이 정면충돌한 것이다. <br/> <br/> 청문회에서는 지금까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다시 제기됐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간혹 “송구하다”고 자세를 낮추면서 비교적 차분히 해명했다. 청담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선 “청담동은 어렸을 때 살던 곳이라 지나가다 복덕방에서 미분양이라는 걸 알고 샀으며, 2동짜리 작은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2004년 위장전입한 것과 관련해선 아내의 암 치료를 위해 거주한 것이라고 말했고, 노사정위원회 보고서와 산업노동연구 논문 내용이 같은 ‘자기 표절’ 논란에 대해선 “노사정위 승인을 받고 학회지 요청을 받아 게재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나아가 “<span class='quot0'>지난 20년 동안 칼날 위에 서 있다는 긴장감을 갖고 살았다</span>”고도 했다.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 왔다는 얘기일 것이다. 그는 청문회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등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br/> <br/> 하지만 김 후보자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김 후보자가 ‘재벌 저격수’로 활동해오면서 본인은 물론 부인과 아들까지 특혜를 누려온 게 아니냐는 의문은 여전하다. 여당은 김 후보자에게 무려 18건의 의혹이 제기됐지만 실정법 위반이 드러난 게 없다고 강조하면서 김 후보자 감싸기에 주력하고 있다. 한 의원은 “<span class='quot1'>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 배후에 재벌이 있다는 소문이 돈다</span>”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까지 했다.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겠다던 다짐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 임명을 서둘러 강행해선 안 된다.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는 절차가 우선이다.

언론사: 국민일보-3-472.txt

제목: 일산병원, 암센터 확대 개소…통합진료 가능해져  
날짜: 20170602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02113644001  
ID: 01100201.201706021136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강중구)은 암센터 확장공사를 마무리짓고 지난 31일 개소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사진). <br/> <br/>2013년 개소해 유방암과 갑상선암, 소화기암에 대한 진료를 시행하던 일산병원 암센터는 이번 확대 개소를 통해 대장암, 간, 담도, 췌장, 폐암, 유방암, 갑상선암, 부인암으로 진료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암환자 치료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게 됐다. <br/> <br/>병원은 이를 위해 외과, 내과, 산부인과, 종양혈액내과 등 각 질환에 대한 전문 의료진을 구성하고, 암센터 내 초음파, 내시경 검사 장비를 배치해 암이 의심되거나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진단에서 치료,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이고 빠른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br/> <br/>병원 측은 또한 환자 개개인에 맞춰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등 진료과 간 긴밀한 협진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치료계획을 설계하는 등 다학제적 통합진료시스템 운영으로 암환자들의 치료효과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br/> <br/>특히 지난해 경기 북부 지역 최초로 도입한 최첨단 로봇 수술기를 통해 고난이 암수술은 물론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최소 침습 수술을 시행하며 환자들의 빠른 치료와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br/> <br/>먼저 항암전문병동을 신설해 1일 입원실을 운영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심적 안정이 필요한 암환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br/> <br/>또한 전담간호사와 영양사가 암환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교육 및 항암치료 부작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암재활 및 암스트레스 클리닉을 연계하여 치료과정에서 지친 환자들이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등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br/> <br/>강중구 일산병원장은 “<span class='quot0'>일산병원 암센터는 최신의료장비와 분야별 의료진협진, 환자별 맞춤치료 등 환자중심의 선진 진료시스템 운영을 통해 치료효과를 증대시킴은 물론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 나가겠다</span>”며 ”앞으로 특성화된 암센터 운영을 통하여 암치료분야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암치료 관련 적정자료를 산출하는 등 보험자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73.txt

제목: 암 유전자검사의 진화 가속 페달, 검사비는↓ 항목은↑  
날짜: 20170602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02112444001  
ID: 01100201.20170602112444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  <br/> <br/>몇 년 전 유방암 및 난소암 유전성 소인검사(Cancer predisposition panel)를 받고 암 예방 목적으로 멀쩡한 유방과 난소난관을 잘라내 화제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br/> <br/>건강한 그녀가 유전자 검사를 받은 이유는 외할머니와 이모 그리고 엄마로부터 난소암과 유방암에 대한 가족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br/> <br/>애플 CEO였던 스티브잡스도 췌장암에 걸려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왜냐하면 암을 일으킨 돌연변이 유전자 타입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알맞은 최고의 항암제를 찾아 항암화학요법 및 표적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br/> <br/>당시 스티브잡스와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자 검사 비용으로 지불한 액수는 우리 돈으로 무려 1억 2000만원이 넘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유전자 검사비용으로 사용한 셈이다. <br/> <br/>하지만 이제는 모두 ‘과거지사’가 됐다. 기술발전과 더불어 암 선별에 활용되는유전자검사비가 개인당 불과 100달러 수준으로 낮아졌고, 앞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br/> <br/>유전자 검사 장비 개발업체인 미국 일루미나는 최근 암과 각종 유전질환을 가려내는 유전자 검사 비용을 100달러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br/> <br/>개인맞춤 유전자검사 프로그램 상품을 시판하는 녹십자의료재단 등 국내 업체들도 사정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br/> <br/>녹십자의료재단 관계자는 2일 “<span class='quot0'>그동안 특정질환 하나를 선별하는데만도 10만~90만원씩 부과해온 것을 개선, 수백가지를 한데 묶은 패널검사 서비스로 재구성,제공하기로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로써 검사비 부담이 기존 대비 50% 이하로 낮춰지는 효과에다 검사항목이 수백배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 <br/> <br/>암∙유전 질환 등 돌연변이 유전자 찾는 NGS 유전자 검사 <br/> <br/>한편 유전자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인 차세대 염기서열(NGS)분석기는 우리 몸 속 유전자를 구성하는 염기서열을 해석하는 첨단과학기술의 총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br/> <br/>우리 몸 속 유전자는 아데닌(A), 구아닌(G), 시토신(C), 티민(T)이라는 네 종류의 염기가 일정한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부분의 염기가 없거나,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등 변이가 발견되면 암이나 유전질환 발생률이 높아 지는 것으로 본다. <br/> <br/>유전자 검사 기술 발전에 힘입어 국내에서도 그에 따른 법제를 개선 해 발맞춰왔다. 지난 2014년, 암∙심장병∙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 11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br/> <br/>2016년 1월에는 희귀질환 진단을 위한 검사 항목 114항목과 특정 항암제 처방을 위한 검사 항목 5항목, 혈액암 진단 및 치료반응평가, 예후 예측을 위한 검사 항목 15항목으로 분류해 총 134종을 새로이 추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는 이전에 유전자 별, 검사방법 별, 질환 별로 각기 분류된 유전자검사 분류체계를 검사원리 중심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요양 급여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br/> <br/>또 2016년말부터는 암∙희귀난치질환에 적합한 치료제를 위해 120종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br/> <br/>올해 2017년 3월부터는 이 모든 유전자 검사를암, 유전질환 별로 분류해 변이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필수 유전자를 포함한 유전자 패널을 구성하여, 하나의 유전자가 아닌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까지 한번에 검사하여 건강 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다. <br/> <br/>건강보험이 적용된 NGS 유전자 패널 검사 대상은 고형암 10종(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난소암, 흑색종, 뇌의 악성종양, 위장관 기저종양, 소아신경모세포종, 원발성불명암)과 혈액암 6종(급성 골수성 백혈병,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악성 림프종, 형질세포종, 골수 형성이상, 골수증식종양)과 유전질환 3종(망막 색소 변성, 유전성 난청, 샤르코마리투스병)을 포함한 기타 유전질환(유전자 30개 이하 유전성 유전자 검사)등이다. <br/> <br/>최근 NGS 유전자 패널 검사 기관승인을 받은 임상검사 전문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은 유전성 암 유전자(Hereditary cancer syndrome panel), 비유전성 혈액암(Hematologic malignancy), 유전성갑상선저하증(Hypothyroidism panel), 리소좀축적질환(Lysosomal storage disease panel), 유전성뇌전증(Epilepsy panel), 유전성 부정맥 (arrhythmia panel), 유전성 심근병증 (Cardiomyopathy panel), 유전성 골격이형성증 (skeletal dysplasia panel), 유전성 근육퇴행위축 (muscular dystrophy panel), 유전성 운동실조증(ataxia panel)등에 대해 패널을 구성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74.txt

제목: “보험 계약 후에도 15일 이내 철회 가능해요” 보험가입자의 5대 권리  
날짜: 20170601  
기자: 안규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01170444001  
ID: 01100201.20170601170444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전업주부 A씨는 보험설계사 친구가 보험을 들어달라고 부탁해 아들 앞으로 암보험에 가입했다. 다음 날 A씨는 아들을 위해 가입해 뒀던 다른 보험에서도 암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섣불리 보험에 가입한 걸 후회했다. <br/> <br/>A씨처럼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가입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를 1일 소개했다. <br/> <br/>A씨는 청약철회권리에 따라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기간을 넘기면 이자까지 줘야 한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은 예외다. <br/> <br/>이외에도 소비자들은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품질보증해지권리, 기존계약 부활권리,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있다. <br/> <br/>소비자들은 보험 계약 시 불완전판매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품질보증해지권리)할 수 있다.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가 계약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보험설계사가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불이익 없이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br/> <br/>사고발생 사실을 모르고 보험을 철회한 경우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에 따라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br/> <br/>보험설계사의 부당권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기존 계약 부활 권리’에 따라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 보험을 부활할 수 있다. 새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br/> <br/>보험 증권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소비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라면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br/> <br/>안규영 수습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475.txt

제목: 세계 최대 비행기 ‘스트래토론치’ 공개… 우주선 싣고 난다  
날짜: 20170601  
기자: 권중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01165144002  
ID: 01100201.20170601165144002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 폴 앨런(64)이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를 만들어 공개했다. 이 비행기는 미식축구 경기장에 버금가는 크기를 자랑한다. <br/> <br/>앨런이 이끄는 기업 스트래토론치 시스템스는 지난 3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 세계 최대 비행기 스트래토론치(Stratolaunch)를 격납고 밖으로 옮겨 처음 공개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스트래토론치 시스템스는 앨런이 우주개발을 목표로 2011년 창업한 우주벤처기업이다. <br/> <br/>공개된 비행기는 날개 길이만 117.3m로 미식축구 경기장 폭보다 길다. 본체 길이는 72.5m, 높이는 15.2m나 된다. 연료를 가득 채울 경우 무게가 34만㎏에 달해 제작사는 기체를 띄우기 위해 점보제트기인 보잉 747의 제트엔진을 6개나 달았다. 바퀴도 28개가 달려 있다. <br/> <br/>엄청난 크기 때문에 제작용 비계를 만들 때도 특별 건설 허가를 받아야 했다. <br/> <br/> <br/> <br/>스트래토론치를 사람이 아닌 로켓을 싣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반적으로 우주선은 지상에서 거대 로켓에 실려 지구 밖으로 나간다. 하지만 이 방식은 시간과 공간, 날씨의 제약을 많이 받고 비용도 비싸다. <br/> <br/>앨런은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거대한 비행기에 로켓을 싣고 3만 피트까지 올라간 후 우주로 발사하는 계획을 세웠다. 최대 453㎏ 정도의 로켓을 싣고 해발 1만668m 상공까지 비행한 후 공중에서 로켓을 발사해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비행기 중앙에는 우주로켓을 장착할 수 있는 발사대가 있다. <br/> <br/> <br/> <br/>1975년 빌 게이츠와 함께 MS를 만든 앨런은 호지킨 림프종이라는 암 투병을 하면서 1983년 경영에서 손을 뗐지만, 그 후로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35세에 미국 프로농구(NBA)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를 인수해 3대 프로스포츠 사상 최연소 구단주가 됐다. 미국 프로축구(MLS) 시애틀 사운더스의 공동구단주이기도 하다. <br/> <br/>2003년에는 뇌과학연구소를 세워 뇌 기능 연구에 거액을 투자해 왔고, 2004년에는 최초의 민간 유인우주선 ‘스페이스십1’을 쏘아올렸다. 또 126.1m 짜리 초호화 요트인 옥토퍼스호(號)를 타고 다니며 해저에서 일본 전함 무사시(武藏)의 잔해를 발견하기도 했다. <br/> <br/>앨런은 <포브스>가 발표한 ‘2017년 세계 억만장자 목록’에서 재산규모 199억 달러를 기록하며 42위에 올랐다. <br/> <br/>권중혁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476.txt

제목: 순천향대서울병원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장비 도입  
날짜: 20170601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601093545001  
ID: 01100201.2017060109354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원장 서유성)은 인간 유전체 분석에 최적화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검사 장비를 새로 도입, 오는 15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br/> <br/>이 NGS 검사장비는 미국 및 국내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일루미나(Illumina)사의 ‘MiSeqDX’( <br/>사진)로 최첨단 기술로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염기서열 분석 장비다.  <br/> <br/>개인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분석해 분자수준의 진단 및 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해주고 가족 검사를 통해 예방적 의료를 실현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 <br/> <br/>NGS 검사는 패널 형식의 처방을 통해 진행하며 환자로부터 채취된 소량의 혈액을 바탕으로 다량의 유전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br/> <br/>주요 과정은 혈액에서 핵산을 추출한 후 여러 단계의 결합과 증폭 과정을 거치게 되고 3일간 장비 및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가동시켜 유전 정보를 얻는 방식이다. <br/> <br/>NGS 기반의 검사방법은 기존의 단일 유전자 검사인 생거시퀀싱(SS, Sanger Sequencing)과 달리 한 번에 수십·수백 개의 유전자를 한 패널로 구성해 유전 정보를 분석하기 때문에 유전성 질환 및 암 질환의 진단률을 높일 수 있고 시간과 비용에서 효율성이 좋다. 보다 짧은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다량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br/> <br/>또 NGS 결과로 유전성 질환과 암 질환의 세부 진단 외에도 최근 개발되고 있는 분자 수준의 표적 약물의 치료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br/> <br/>NGS 기반의 유전자 검사를 시행할 경우 유전성 질환과 비유전성 혈액암, 고형암에 대하여 선별 급여 적용을 받아 환자는 총 검사 비용의 50%를 부담하게 된다. <br/> <br/>김지은 순천향대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NGS 유전자 패널 검사의 시작은 진단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한 다</span>”며 “<span class='quot0'>질병의 세부 진단, 개인별 맞춤 치료 및 예방적 의료가 가능해진만큼 이 검사법이 다양한 진단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77.txt

제목: 한국인의 암 발병 2,3위 위암과 대장암, 건강검진으로 원천 봉쇄  
날짜: 201705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31140044001  
ID: 01100201.201705311400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최근 통계청의 ‘10만 명 인구 중 암 발생 환자 수’에 의하면 한국인이 시달리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위암은 2위, 대장암은 3위를 차지했다. 이는 서구화된 식습관, 과도한 음주문화 및 업무에 노출된 우리의 세태를 반영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br/> <br/>특히 위암과 대장암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어 몸으로 느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나, 초기 발견 시 치료 예후가 좋으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하며 생활습관의 교정이 필요하다. 밀가루와 인스턴트 식품 섭취를 자제하며 적당한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은 암 예방의 기본이다. <br/> <br/>건강검진은 조기진단과 예방, 신속하고 원활한 치료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 대장암의 발생이 많은 나라지만 위암, 대장암은 조기 발견 시 완치가 가능하고 다른 암에 비해 내시경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주기적인 검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지만 위암과 대장암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미리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br/> <br/>종로구에 위치한 튼튼내과 안태홍 원장은 “<span class='quot0'>대장, 위내시경 검사 시 소화기내과 경험과 다양한 사례를 거친 내과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span>”라며 “<span class='quot0'>미세한 반응 및 변화를 감지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대장내시경 검사 중 암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종이 발견되면 즉시 제거해야 하는데, 동대문역 튼튼내과에서는 첨단 장비를 도입해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하는 원스톱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br/> <br/>이어 안 원장은 “<span class='quot1'>잘못된 식습관과 음주문화에 노출된 현대인이라 해도 건강검진을 통해 발병률을 90% 낮출 수 있다</span>” 라며 “<span class='quot1'>위암과 대장암은 조기 발견할수록 완치율이 높아지니 질환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올바른 식습관에 주의해야 한다</span>”고 당부했다.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78.txt

제목: ‘암 환자와 가족 위한 기도의 날’ 6월 5일 한국교회 함께 기도해요  
날짜: 201705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31000056002  
ID: 01100201.2017053100005600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6월 5일은 ‘한국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기도의 날’이다. 한국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기도모임(한가모)은 제18회 한국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기도의 날을 앞두고 고통 받는 암환자와 가족을 위해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br/> <br/> 한가모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암으로 7만 5000명 이상이 숨지고 20만 명의 새로운 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투병중인 암 환자는 130만 여명. 그 가족까지 합하면 250만 명이 암으로 고통 받고 있다. <br/> <br/> 조무성(사진) 실무대표는 “<span class='quot0'>한국교회가 6월 5일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기도의 날을 기억해 이번주간 새벽예배, 수요·금요·주일 예배 때 기도해 주길 바란다</span>”고 밝혔다. 조 대표는 특히 6월 5일 당일 기독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암환자와 가족이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국가의 암 정책이 수요자 중심이 되도록, 호스피스 기관이 있는 곳마다 암환자와 가족의 샬롬쉼터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언론사: 국민일보-3-479.txt

제목: [미래 성장을 위한 기업경영-아모레퍼시픽] 지난해 240억… 사회공헌활동 아낌없는 후원  
날짜: 201705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31200255003  
ID: 01100201.20170531200255003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인류 공헌에 대한 염원을 담은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지난해 사회공헌활동에 240억원을 집행했으며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br/> <br/> 아모레퍼시픽은 ‘A MORE Beautiful World’라는 비전 아래 모든 여성들이 저마다 꿈꾸는 삶을 누리며 더 아름다운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여성’ ‘자연생태’ ‘문화’ 등 3대 핵심 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br/> <br/> 2008년부터 시작된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와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고통받는 여성 암 환자들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 관리, 헤어 연출법 등을 전수하는 캠페인이다. 또 아모레퍼시픽이 후원하고 아름다운재단이 운영하는 ‘희망가게’는 한부모 여성의 자립을 위한 창업 대출을 지원해주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이다. 2004년 1호점 개점 이후 현재까지 303개점(2월 기준)이 문을 열었다.

언론사: 국민일보-3-480.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114)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불임클리닉] 최적 치료로 임신 성공 도와‘각광’  
날짜: 20170530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30050355001  
ID: 01100201.2017053005035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의학에서 불임이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져도 1년 이내 임신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한다. 평생 임신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일차성 불임과 과거 임신을 해 본 적이 있는 이차성 불임으로 나뉜다. <br/> <br/> 일반적으로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할 경우 임신을 할 확률은 1개월에 25%, 6개월에 70%, 1년에 85% 정도다. 따라서 1년 이내 임신이 안 되면 산부인과를 방문, 불임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권장된다. <br/> <br/> 한국인 부부의 불임 발생빈도는 대략 10∼15% 정도로 추정된다. 불임 가능성은 배우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커진다. 특히 여성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6개월∼1년 이내 임신이 안 되면 신속히 불임검사를 받고, 적절한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 <br/> <br/>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불임클리닉은 개인 맞춤형 진료를 통해 각 불임환자가 필요로 하는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치료방침을 수립해 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 각광받고 있다. <br/> <br/>국내 최초 시험관아기 시술 <br/> <br/> 서울대병원 불임클리닉은 1985년 국내 최초로 시험관 아기 시술에 성공한 이래 불임 부부의 진단과 치료, 연구 분야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br/> <br/> 서울대병원 산부인과는 교수진 17명, 임상강사 8명, 전공의 3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약 30%가 불임의 진단과 치료, 연구를 전문 분야로 삼고 있다. 최영민 김석현 서창석(병원장) 구승엽 김훈 등 교수 5명과, 김성우 김하신 등 전임의 2명이 그 주역이다. <br/> <br/> 서울대병원 불임클리닉에는 정자와 난자 세포를 키우고 관리하는 바이올로지스트 연구원도 다수 일하고 있다. 시험관아기 프로그램 시술 및 관리에 꼭 필요한 연구 인력이다. <br/> <br/> 2016년 한 해 동안 시험관아기를 포함 서울대병원에서 이뤄진 총 분만건수는 1500여 건이다. 1985년 이후 지금까지 32년간 이곳서 시행된 체외수정시술(시험관아기)은 총 1만1549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br/> <br/> 서울대병원 불임클리닉은 국내 불임 전문가의 산실로 통한다. 그동안 이 클리닉서 고강도 수련을 마치고 국내 유수의 난임센터에서 핵심 멤버로 활동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만도 100여 명에 이른다. <br/> <br/>착상 전 유전진단 첨단기술 <br/> <br/> 서울대병원 불임클리닉은 불임 치료를 위해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시험관아기) 프로그램 외에도 다른 난임(불임)센터가 넘보기 힘든 의료술을 몇 가지 더 갖고 있다. <br/> <br/> 대표적인 것이 착상 전 유전진단(PGD)법과 가임력 보존기술이다. <br/> <br/> 착상 전 유전진단은 체외수정기술이 발전하면서 개발된 첨단기술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초기 세포분열 단계(4∼8세포기)의 배아에서 세포 한 개를 할구(割球), 유전검사를 해본 뒤 결함이 없는 배아만 자궁에 착상시켜 임신을 유도할 수 있다. <br/> <br/> 통상적인 산전 유전진단법은 임신 초기에 양수검사나 융모막 검사 등을 통해 얻은 태아세포에서 유전질환이나 염색체 수와 구조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방식이다. 그 결과 문제가 있으면 이미 자궁에서 자리를 잡은 태아를 중절수술로 지워야 하는 고통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br/> <br/> 착상 전 유전진단법을 활용하면 이런 난관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 불임클리닉은 다양한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성인과 소아 환자를 진단한 경험을 바탕으로 착상 전 유전진단법을 발전시켜 왔다. <br/> <br/> 현재 이 클리닉의 착상 전 유전진단 후 임신 성공률은 보통의 체외수정시술 프로그램과 비슷한 30% 내외 수준이다. 할구세포 유전검사를 통해 배아가 손상되는 일이 없다는 얘기다. <br/> <br/>암환자 대상 가임력 보존 <br/> <br/> 서울대병원 불임클리닉은 ‘가게 안의 가게’ 개념의 특수클리닉으로 ‘가임력(임신능력) 보존 클리닉’도 특별히 운영 중이다. <br/> <br/> 암을 진단 받은 가임기 여성이나 남성이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할 때 난소 또는 정소 기능 저하가 우려되된다. 이럴 때 가임력 보존 클리닉이 필요하다. <br/> <br/> 최영민 교수는 29일, “<span class='quot0'>일단 항암치료를 시작하면 생식기능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이후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가 없게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암 진단 당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결혼을 한 상태라 하더라도 아직 출산을 하지 않은 경우, 또한 아이를 더 갖길 원하는 경우엔 모두 가임력 보존 치료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 <br/> 가임력 보존 치료 대상은 비단 성인 암환자만이 아니다. 소아청소년 암환자도 해당된다. <br/> <br/> 서울대병원 불임클리닉은 소아청소년과, 종양내과, 외과 등 담당 교수들과 협진을 통해 암 진단과 동시에 암 치료계획을 세울 때 해당 청소년 암 환자의 가임력 보존 방법도 같이 논의해 최적의 해법을 제공해주고 있다. <br/> <br/> 가임력 보존 치료는 크게 동결보존, 난소보호제(성선자극호르몬 분비호르몬 작용제), 수술적 방법(난소전위) 등으로 진행된다. 동결보존은 배아 동결보존, 난자 동결보존, 난소조직 동결보존, 정자 동결보존이 모두 가능하다. <br/> <br/> 배아동결보존은 현재 체외수정 시술 후 잔여 배아를 보존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임상적으로 입증된 가장 효과적인 가임력 보존 방법이다. <br/> <br/> 최 교수는 “<span class='quot0'>난자동결보존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 암 환자가 선택하는 가임력 보존 방법, 정자동결보존은 남성 암 환자가 항암 치료 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가임력 보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 난소조직 동결보존은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을 확보한 의료진만이 시행 가능한 가임력 보존 방법이다. 난소를 통째로 떼어내 동결 보존하다가 암 치료 및 5년 생존 후 재이식, 한 달에 한 개씩 난자를 생산해 자연임신을 도모하는 최첨단의술이다. <br/> <br/> 전 세계적으로 서울대병원 불임클리닉을 포함한 일부 기관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이 방법으로 임신 및 출산에 성공한 경우도 100명 미만에 그치고 있다. <br/> <br/> 서울대병원 불임클리닉 측은 현재 여성 암 생존자 6명의 난소를 동결보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4년부터 56명의 난자, 17개의 배아, 61명의 정자도 냉동 보관 중이라고 했다. <br/> <br/>주3회 집담회 열어 <br/> <br/> 서울대병원 불임클리닉은 주3회 정기 집담회를 열어 최신 불임연구동향을 살피고, 새로운 치료방향을 제시하는 등 국내 불임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br/> <br/> 시험관아기연구실에서 진행하는 배양실 운영 관련 콘퍼런스, 불임클리닉에서 진행하는 최신 임상의학뉴스 관련 콘퍼런스, 임상 의사와 연구원이 함께 불임치료계획을 복기하는 콘퍼런스를 통해 내공을 단련하고 있기도 하다. <br/> <br/>글=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사진=최현규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481.txt

제목: 치유건축 위해 건축·환경·의료 전문가들 모였다! 한국치유건축학회 발족  
날짜: 201705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29170044001  
ID: 01100201.201705291700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유해성을 차단하고, 건강이 증진되는 솔루션을 오랫동안 연구, 개발한 국내의 건축, 의료, 환경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한국치유건축학회를 발족하였다. <br/> <br/>1기 임원으로는 회장 전세일(차의과학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장), 사무처장 이명재(한국치유건축연구소장, 아모루대표)가 선정되었으며, 추후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을 추가로 영입해 국제치유건축학회로 재발족키로 합의했다. <br/> <br/>산업국가의 질병 중 25%~33%는 환경요인에 의해 발생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대인들의 질병은 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br/> <br/>생명연장에 반드시 필요한 환경요인인 공기, 물, 음식물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오염되어 관련 질병이 많아진 것이며, 특히 최근에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초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의 공기마저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br/> <br/>더욱 큰 문제는, 현대인들이 하루의 90% 이상을 생활하고 있는 건축물 실내의 공기가 외부의 공기에 비해 6배 이상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br/> <br/>외부 공기는 초미세먼지로 오염되어 있고, 실내 공기는 라돈, TVOC, 환경호르몬, 이산화탄소, 요리매연으로 오염되어 환기조차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이미 2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전자파로 인한 위험이 건축물의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br/> <br/>이러한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현대병에는 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등 대사성질환과 비염, 아토피, 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 각종 암, 난치 및불치성 질환 등이 있는데,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이 이미 GDP(국민총생산) 대비 13%를 넘어섰다는데 있다. <br/> <br/>의료비의 증가는 개인과 한 가정의 파탄을 넘어 한 국가를 디폴트(default) 상태로까지 몰고가는 아주 위험한 문제이므로, 건축물을 유해성이 없고 치유의 기능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br/> <br/>한편, 학회 발기인 명단(가나다순)은 아래와 같다. <br/>• 김기옥 국회 과학정책위원회 이사, 임상통합의학암학회 고문 <br/>• 노명수 한국패시브건축협회 서울지부장, 건축사 <br/>• 방건웅 한국뉴욕주립대 교수, 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센터장 <br/>• 서영기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위원 <br/>• 송민훈 전 홍익대 교수, MOTO 대표 <br/>• 이기택 전 기술창업협의회 회장, 산내음 회장 <br/>• 이명재 한국치유건축연구소장, 아모루 대표 <br/>• 이성근 한국제로에너지건축협회 위원장, 패시브웍스 대표 <br/>• 이태구 세명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베를린공대대학원 주거학 박사 <br/>• 전순용 동양대 전자유도기술학과 교수, 빛과 소리 연구소장 <br/>• 전세일 석정웰파크병원장, 차의과학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원장 <br/>• 최석재 뉴고려병원 응급의학과장 <br/>• 홍완기 홍진HJC 회장, 신지식인 <br/>• 황경식 명경의료재단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82.txt

제목: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참여 공동연구진, 당 좋아하는 폐암세포 발견  
날짜: 20170529  
기자: 대구=최일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29162944001  
ID: 01100201.201705291629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이신엽 호흡기내과 교수(사진)와 김정환 미국 텍사스대 교수 등이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진이 폐암 가운데 ‘편평상피암’이 특히 포도당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29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공개됐다. <br/> <br/> 연구진에 따르면 폐암은 암 중에서도 특히 치료가 어려워 세계적으로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한다. 최근의 표적치료제들은 대부분 폐암의 한 종류인 폐선암에 집중돼 있다. 폐편평상피암은 아직 효과적인 표적치료제가 없어 전통적인 세포독성 항암제에 의존하고 있다. <br/> <br/> 연구진은 폐편평상피암이 폐선암에 비해 포도당 수송 단백질인 ‘GLUT1’을 월등히 많이 가지고 있으며 포도당의 섭취와 대사가 증가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쥐와 사람의 폐에서 분리한 편평상피암에서도 이런 특성을 확인했으며 GLUT1 기능의 저해를 통해 편평상피암을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br/> <br/> 또 암 환자 1만10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러 암종에서 편평상피암이 세포막에 GLUT1을 유독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편평상피암은 폐뿐 아니라 두경부, 식도나 자궁경부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연구진은 다른 조직에 발생한 편평상피암에서도 GLUT1의 역할이 중요한지 연구할 계획이다. <br/> <br/> 이신엽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를 통해 폐암세포의 종류마다 포도당 대사 의존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span>”며 “<span class='quot0'>GLUT1 및 포도당 대사를 표적으로 하는 편평상피암의 표적치료제 개발 가능성 높아졌다</span>”고 밝혔다. <br/> <br/>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83.txt

제목: '올맨브러더스 밴드' 그레그 올맨 타계…미 대표적 록스타  
날짜: 20170528  
기자: 박효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28092744001  
ID: 01100201.20170528092744001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미국 남부의 서던 락을 대표하는 그래미상 수상 악단 올맨 브러더스 밴드(Allman Brothers Band)의 그레그 올맨이 27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너의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향년 69세로 숨을 거두었다. <br/> <br/>올맨의 매니저인 마이클 레먼은 그의 사인이 간암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올맨은 최후까지 연주활동을 하기 위해서 암에 걸린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었다고 그는 말했다. <br/> <br/>올맨은 지난해 10월 공연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 예약되어있던 연주회는 건강 때문에 모두 취소해야했다. 그는 지난 8월 "중대한 건강상의 이유로 마요 병원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목수술을 받는다며 사람들과의 면담을 모두 취소했고 올해 3월에는 2017년 중에 예정되어 있던 공연들도 모두 취소했다. <br/> <br/>아직 장례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맨의 유언대로 거의 반세기 전(1969년) 밴드를 출범시켰던 조지아주 메이컨 시의 로즈 힐 묘지에 있는 기타리스트였던 형 듀에인 올맨의 곁에 나란히 묻히게 된다. <br/> <br/>같은 서던 락과 컨트리 뮤직의 찰리 대니얼스는 트위터에 "그레그 올맨은 블루스에 탁월한 감성을 가진 희귀한 존재였다. 그의 훌륭한 목소리가 멈췄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올렸다. <br/> <br/>테네시주 내쉬빌에서 태어난 올맨은 금빛 장발로 유명했으며 아버지가 총격으로 사망한 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형 듀에인을 우상처럼 여겨 그를 따라서 여러 밴드에 참가했고 함께 올맨 브러더스 밴드를 결성해 큰 인기를 누렸다. <br/> <br/>이 밴드는 1969년 1집 데뷔 앨범 (The Allman Brothers Band) 을 냈고 1995년 그래미상 최우수 락 연주상을 받았다. 1995에는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정도로 대중적 인기를 누렸다. <br/> <br/>그는 2012년 회고록 " 내가 진 십자가"( My Cross to Bear )에서 아버지가 술집에서 만난 어떤 남자에게 살해된 후 그의 평생의 삶의 중심인물은 형 듀에인이었다고 밝혔다. <br/> <br/>이들을 최고 스타로 만든 건 데뷔앨범이 아니라 1971년에 낸 "필모어 이스트에서"(At Fillmore East)였다. 이후 밴드는 인기의 정점에 올랐고 듀에인은 자신의 악단 뿐 아니라 아레사 프랭클린, 윌슨 피켓, 에릭 클랩턴과 함께 세션작업을 하면서 최고의 기타리스트로 떠올라 팬들의 열광적 환영을 받았다. <br/> <br/>그러나 형 듀에인은 필모어 공연의 녹음 음반을 낸지 불과 몇달 후인 1971년 10월에 오토바이 사고로 숨졌다. 다음해에는 악단 멤버중 오클리도 같은 사고로 사망해 그레그는 평생 불운과 상심에 시달렸다. <br/> <br/>2012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레그 올맨은 "자신은 평생 형을 매일처럼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왔으며 가끔씩은 실제로 그의 존재를 확실히 느끼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br/> <br/>1980년대에 해산한 올맨 브러더스 밴드는 그 이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여러 차례 재구성과 재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창립 20년이 넘은 1990년대 부터는 다시 새로운 멤버, 새로운 음악으로 새 팬들을 만나고 있다. <br/> <br/>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84.txt

제목: 울 엄마 얼굴이 가장 받고싶은 상 … 네티즌 울린 ‘6학년의 시’  
날짜: 20170527  
기자: 김동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27103844001  
ID: 01100201.20170527103844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초등학교 6학년이 쓴 시 한 편이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br/> <br/> 지난 4일 전라북도 교육청은 지난해 ‘전라북도 교육청 공모전’ 동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시 한 편을 페이스북에 소개했다. 이슬(13)양이 암 투병 끝에 떠나보낸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쓴 시다. <br/> <br/> <br/> <br/>이양은 ‘받아도 감사하다는 / 말 한마디 안 해도 / 되는 그런 상 / 그때는 왜 몰랐을까? /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 그 상을 내시던 / 주름진 엄마의 손을’ 이라며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을 당연하게 여겼던 미안함을 내비쳤다. <br/> <br/>이어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 엄마의 밥상 / 이제 다시 못 받을 /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 울 엄마 얼굴(상)’ 이라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놨다. <br/> <br/> 시의 마지막에는 엄마와 딸이 손을 꼭 잡고 밥상 옆에 서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br/> <br/> 지난 21일 전북일보에 따르면, 이양의 아버지는 지난해 아내가 암 투병 생활을 하던 중 하늘로 떠났다고 전했다. 이양 아버지는 “<span class='quot0'>‘시를 쓰며 엄마와 대화를 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대견스러웠다</span>”고 말했다. <br/> <br/> 올해 중학생이 된 이슬 양은 “가난했지만 엄마와 함께 지냈던, 엄마가 차려주셨던 밥상이 그립다”며 “무엇보다 더 보고 싶은 것은 엄마의 얼굴”이라고 전했다. <br/> <br/> 당시 한 심사위원은 “이 아이가 쓴 동시를 처음 읽었을 때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사위원 세 명이 가장 좋은 작품을 고를 때 만장일치로 이 작품을 뽑았다”며 “무엇보다도 일기처럼 써내려간 아이의 글씨와 지웠다 썼다가 만지작거리던 종이 원본이 정말 마음에 깊이 남았다. 최종적으로 좋은 상을 받게되어서 나도 기뻤다. 이 아이는 커서 시인이 될 것이다. 직업으로서 시인이 아니더라도 삶을 시적으로 살아낼 힘을 가진 어른으로 자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br/> <br/>다음은 이양이 쓴 시의 원문이다. <br/> <br/> <br/> <br/>김동운 객원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485.txt

제목: [이지현의 기독문학기행] 아이들을 사랑한 이, 동화같은 봄을 선물하다  
날짜: 20170527  
기자: 창원=글·사진 이지현 선임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27000056001  
ID: 01100201.20170527000056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나라를 잃어버렸던 시기에 민족이 즐겨 불렀던 노래는 겨레의 마음이 됐다. 이 시절 만들어진 동원(冬原) 이원수(1911∼1981)의 '고향의 봄'과 최순애(1914∼1998)의 '오빠생각'은 해방 뒤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면서 어린이뿐 아니라 동심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즐겨 부르는 겨레의 노래가 됐다. <br/> <br/> 식민지 조선은 아동문학의 불모지였다. 소파 방정환이 1923년 월간 잡지 '어린이'를 펴내면서 아동문학이 싹트기 시작했다. 당시 '어린이'를 애독하던 12세 최순애는 '오빠생각'(1925)으로, 16세 이원수는 '고향의 봄'(1926)으로 등단했다. '어린이' 잡지를 통해 알게 된 이들은 '기쁨사'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더 가까워졌고 10여년 동안의 펜팔로 부부의 연을 맺었다. <br/> <br/>꽃대궐 차린 동네 <br/> <br/>‘아동문학의 거목’ 이원수는 방정환과 함께 근대 어린이문학, 문화운동의 선구자로 꼽힌다. 그는 민족의 현실을 시의 소재로 삼았고 우리 민족이 겪어왔던 아픔과 슬픔, 안타까움과 그리움 같은 민족정서를 풀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동시를 썼다. 해방 후에는 주로 통일과 민주주의, 생명존중과 더불어 사는 삶. 정의와 같은 문제를 소년소설과 동화 속에 담았다. <br/> <br/> 대표작 ‘고향의 봄’은 일제식민지 시절 한일합병 이전의 조선을 그리워하며 조국을 떠나 만주, 연해주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운동가들의 심정을 우회적으로 노래했다. 지난 21일 이원수 문학의 산실이며 ‘고향의 봄’의 배경지인 경남 창원을 찾았다. <br/> <br/>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고향의 봄 도서관’ 지하1층에 이원수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엿볼 수 있는 문학관이 있다. 문학관엔 이원수의 아내 최순애가 평소 읽던 성경책도 전시돼 있다. 최순애는 ‘어린이’에 이원수보다 한 해 먼저 동요가 입선될 정도로 동요에 관심이 많았지만, 결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집안살림을 도맡느라 동요를 계속 쓰지 못했다. 대신 신앙생활과 교회봉사에 열중했다. 그가 동시집을 내려고 써둔 원고들은 6·25전쟁 당시 불타 소실됐고 10편 정도 남았다. <br/> <br/> “<span class='quot0'>뜸북 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뻐꾹 뻐꾹 뻐꾹새 숲에서 울 제/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기럭기럭 기러기 북에서 오고/귀뚤귀뚤 귀뚜라미 슬피 울건만/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span>”(‘오빠생각’ 전문) <br/> <br/> 최순애의 ‘오빠생각’은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오빠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동시다. 그의 오빠 최영주는 일본 도쿄에서 유학까지 한 지식인이었다. 최영주는 일본 경찰에 쫓겨 숨어 다니다가 건강을 해쳐 결국 요절했다. 최순애는 생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작(詩作) 동기를 이같이 밝혔다. <br/> <br/> “오빠는 고향인 수원에서 소년운동을 하다가 서울로 옮겨 방정환 선생 밑에서 소년운동과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다. 집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오질 않았다. 오빠가 집에 올 때면 늘 선물을 사 왔는데 한번은 ‘다음에 올 땐 우리 순애 고운 댕기 사줄게’라고 말하고 서울로 떠났다. 그러나 서울 간 오빠는 소식조차 없었다. 그런 오빠를 그리며 과수원 밭둑에서 서울 하늘을 보면서 울다가 돌아왔다. 그래서 쓴 시가 바로 ‘오빠 생각’이었다.” <br/> <br/> 이원수가 남긴 많은 작품엔 창원의 천주산과 실개천 공기와 바람이 젖어있다. “내가 자란 고향은 경남 창원읍이다. 나는 그 조그만 읍에서 아홉 살까지 살았다…창원읍에서 자라며 나는 동문 밖에서 좀 떨어져 있는 소답리라는 마을의 서당에 다녔다. 소답리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읍내에서도 볼 수 없는 오래 되고 큰 기와집의 부잣집들이 있었다. 큰 고목의 정자나무와 봄이면 뒷산의 진달래와 철쭉꽃이 어우러져 피고, 마을 집 돌담 너머로 보이는 복숭아꽃 살구꽃도 아름다웠다…창원의 성문 밖 개울이며 서당 마을의 꽃들이며 냇가의 수양버들, 남쪽 들판의 푸른 보리. 이런 것들이 그립고 거기서 놀던 때가 한없이 즐거웠던 것 같았다. 그래서 쓴 동요가 ‘고향의 봄’이었다.” (수필 ‘흘러가는 세월 속에’ 중에서) <br/> <br/> 남산자락 고향의봄 도서관 <br/> <br/> 이원수 문학관을 나와 뒷산의 산책로를 따라 걸어 올라가면 남산자락과 만난다. 복숭아꽃 살구꽃이 피었던 남산자락에는 보리밭과 미나리밭이 파란들처럼 펼쳐져 있다. 이원수가 어린 시절 성장한 천주산 아래의 소답동으로 발길을 향했다. 문학관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에 있다. <br/> <br/> 이원수가 양산에서 태어나 한 살 때 이사해 아홉 살 때까지 살았던 곳이다. 그의 동심 속 ‘작고 초라한 성문 밖 개울, 서당 마을의 꽃, 냇가의 수양버들, 남쪽 들판의 푸른 보리밭’이 있는 서정적 공간이다. 그의 ‘정서적 샘’ 역할을 했던 천주산은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다. <br/> <br/> 창원읍성은 도시가 형성되면서 대부분 없어졌고 터만 남았다. 이원수는 어린 시절 성문을 드나들며 서당에 다녔을 것이고, 동네를 가로지르며 친구네로 놀러갔을 것이다. 돌담 너머 대궐집이 보였다. ‘고향의 봄’ 노랫말에서 ‘꽃대궐’로 표현된 조각가 김종영 선생 생가 마당엔 울긋불긋 꽃들이 피어 있었다. “<span class='quot0'>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span>”(‘고향의 봄’ 중에서) <br/> <br/> 소답동 창원초등학교 입구부터 김종영 생가까지의 이면도로는 ‘고향의 봄길’로 지정돼, 이원수의 삶을 소개하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4∼6세 때 살았던 북동리 207번지엔 성장지 표지석이 있다. 또 창원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용호동 용지공원에 ‘고향의 봄’ 시비가 세워졌다. <br/> <br/> 일제강점기 이원수는 당시 주류였던 동심주의나 천사주의를 뛰어넘는 면모를 보였다. 일제강점기의 현실 속에 우리 민족이 겪어야했던 설움을 작품 속에 잘 드러냈고 해방 후엔 동시로 표현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동화와 소년 소설에 담았다. 6·25전쟁이후엔 분단, 실향 이산가족의 문제를 작품 속에 담아 어린이 문학이 사회의 가장 첨예한 현실문제까지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br/> <br/> 그러나 그가 일제 말기에 친일시를 쓴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대해 아동문학가 이오덕은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2002년 회보에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만큼 불의와 부정을 싫어하고 어떤 권력 앞에서도 굽히거나 타협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이렇게 살았던 태도로 미루어 선생은 일제 말기에 한때 저질렀던 그 친일 행적을 뼈아프게 뉘우쳤음이 분명하다. 어쩌면 선생은 친일 동시를 썼던 몇 해 동안의 죄를 갚기 위해 그 세월의 꼭 10배나 되는 동안(한평생을) 우리 어린이와 겨레를 살리기 위한 작품을 남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br/> <br/> 이원수는 ‘민들레의 노래’ ‘메아리 소년’ ‘호수속의 오두막집’ 등 반전(反戰)메시지를 담은 작품, ‘땅 속의 귀’ ‘어느 마산 소녀의 이야기’ ‘벚꽃과 돌멩이’ 등 4·19정신을 담은 작품, ‘토끼대통령’ ‘명월산의 너구리’ ‘잔디숲의 이쁜이’ 등 독재정치를 비판한 작품을 썼다. 또 전태일 분신 사건 때 한 노동자의 의로운 죽음을 의인동화에 담은 ‘불새의 춤’을 즉시 발표했다. 그는 리얼리즘에 입각한 아동문학을 펼치면서 아동문학은 몽상적이고 유치하다는 통념을 깨고자 했다. <br/> <br/> 투병 중 받은 세례 <br/> <br/> 이원수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78년 구강암 발병으로 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작품 활동을 하던 무렵이었다. 이 시기 그는 죽음의 그림자를 감지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밝은 내용의 작품들을 썼다. <br/> <br/> “어릴 때/내 키는 제일 작았지만/환히 들여다보았었지/아버지가 나를 높이 안아 주셨으니까/밝고 넓은 길에선/항상 앞장세우고/어둡고 험한 데선/뒤따르고 하셨지/무서운 것이 덤빌 땐/ 아버지는 나를 꼭 /가슴 속, 품속에 넣고 계셨지…“(‘아버지’중에서) <br/> <br/> 그가 마지막으로 쓴 동시 ‘겨울 물오리’는 죽음을 초월하고자 한 의지가 서려 있다. “얼음 어는 강물이/춥지도 않니?/동동동 떠다니는/물오리들아/얼음장 위에서도/맨발로 노는/아장아장 물오리/귀여운 새야/나도 이젠 찬 바람/무섭지 않다/오리들아, 이 강에서 같이 살자”(‘겨울 물오리’ 전문) <br/> <br/> 이원수의 차녀 이정옥(73·군포산본교회) 집사는 “평소 ‘주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가족들에게 말씀하셨던 아버지는 말년에서야 어머니가 그토록 함께 하길 원했던 신앙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 집사는 “어머니 최순애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고 평생 말씀을 의지해 사셨어요. 저희 3남 3녀 자녀들 모두 신앙인으로 양육하셨죠. 아버지는 소설가 황순원 선생님의 인도로 신앙을 갖게 됐어요.” <br/> <br/> 이원수는 암 투병 중일 때 ‘병든 후에야 주님을 찾는 것이 죄스럽다’며 교회 나가길 거부했으나 병이 위중해지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80년 11월, 서울 남현동 남성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소천하기 세 달 전이었다. <br/> <br/>■이원수처럼 생각하기 <br/>"<span class='quot0'>죄 없는 나의 가난에 원망도 슬픔도 갖지 않았다</span>" <br/> <br/>"약한 몸으로 경난 속에 살아온 내 아내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 옳은지 잘 모르겠다. 처 최순애의 어릴 적 작품 '오빠생각'과 내 동요 '고향의 봄'이 인연이 되어 오랫동안 마음으로 생각하다가 결혼을 의논하게 되자 내가 일본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서 꼭 1년 동안 아내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기다려 주었다." (수필 '나의 아내' 중에서) <br/> <br/> 기독교 가정의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한 최순애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던 이원수의 결혼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결혼을 약속한 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졌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기로 한 날 이원수는 '함안 반일독서회 사건'으로 체포돼 1년간 마산형무소에서 감옥생활을 했다. 그의 동시 '두부장수'는 이 때 형무소 안에서 쓴 것이다 <br/> <br/> 1936년 출소한 이원수는 처가가 있는 경기도 수원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마산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그는 늘 가난에서 헤어나기 힘들었지만 강직한 마음으로 이겨냈다. <br/> <br/> "나는 나의 가난에 죄 없음을 깨달았고 죄없는 나의 가난에 대해서 원망도 슬픔도 갖지 않기로 했다. 더구나 죄 없는 나의 가난에 조금이라도 비굴이나 불의나 부정으로서 대항하지 않는 것을 내 생활의 신조로 삼았다. 천연의 동심으로 아동들을 위한 문학을 하기 위해서도 그것은 오히려 필요한 생활 태도임을 확신했다."(수필 '끝없는 시련 속에 일생을 즐거이' 중에서) <br/> <br/> 이원수는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주고 탓하지 않는 아내를 평생의 문우로 여겼다. <br/> <br/>창원=글·사진 이지현 선임기자 jeehl@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86.txt

제목: [이지현의 기독문학기행] 이원수… 아이들을 사랑한 이, 동화같은 봄을 선물하다  
날짜: 20170526  
기자: 창원=글·사진 이지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26152044001  
ID: 01100201.20170526152044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나라를 잃어버렸던 시기에 민족이 즐겨 불렀던 노래는 겨레의 마음이 됐다. 이 시절 만들어진 동원(冬原) 이원수(1911~1981)의 ‘고향의 봄’과 최순애(1914~1998)의 ‘오빠생각’은 해방 뒤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면서 어린이뿐 아니라 동심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즐겨 부르는 겨레의 노래가 됐다. <br/> <br/> <br/> <br/>식민지 조선은 아동문학의 불모지였다. 소파 방정환이 1923년 월간 잡지 ‘어린이’를 펴내면서 아동문학이 싹트기 시작했다. 당시 ‘어린이’를 애독하던 12살의 최순애는 ‘오빠생각’(1925)으로, 16살의 이원수는 ‘고향의 봄’(1926)으로 등단했다. ‘어린이’ 잡지를 통해 알게 된 이들은 ‘기쁨사’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더 가까워졌고 10여년 동안의 펜팔로 부부의 연을 맺었다. <br/> <br/> 꽃대궐 차린 동네 <br/>‘아동문학의 거목’ 이원수는 방정환과 함께 근대 어린이문학, 문화운동의 선구자로 꼽힌다. 그는 민족의 현실을 시의 소재로 삼았고 우리 민족이 겪어왔던 아픔과 슬픔, 안타까움과 그리움 같은 민족정서를 풀어 아이들이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동요와 동시를 썼다. 해방된 뒤에는 주로 통일과 민주주의, 생명존중과 더불어 사는 삶. 정의와 같은 모든 문제를 풀어 소년소설과 동화 속에 담았다. <br/> <br/> <br/> <br/>대표작 ‘고향의 봄’은 일제식민지 시절 한일합병 이전의 조선을 그리워하며 조국을 떠나 만주, 연해주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운동가들의 심정을 우회적으로 노래했다. 지난 21일 이원수 문학의 산실이며 ‘고향의 봄’의 배경지인 경남 창원을 찾았다. <br/> <br/>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고향의 봄 도서관’ 지하1층에 이원수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엿볼 수 있는 문학관이 있다. 문학관엔 이원수의 아내 최순애가 평소 읽던 성경책도 전시돼 있다. 최순애는 ‘어린이’에 이원수보다 한 해 먼저 동요가 입선될 정도로 동요에 관심이 많았지만, 결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집안살림을 도맡느라 동요를 계속 쓰지 못했다. 대신 신앙생활과 교회봉사에 열중했다. 그가 동시집을 내려고 써둔 원고들은 6.25 한국전쟁 당시 불타 소실됐고 10편정도 남았다. <br/> <br/>이원수가 남긴 많은 작품엔 창원의 천주산과 실개천 공기와 바람이 젖어있다. “내가 자란 고향은 경남 창원읍이다. 나는 그 조그만 읍에서 아홉 살까지 살았다…창원읍에서 자라며 나는 동문 밖에서 좀 떨어져 있는 소답리라는 마을의 서당에 다녔다. 소답리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읍내에서도 볼 수 없는 오래 되고 큰 기와집의 부잣집들이 있었다. 큰 고목의 정자나무와 봄이면 뒷산의 진달래와 철쭉꽃이 어우러져 피고, 마을 집 돌담 너머로 보이는 복숭아꽃 살구꽃도 아름다웠다…창원의 성문 밖 개울이며 서당 마을의 꽃들이며 냇가의 수양버들, 남쪽 들판의 푸른 보리. 이런 것들이 그립고 거기서 놀던 때가 한없이 즐거웠던 것 같았다. 그래서 쓴 동요가 ‘고향의 봄’이었다.” (수필 ‘흘러가는 세월 속에’ 중에서) <br/> <br/> 남산자락 고향의봄 도서관 <br/>이원수 문학관을 나와 뒷산의 산책로를 따라 걸어 올라가면 남산자락과 만난다. 복숭아꽃 살구꽃이 피었던 남산자락에는 보리밭과 미나리밭이 파란들처럼 펼쳐져 있다. 이원수가 어린 시절 성장한 천주산 아래의 소답동으로 발길을 향했다. 문학관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에 있다. <br/> <br/> <br/> <br/>양산에서 태어나 한 살 때 이사해 아홉 살 때까지 살았던 이곳은 그의 동심 속에 ‘작고 초라한 성문 밖 개울, 서당 마을의 꽃, 냇가의 수양버들, 남쪽 들판의 푸른 보리밭’이 있는 서정적 공간이다. 그의 ‘정서적 샘’ 역할을 했던 천주산은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다. <br/> <br/>창원읍성은 도시가 형성되면서 대부분 없어졌고 터만 남았다. 이원수는 어린 시절 성문을 드나들며 서당에 다녔을 것이고, 동네를 가로지르며 친구네로 놀러갔을 것이다. 돌담 너머 대궐집이 보였다. ‘고향의 봄’ 노랫말에서 ‘꽃대궐’로 표현된 조각가 김종영 선생 생가 마당엔 울긋불긋 꽃들이 피어 있었다. “<span class='quot0'>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span>”(‘고향의 봄’ 중에서) <br/> <br/> <br/> <br/>소답동 창원초등학교 입구부터 김종영 생가까지의 이면도로는 ‘고향의 봄길’로 지정돼, 이원수의 삶을 소개하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4~6세 때 살았던 북동리 207번지엔 성장지 표지석이 있다. 또 창원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용호동 용지공원에 ‘고향의 봄’ 시비가 세워졌다. <br/> <br/> 돌아오지 않는 오빠 <br/>“<span class='quot0'>뜸북 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뻐꾹 뻐꾹 뻐꾹새 숲에서 울 제/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기럭기럭 기러기 북에서 오고/귀뚤귀뚤 귀뚜라미 슬피 울건만/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span>” <br/>최순애의 ‘오빠생각’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오빠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동시다. 그의 오빠 최영주는 일본 도쿄에서 유학까지 한 지식인이었다. 최영주는 일본 경찰에 쫓겨 숨어 다니다가 건강을 해쳐 결국 요절했다. 최순애는 생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작(詩作) 동기를 이같이 밝혔다. <br/> <br/>“오빠는 고향인 수원에서 소년운동을 하다가 서울로 옮겨 방정환 선생 밑에서 소년운동과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다. 집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오질 않았다. 오빠가 집에 올 때면 늘 선물을 사 왔는데 한번은 ‘다음에 올 땐 우리 순애 고운 댕기 사줄게’라고 말하고 서울로 떠났다. 그러나 서울 간 오빠는 소식조차 없었다. 그런 오빠를 그리며 과수원 밭둑에서 서 울 하늘을 보면서 울다가 돌아왔다. 그래서 쓴 시가 바로 ‘오빠 생각’이었다.” <br/> <br/>일제강점기 이원수는 당시 주류였던 동심주의나 천사주의를 뛰어넘는 면모를 보였다. 일제강점기의 현실 속에 우리 민족이 겪어야했던 설움을 작품 속에 잘 드러냈고 해방 후엔 동시로 표현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동화와 소년 소설에 담았다. 6.25 전쟁이후엔 분단, 실향 이산가족의 문제를 작품 속에 담아 어린이 문학이 사회의 가장 첨예한 현실문제까지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br/> <br/>그러나 그가 일제 말기에 친일시를 쓴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대해 아동문학가 이오덕은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2002년 회보에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만큼 불의와 부정을 싫어하고 어떤 권력 앞에서도 굽히거나 타협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이렇게 살았던 태도로 미루어 선생은 일제 말기에 한때 저질렀던 그 친일 행적을 뼈아프게 뉘우쳤음이 분명하다. 어쩌면 선생은 친일 동시를 썼던 몇 해동안의 죄를 갚기 위해 그 세월의 꼭 10배나 되는 동안(한평생을) 우리 어린이와 겨레를 살리기 위한 작품을 남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br/> <br/>이원수는 ‘민들레의 노래’ ‘메아리 소년’ ‘호수속의 오두막집’ 등 반전(反戰)메시지를 담은 작품, ‘땅 속의 귀’ ‘어느 마산 소녀의 이야기’ ‘벚꽃과 돌멩이’ 등 4.19정신을 담은 작품, ‘토끼대통령’ ‘명월산의 너구리’ ‘잔디숲의 이쁜이’ 등 독재정치를 비판한 작품을 썼다. 또 전태일 분신 사건 때 한 노동자의 의로운 죽음을 의인동화에 담은 ‘불새의 춤’을 즉시 발표했다. 그는 리얼리즘에 입각한 아동문학을 펼치면서 아동문학은 몽상적이고 유치하다는 통념을 깨고자 했다. <br/> <br/> 투병 중 받은 세례 <br/>이원수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78년 구강암 발병으로 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작품 활동을 하던 무렵이었다. 이 시기 그는 죽음의 그림자를 감지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밝은 내용의 작품들을 썼다. <br/> <br/> <br/> <br/>“어릴 때/내 키는 제일 작았지만/환히 들여다보았었지/아버지가 나를 높이 안아 주셨으니까/밝고 넓은 길에선/항상 앞장세우고/어둡고 험한 데선/뒤따르고 하셨지/무서운 것이 덤빌 땐/ 아버지는 나를 꼭 /가슴 속, 품속에 넣고 계셨지…“(‘아버지’중에서) <br/>그가 마지막으로 쓴 동시 ‘겨울 물오리’는 죽음을 초월하고자 한 의지가 서려 있다.  <br/> <br/>“얼음 어는 강물이/춥지도 않니?/동동동 떠다니는/물오리들아/얼음장 위에서도/맨발로 노는/아장아장 물오리/귀여운 새야/나도 이젠 찬 바람/무섭지 않다/오리들아, 이 강에서 같이 살자”(동시 ‘겨울 물오리’ 전문) <br/> <br/>이원수의 차녀 이정옥(73·군포산본교회) 집사는 “평소 ‘주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가족들에게 말씀하셨던 아버지는 말년에서야 어머니가 그토록 함께 하길 원했던 신앙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 집사는 “어머니 최순애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고 평생 말씀을 의지해 사셨어요. 저희 3남 3년 자녀들 모두 신앙인으로 양육하셨죠. 아버지는 소설가 황순원 선생님의 인도로 신앙을 갖게 됐어요.” <br/> <br/>이원수는 암 투병 중일 때 ‘병든 후에야 주님을 찾는 것이 죄스럽다’며 교회 나가길 거부했으나 병이 위중해지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80년 11월, 서울 남현동 남성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소천하기 3달 전이었다.  <br/> <br/> <br/><이원수처럼 생각하기> <br/>-“죄 없는 나의 가난에 원망도 슬픔도 갖지 않았다”- <br/> <br/> <br/> <br/>“약한 몸으로 경난 속에 살아온 내 아내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 옳은지 잘 모르겠다. 처 최순애의 어릴 적 작품 ‘오빠생각’과 내 동요 ‘고향의 봄’이 인연이 되어 오랫동안 마음으로 생각하다가 결혼을 의논하게 되자 내가 일본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서 꼭 1년 동안 아내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기다려 주었다.” (수필 ‘나의 아내’ 중에서) <br/> <br/>기독교 가정의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한 최순애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던 이원수의 결혼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결혼을 약속한 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졌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기로 한 날 이원수는 ‘함안 반일독서회 사건’으로 체포돼 1년간 마산형무소에서 감옥생활을 했다. 그의 동시 ‘두부장수’는 이 때 형무소 안에서 쓴 것이다 <br/> <br/>1936년 출소한 이원수는 처가가 있는 경기도 수원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마산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그는 늘 가난에서 헤어나기 힘들었지만 강직한 마음으로 이겨냈다. <br/> <br/>“나는 나의 가난에 죄 없음을 깨달았고 죄없는 나의 가난에 대해서 원망도 슬픔도 갖지 않기로 했다. 더구나 죄 없는 나의 가난에 조금이라도 비굴이나 불의나 부정으로서 대항하지 않는 것을 내 생활의 신조로 삼았다. 천연의 동심으로 아동들을 위한 문학을 하기 위해서도 그것은 오히려 필요한 생활 태도임을 확신했다.”(수필 ‘끝없는 시련 속에 일생을 즐거이’ 중에서) <br/> <br/>이원수는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주고 탓하지 않는 아내를 평생의 문우로 여겼다. <br/> <br/>창원=글·사진 이지현 선임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487.txt

제목: 분당서울대병원 조환성 교수팀, ‘증강현실’ 이용해 악성 골종양 수술한다  
날짜: 20170526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26210955001  
ID: 01100201.2017052621095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 구현 가능한 ‘증강 현실(AR)’을 이용해 뼈에 생긴 암을 수술하는 길이 열렸다. <br/> <br/>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조환성(사진) 교수팀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함께 세계 최초로 태블릿PC에서 쓸 수 있는 ‘악성 골종양 수술용 증강현실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증강 현실은 현실의 사물을 비춘 스크린에 가상의 관련 정보를 덧붙여 보여주는 기술이다. <br/> <br/> 골종양은 생명까지 위협하는 뼈암으로, 해당 부위를 정밀하게 제거하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뼈 안에 있는 종양은 눈에 보이지 않아 크기·위치 등을 감별하기 쉽지 않다. <br/> <br/>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진은 CT와 MRI 등 최첨단 영상장비로 촬영한 종양의 위치와 크기를 태블릿PC에 입력해 증강 현실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깔린 태블릿을 수술 부위에 갖다대면 종양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준다. <br/> <br/> 의료진은 2015년 3월 말 정강이뼈에 3∼5㎝ 암(골육종)이 생긴 여성(52)에게 이 기술을 적용해 정확히 도려냈다. <br/> <br/> 조 교수는 “<span class='quot0'>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의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종양의 위치를 태블릿PC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더 섬세한 수술이 가능해진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더 안전하고 완벽하게 암을 제거하면서도 최대한 뼈를 회복시켜 환자의 팔다리 기능을 살릴 수 있을 것</span>”이라고 기대했다. <br/> <br/> 의료진은 현재 골반뼈에 생긴 암에 적용할 수 있는 증강현실 소프트웨어도 개발 중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골관절 연구) 최신호에 발표됐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88.txt

제목: NH농협생명 ‘생활비 받는 NH 암보험’, 암 진단 받은 달부터 매월 생활자금 100만원  
날짜: 201705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26202855001  
ID: 01100201.20170526202855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NH농협생명은 주요 암 진단을 받은 달부터 매월 생활자금 100만원을 최대 5년간 지급하는 ‘생활비 받는 NH 암보험(갱신형·무배당)’을 출시했다. <br/> <br/> 주계약은 순수보장형(1종)과 건강관리형(2종)으로 구분된다. 2종에 가입하면 주요 암 확정 진단을 받지 않고 보험기간 15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건강관리자금 200만원을 준다. 의무부가특약을 통해 유방암 등의 진단 시 1500만원을 준다. <br/> <br/> 기타피부암, 감산선암, 경계성종양 등의 진단 시 최초 1회에 한해 진단보험금 400만원, 진단 후 사망 시 5000만원을 지급한다.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15년 단위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월 보험료는 40세 여성 기준으로 1종 가입 시 2만400원이고, 2종은 3만1400원이다.

언론사: 국민일보-3-489.txt

제목: 금융사와 이종업체 협업, 더 나은 상품 내놓는다  
날짜: 201705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26202855003  
ID: 01100201.20170526202855003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금융기관이 이종업체와 결합하는 컬래버레이션(협업)이 주목받고 있다. 금융기관의 협업은 마케팅 강화가 1차 목적이지만,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을 보다 싸게 제공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현명한 금융 소비자라면 눈을 크게 뜨고 ‘금융+실물’ 상품을 스마트하게 고를 수 있어야 한다. <br/> <br/> 신한카드는 유통업계 강자 신세계와 결합한 상품을 내놓아 출시 1개월 만에 10만장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다. 할인을 선호하는지, 항공 마일리지가 더 좋은지, 아님 연회비 없는 체크카드가 나은지 세부 사항을 골라야 한다. 삼성카드는 삼성전자와 제휴해 삼성페이를 기반으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상품을 내놓았다. SC제일은행도 이마트 및 신세계와 협력해 포인트를 적립하는 제휴 상품을 선보였다. <br/> <br/> 금융의 영역을 확장하는 상품도 계속 나온다. IBK기업은행은 미성년 고객을 위한 ‘i-미래통장’을 내놓았다. 누구나 예금주인 아이 이름으로 칭찬스티커를 보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0.2%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br/> <br/> 삼성화재는 업계 최초로 자녀가 나오기 전, 즉 임신부터 챙겨주는 자녀보험을 출시했다. NH농협생명은 암 진단 후 치료비는 물론 매달 생활비까지 5년간 제공하는 보험 상품을 선보인다. NH투자증권은 특허받은 자동 분할매매 시스템을 기초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상품을, 삼성증권은 베트남 주식 중개 서비스를 새로 내놨다.

언론사: 국민일보-3-490.txt

제목: 몸속 염증 없애는 대표 주자, ‘연어·토마토·흑마늘’  
날짜: 201705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25163044001  
ID: 01100201.20170525163044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우리 몸에는 통증부터 암까지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만병의 근원이 존재한다. 바로 ‘만성염증’이다. 염증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생체의 방어반응으로 급성으로 발생하면 우리 몸을 보호하지만 오랜 시간 축적되면 만성염증으로 변한다. <br/> <br/>만성염증은 혈관을 타고 위장으로 가면 위염, 후두로 가면 후두염, 잇몸에 생기면 치주염 등 부위에 따라 다양한 질환을 일으킨다. 이에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몸속 염증을 제거하는 대표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다. <br/> <br/>세계 10대 슈퍼푸드인 연어는 ‘염증 청소부’격 음식이다. 연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가라앉히며 천식이나 자가면역질환과 같은 염증성 질환뿐 아니라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류머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섭취하면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br/> <br/>토마토는 염증을 퇴치하는 항산화물질인 라이코펜이 풍부하다. 이탈리아 밀라노대학의 파트리치아 리소 연구팀은 “토마토주스를 매일 한 잔씩 마실 경우 염증을 발생시키는 인자들의 생성을 30% 이상 억제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토마토는 열을 가하면 보다 많은 라이코펜이 생성되므로 익혀 먹는 편이 좋다. <br/> <br/>대표 항암음식으로 꼽히는 마늘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중 하나인 사이토카인을 줄여주는 기능을 한다. 마늘의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 작용을 통해 식중독균은 물론, 위궤양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까지 죽인다. 이러한 마늘 효능에도 매운 맛과 냄새 탓에 먹기가 어렵다면 구운 마늘이나 흑마늘로 섭취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br/> <br/>특히 흑마늘은 지난 2014년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서 항염증 활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회지에 의하면, 연구팀이 스트레스를 유발시킨 실험쥐의 면역세포에 흑마늘 발효물을 투여한 결과 발효물의 농도가 올라감에 따라 면역세포의 발현 정도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br/>흑마늘은 직접 통마늘을 숙성하여 만들 수 있으며 시중에서도 흑마늘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발효흑마늘, 흑마늘분말, 통흑마늘, 흑마늘즙 등 다양한 가공제품으로 출시됐다. <br/> <br/>다양한 흑마늘 제품 가운데 흑마늘즙은 그 제조방식을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즙을 만드는 과정에서 통마늘의 껍질도 활용했는지 살펴보면 된다.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신성희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마늘 껍질은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총 폴리페놀은 무려 7배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br/> <br/>흑마늘의 껍질까지 사용한 제품으로는 ‘전체식 흑마늘즙’을 꼽을 수 있다. 전체식 방식은 흑마늘을 통째로 초미세하게 갈아 분말을 추출한 후 흑마늘진액과 혼합하는 방식이다. 기존 ‘추출액 방식’이 물을 통해 녹아 나오는 흑마늘의 유효성분만을 담아냈다면, 이 방식은 물에 녹지 않는 유효성분뿐 아니라 마늘 껍질에 풍부한 영양성분까지 마늘 효능을 빠짐없이 추출할 수 있다. <br/> <br/>흑마늘 분말과 흑마늘즙의 영양 함량은 다양한 연구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국기능식품연구원은 흑마늘 분말이 흑마늘즙보다 철, 칼슘, 아연, 식이섬유, 플라보노이드, 비타민E 등을 최대 9.03배 더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슈어퀘스트랩(SureQuestLab) 검사기관은 흑마늘 분말의 플라보노이드, 셀레늄, 게르마늄, 칼슘 등 함량이 흑마늘즙에 비해 최대 105.36배 높다고 밝혔다. <br/> <br/>서울대학교 건강증진센터에 따르면, 만성염증 수치가 높을수록 암 발생 위험도 증가한다고 한다. 암을 비롯한 대다수의 질환은 결국 ‘염증 방치’로부터 비롯된다. 혈압이나 당뇨 수치가 아니라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염증 수치도 이제는 관리가 필요하다. ‘연어, 토마토, 흑마늘’로 몸속 염증을 청소해 보자.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91.txt

제목: 올림푸스한국, 성인 환우 대상 ‘아이엠 카메라’ 수료식 진행  
날짜: 20170525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25104244002  
ID: 01100201.20170525104244002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올림푸스한국(대표 오카다 나오키)은 24일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에서 ‘아이엠 카메라’ 수료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br/>사진). <br/> <br/> <br/>‘아이엠 카메라(I am Camera)’는 오랜 병원 생활로 지친 환우들이 ‘카메라’를 통해 ‘나’를 표현하고, ‘나’의 정체성을 찾아간다는 의미로 기획된 올림푸스한국의 사진예술교육 프로젝트다. <br/> <br/>지난 2015년부터 소아청소년 암환우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을 시작으로 한양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에서 진행된 바 있다. <br/> <br/>이번 삼성서울병원에서의 수업은 그 동안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얻은 긍정적인 효과와 높은 인기에 힘입어, 프로젝트 최초로 성인 환우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  <br/> <br/>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 1회씩, 총 10회에 걸쳐 진행했으며, 프로그램에 참가한 환우들은 카메라 작동법 교육과 사진 프레임, 빛을 이용한 라이트 페인팅, 자화상 사진촬영 등 다양한 예술체험까지 함께 하며 나만의 사진첩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br/> <br/>24일 열린 수료식에는 수업에 참여한 환우, 올림푸스한국,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수료증 전달식과 함께 수업 리뷰 시간을 가졌다.  <br/> <br/>참가자들의 작품은 향후 2주간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1층 로비에 전시되며, 출품된 사진 중 일부는 오는 12월에 개최되는 삼성서울병원 아트테라피 작품 전시회를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br/> <br/>오카다 나오키 올림푸스한국 대표는 “<span class='quot0'>올림푸스는 글로벌 광학∙의료 기업으로서 한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카메라와 사진을 통해 소통하는 아이엠 카메라가 소아청소년은 물론, 성인 환우들에게도 오랜 투병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span>”고 말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92.txt

제목: 세브란스병원, 암 환자 참여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날짜: 20170524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24165144002  
ID: 01100201.20170524165144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병원장 이병석· <br/>사진 왼쪽에서 네번째)은 지난 8일부터 16병동 종양내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환자 참여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br/> <br/> <br/>환자 참여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나 보호자가 치료과정에서부터 퇴원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서비스다. <br/> <br/>세브란스병원은 주중 입원전담의가 상주하며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인력이 24시간 환자를 케어한다.  <br/> <br/>입원전담의는 주치의 역할을 맡아 치료를 담당하는 교수와 의견을 교환하며 환자 치료에 대한 경과관찰, 퇴원 계획 등을 세운다. <br/> <br/>환자는 이런 입원치료 과정에서 입원전담의와 의견을 나눠 치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입원전담의는 환자의 상태와 의견을 듣고 입원 시기부터 병동생활, 회복 과정, 퇴원 시기 등을 상의해 결정한다. 입원부터 퇴원까지 수준 높은 진료와 상담이 진행된다. <br/> <br/>실제 통증이 심하거나 몸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통증 정도와 보호자의 의견을 우선으로 치료방법을 선택하고 퇴원시기 등을 결정한다.  <br/> <br/>침상마다 설치된 환자 참여 보드를 통해 환자 스스로 원하는 활동 및 치료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이런 의사결정은 병동 간호사에게 전달돼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뤄진다.  <br/> <br/>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해 치료 계획 및 경과를 문자로 전송하고 회진 시간에 보호자가 동석해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참여할 수 있다. <br/> <br/>세브란스병원은 간호간병 토합서비스를 시작하면서 16명동의 병실 환경 역시 확 바꿨다. 각 병상마다 스마트케어 시스템을 설치해 TV와 간호사 호출, 교육 동영상 등이 개인별로 제공하고 있다.  <br/> <br/>환자는 자가 간호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과 치료 및 검사와 관련된 교육을 동영상 형태로 배울 수 있다. <br/> <br/>세브란스병원은 또한 환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입원생활 중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간호활동과 생활영역을 구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br/> <br/>입원 전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스스로 해야 할 부분에 대해 교육한 후 병실생활에서 실천이 가능하도록 지지하는 프로그램이다. <br/> <br/>세브란스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과 더불어 16병동 내 병문안 시간을 평일은 저녁 6~8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12시, 저녁 6~8시에만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환자들의 안정적 입원요양을 돕자는 취지다.  <br/> <br/>단, 보호자의 경우 환자에게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경우, 상태가 악화됐을 때, 수술 당일 등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병실에 상주할 수 있다. <br/> <br/>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환자가 치료 과정에 참여해 자신의 상태에 맞는 입원치료를 받고, 입원하는 동안 스스로 간호와 생활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치료효율과 함께 자가 재활 의지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0'>전문인력의 의료서비스와 함께 환자 치료의 새로운 모델일 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93.txt

제목: 달이면 양파물 갈면 양파즙…효능 만점 ‘양파 껍질’ 활용법  
날짜: 201705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24141944001  
ID: 01100201.201705241419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고기의 비린내를 잡고, 단 맛을 더하며, 육질을 연하게 만들어주는 등 요리의 감초 역할을 하는 ‘양파’는 오랜 기간 한국인의 식재료로 사랑받아왔다. 최근 양파는 그동안 다양한 연구자료를 통해 드러난 효능들이 재조명 되면서 건강식품으로 또다른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br/> <br/>양파는 서울 의료원(2011)의 임상시험을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능을 입증했다. 또 아시아태평양 암 예방학회지(2012)는 양파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효과를 발표했으며,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2010)에서는 양파가 심혈관계 질환을 개선한다는 효과를 인정했다. <br/> <br/>이러한 양파의 효능은 ‘케르세틴’이라는 양파의 중심 성분 덕분이다. 케르세틴은 항산화작용이 뛰어난 폴리페놀로 혈관 속 콜레스테롤을 분해하여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보호한다. <br/> <br/>창원대 식품영양학과 차용준 교수팀에 따르면, “<span class='quot0'>케르세틴은 양파 알맹이보다 양파 껍질에 최대 60배 더 많기</span>” 때문에 양파껍질까지 활용할 수 있는 양파즙이나 양파물로 섭취해야 양파의 효능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다. <br/> <br/>양파껍질을 다섯시간가량 달인 양파물에 얼음을 띄워 마시면 더운 날 시원한 건강음료로 즐기기 제격이다. 양파즙의 경우 껍질째 갈아서 만들거나 토마토와 당근 등 다른 과채와 함께 넣어 주스로 마시면 케르세틴의 흡수율이 높아진다. 간편하게 음용 가능한 건강식품을 구입하여 자주 마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단 양파즙을 구매할 때는 살펴봐야 할 몇 가지 기준이 있다. <br/> <br/>양파즙을 고를 때 먼저 눈여겨보는 부분은 아마도 믿을 수 있는 국내산 양파로 만든 제품인지, 즉 ‘원산지’일 것이다. 국내에 잘 알려져 있는 양파 재배지로는 무안과 홍성, 상주 등이 꼽힌다. 실제로 인터넷에 양파즙을 검색해보면 ‘무안 양파즙’ ‘100% 무안 양파 사용’과 같은 문구를 강조한 제품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br/> <br/>재료의 산지뿐 아니라 농약의 사용 여부 역시 확인해야 한다. 국내산 양파로 만들었어도 양파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농약을 사용했거나 양파에 농약이 잔류한 경우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따라서 국내산 유기농 양파로 만든 제품을 고르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아울러 양파즙은 만들어지는 방식에 따라 약리성분의 추출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조방식도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다. <br/> <br/>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양파즙은 양파를 물에 달여 진액을 얻는 물 추출 방식을 사용한다. 이 경우 양파의 전체 성분 중 물에 녹는 수용성 성분만 추출되고 비수용성 성분이나 양파 껍질의 유효성분은 추출하기 어려워 영양소의 손실이 일어나게 된다. <br/> <br/>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브랜드에서는 양파를 분말로 추출하는 전체식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전체식 방식이란 양파를 껍질까지 통째로 갈아 진액에 첨가하는 방식으로 남거나 버려지는 양파 성분이 없어 약리성분을 최대한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br/> <br/>한국기능식품연구원이 양파즙과 양파분말의 성분을 비교한 결과, 양파분말이 칼슘, 아연, 식이섬유, 비타민E, 철, 칼륨 등의 영양소를 양파즙보다 최대 8.96배가량 더 많이 함유하고 있었다. <br/> <br/>양파의 영양을 그대로 담아낸 양파물과 양파즙은 건강에 이로운 만큼 가급적 빨리,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파물의 효능은 이틀이면 사라진다. 일반 양파즙 제품은 유통기한이 1년 정도이나 보관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금방 상하게 돼 반드시 냉장보관해야 한다. 하루 1~2회 아침 공복이나 저녁 식전에 섭취해야 바람직하다.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94.txt

제목: 영원한 ‘제임스 본드’ 로저 무어 별세… 전 세계 애도  
날짜: 20170524  
기자: 권남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24100244001  
ID: 01100201.20170524100244001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영화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 역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영국 배우 로저 무어가 별세했다. 향년 89세. <br/> <br/>무어의 가족은 24일 SNS를 통해 무어가 짧은 암 투병 끝에 전날 스위스에서 눈을 감았다고 밝혔다. 무어의 세 자녀는 “아버지는 평생 카메라 앞에서 열정적으로 연기했다. 아버지를 사랑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br/> <br/>1927년 런던 외곽에서 경찰관의 아들로 태어난 무어는 1950년대 왕립드라마아카데미에 다니면서 단역 배우로 데뷔했다. 1960년대 TV 드라마를 통해 이름을 알려가던 그는 스파이 영화 ‘007 시리즈’를 만나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올랐다. <br/> <br/> <br/>숀 코너리, 조지 라젠비에 이어 3대 제임스 본드로 발탁된 무어는 1973년 ‘007-죽느냐 사느냐(Live And Let Die)’부터 1985년 ‘007-뷰 투 어 킬(A View to a kill)’까지 12년간 7편의 시리즈에 출연했다. 역대 제임스 본드 가운데 최다 기록이다. <br/> <br/>무어는 1999년 대영제국 커맨더 훈장(CBE)을 받았고, 1991년부터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사 작위를 얻었다. 2007년 10월에는 할리우드 명예의 전당에 가입했다. <br/> <br/>무어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전 세계적인 애도 물결이 일고 있다. ‘죽느냐 사느냐’에서 본드걸로 호흡을 맞춘 배우 제인 세이모어는 SNS에 “무어는 나의 ‘본드’였다. 그는 내게 배우로서의 성실과 겸손에 대해 가르쳐줬고, 배우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줬다”고 추모했다. <br/> <br/>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95.txt

제목: 제약협회, 내달 1일 제1회 바이오파마 테크콘서트 개최  
날짜: 20170524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24095244001  
ID: 01100201.201705240952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다음달 1일 오후1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 지하 1층 골드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원장 조용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 바이오스펙테이터와 함께 ‘2017 제1회 바이오파마 테크콘서트(Bio-Pharma Tech Concert)’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br/> <br/>바이오파마 테크 콘서트는 미래부의 기초, 원천 R&D 지원사업 중 제약·바이오분야의 연구성과를 산·학·연 연구자들 간에 공유하고 비즈니스 모델 및 기술 사업화로 발전시키는 기회의 장이다.  <br/> <br/>실제로 이전 행사에서 소개된 의약품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협약이 체결되는 등 기술 사업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br/> <br/>이번 행사에선 ‘c-Myc DNA Binding domain 타겟 신규 항암제 개발’에 대한 정경채 국립암센터 박사의 발표를 시작으로 신찬영 건국대학교 교수의 ‘Piperazine-1-carboxamidine(PZC)을 활용한 자폐 범주성 장애 예방 및 치료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br/> <br/>권희충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생명기초연구부 박사는 ‘HSV/adaptor이용 암세포 표적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 정준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MERS-CoV)치료용 항체’를 소개한다.  <br/> <br/>또 최상돈 아주대학교 교수는 ‘TRL4 타겟 자가면역질환 및 염증성 질환 치료제’에 대해, 고규영 한국기초과학연구원 교수가 ‘항-Angiopoietin 2 항체를 활용한 안구질환 예방 및 치료제’를 소개할 예정이다. <br/> <br/>이어 서울대학교 박정규 서울대학교 교수가 ‘자가면역질환 및 만성염증성 질환 치료를 위한 CD40 타겟 항체 치료제’에 대해, 백문창 경북대학교 교수가 ‘항생제 repositioning : 암 성장 및 전이 억제제’에 관해 발표한다.  <br/> <br/>이미옥 서울대학교 교수의‘티오우레아 유도체를 포함하는 대사성 지방간염 질환 치료제’에 대해, 조동규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BACE1 promoter를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료제 스크리닝 방법 및 치료 후보물질 개발’에 대한 발표를 마지막으로 행사가 마무리 된다. <br/> <br/>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석할 수 있다. 희망자는 이달 2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 신청&서비스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따로 받지 않는다. 문의는 협회 바이오의약품정책실(02-6301-2160)로 하면 된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96.txt

제목: '최장수 본드' 로저 무어 암으로 별세…향년 89세  
날짜: 20170524  
기자: 천금주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24074744001  
ID: 01100201.20170524074744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제3대 제임스 본드 역을 맡기 시작해 모두 7편에 007영화에 출연했던 ‘최장수 본드’ 로저 무어가 별세했다. 형년 89세다. <br/> <br/>23일(현지시간) 무어의 세 자녀들은 아버지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암과 짧고 용감한 투쟁을 벌이던 아버지가 스위스에서 숨을 거두셨다”고 밝혔다. <br/> <br/>자녀들은 또 “전세계 모든 사람들은 생전에 아버지가 활동했던 영화와 TV쇼는 물론 유니세프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이로인해 아버지는 사랑과 존경심을 오랫동안 받게 될 것”이라고 추모했다. <br/> <br/>런던 외곽에서 경찰관의 아들로 태어난 로저 무어는 1950년 왕립드라마 아카데미에에서 공부한 뒤 1960년 TV 드라마 시리즈로 이름을 알렸다. <br/> <br/>이후 2973년 ‘007 시리즈’ ‘죽느냐 사느냐’의 주인공을 맡은 뒤 1985년 ‘뷰 투 어 킬’까지 모두 7편의 본드 시리즈에 출연해 역대 최다 제임스 본드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04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62%의 지지율로 ‘최고의 본드’로 등극하기도 했다. <br/> <br/>그는 4번의 결혼으로 세 자녀를 뒀다. 1999년 영국 여왕으로부터는 대영제국 커맨더 훈장을 받았다. 1991년부터는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해 왔다. <br/> <br/>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97.txt

제목: 유방암 6개월 투병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 “고난은 영광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  
날짜: 201705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23110555001  
ID: 01100201.20170523110555001  
카테고리: 문화>종교  
본문: 고난은 끝이 없는 걸까. 서울대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으나 건반 대신 걸레만 잡으며 엄혹한 시집살이를 했다. 의사였던 남편과도 사별했다. <br/> <br/> 처참한 삶 속에서 성경을 묵상하며 위로를 받았다. 주님의 은혜가 커서 목회자가 됐다. 온 성도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무너진 가정을 세워온 ‘목욕탕 목회’는 성공적이었다. 목회 14년째, 고난은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엔 병마였다. 6개월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항암치료는 불을 통과하는 극통(極痛)이었다. 우리들교회 김양재(67) 목사 이야기다. <br/> <br/>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우리들교회 판교예배당 목양실에서 지난 19일 만난 김 목사는 청색 면모자를 쓰고 있었다. 6차례의 항암치료로 빠진 머리를 가리기 위해서였다. 얼굴엔 붓기가 비쳤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고 건강할 때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날 치료를 시작한 후 처음 교회에 나왔다고 했다. 22일부터 시작된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 리허설 준비 차였다. <br/> <br/> 김 목사의 첫 마디는 로마서 8장 18절의 인용이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잖아요. ‘또 고난이 왔네’ 하며 원망하거나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br/> <br/> 김 목사는 지난 6개월을 회고했다. 그는 “저의 ‘암 사건’은 힘을 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성령 충만 사건’으로 가는 과정이었다”며 “목회를 시작해 한번도 쉰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br/> <br/> 김 목사는 암 진단을 받은 직후 주일 설교 시간에 자신의 상태를 알렸다. 이후 강단에 서지 못했다. 항암치료는 너무 고통스러워 지옥의 유황불에 타는 것 같은 아픔이었다고 했다. <br/> <br/> 그는 병상에서도 말씀묵상을 이어갔다. 사도행전을 비롯해 레위기와 민수기, 잠언과 요한복음 등을 묵상했다. 레위기 제사법 부분을 읽을 때는 말씀과 자신의 상황이 겹쳤다고 했다. <br/> <br/> “조직검사는 제물로 드린 소와 양의 각을 뜨는 것 같았고, 항암치료는 제단 위의 번제물을 불로 사르는 화제(火祭) 같았어요. 산 제물로 드리라(롬 12:1)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됐어요. 고통을 겪으면서 암 환자들도 이해하게 됐고 그분들도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br/> <br/> 담임목사의 부재에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다. 주일설교는 부교역자들이 했고 수요 저녁예배엔 성도들의 간증이 이어졌다. 김 목사는 “오히려 성도들이 늘었고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는 말씀과 기도가 이전보다 더 충만했다”며 “성도들이 목사가 아니라 말씀을 따랐기에 교회가 안정을 이뤘다”고 말했다. <br/> <br/> 김 목사는 25일까지 열리는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br/> <br/>“세미나에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교회는 슬픈 자의 위로 공동체가 돼야 하고 그 위로는 말씀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살피십니다. 눈앞의 고난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세요.” <br/> <br/>성남=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498.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113) 한양대병원 대장암센터] 환자에 최적의 맞춤치료… ‘대장암 치료의 MVP’  
날짜: 201705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23200855001  
ID: 01100201.201705232008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대장암 극복을 위해 ‘좋은 병원’ 또는 ‘나와 궁합이 맞는 맞춤형 병원’을 선택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발표한 올해 대장암 진료 1등급 의료기관 수가 무려 119곳이나 되기 때문이다. <br/> <br/> 대장암은 소장과 연결된 1.5m 길이의 결장에 생기는 결장암과 항문 쪽 약 15㎝길이 직장에 생기는 직장암 두 가지가 있다. 현재 한국인 암 발생률 3위에 올라 있다. <br/> <br/> 심평원은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국내 의료기관의 대장암 진료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이 알기 쉽게 1∼5등급으로 구분 공개하고 있다. 대장암 환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다. <br/> <br/> 심평원이 밝힌 올해 적정성 평가 지표는 의료인력, 수술사망률, 정밀검사 및 수술 후 항암제 투여 여부 등 총 21개 항목에 이른다. <br/> <br/> 그런데도 1등급 판정 기관이 100군데 이상이라는 것은 적어도 대장암 치료 분야만큼은 의료서비스의 질이 전국적으로 거의 평준화, 표준화돼 있다는 뜻이다. <br/> <br/> 하지만 정작 환자들 입장에선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새 고민거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번엔 1등급 기관수가 너무 많은 게 탈이다. ‘최고 중의 최고’를 골라야 한다는 부담감이 되레 커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br/> <br/>환자 중심 정밀 맞춤 치료에 친절하기까지 <br/> <br/> 한양대학교병원 대장암센터는 이럴 때 대장암 극복에 필요한 조건을 고루 갖춘 대장암 치료 드림팀이란 평가를 받는 곳이다. <br/> <br/> 이는 무엇보다 대장항문외과 이강홍(대장암센터장) 안병규 교수팀을 중심으로 소화기내과 이오영 윤병철 이항락 이강녕 교수팀과 혈액종양내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등 관련 과 의료진이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 진료를 펴온 덕분이다. 특히 항상 최고를 추구하며 단련해온 대장항문외과 이강홍 안병규 교수팀의 팀워크는 일당백이란 평가다. <br/> <br/> 이강홍 교수는 서울아산병원 대장항문외과에서 대장암 전임의로 지내다 2004년 9월부터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2004년과 2005년, 일본 시즈오카 암센터와 도쿄 고마고메병원 대장항문외과에서 각각 복강경 대장암 수술에 대해 공부했다. 2012년에는 미국 어바인캘리포니아 의대서 최첨단 로봇수술법을 익히고 돌아왔다. <br/> <br/> 그는 동료 안병규 교수와 함께 2010년 대한대장항문학회, 2016년 미국대장항문학회가 시상하는 우수 연구상을 각각 공동 수상하기도 했다. <br/> <br/> 이들은 복강경 대장암 수술 시 배꼽에 구멍 한 개만 뚫고 시술할 때와 복부에 3∼5개의 구멍을 뚫고 시술할 때 결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한 논문을 발표, 복강경 대장암 수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br/> <br/> 두 교수는 요즘 대장암의 재발과 복막 전이에 관여하는 유전자 발굴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NGS(Next Generation Sequence)라는 최신 분석기법으로 대장암의 재발과 복막전이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규명하는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작년에는 대장암 수술 환자에게서 특정 유전자의 발현이 사라지면 조기재발 위험이 높다는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br/> <br/> 안병규 교수는 “<span class='quot0'>대장암 재발과 복막전이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선별하는 검사법을 개발하면 재발위험을 예측, 방어함으로써 대장암 환자들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일주일 내내 오픈, 언제든지 대장암 진료 가능 <br/> <br/> 환자 편의에 맞춘 외래 진료 서비스로 호평을 받고 있다는 점도 한양대병원 대장암센터의 장점 중 하나로 꼽힌다. <br/> <br/> 월요일 오전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매일 이강홍 안병규 교수 2명이 교대로 외래진료를 보는 것이다. 주2∼3회, 특정 요일에만 외래진료를 보기 일쑤인 다른 대학병원들과 다른 점이다. <br/> <br/> 보통 화·목요일에는 이강홍 교수가 월·수·금요일에는 안병규 교수가 외래 진료를 책임지는 체제다. 환자 편의를 최대한 존중하자는 이강홍 안병규 교수팀의 배려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br/> <br/> 이강홍 안병규 교수팀은 또한 최신 대장암 수술법과 치료법을 공유하기로 유명하다. 따라서 누구에게 진료를 보든 수술법과 치료 방침이 달라지는 일이 없다. 두 교수가 단일화, 표준화된 수술 기법과 치료계획을 갖고 체계적으로 치료에 임하기 때문에 진료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이점이 있다. <br/> <br/> 이강홍 교수는 “<span class='quot1'>표준화된 암 치료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의사에게 치료를 받더라도 동일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큰 신뢰감을 주게 된다</span>”고 말했다. <br/> <br/> 이강홍 안병규 교수팀은 병기가 높은 일부 진행성 대장암 환자의 경우 고식적 개복술을 시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수술에 복강경이나 로봇을 이용한다. 가능한 한 수술 흉터가 눈에 띄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다. 통증을 줄이고 조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br/> <br/> 항문기능을 손상시키기 쉬운 직장암 수술의 경우에도 이 원칙은 그대로 지켜진다. 최신 수술기법인 ‘괄약근간 절제술’을 시행, 항문보존 비율을 높이고 영구장루(인공항문) 조성 빈도를 낮춤으로써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수술 후 삶의 질도 개선해주고 있다. <br/> <br/>합병증 제로, 불만 제로를 목표로 전진 <br/> <br/> 이강홍 안병규 교수팀이 수술한 대장암 환자의 5년 무병 생존율은 2005∼2010년 기준으로 1기 96%, 2기 84.3%, 3기 75.3%로 평균 79.7%를 기록 중이다. 전국 각 병원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성적이다. <br/> <br/> 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신체 질병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암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치유도 중요하다. 이강홍 안병규 교수팀은 이를 위해 환자들의 마음까지 다스리는 정서안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r/> <br/> 한 예로 대부분의 수술 환자가 수술 다음날부터 조기 보행 및 경구섭취를 시작하는데, 이는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금식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합병증 빈도를 낮추고 조기 회복, 조기 퇴원을 유도하기 위한 조처다. <br/> <br/> 4명의 창상·장루 전문 간호사를 배치, 직장암 절제수술 후 인공항문을 쓰게 된 환자의 상처와 장루를 집중관리 함으로써 감염과 합병증 발생위험을 낮추고 환자 맞춤형 1대1 교육과 정신적 지지를 통해 환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노력도 하고 있다. <br/> <br/> 안병규 교수는 “<span class='quot0'>다른 병원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치료 성적과 환자 만족도를 유지하려 늘 노력하자는 것이 우리 대장암센터의 좌표</span>”라며 “<span class='quot0'>수술 후 환자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합병증 제로, 불만 제로 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span>”고 다짐했다. <br/> <br/> 이강홍 교수도 “<span class='quot1'>대장암 수술을 잘하는 병원, 환자가 충분히 만족하고 퇴원할 수 있는 병원,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환자 편에서 진료할 생각</span>”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br/> <br/>글=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사진=최종학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499.txt

제목: [일산 신경락한의원 조병준 원장의 해독이야기] ⑫ 모든 질병의 원인, 독소를 배출하라  
날짜: 201705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23183555001  
ID: 01100201.201705231835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오랫동안 한의사로 환자들을 진료해 왔지만 60세이신 J씨를 보면 병도 자신과의 싸움임을 새삼 느끼게 된다. 병을 이기겠다는 열정과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br/> <br/> J씨는 경남 거제도에서 새벽에 출발해 일산의 한의원으로 온다. 그는 남편이 흉선암으로 4년 전에 수술하고 계속 투병생활을 하는 중이었다. 남편 건강 때문에 내원했다가 자신의 몸이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br/> <br/> 고혈압약을 복용한지 20년 이상이 됐고 갑상선항진증 치료약을 복용해왔으며, 최근 갑상선호르몬 저하 진단을 받았다. 수면장애가 있고 앞머리는 늘 두통으로 불편하다고 했다. 병원검사 상으로는 심장비대 고지혈증 만성위염 역류성식도염 신우신염 등의 진단을 받았고 먹는 약이 너무 많아 혈압약과 갑상선약 외에는 복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br/> <br/> 항상 피로하고 간수치도 높으며 안압도 높아 안구건조증과 무릎관절의 통증도 호소했다. 본인 몸이 ‘종합병원’이라면서도 식욕은 왕성해 가리는 것 없이 식사를 해왔고 튀김류를 특히 좋아했다고 했다. 최근 들어야 웰빙식을 하려 노력한다는 것이다. <br/> <br/> 153cm의 단신에 체중은 71.3kg나 되고 지방만 26.2kg로 내장지방, 복부비만이 심했다.다행히 근력은 좋은 편이었다. 체지방이 많다는 것은 만성염증 상태라 말할 수 있다. 체지방에서 계속 염증물질이 방출되며 혈액에 들어와 혈관 경화를 만들어 가고 혈전을 만들어 혈류에 방해를 가져온다. <br/> <br/> 우리 몸의 기본단위는 세포다. 100조 개의 세포는 각각 생명활동을 하므로 산소와 영양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이산화탄소와 찌꺼기는 지속적으로 배출해야 한다. 100조나 되는 세포에게 무엇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혈액이 그 일을 한다. <br/> <br/> 심장에서 대동맥으로 나가는 혈액이 소동맥, 말초모세혈관을 거쳐 세포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시스템은 어마어마한 혈관망으로 구성된다. 노폐물과 이산화탄소 등 유독물질을 체외로 배설시키는 일도 혈류에 의해 이뤄진다. 인체는 생명활동 중에 불가피하게 들어오는 독소를 체외로 배출하기위해 놀라운 시스템이다. <br/> <br/> 간은 피를 더럽히는 나쁜 지방과 매일 일정량 교체되는 죽은 적혈구를 걸러내어 담즙으로 재생산한다. 신장은 핏속의 수용성 독소들을 필터링해 소변으로 내보내고 땀구멍, 코와 입을 통해서도 독소들을 내보낸다. <br/> <br/> 독소를 잘 배출해 피가 맑아지면 자연히 혈관이 건강해지고 혈류도 좋아져 세포들이 건강해지므로 건강을 영위하게 된다. 들어오는 독소가 다 배출되면 건강에 문제가 없다. 허나 가공식품 섭취와 스트레스과다 과로 미세먼지 환경오염 등에 의해 독소가 너무 많이 들어와 미쳐 다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쌓이면, 인체는 급한 대로 독소를 지방의 형태로 저장한다. 이런 지방이 늘어나 과다해지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br/> <br/> J씨에게 그 많은 병과 증상을 각각 따로 따로 치료하려 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해독을 통해 지방을 제거하므로 청혈(淸血)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내 말을 열심히 경청하고 계획대로 최선을 다하신 J씨는 모범생처럼 한 달만에 지방을 5.2㎏ 감량했고 그 다음 달에도 4.9㎏를 감량해 두 달 간 10.1㎏가 줄었다. <br/> <br/>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는데 올 때마다 얼굴색이 눈에 띄게 달라지시고 피로가 줄고 두통 안구건조 잔뇨감 위염 등의 증상이 줄었다고 기뻐했다. “<span class='quot0'>옷이 맞는 것이 없으니 원장님이 옷을 해 주셔야 겠어요</span>”하고 농담도 한다. <br/> <br/> 세 번째 달에는 병원검사 결과만을 보내왔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들어오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수치보다 높은 결과가 나왔다. 갑상선기능 수치만은 아직도 이상 범위에 있어 갑상선약은 계속 먹어야 한다고 했다. <br/> <br/> 함께 노력한 남편도 두 달간 7.6kg의 내장지방을 빼면서 잔뇨감 숨참 피로도 무릎통증 변비 등의 증상이 개선됐으며, 건강해 질수 있다는 자신을 갖게 됐다. 음식도 바꿔 밀가루 가공식품, 믹스커피 등은 멀리하고 현미 야채 과일 버섯 해조류 등 자연식 위주로 식생활을 하신다고 했다. 연신 고마움을 표시하는 휴대폰의 목소리가 아주 경쾌했다. <br/> <br/>김무정 선임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500.txt

제목: 고난의 끝은 어디일까요… 유방암 6개월 투병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  
날짜: 20170522  
기자: 성남=신상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22105044001  
ID: 01100201.20170522105044001  
카테고리: 문화>종교  
본문: 고난은 끝이 없는 걸까. 서울대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으나 건반 대신 걸레만 잡으며 엄혹한 시집살이를 했다. 의사였던 남편과도 사별했다. <br/> <br/> <br/> <br/>처참한 삶 속에서 성경을 묵상하며 위로를 받았다. 주님의 은혜가 커서 목회자가 됐다. 온 성도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무너진 가정을 세워온 ‘목욕탕 목회’는 성공적이었다. 목회 14년째, 고난은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엔 병마였다. 6개월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항암치료는 불을 통과하는 극통(極痛)이었다. 우리들교회 김양재(67) 목사 이야기다. <br/> <br/>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우리들교회 판교예배당 목양실에서 지난 19일 만난 김 목사는 청색 면모자를 쓰고 있었다. 6차례의 항암치료로 빠진 머리를 가리기 위해서였다. 얼굴엔 붓기가 비쳤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고 건강할 때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날 치료를 시작한 후 처음 교회에 나왔다고 했다. 22일부터 시작된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 리허설 준비 차였다. <br/> <br/>김 목사의 첫 마디는 로마서 8장 18절의 인용이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잖아요. ‘또 고난이 왔네’ 하며 원망하거나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br/> <br/>김 목사는 지난 6개월을 회고했다. 그는 “저의 ‘암 사건’은 힘을 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성령 충만 사건’으로 가는 과정이었다”며 “목회를 시작해 한번도 쉰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br/> <br/>김 목사는 암 진단을 받은 직후 주일 설교 시간에 자신의 상태를 알렸다. 이후 강단에 서지 못했다. 항암치료는 너무 고통스러워 지옥의 유황불에 타는 것 같은 아픔이었다고 했다. <br/> <br/>그는 병상에서도 말씀묵상을 이어갔다. 사도행전을 비롯해 레위기와 민수기, 잠언과 요한복음 등을 묵상했다. 레위기 제사법 부분을 읽을 때는 말씀과 자신의 상황이 겹쳤다고 했다. <br/> <br/>“조직검사는 제물로 드린 소와 양의 각을 뜨는 것 같았고, 항암치료는 제단 위의 번제물을 불로 사르는 화제(火祭) 같았어요. 산 제물로 드리라(롬 12:1)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됐어요. 고통을 겪으면서 암 환자들도 이해하게 됐고 그분들도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br/> <br/> <br/> <br/>담임목사의 부재에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다. 주일설교는 부교역자들이 했고 수요 저녁예배엔 성도들의 간증이 이어졌다. 김 목사는 “<span class='quot0'>오히려 성도들이 늘었고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는 말씀과 기도가 이전보다 더 충만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성도들이 목사가 아니라 말씀을 따랐기에 교회가 안정을 이뤘다</span>”고 말했다. <br/> <br/>김 목사는 25일까지 열리는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br/> <br/>“세미나에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교회는 슬픈 자의 위로 공동체가 돼야 하고 그 위로는 말씀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살피십니다. 눈앞의 고난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세요.”  <br/> <br/>성남=신상목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501.txt

제목: [원자력병원 암전문의가 전하는 ‘건강톡’] 생존율 낮은 췌장암… 담배부터 끊어야  
날짜: 20170522  
기자: 이영수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22200355001  
ID: 01100201.201705222003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10% 미만에 불과하다. 별다른 초기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고 자각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췌장암 발병의 위험인자를 미리 알고 평소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br/> <br/> 췌장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나요? <br/> <br/> -췌장은 섭취한 음식물이 위를 지나 십이지장으로 내려오면 소화효소를 분비해 음식물 속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하고 몸 속으로 흡수되도록 합니다. 또한 혈당 조절에 중요한 호르몬인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혈액 속으로 분비해 우리 몸이 음식물을 통해 얻게 되는 에너지의 소비와 저장에 도움을 줍니다. <br/> <br/> 담배를 피우면 발병률이 높아지나요? <br/> <br/> -췌장암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서구화된 식생활, 당뇨병, 만성 췌장염, 고령(췌장암 발생 평균 나이는 65세), 화학물질, 유전적 요인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흡연은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췌장암의 3분의 1가량이 흡연 때문이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췌장암 발생 위험도가 2∼3배 높습니다. <br/> <br/>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br/> <br/>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다른 소화기계 질환들의 증상과 구분되지 않아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렵습니다. 암이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환자는 복통과 체중 감소가 생깁니다. 췌장암의 60∼70%는 췌장의 머리 부분에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피부와 눈의 흰자위 등이 노랗게 되는 황달 증상이 나타나고 소변과 대변의 색이 변합니다. 췌장은 등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며, 암세포가 췌장을 둘러싼 신경으로 퍼지면 상복부나 등까지 심한 통증이 옵니다. <br/> <br/> 췌장도 초음파 검사로 진단하나요? <br/> <br/> -먼저 복부초음파 검사로 진단합니다. 하지만 췌장은 위나 대장 등 다른 장기에 파묻혀 있어 복부초음파로 쉽게 보이지 않아 필요시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보다 정밀한 검사를 통해 진단합니다. 이밖에 담관과 췌관의 협착이나 폐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과 2cm 이하 작은 종양의 진단, 병기 결정 등을 위해 내시경 초음파검사(EUS)를 합니다. 혈청 종양표지자검사는 초기에는 흔히 정상으로 나오므로 조기 진단에는 활용할 수 없지만, 췌장암의 예후 판정과 치료 후 추적 검사의 지표로 쓸 수 있습니다. <br/> <br/> 초기에는 수술이 가능한가요? <br/> <br/> -치료 방법은 암의 크기와 위치, 병기, 환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췌장암은 1∼2기에 발견하면 수술이 가능합니다. 수술은 암세포가 주변 혈관으로 퍼지지 않고 췌장에 있을 때만 가능하므로 필요에 따라 암세포의 범위와 크기를 줄이는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을 합니다. 췌장암이 췌장의 머리 부분에서 발생한 경우, 췌장의 머리 쪽으로 연결된 십이지장, 담도, 담낭을 함께 절제하는 췌두십이지장절제술을 시행합니다. 췌장의 몸통과 꼬리 부분에서 암이 발생하면 비장을 함께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합니다. 수술은 불가능하지만 전이가 없는 경우 방사선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br/> <br/> 특별한 예방법이 있나요? <br/> <br/>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뚜렷한 예방수칙이나 권고기준은 없으므로 알려진 위험요인들을 최대한 피하도록 합니다. 흡연은 췌장암 발병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므로 반드시 금연하고, 채소와 과일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생활과 적당한 운동으로 생활습관을 개선합니다. 또한 췌장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용매제, 휘발유와 관련 물질, 살충제(DDT) 등의 화학물질에 많이 노출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보호장비 착용이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노출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당뇨병, 췌장염 등과 연관이 있으므로 갑자기 당뇨가 생기거나 원래 당뇨병이 있는 경우, 급성 혹은 만성 췌장염이 있으면 정기적인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br/> <br/>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br/> <br/>도움말 : 원자력병원 췌장암센터 김진(소화기내과)·조응호(외과) 과장

언론사: 국민일보-3-502.txt

제목: [암과의 동행] 매운음식의 불편한 진실  
날짜: 20170522  
기자: 전미옥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22195255001  
ID: 01100201.2017052219525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국인에게 매운맛은 매 끼 식탁에 오를 만큼 친숙한 맛이다. 특히 최근에는 매운맛 열풍이라 불릴 정도로 매운 음식들이 각광받고 있다.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서정연(25·여)씨는 매운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푼다. 서씨는 “<span class='quot0'>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매운 떡볶이나 닭발을 먹는다</span>”며 “<span class='quot0'>먹을 때는 눈물·콧물에 땀도 쏟지만 매운맛이 가시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span>”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 목포에 사는 김희연(26·여)씨는 맵게 먹는 일이 습관화돼있다. 그는 “<span class='quot0'>매운맛이 없으면 개운하게 잘 먹었다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0'>모든 음식에 청양고추를 썰어 넣고, 식당에서는 매번 맵게 해달라고 주문한다</span>”고 말했다. 매운맛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들이 즐기는 화끈한 매운맛의 주인공은 바로 캡사이신이다. 고추에 포함된 캡사이신은 항암효과를 비롯해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매운맛이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매운맛과 암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br/> <br/> 캡사이신의 항암효과는 국내외 다수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서울대 약대 서영준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피부암 세포를 주입한 쥐에게 캡사이신을 도포한 결과 그 중 60%의 쥐가 피부암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캡사이신을 바르지 않은 쥐는 100% 피부암으로 발전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다수 연구들에서 캡사이신에서 암세포를 죽이거나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항암효과를 확인했다. <br/> <br/> 그러나 반대로 캡사이신이 암 발생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김헌식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혈액암세포를 대상으로 고용량 캡사이신을 투여하고 자연살해세포 활성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캡사이신 투여 전 32%에서 100μM 투여 후 4%로 자연살해세포 활성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저용량의 캡사이신 20μM을 투여했을 때에는 자연살해세포 활성도가 27%로 투여 전 32%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또한 고용량의 캡사이신은 체내 수용체인 TRPV1 단백질과 결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연살해세포의 기능 장애를 유도하는 것도 확인됐다. 이처럼 캡사이신 자체가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암세포를 공격하는 우리 몸의 아군 즉, 자연살해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 결국 위암을 비롯한 암 발생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헌식 교수는 “캡사이신의 항암효과는 양날의 검”이라며 “고용량 캡사이신이 암세포를 죽이기는 한다. 그러나 우리 몸의 항암면역세포 기능을 억제해 오히려 암 발생을 촉진한다는 부작용이 있다. 두 가지를 같이 살펴봤을 때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br/> <br/> 전문가들은 매운맛을 적당하게 즐길 것을 권한다. 이영은 원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매운맛은 통각이다. 적절한 자극은 항암효과뿐 아니라 위를 튼튼하게 하고 무엇보다 엔돌핀을 분비해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매운 음식을 먹고 난 후 후련하게 느끼는 것이 이 때문”이라며 “그러나 최근에는 고추와 같은 식품에서 얻는 매운 맛이 아니라 캡사이신을 따로 추출해서 입이 아플 정도로 과도하게 즐기는 경우가 많다. 과유불급이므로 적절한 만큼만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br/> <br/>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3-503.txt

제목: [암과의 동행] 일찍온 더위 강한 햇빛… 피부는 괴로워  
날짜: 20170522  
기자: 조민규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22195155001  
ID: 01100201.2017052219515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기온이 오르면서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있다. 그만큼 햇빛에 피부노출도 늘고 있어 피부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오존층이 줄어들며 자외선 양도 늘고 있는데 연구에 의하면 대기 중의 오존층이 1% 감소함에 따라 편평상피세포암의 발생빈도는 2%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 피부암은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직과 세포에서 발생할 수 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자료에 따르면 흔하게 발생하는 피부암에는 편평상피세포암, 기저세포암, 악성흑색종 등이 있다. ‘편평상피세포암’은 표피의 각질형성세포에서 유래한 악성 종양으로 생물학적 양상이 기저세포암보다 복잡한 비흑색종 피부암이다. <br/> <br/> 우리나라에서 기저세포암과 함께 가장 많은 피부암의 하나이다. ‘기저세포암’은 표피의 최하층인 기저층이나 특히 모낭을 구성하는 세포가 악성화한 종양으로 편평상피세포암과 함께 가장 흔한 비흑색종 피부암이며, 국소적으로 침범하지만 전이가 드문 악성 종양이다. ‘악성흑색종’은 멜라닌세포의 악성 종양으로 멜라닌세포가 존재하는 곳에는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나 피부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멜라닌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악성흑색종은 이 멜라닌세포 또는 모반세포(반점)가 악성화한 것으로 악성도가 높다. 그 외에 피부암으로는 ▶혈관육종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파제트병 ▶피지샘암 ▶에크린샘암 ▶아포크린샘암 ▶피부림프종 등이 있다. <br/> <br/> 피부암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가장 먼저 지목되는 것이 자외선이다. 피부를 과도하게 일광에 노출시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자외선은 각질세포에 있는 암 발생 유전자의 DNA를 변형시킴으로써 암 생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암 억제 유전자의 기능이 마비된 채 더 많은 양의 자외선을 쬐게 되면 표피세포에 광선 각화증이 발생하고, 지속적인 자외선의 노출은 각화증을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단기간에 대량의 자외선을 쪼이는 것은 물론 어릴 때부터 축적된 자외선의 영향에 의해서도 암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얼굴이나 목, 손등 등 햇빛에 노출되는 부분에서 생기는 편평상피세포암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햇빛 노출이 많은 생활습관도 개선이 필요하다. 등산·낚시·골프·스키 등 스포츠 레저 활동 증가 및 일광욕을 자주 즐기는 등 생활습관의 서구화로 자외선 노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br/> <br/>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암 발생건수는 21만7057건이었다. 그 중 피부암은 연간 4576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2.1%를 차지했다. 인구 10만 명당 조발생률(해당 관찰 기간 중 대상 인구 집단에서 새롭게 발생한 환자 수. 조사망률도 산출 기준이 동일)은 9.0건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에서 남녀의 성비는 0.7대 1로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발생 건수는 남성 1926건, 여성 2650건이었다. 연령대별로는 남녀를 합쳐 70대가 32.5%로 가장 많았고, 80대 이상 27.0%, 60대 19.1%의 순이었다. <br/> <br/> 피부는 혈관 확장이나 수축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세균이나 화학 물질과 같은 이물질, 물리적 및 화학적 외상, 그리고 열이나 자외선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 또 피부는 햇빛을 받으면 칼슘과 인의 대사를 조절하는 비타민D를 생성한다. 하지만 피부는 나이가 들면 변화가 나타나고, 특히 태양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노화가 가속화돼 피부의 상해나 피부 질환에 대한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br/> <br/>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3-504.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아주대병원 김진우 교수팀 “암수술 환자 회복 향상 림프관 색전술 효과 커”  
날짜: 20170522  
기자: 전미옥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22195155002  
ID: 01100201.2017052219515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 수술 후 림프액 누출을 막는 ‘림프관 색전술’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아주대병원 영상의학과 인터벤션 김진우 교수팀은 림프액이 누출되는 곳을 막는 색전술 통해 환자의 수술 이후 회복도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br/> <br/> 림프액은 우리 몸을 순환하며 면역작용을 하는 림프구와 영양물질을 혈액내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림프액 누출은 종양이나 외상 등으로 수술 중 임파선을 절제한 환자들에게서 종종 발생한다. 림프액이 소실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이 쉽게 생길 수 있고, 영양공급이 안 돼 환자 회복이 늦어질 수 있어 수술 이후 출혈이 멈추는 것만큼이나 림프액 누출양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br/> <br/> 그러나 기존에는 림프액 누출이 나타나도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서 자연치유를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림프관은 혈관과 달리 직접적인 확인이 어렵고 관련 검사·시술법 등 관련 기술도 복잡했기 때문이다.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다량의 림프액 누출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었다. <br/> <br/> 이에 김진우 교수팀은 2014년부터 누출 부위를 직접 막는 림프관 색전술을 시행해 치료법을 보완했다. 림프관 색전술은 초음파를 통해 안쪽 허벅지 부위에 있는 임파선을 확인하고, 가느다란 바늘로 조영제 주입해 림프관의 손상 부위를 검사한 이후 색전술을 시행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암 수술 후 림프액 누출이 발생한 환자 21명에게 림프관 색전술을 시행한 결과 치료 성공률이 95.2%로 나타났다. 또 시술 후 평균 입원기간은 5.9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진우 교수는 “<span class='quot0'>종양이나 외상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됐어도 임파선 절제 부위에서 림프액이 누출될 수 있는데 일부 환자의 경우 손상된 림프관 회복까지 몇 달이 걸리거나 또는 평생 림프관을 꼽고 생활하는 환자들도 적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색전술 시술 이후 일정기간 이후에는 대부분 문제없이 림프관 회복됐다</span>”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림프관 색전술은 1970∼1980년대에 발표됐지만 검사나 시술이 어려워 거의 시행되지 않던 기술이다. 그런데 최근 검사법 등이 발전하면서 다시 주목받게 됐다”며 “림프액 누출 기간이 길어질 수록면역력이 떨어지고 영양공급 안 돼 환자에게 좋지 않다. 림프관 색전술로 환자 회복을 돕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br/> <br/> 한편, 림프관 색전술은 국내 여러 병원에서도 시행할 만큼 의료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국립암센터, 세브란스병원 등 의료진들은 림프인터벤션연구회를 조직해 왕성한 연구도 이어가고 있다. 김 교수는 “국내에서 림프관 색전술은 새로운 분야다. 의료진들의 증례 및 치료법 공유, 추가 연구 등을 통해 기술을 정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r/> <br/>전미옥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505.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환자 5년 상대생존율 갑상선 최고  
날짜: 20170522  
기자: 조민규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22195055001  
ID: 01100201.201705221950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통계로 본 암현황에 따르면 2010∼2014년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관심질병을 가진 환자의 관찰생존율을 동일한 성별, 연령군을 가지는 일반인구의 기대생존율로 나누어 구한 값으로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의 효과를 보정해준 생존율)은 70.3%로 1993∼1995년(41.2%) 대비 29.1%p포인트, 2001∼2005년(53.9%) 대비 16.4%p, 2006∼2010년(65.2%) 대비 5.1%p 증가했다. 즉 암환자의 3명 중 2명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갑상선암, 전립선암을 제외한 모든 암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을 살펴보면, 2010∼2014년 5년 상대생존율은 61.5%로 1993∼1995년(40.2%) 대비 21.3%p, 2001∼2005년(49.9%) 대비 11.6%p 증가해 지속적인 향상이 관찰됐다. 또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을 제외하고도 암환자의 절반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주요 암 5년 상대 생존율을 보면 갑상선암(100.2%), 전립선암(93.3%), 유방암(92.0%), 대장암(76.3%), 위암(74.4%) 순으로 5년 상대 생존율이 높았다. 주요 암 중 생존율 향상이 가장 컸던 암은 전립선암으로 1993∼1995년 대비 2010∼2014년 37.4%p 향상됐다. 다음으로 위암(31.6%p), 비호지킨 림프종(22.5%p), 간암(22.1%p) 순이었다. 반면 췌장암의 생존율은 1993∼1995년과 비교해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0∼2014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을 1993∼1995년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과 비교해 보면 모든 암종에서 5년 상대 생존율이 향상됐다. <br/> <br/> 2010∼2014년도 암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을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신장암 ▶대장암 순으로 5년 상대 생존율이 높았으며, 여성은 ▶갑상선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순이었다. 주요 암 5년 상대생존율 국제 비교를 보면 2010∼2014년 암 발생 중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각각 74.4%, 76.3%, 32.8%, 92.0%, 79.7%로, 미국(‘06∼’12)의 해당 암의 5년 상대생존율인 31.1%, 66.2%, 18.1%, 90.8%, 68.8%에 비해 더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br/> <br/> 요약병기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위암(60.3%), 유방암(57.4%), 전립선암(56.3%)의 경우 조기에 진단되는 비율이 50%를 넘었으며, 간암(46.0%), 갑상선암(42.6%)도 높은 조기 진단 분율을 보였다. 반면, 생존율이 낮은 췌장암과 폐암의 경우 원격 전이 상태에서 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분율이 40%를 넘었다. <br/> <br/> 암이 처음 발생한 장기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남녀 전체에서 전립선암(100.9%), 갑상선암(100.6%), 유방암(98.1%), 위암(95.9%), 대장암(95.6%)의 생존율이 높았고, 간암(53.1%)과 췌장암(32.5%)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위 장기나 인접한 조직 혹은 림프절을 침범한 국소 진행단계인 경우, 폐암(33.7%), 담낭 및 기타담도암(33.6%), 간암(19.3%), 췌장암(14.5%)은 낮은 생존율을 보였고, 갑상선암·전립선암·유방암은 90% 이상의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로 전이된 원격 전이 단계에서 갑상선암(71.6%)의 생존율은 70% 이상의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이외에 비호지킨림프종(53.9%), 전립선암(42.1%), 유방암(37.3%), 위암(6.3%), 폐암(5.9%), 간암(3.2%), 담낭 및 기타담도암(2.5%), 췌장암(1.7%) 등의 순으로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조민규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506.txt

제목: 초프라 박사 “CRPS는 정신질환 아니다… 장애평가 최신 가이드라인 따라야”  
날짜: 20170522  
기자: 송병기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22192755001  
ID: 01100201.20170522192755001  
카테고리: 사회>장애인  
본문: 대한의학회가 지난해 10월 개정 발간한 장애평가기준이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2월20일자 쿠키뉴스 보도)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통증치료와 통증조절 의약품 전문가인 프라딥 초프라 박사(사진·하버드의과대학 졸업·브라운메디컬스쿨 교수)가 국내 기준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쿠키뉴스는 최근 초프라 박사와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과 활용 개정(2판)’ 기준에 대한 평가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들의 장애평가 기준 등에 대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br/> <br/> 개정된 장애평가기준에 의하면 다수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들이 장애인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통증환자들의 경우 개정된 장애평가기준에 근거해 법원에서 장애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 논란이 크다. 앞서 대한의학회는 지난해 10월 ‘장애평가기준과 활용’ 개정(2판)을 발간했다. 이는 지난 2011년 9월 발간한 장애평가기준(해설과 사례연구) 출판 이후 두 번째로 개정판이다. <br/> <br/> 문제는 개정판에 담겨진 진단기준이 미국의학협회(AMA) 장애평가기준 5판을 토대로 한 점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5판에 담긴 장애인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AMA6판으로 변경했다. 그런데도 대한의학회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국내 통증 관련 학회의 의견을 배재한 채 진단기준을 제시했다. <br/> <br/> 이에 대해 초프라 박사는 “미국의사협회의 AMA5판을 인용한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 또한 미국 의사협회의 경우 장애평가나 진단과 관련 현행 AMA6판에도 문제가 있어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초프라 박사는 CRPS가 매우 고통스러운 질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큰 통증을 동반한다. 실제 캐나다 맥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CRPS는 인류에게 알려져 왔던 어떠한 통증보다도 고통스럽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암이나 신체 일부 절단에서 오는 통증보다도 더 아픈 것”이라고 설명했다. <br/> <br/> 특히 현재까지 CRPS에 대한 적절한 완치법이 없다는 점이 환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한다. 초프라 박사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알려진 완치법이 없어, 환자들은 평생 이 질환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다른 부위로 확산되고 더 악화된다. 간단하고 부드러운 접촉에도 크나큰 고통이 수반되고, 증상이 있는 부위는 매우 춥게 느껴진다. 이로 인해 해당 부위는 사용이 어려워 진다”고 CRPS 치료의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br/> <br/> 그럼에도 이번 대한의학회의 국내 장애평가진단 기준에서는 통증장애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판정기준도 최근 의학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대한통증의학회 측은 “새로운 개정판은 예전의 장애진단기준을 근거로 작성됐다. 최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제외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br/> <br/> 실제 이번 의학회 개정판의 통증장애 범위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만을 장애평가 대상으로 한다. 반면 AMA6판에는 장애평가가 필요한 통증질환을 크게 4가지 범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 CRPS를 제외하고 최고 장애율이 3%에 달하는 등 통증장애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내 개정판은 CRPS에 의한 장애만 인정하고 동일부위의 다른 장애는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br/> <br/> 이에 대해 초프라 박사는 “CRPS는 비단 통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지의 운동기능 상실로도 이어진다. 따라서 장애평가도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장애평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표준을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사협회 AMA6판 평가기준에는 현행 CRPS 진단기준이 적용됐다. 2000년도에 발행된 미국의사협회 AMA5판 평가기준은 기반 정보가 17년이나 된 낡은 기준이다. 그동안 CRPS에 대한 인식과 이해, 특히 중추신경계 안에서 일어나는 민감성, 아교세포 활성화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됐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br/> <br/> 환자단체와 통증의학회, 초프라 박사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지난 3년여의 개정 작업에도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은 오히려 장애등급 판정을 더 어렵게 해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초프라 박사는 “CRPS는 정신과 질환이 아니다. 심리상태가 CRPS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면서 “CRPS 환자들은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통증을 느낀다. 통증이 자연스레 완화되지 않는다. 극심한 피로와 수면 장애, 사지 저체온증을 동반하다. 이 환자들에게 의미 있는 치료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노동과 관련해 장애가 충분히 고려되고 인정받아야 된다”고 강조했다.송병기 기자 <br/> <br/>songbk@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3-507.txt

제목: [우먼 칸타타] 코마 상태서 본 십자가… 기도로 다시 얻은 삶  
날짜: 20170520  
기자: 파주=노희경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20000056001  
ID: 01100201.20170520000056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5월의 문리버파크(대표 박강월)는 꽃향기로 가득했다. 18일 경기도 파주시 헤이리마을에 위치한 기독교 문화공간 문리버파크를 찾았을 때 가장 먼저 반긴 꽃내음은 연분홍의 향달맞이꽃이었다. 하우스웨딩, 소규모 세미나 등을 열 수 있는 2층 풀문홀로 올라가는 나무계단 입구에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주부편지 사무실 입구에도 순백의 아우라가 빛나는 마가레트꽃이 만개했다. 뇌종양 수술 이후 박강월(64·일산광림교회) 권사는 문리버파크를 가꾸며 예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고 있다. <br/> <br/> “기독교 문화공간을 세워라” 성령님 음성 <br/> <br/> 박 권사는 하는 일이 참 많다. 수필가인 그는 2006년부터 월간 주부편지 발행인을 맡고 있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중보기도네트워크 ‘아침햇살편지(햇편)’도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평신도들로 구성된 자비량 선교극단을 창단한 이래 사역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건 하늘의 소명 때문이다. <br/> <br/> 96년의 한 날로 기억한다. 드라마 대본을 직접 쓰는 등 전국을 다니며 선교공연을 활발하게 하던 때다. 예정에 없던 금식 기도를 종일 드리고 있었다. <br/> <br/>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기독교 문화공간을 지으라.’ 저로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이었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반문했습니다. ‘어찌 그리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나요.’ 지금도 선명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고 종이에 받아 적었더라고요.” <br/> <br/> 이후 3년쯤 지났을 때 이번엔 박 권사의 남편 박형우(62) 장로가 같은 음성을 들었다. “기독교 문화공간을 지으라.” 부부는 이를 위해 정신없이 달렸다. <br/> <br/>머리 삭발한 딸, 지금 생각해도 눈물만 나 <br/> <br/> 헤이리마을에 2800여㎡ 대지를 구입하고 기독교 문화공간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하려던 순간, 박 권사는 죽음과 맞닥뜨렸다. 2010년 묵상집 ‘햇살편지’를 출간하고 이틀 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병원에 갔다.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br/> <br/> “삭발을 하고 2개월 동안 세 번이나 머리를 여는 수술을 했습니다. 첫 수술 후 코마 상태에 빠졌고 그 상태에서 재수술을 받았지요. 의료진은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고,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저는 침대에 팔과 다리가 묶인 상태로 생사를 넘나들었습니다.” <br/> <br/> 겨우 의식을 차린 박 권사는 기쁨도 잠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남편과 하나뿐인 딸이 삭발을 한 채로 자신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박 권사는 “외모에 신경 써야 하는 예쁜 딸인데, 엄마를 응원한다며 삭발을 했으니 마음이 어땠겠느냐”며 그날을 회상했다. <br/> <br/> 박 권사는 당시 중보기도의 위력을 체험했다. 햇살편지를 통해 그의 수술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다. 특히 수술 전까지 자신이 그렇게 기도해온 한 말기암 환자는 박 권사의 치유를 위해 스스로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까지 고백했다. <br/> <br/>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섬세하세요. 제가 수술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중보기도 사역을 하게 하셨고, 저로 하여금 중보기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br/> <br/> 번제물이 되겠다던 그 암 환자는 박 권사가 의식을 되찾던 날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두 딸을 둔 40대의 가장이었다. 박 권사는 “그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고맙고 미안할 뿐”이라고 했다. <br/> <br/> 내가 만난 가장 귀한 분 ‘십자가의 예수님’ <br/> <br/> 박 권사는 혼수상태에서 세 개의 십자가를 봤다고 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무십자가였다. 그는 “포기와 좌절, 소망이 반복되는 아슬아슬한 위기의 순간들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다”고 고백했다. <br/> <br/> 수술 후 첫 검사에서 결과가 안 좋아 절망에 빠진 적도 있지만 박 권사는 중보자들에게 무조건 치유를 선포하고 감사기도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재검 결과 의료진으로부터 “깨끗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br/> <br/> “이 비밀이 크도다.”(엡 5:32) 2013년 고난주간에 아침묵상을 하며 사도 바울이 외친 이 말씀을 읽다 눈물을 쏟았다. 투병생활을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남편이 전 재산을 털어 ‘약속의 땅’에 기독교 문화공간 건축을 시작한 것이다. 아내 이름 ‘강월(江月)’을 영어로 풀어낸 ‘문리버파크’라고 현판까지 달아놓은 채 말이다. <br/> <br/> 2015년 개관한 문리버파크는 200여석을 갖춘 공연장 문라이트홀과 게스트하우스, 레스토랑 등을 갖추고 있다. 문라이트홀에선 각종 콘서트와 연극, 뮤지컬 등이 열린다. 박 권사는 중보기도로 하루를 연다. “<span class='quot0'>세상에서 가장 복 받은 여자</span>”라며 눈물로 감사의 제사도 드린다. “이제 그만 저를 데려가 달라고 울부짖던 고통의 순간들에도 예수님은 결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붙잡아주셨습니다. 저의 나머지 삶은 주님뿐입니다. 세상 끝날이 와도 절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30여년 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깊은 사랑을 그는 예수님과 나누고 있었다. <br/> <br/>파주=노희경 기자 hkroh@kmib.co.kr, 사진=강민석 선임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508.txt

제목: [정진영 칼럼] 유방암 이기고 보훈처장 된 피우진  
날짜: 201705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19183055001  
ID: 01100201.201705191830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엄마가 아프다. 서울의 큰 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다. 80대 고령인 데다 병기(病期)가 간단치 않아 환자와 보호자 모두 사소한 예후 변화에도 노심초사한다. 남들이야 “그 연세면 됐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천명을 넘긴 내게도 엄마는 여전히 늘 옆에 있어야 하는 존재다. 그래서 ‘암 환자 엄마’는 낯설고 불쌍하다. <br/> <br/> 엄마가 있는 5인실 병실의 나머지 환자는 유방암을 앓고 있다. 나는 암에 관해 상식 이상으로 아는 게 없다. 유방암에 대해서도 물론 무지하다. 그런 내가 보기에 유방암 환자는 ‘암 환자가 맞나’ 싶다. 입원에서 수술, 퇴원에 이르기까지 대략 일주일이면 끝이다. 수술 후 하루 만에 식사와 보행이 아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 같았다. 가슴을 절제한 지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보호자가 가져온 제육볶음에 채소 쌈을 싸먹고는 운동 간다며 씩씩하게 병실을 나서는 환자도 있다. 한 달 가까이 침대에 누워 있는 엄마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br/> <br/>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가보훈처장에 피우진 예비역 육군 중령을 임명한 것이 화제다. 장성 아닌 영관급 출신에다 최초의 여성 처장이란 점 때문이다. 그가 세상에 알려진 계기는 유방암이다. 가슴절제 수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란 이유로 강제 전역을 당하자 법정 투쟁을 했고 결국 2008년 승소해 군에 복직한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그때는 몰랐는데 요즘 보니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 회복이 빠르고 일상 적응도 빨랐다. 현역 복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암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퇴역시킨 당시 군인사법의 무모함이 놀랍다. <br/> <br/> 피 처장에다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 문 대통령은 파격 수준의 인사를 잇따라 단행했다. 호남 총리 약속을 지키는 등 화합에 진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측근 인사들의 백의종군 결단은 신선함을 더했다. ‘\*호’라는 게 따라붙어 어색하긴 하지만 업무지시의 내용도 그만하면 괜찮다.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광속을 내는 정책 행보 역시 바람직한 듯하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span class='quot0'>무서울 정도로 굉장히 잘한다</span>”고 극찬했다. <br/> <br/> 문 대통령의 정책방향은 대선 기간 중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을 꼽았을 때 이미 알아봤다. 그는 “<span class='quot0'>진보적이면서 통합적인 리더십이 존경스럽다</span>”고 했다. <br/> <br/> 피상적으로 알려진 루스벨트는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TVA)’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미국 경제를 부흥시킨 인물이다. 그의 진가는 다른 여러 부문에서 그 이상의 가치를 드러냈다. 루스벨트는 독점 대기업 규제, 공정거래법 도입, 사회보험 실행 등 사회경제 개혁에 집중했다. 진보 성향은 노동자 권리 구제에서 도드라졌다. ‘와그너법’을 만들어 노동자들이 노조결성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도록 했다. 그의 집권 기간 미국은 빈부격차가 가장 완화된 ‘대압착(Great Compression) 시대’를 맞았다. 중산층이 대거 생기면서 ‘소비가 미덕’인 미국 역사상 최대의 풍요를 구가했다. <br/> <br/> 그러나 루스벨트가 4선의 위업을 이룬 배경의 핵심은 소통이다. 그는 ‘노변정담’으로 불리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늘 국민과 대화했다. <br/> <br/> 문 대통령도 지금까지는 비교적 국민과 무난하게 소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성공 요인의 하나가 소통임을 전 정권의 전비(前非) 를 통해 제대로 배웠을 것이다. 피 처장 임명도 특정 이데올로기에 갇힌 보훈처의 벽을 깨고 보훈가족은 물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다. 내 처지 때문일까, 여러 고위직 인사 중에 암 환자 병력의 피 처장 임명에 새삼 눈길이 간다. <br/> <br/>정진영 논설위원 jyjung@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09.txt

제목: 아주대병원,예약단계부터 진료 첫날 모든 과정 전문가 동행 서비스  
날짜: 20170517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17102044001  
ID: 01100201.20170517102044001  
카테고리: IT\_과학>모바일  
본문: 아주대병원은 17일 암 진단을 받았거나 암으로 의심돼 병원을 찾는 환자를 위해 ‘암 신환(자) 동행(안내) 서비스’를 실시해 환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암 전문 코디네이터가 환자를 일대일로 동행하며 지원하는 서비스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br/> <br/> <br/>암 신환 동행 서비스는 암 환자가 낯선 병원을 처음 방문할 때 일련의 절차와 다양한 정보로 인해 겪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암 환자에게 신속하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안한 제도다.  <br/> <br/>아주대병원은 3월 한 달 간 시범 시행을 거쳐 4월에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5월부터는 서비스 범위를 6대 암에서 10대 암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br/> <br/>암신환 동행 서비스의 대상은 대장암,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부인암, 두경부암, 뇌종양, 갑상선암, 비뇨기계암의 10대 암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의심 소견이 있는 환자로 아주대병원에서 진료와 검사, 치료를 받기 원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br/> <br/>이 서비스를 희망하는 환자는 일단 전화예약센터(1688-6114) 또는 암신환 전용예약전화(031-219-4115~7)를 통해 진료 예약을 하고 기다리면 된다. 암환자 간호경력이 3년 이상인 암신환 코디네이터가 통화 즉시 또는 해피콜을 통해 환자의 진료 일정을 확인하고 지참서류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한다. <br/> <br/>예약일에 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첫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발렛파킹 서비스를 받고 본관 1층 고객안내센터에서 대기하면 암신환 코디네이터와 만나게 된다. 이후에는 암신환 코디네이터가 지참 서류를 확인하고 영상자료 등록, 진료과 동행 및 진료과 간호사 연결, 중증환자등록, 각종 검사 동행, 입원 수속 또는 귀가에 이르기까지 당일에 이뤄지는 모든 과정을 돕는다. 이외에도 암신환 코디네이터는 암 환자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상담을 제공한다. <br/> <br/>탁승제 아주대병원장은 “암을 처음 진단받거나 암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으면 환자는 두려움과 당혹감에 싸이게 된다. 이런 환자가 암 전문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료예약 단계부터 시행착오를 줄이고 검사에서 치료 시작까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최적의 치료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암신환 동행 서비스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10.txt

제목: 해독 필요한 현대인, 몸속 독소 제거하는 방법 ‘주목’  
날짜: 20170516  
기자: 전재우 선임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16161255001  
ID: 01100201.20170516161255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과거와 달리 영양과잉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몸속에 독소가 쌓이기 쉽다. 활동량에 비해 섭취하는 열량이 넘쳐나 체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야 할 영양분이 배출되지 못한 채 몸 안에 쌓이면서 독소로 변하는 것이다. <br/> <br/>체내에 축적된 독소는 신진대사 기능을 떨어뜨려 성인병, 암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된다. 이를 막으려면 평소 몸속 독소 제거를 돕는 식사 및 생활습관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br/> <br/>우선 열량이 과하지 않으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육류, 기름진 음식 등의 고탄수화물 식이를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양질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꾸준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 된다. <br/> <br/>장 건강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복용도 몸속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권장된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독소의 원인이 되는 유해균을 제거하고 유익균을 늘려 흐트러진 장내 세균 군집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킨다. 장내 세균총이 균형을 이루면 장 점막의 방어벽이 튼튼해져 몸속으로 침입하는 독소를 제거하는 데 이롭게 작용한다. <br/> <br/>프로바이오틱스 제제는 시중에 다양한 브랜드 제품으로 나와 있는데,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것인 만큼 화학첨가물이 최대한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골라야 한다. 식품의 맛과 향을 살리는 합성감미료와 합성착향료는 물론, 제품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HPMC 등의 부형제도 없어야 유해성분 걱정 없는 유산균이라 할 수 있다. <br/> <br/>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는 ㈜프로스랩의 유산균 제품이 있다. 가족용 유산균 프로스랩 패밀리를 비롯해 아기용 프로스랩 베이비, 임산부용 프로스랩 맘스 등 전 제품은 합성감미료·합성착향료·이산화규소·스테아린산마그네슘·HPMC 등 5가지 첨가물이 일절 없는 5無 제품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br/> <br/>프로스랩 베이비, 맘스 등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기능성을 인정받은 혼합균주를 함유해 장내에 바람직한 세균총이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부원료로 첨가해 유익 미생물의 성장 및 증식을 극대화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br/> <br/>프로스랩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현대인들은 필요한 영양분보다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지만, 이를 활동 에너지로 제때 쓰지 못해 몸속에 독소가 쌓이게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평소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해 고른 영양소 섭취에 신경 쓰고, 장내 독소 비율을 줄이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꾸준히 챙기길 바란다</span>”고 조언했다. <br/> <br/>콘텐츠팀 이세연

언론사: 국민일보-3-511.txt

제목: [헬스파일] 위암 수술 후 몸 관리법  
날짜: 201705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16040059001  
ID: 01100201.20170516040059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차 위암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대상 의료기관은 모두 114개였고 이중 86%(98개)가 1등급 판정을 받았다. <br/> <br/> 위암은 갑상샘암을 제외하면 국내 발생 순위 1위, 사망률 3위에 올라있는 암이다.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는 우리나라 사람과 악연이 깊다. 의사들이 위암 극복을 위해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고 조기 발견과 수술 후 몸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br/> <br/> 위암을 부추기는 원인 중 식습관 등 환경적 요인은 약 90%에 이른다. 아무리 수술이 잘 됐어도 수술 전과 같이 잘못된 식생활 환경에 계속 노출돼 있으면 장기 생존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br/> <br/> 위암 수술은 크게 위의 3분의2를 절제하고 남은 위와 소장을 연결하는 방법과 위 전체를 절제한 다음 식도와 소장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모두 위를 잘라내기 때문에 위암 환자는 수술 후 상당한 신체변화를 겪게 된다. <br/> <br/> 먼저 위암 수술 후에는 위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화불량이나 설사 복부팽만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 결과 수술 후 1∼2개월까지 체중이 약 10% 감소될 정도로 잘 먹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암 환자는 수술 후 음식을 골고루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필요할 경우 영양제 주사를 맞는 것도 도움된다. <br/> <br/> ‘덤핑 증후군’도 조심해야 한다. 덤핑 증후군은 음식이 정상적인 소화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소장으로 빨리 넘어가면서 생기는 생리현상이다. 식후 30분 이내에 오심(메스꺼움) 구토 어지러움 식은땀 가슴두근거림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br/> <br/> 이때는 즉시 편안한 자세로 앉아 증상이 완화되기를 기다는 것이 상책이다. 식후 1∼2시간 후에도 계속되는 후기 덤핑 증후군은 저혈당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어지러움을 느끼고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어서다. <br/> <br/> 식사를 조금씩 천천히 여러 번에 나누어 먹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 음식도 골고루 먹되 절대 과식해선 안 된다. 식사 전후 30분 이내에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좋지 않다. <br/> <br/> 마지막으로 위암 극복을 위해 식생활만큼 중요한 것이 운동이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나면 산책이나 가벼운 걷기가 권장된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배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줄넘기 수영 등산 골프 등)은 수술 후 2개월까진 삼가는 것이 좋다. <br/> <br/>하만호 국제성모병원 외과 교수, 그래픽=전진이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512.txt

제목: [And 건강] 젊은데 설마? 자궁경부암, 20대도 방심 금물!  
날짜: 20170516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16040056001  
ID: 01100201.2017051604005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이미지를 크게 보려면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클릭하세요 <br/> <br/><br/>이번 주(5월 셋째주)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정한 자궁경부암 예방주간이다. 자궁경부암 신규 발생은 국가암등록 통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최근(2014년)까지 매년 3.7%씩 줄어 왔다. <br/> <br/> 대신 암 발병 연령은 젊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20, 30대 여성들의 자궁경부암 진료가 늘고 있는 추세다. 자궁경부암은 30세 이후 발병률(40·50·30·60대 순)이 증가하는데, 30세 미만도 매년 2000명 넘게 진료 받고 있다. <br/> <br/>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자궁경부암 진료 환자는 2606명이었고, 20세 미만도 24명이나 됐다. 30대는 1만1966명이었다. 지난해 전체 암 진료 인원(여성) 중 20, 30대의 자궁경부암 점유율은 각각 13.0%, 15.5%로 다른 연령대(10%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br/> <br/> 젊은층의 자궁경부암 증가는 첫 성경험 연령이 빨라지고 성 개방 풍조의 확산으로 성 파트너 수가 늘면서 자궁경부암의 99% 원인인 ‘휴먼파필로마바이러스(HPV)’에의 노출 횟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HPV는 성 접촉에 의해 전파된다. <br/> <br/> A씨(27)는 지난해 5월 소변에 핏기가 비쳐 검사결과 자궁경부암 1기 진단을 받았다. 자궁 입구(경부)에 3.7㎝의 암덩이가 발견됐다. 다행히 다른 장기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암이 커서 항암 치료를 통해 절반으로 줄인 뒤, 암이 있는 자궁 경부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10대부터 성경험이 있었던 A씨는 ‘HPV 16형’에 감염돼 있었던 걸로 확인됐다. 자궁경부암의 70%는 HPV 16, 18형의 지속 감염으로 발생한다. <br/> <br/> 이화여대 목동병원 산부인과 주웅 교수는 “<span class='quot0'>A씨의 경우 그마나 초기여서 자궁 경부와 주변 조직 일부만 잘라내고 자궁은 살렸기 때문에 앞으로 임신이나 출산이 가능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하지만 발견이 늦어져 자궁을 완전히 들어내게 되면 임신이 불가능한 만큼 가임기 젊은층은 조기발견이 아주 중요하다</span>”고 설명했다. <br/> <br/> 20, 30대 자궁경부암 검진율 낮아 <br/> <br/> 문제는 20, 30대의 경우 “<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젊은데 설마</span> 암에 걸리겠어?</span>” 하는 안이한 인식 탓에 국가암검진이 무료임에도 검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미혼 여성의 경우 기혼 여성에 비해 산부인과 진료를 꺼리는 경향이 강해 개인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율도 낮은 편이다. <br/> <br/>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3년간 국가암검진 수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궁경부암 검진율은 53%로 절반을 겨우 넘었다. 20대는 26.9%에 그쳤고, 30대는 평균 수준인 53.1%에 머물렀다. 20대는 지난해 1월부터 국가암검진 대상에 포함됐다. <br/> <br/> 국립암센터가 암 진단을 받은 적 없는 성인(여성 20∼74세, 남성 40∼74) 4000명 대상으로 국가암검진과 개인검진을 포함한 수검 현황을 조사한 결과도 비슷했다. 지난해 20, 30대의 자궁경부암 평생 1회 이상 수검률은 각각 44%, 62%로 40대 이상(71∼81%)에 비해 낮았다. 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3년에 한번씩 시행) 이행률 역시 20대 29.7%, 30대 47%로 다른 연령층(62∼69%)보다 낮았다. <br/> <br/> 국립암센터 서상수 자궁암센터장은 “<span class='quot2'>지난해부터 국가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확대했지만 20대도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 특히 젊은 여성에게는 자궁경부 바깥쪽(편평세포암)보다 더 안쪽에 발생하는 ‘선암’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아 발견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br/> <br/> “<span class='quot1'>젊은데 설마</span>” 했다가 후회 <br/> <br/> 자궁경부암은 일찍 발견해 치료하면 5년 상대 생존율이 80%에 달한다(2010∼2014년 79.7%). 여성 전체 암 중 갑상샘암(100.1%) 유방암(92.0%)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다름 암처럼 5년 생존율이 확 줄어든다. 암이 처음 발생 부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땐 5년 생존율이 92.5%였지만 멀리 떨어진 장기에까지 퍼진 경우엔 23.6%로 뚝 떨어졌다. <br/> <br/> 2015년 자궁경부암 4기 판정을 받은 B씨(29)는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암이 왼쪽 목 부위까지 퍼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B씨는 1년 넘게 생식기 출혈이 계속되는 등 암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다. “젊은 나이에 암일 리 없고 생리불순일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산부인과 진찰대에 올라가기 싫은데 병원에 가야 하나.” <br/> <br/> 검사결과 암은 온몸으로 번져 수술이 불가능했고 6개월간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결국 세상을 떠났다. <br/> <br/> B씨 역시 10년 전 일찍부터 성경험을 했고 자궁경부암 고위험군인 HPV 16, 18형에 지속적으로 감염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 주치의였던 국립암센터 장하균 전문의는 “<span class='quot3'>일찍 병원을 찾았으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까웠다</span>”고 했다. <br/> <br/> 세포검사와 HPV검사 병행 조기발견 ‘효과’ <br/> <br/> 산부인과학회와 부인종양학회 등은 만 20세 이상 무증상 여성들에게 3년마다 한 번씩 자궁경부 세포검사와 함께 개인별 위험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HPV검사를 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br/> <br/> 세포검사는 자궁 입구 표면에서 세포를 채취해 변형 유무를 살펴보는 것이고 HPV검사는 그 세포에서 암의 원인이 되는 HPV의 존재 및 DNA 유형을 파악한다. <br/> <br/> 국가 자궁경부암 검진은 세포검사로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세포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돼 추가로 HPV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 부담금은 5만∼8만원 선이다. 개별로 HPV검사를 받으려면 보험이 안돼 6만∼15만원을 내야 한다. <br/> <br/> 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홍진화 교수는 “<span class='quot4'>자궁경부암은 HPV에 감염돼 암 전 단계(이형성증, 상피내종양 등)로 가는데 5∼10년, 다시 암으로 진행하는데 10년 정도 걸린다</span>”면서 “<span class='quot4'>즉 처음 암의 씨앗이 뿌려지고 암이 되기까지 5∼20년이 걸려 그만큼 조기 발견 기회가 많다</span>”고 설명했다. 암 전 단계에서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완치 가능하다. <br/> <br/> 서상수 센터장은 “하지만 세포검사의 경우 병변이 있는데도 정상 판정되는 ‘위음성률’이 50%에 달하는 게 맹점이다. 세포 검체 채취와 검사, 판독 과정에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r/> <br/> 실제 제약기업 로슈진단이 시행한 21세 여성 4만7000명 대상 연구에 따르면 자궁경부 세포검사에서 정상 판명된 10명 중 1명은 암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6, 18형 HPV에 감염된 여성은 세포검사에서 정상이 나왔더라도 HPV가 없는 여성에 비해 자궁경부암의 전암 단계로 발전될 확률이 35배 높았다. <br/> <br/> 따라서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자궁경부암 검진을 위해선 HPV검사를 함께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18∼29세 여성의 HPV 감염률은 50%로 보고됐다. 18∼79세 여성의 유병률(34%)보다 훨씬 높다. <br/> <br/> 100여종의 HPV 중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고위험군은 16, 18형을 비롯해 약 14종이다. 국내에는 14종 모두를 찾아낼 수 있는 HPV검사법이 보급돼 있다. 홍진화 교수는 “대부분 HPV는 감염돼도 2년 안에 자연스럽게 사라지만 5∼10%에서 지속 감염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특히 16, 18형은 자연 소실이 잘 안 되고 만성 감염이 이뤄지므로 전암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기적인 추적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r/> <br/>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이근호 교수는 “<span class='quot5'>다만 30세 미만에서는 HPV 감염률이 높은 데다 자연 소실률 또한 높아 비용 효과 면에서 HPV검사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고 세포검사로도 충분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5'>30세 이후에는 세포검사와 HPV검사를 함께 받으면 암 조기 발견율을 높일 수 있다</span>”고 덧붙였다. <br/> <br/> “<span class='quot6'>자궁경부암, 결국 사라질 것</span>” <br/> <br/> 아울러 9∼26세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접종을 반드시 하는 게 좋다. 현재 국내에는 HPV 고위험군인 16, 18형을 예방하는 2가 백신, 여기에 6, 11형을 추가한 4가백신이 나와 있고 최근엔 추가로 5가지 고위험 HPV를 차단하는 9가 백신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고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2, 4가 백신은 지난해 6월부터 만12, 13세 소녀들에게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있다. <br/> <br/> 서상수 센터장은 “<span class='quot7'>현재의 백신 접종으로 자궁경부암의 70∼90%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백신을 맞았더라도 나머지 10∼30%를 예방하려면 정기적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아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 주웅 교수는 “<span class='quot0'>자궁경부암 백신의 효과는 국가예방접종 시행 15∼20년 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예방접종과 정기검진을 통해 자궁경부암이 종국에는 ‘없어지는 암’이 될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 <br/> <br/>글=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513.txt

제목: 연세암병원 연구진, 특정 치료약물에 잘 듣는 바이오마커 첫 규명  
날짜: 20170515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15144344001  
ID: 01100201.201705151443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의료진이 ‘편평상피세포형 폐암 환자’ 치료에 결정적인 도움이 주는 새로운 치료지침을 제시,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br/> <br/>연세의료원은 연세암병원 폐암센터 조병철( <br/>사진) 교수 연구팀이 편평상피세포형 폐암 치료에 획기적으로 도움을 주는 바이오 마커를 발굴했다고 15일 밝혔다. 편평상피형 폐암은 국내 폐암 환자 중 가장 많이 발견되는 폐암 유형이다. <br/> <br/>연구팀은 폐암세포의 성장에 관여하는 생체신호 중 하나인 ‘FGFR’(섬유아세포성장인자수용체, 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를 차단하기 위해 암 치료약물 중 하나인 ‘도비티닙’(Dovitinib)의 효과를 측정했다. <br/> <br/>연구팀은 수술받은 편평상피세포형 폐암환자에게서 얻은 암세포 덩어리와 이들 환자의 암 세포를 이식해 편평상피세포형 폐암을 인위적으로 발병시킨 실험용 마우스(Mouse)에 ‘도비티닙’(Dovitinib)를 각각 투입하고 암세포 사멸 여부를 조사했다. <br/> <br/>그 결과 일부 조사군에서 암세포가 30일 이내 빠르게 축소되고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반면 치료반응이 없는 조사군에서는 15일만에 암세포가 급격히 성장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br/> <br/>연구팀은 다시 ‘도비티닙’(Dovitinib)약물에 사멸되는 환자의 암세포 덩어리와 마우스를 ‘반응군’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비(非)반응군’으로 분류하고, 첨단 장비를 이용해 각 암세포의 ‘유전자 미세배열분석’을 실시했다.  <br/> <br/>그러자 반응군에서는 비반응군에 없는 FGF3/19를 비롯한 18개의 핵심 유전자군의 발현이 높게 나타났다. <br/> <br/>이는 난치성 편평세포암에서 도비티닙(Dovitinib)에 좋은 치료효과를 보일 수 있는 환자가 따로 있고, 이를 유전자형 검색으로 사전에 선별할 수 있다는 뜻이다. <br/> <br/>이번 연구결과는 암관련 국제 학술지 ‘애널스 오브 온콜로지(Annals of Oncology)’ 최근호에 게재됐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14.txt

제목: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 자만에 빠져 힘들게 살다 하나님께 짐을 맡기니 모든 게 풀리고 편안해져  
날짜: 2017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15000056001  
ID: 01100201.20170515000056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부모님의 잦은 다툼으로 어린 시절부터 혼자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모든 문제는 혼자 해결해 나갔고 꼭 필요한 말 이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조원들이 함께 해야 할 과제도 혼자 해치웠고, 일상생활에서 보통 남자들이 하는 힘든 일도 혼자 다 해결했다. 그 때부터 언니들은 나에게 ‘김군’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br/> <br/> 겉으로는 강한 것 같았지만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에 늘 가슴은 답답하고 우울했다. 그러다 가끔 알 수 없는 분노가 일면 머리를 이불 속에 묻고 소리를 지르거나 펑펑 울기도 했다. 나는 점점 고립됐고 외로움에 지쳐갔다. <br/> <br/> 그러던 어느 날 어느 교회 성도의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간증이 내 귀에 들어왔다. ‘아, 우울함의 끝은 자살이구나. 나도 이 상태로 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절대 내 모습을 보여줄 순 없었다. 목사님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신 것을 믿느냐. 부활이면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 받은 것을 믿느냐”고 하는 말씀도 내겐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br/> <br/> 어머니와 등산을 갔다가 말을 거의 하지 않던 내가 그날따라 많은 말을 했는데, 어머니는 무척 즐거워하셨다. “엄마,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 다 하네요.” “그러게. 오래 떨어져 지내다보니 딸인데도 집에 오면 손님 같더라.”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려앉으며 어머니의 모습이 예수님과 겹쳐 보였다. “근영아, 너의 주인이 누구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고 싶어 부활했는데 너는 마음을 나누려 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말씀 하시는 것 같았다. <br/> <br/> ‘아!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대했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버려두었구나!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나와 마음을 나누는 것이었는데….’ 그때 말씀 하나가 생각났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다.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다. 내가 주인되어 살았다. 그대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br/> <br/> 나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많은 문제와 속마음을 이야기 하는 게 너무 편안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암 진단 전화를 받았다. 그냥 멍해졌다. 그러나 곧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생각나 기도하기 시작했다. 교회 공동체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주셨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늘가족이 바로 이런 거구나’ 눈물만 나왔다. <br/> <br/> 그리고 간병을 위해 휴직을 했다. 어머니는 8번의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횟수가 거듭될수록 더 잘 견디셨다. 모두가 교회 분들의 매일 기도 때문임을 어머니도 알고 계셨다. 어머니는 ‘이번 주에 엄마도 같이 교회 갈까’라고 말했다. 머리카락이 다 빠져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고 하신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정말 놀라웠다. “왜 교회만 오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면서 “나는 이젠 아무 걱정 없어. 이젠 아픈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었다. <br/> <br/> 어머니의 암 치료, 간병, 외롭고 힘들었던 지난 모든 일을 씩씩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셨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언론사: 국민일보-3-515.txt

제목: [뉴스룸에서-민태원] 암 환자 아버지의 절규  
날짜: 2017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15213655001  
ID: 01100201.201705152136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아들을 살릴 수 있다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2000만원이나 보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br/> <br/>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한상이씨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건 지난 6일. 최근 치명적인 복어 독을 암 특효약으로 불법 제조·판매한 업자가 붙잡혔다는 기사를 보고 혹시나 도움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을 썼다고 했다. <br/> <br/> 그가 들려준 가슴 아프고 잔인한 사연은 이랬다. 한씨는 지난 3월 16일 대장암 말기였던 큰아들을 갑작스레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다. 아들은 올해 서른두 살이었다. <br/> <br/> 한씨는 지난 1월 말 늦은 밤 한 통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말기 암 아들의 상태를 알려주고 전신사진을 보내주면 치료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을 박모 한의사라고 소개했다.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 한씨 아들은 3년 전 대장암 수술을 받고 별문제 없이 지내다 지난해 10월 재발했고 암이 전신으로 퍼져 병원에선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태였다. 절박한 마음에 아버지는 인터넷을 뒤져 말기 암에 좋은 자연요법을 찾는다는 댓글을 남겼고, 그걸 보고 연락해 온 것이었다. 그 한의사는 산삼약침으로 말기 암과 난치병 환자를 치료한다는 입소문이 나 있었다. 한의사는 “아드님 눈빛이 살아있다. 60% 확률로 살릴 수 있다”며 서울에서 왕진을 갈 테니 왕진비 100만원을 내라고 했다. 어려운 형편을 얘기해 50만원으로 깎았다. 다음 날 한의사는 성분을 알 수 없는 환약과 과립형 비타민제를 싸 들고 한씨의 집을 찾아왔고, 아들에게 환약을 한 번에 2∼5알씩 하루 3번 먹이라고 했다. 무슨 성분의 약인지 물었더니 환약은 암을 녹이고 비타민제는 암을 씻어낸다고만 말해 줬다. 그리고는 완치시켜 줄 테니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한씨는 집안 형편상 2000만원밖에 쓸 수 없다고 했고, 그걸 한의사의 지인 5명의 통장으로 쪼개서 송금해줬다. 의심이 들긴 했지만 아들이 오래 살 수 있길 바라며 다른 자녀의 학교 등록금까지 당겨서 보내줬다. <br/> <br/> 그러나 아들의 상태는 환약과 알 수 없는 여러 약제를 먹을수록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다. 말기였지만 이전에는 시장도 가고 가벼운 산책도 했는데, 점점 복수가 차 배가 풍선 2개 크기만 해져 아예 집안에 드러눕게 된 것. 결국 20여일 만에 병원으로 옮겼으나 한 달여 만에 숨졌다. “<span class='quot0'>효과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span>”는 약속은 빈말이었다. 차일피일 미루다 얼마 전부턴 연락조차 끊고 있다고 한다. 자식을 살려보려다 재산까지 잃게 된 한 아버지의 한숨이 멀리서도 느껴졌다. <br/> <br/> 말기 암 등 난치병 환자·가족의 기적을 바라는 절박함을 악용하는 이런 비윤리적 행위는 의료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 대한한의사협회에 확인 결과 박 한의사는 올 1월 초에도 줄기세포로 불법 암 치료를 한다며 방송에 보도돼 현재 검찰과 보건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는 2012년에도 엉터리 치료를 하다 한의사 면허를 박탈당했고 지난해 다시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말기 암 환자 등을 울리는 사기 범죄는 종종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복어환 불법 암 치료를 비롯해 대구에선 ‘단식·관장으로 45일 만에 말기 암을 고쳐준다’며 무면허 의료시설을 운영한 부부가 붙잡히기도 했다. 물론 1차적으로 환자와 가족이 조심해야 한다.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은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어 결코 믿어선 안 된다. 하지만 더욱 필요한 건 의료라는 허울로 사익을 취하려는 악덕업자, 특히 ‘불량 의료인’이 다시는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법·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br/> <br/>민태원 사회부 차장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16.txt

제목: '랜섬웨어 쇼크' 다가오는 월요일… 종합병원 가장 취약  
날짜: 20170514  
기자: 최민우 인턴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14120244001  
ID: 01100201.20170514120244001  
카테고리: IT\_과학>보안  
본문: 사이버 공격용 랜섬웨어 '워너크라이'(WannaCry)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세계적으로 해킹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종합병원의 보안 시스템이 가장 취약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영국에서는 암 환자 등 중환자를 포함 환자 수천명의 치료 예약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br/> <br/>랜섬웨어는 인질을 잡고 몸값을 요구하는 것처럼, 사이버 공격으로 컴퓨터를 무력화시킨 뒤 그 주인에게 대가를 받고 공격을 풀어주는 데 사용되는 해킹 수단을 뜻한다. 이번에 유럽과 아시아 등 세계 70여개 국가에서 벌어진 랜섬웨어 공격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의 보안 허점과 컴퓨터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에 소홀했던 개별 사용자들 상황이 큰 피해를 가져왔다. <br/> <br/> <br/> <br/>특히 이번 공격에 종합병원 보안시스템이 가장 취약하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br/> <br/>미국의 블리핑컴퓨터닷컴 대표 로렌스 애브럼스는 "<span class='quot0'>종합병원들은 윈도 소프트웨어의 낡은 버전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병원 운영에 필요한 온갖 의료기구와 장치, 의무기록 등에 이 낡은 운영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더욱 취약하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애브럼스 대표는 "<span class='quot1'>수많은 의료기관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보안 업그레이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병원에서 윈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것은 생사를 가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이고, 악성코드가 산불처럼 모든 전산망으로 번져가는 것을 방치하는 행동</span>"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 목숨이 걸린 만큼 병원들은 컴퓨터 보안에 비용을 더 지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br/>영국은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 랜섬웨어 공격으로 각 병원 시스템이 잇따라 마비됐다. 수천명의 환자가 치료 예약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암 환자를 포함한 중환자들도 발길을 돌려야 했다. <br/> <br/>앰버 러드 내무부 장관은 13일 국립의료서비스(NHS) 248개 병원 중 5곳이 공격당했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 국립사이버보안센터는 의료전산망 복구를 위해 24시간 비상 근무 중이다. 모든 컴퓨터 사용자에게 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권유하고 있다. <br/> <br/>마이크로소프트사는 신속하게 운영 방침을 바꾸고 구형 윈도 시스템을 사용 중인 개인 수백만명과 중소기업 등에 개편된 보안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br/> <br/>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2'>컴퓨터 보안 업데이트를 소홀히 하지 않고, 미루지 않아야만 앞으로 악성코드 공격에 대비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랜섬웨어의 공격은 이제부터 시작</span>"이라고 강조했다. <br/> <br/>영국 옥스퍼드대 그레이엄 클럴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번 해킹이 사상 최대의 사이버 공격이며 지금까지는 '맛보기'에 불과하고 더 큰 해킹이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br/> <br/>미 애리조나 주 스코츠데일에 있는 트루소나 사이버보안회사의 창립대표 오리 아이젠은 AP통신에 "지금까지는 어린애 장난에 불과하다. 아직 심각한 단계가 아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나 댐, 철도 운영 시스템 같은 치명적인 인프라가 협박 대상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라며 "원자력 발전소 10곳이 공격당해 전력 공급이 한꺼번에 중단될 경우, 수력발전 댐이나 교량 등에 가해질 경우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br/> <br/>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17.txt

제목: '대장암 투병' 유상무, 2년간 소아암 환아에 6천만원 기부  
날짜: 20170513  
기자: 김동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13050244001  
ID: 01100201.20170513050244001  
카테고리: 지역>대전  
본문:  대장암 투병 중인 개그맨 유상무(37)가 지난 2년간 소아암 환아를 위해 6천만 원을 기부한 소식이 알려졌다.   <br/> <br/>유상무는 2015년 국립암센터에 3천만 원을 기부했고, 지난해에는 국립암센터 소아암 병동을 찾아 환아 6명에게 500만원 씩 전달했다.  <br/> <br/> 소속사 관계자는 12일 “<span class='quot0'>유상무가 대장암 판정을 받기 전부터 소아암 환아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부를 해왔다</span>”며 “본인이 아파보니 암 환자들의 마음을 더욱 알게 된것 같다"고 전했다. <br/> <br/> <br/> <br/> 유상무는 지난해 5월 성폭행 미수 혐의로 피소됐었다.  같은해 1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아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유상무는 모든 방송활동을 접고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br/> <br/>지난달 유상무의 대장암 3기 판정 소식은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자신이 기부해왔던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았다.  <br/> <br/>유상무는 입원 당시 "이 곳에 매번 봉사활동이나 기부를 하러 왔었는데 수술을 받으러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주변인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그는 SNS를 통해 근황을 알리고 있다.  <br/> <br/>소속사 관계자는 "유상무가 병이 완치되면 암 환자들을 위한 개그 무대를 마련해보고 싶어 한다”며 " 조만간 또 기부금은 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r/> <br/>대장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통원 치료 중인 유상무는 SNS를 통해 팬들에게 자신의 근황을 알리고 있다.  <br/> <br/>김동운 객원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518.txt

제목: [삶의 향기-박재찬] 5월의 성찰  
날짜: 201705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13174255001  
ID: 01100201.20170513174255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새 대통령을 뽑고 나니 5월의 반이 지났다. ‘가정의 달’이라는 의미를 되새겨볼 틈도 없는 와중에 알고 지내는 한 목사님의 페이스북 글이 눈길을 붙잡았다. <br/> <br/> 어버이날인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안양의 메트로 병원 호스피스 병동. 안양호스피스선교회 자원봉사자로 꾸려진 ‘포에버 합창단’이 말기암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작은 공연을 선보였다. 10명 남짓한 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해 병실마다 설치된 모니터와 스피커로 감상한 모양이었다. <br/> <br/> “<span class='quot0'>낳으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span>” ‘어머니의 마음’ 첫 소절이 흐르자 환자들과 곁에 있던 자녀들의 눈엔 금세 눈물이 고였다. 더러는 훌쩍였다. “<span class='quot0'>아마도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갚을 길이 없기도 하거니와 내년 어버이날을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span>” <br/> <br/> 선교회를 20년 넘게 이끌고 있는 김승주 목사의 설명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튿날에만 2명의 환자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는 전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생을 유지하는 기간은 평균 20일 안팎. 이들 곁을 지키는 원목이나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붙잡아주며 동행하는 반려자들이다. <br/> <br/> 타인의 임종을 자주 접하는 원목들은 일반인이나 다른 종류의 사역을 펼치는 목회자들보다 죽음에 대해 초연한 편이다. 최근 김성은(총신대 목회상담학) 박사는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다. 원목을 포함해 목회자 400여명의 설문을 통해 죽음에 대한 불안도를 조사해 봤더니 원목의 불안감이 선교사나 일반 목회자들에 비해 훨씬 덜했다. <br/> <br/>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리커트 척도 응답 방식에서 죽음에 대한 불안도가 원목은 2.4였고, 선교사와 일반 목회자는 각각 3.1, 3.3이었다. 수치가 높을수록 죽음에 대해 더 많이 불안해한다는 뜻이다. “<span class='quot0'>원목들이 아픈 사람이나 임종을 접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 삶과 죽음, 인생의 의미를 곱씹어보는 기회가 더 많고 더 익숙하기 때문 아닐까요.</span>” 김 박사의 해석이다. <br/> <br/> 1년 전쯤부터 회사 사무실에 샘물호스피스선교회의 소식지가 매달 배달된다. 환자 투병기와 간병기, 호스피스 관련 의학 논문, 자원봉사 소감문 등이 빼곡한 30여쪽짜리 잡지다. <br/> <br/> “하루 매상이 3000만원에 마진이 30%, 한 달 순익이 2억5000만원이나 됐어요. 그걸 무서워해야 했는데.… 그땐 내 주위에 그저 아부하려는 사람들뿐이지 권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당좌수표 부도로 40일간 감방에 있다 나오니 (주위 사람들이) 썰물처럼 떠나가더라고….” <br/> <br/> 지난 1월 세상을 떠나기 전, 자원봉사자와 나눴던 50대 남성 환자의 고백이다. 의류 사업으로 맛본 인생의 성공과 쾌락, 이어진 배신과 실패, 후회, 그리고 삶의 끝자락에 선 자신의 처지를 투박하지만 솔직한 어조로 담아냈다. <br/> <br/> ‘어젯밤 생명을 거두어가셨을 수도 있지만 오늘을 허락해주신….’ 한 20대 대학생 자원봉사자는 호스피스 병동 식당 벽에 걸린 기도문을 마주하면서 자신의 삶을 반추했다고 한다. 소식지에 등장하는 고백들이 베스트셀러 소설 못지않게 가슴에 와 닿는 경험을 매월 누리곤 한다. <br/> <br/> 이번 달 받아본 잡지의 발간 호수는 245호. 호스피스 병동을 거쳐 간 수많은 환자와 가족, 또는 원목과 자원봉사자들이 소식지를 통해 20년 넘게 호소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 끝이 있는 인생임을 깨닫는 순간, 겸손과 섬김의 정신이 깃든다고 한다. 우리 모두가 되새겨야할 대목이다. <br/> <br/> 새 정부가 막 출범했다.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끝난 직전 정부를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섬기는 대통령’ ‘겸손한 권력’이었다. 임기 첫날부터 이어지는 탈권위 행보와 파격 인사도 눈길을 끈다. 기대가 되는 한편으로 초심을 얼마나 잘 유지할지 의구심도 생긴다. 유한한 권력임을 늘 기억해야 한다. <br/> <br/>박재찬 종교부 차장 jeep@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19.txt

제목: 암을 극복하는 생활, 암면역세미나에서 답을 찾다  
날짜: 20170512  
기자: 전재우 선임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12165155001  
ID: 01100201.20170512165155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계속 증가하는 암 발생률로 인해 건강한 삶에 대한 현대인의 욕구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암 발생률이 20만 건을 넘긴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암 사망자 수도 2015년 기준 76,855명을 기록, 암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br/> <br/>암 예방 및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인구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경로의 암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암면역 세미나 등을 통한 암 관련 정보 습득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br/> <br/>서울송도병원 암면역센터에서 진행하는 ‘암을 극복하는 생활’ 암면역세미나는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암 예방 정보를 다루고 있어 높은 호응을 불러오고 있다. 미국 블록센터(Block Center)의 설립자이자 암 전문의인 키이스 블록 박사의 저서 ‘암을 극복하는 생활’을 주제로,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쉬운 접근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br/> <br/>암 환자와 가족, 일반인, 업계 관계자까지 다양한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송도병원 암면역세미나는 암의 기본개념과 발병 및 확산과정, 예방과 건강한 암면역치료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br/> <br/>서울송도병원 이사장 이종균 박사의 강연으로 진행되는 암면역세미나는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좋은 반응을 불러오고 있다. 난해한 의학용어 및 전문용어 대신 비유와 이미지를 통한 쉬운 이해를 추구하고 있으며, 서울송도병원 암면역센터 및 면역세포유전자연구소의 8년여 간의 암면역치료 연구와 임상결과를 통한 실제사례도 함께 다루고 있다. <br/> <br/>암면역 세미나 관계자에 따르면 “<span class='quot0'>일반인들도 쉽고 간단하게 암에 대한 정보 및 생활 속 예방습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이 암면역세미나의 인기 요인 중 하나</span>”라며 “<span class='quot0'>단순한 강좌가 아닌 암 환자 및 그 가족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개념으로 매 주 유용한 정보를 계속 전달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br/> <br/>서울송도병원 암면역세미나는 단발성으로 기획되는 일반 세미나에서 벗어나 매 주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5월 17일, 24일, 6월 14일, 21일 오후 2시에 정기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세미나 및 암면역 센터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송도병원 암면역센터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br/> <br/>전재우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520.txt

제목: “지금 먹어야 꿀맛” 제철 양배추로 만드는 쉬운 요리  
날짜: 20170512  
기자: 전재우 선임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12153855001  
ID: 01100201.20170512153855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제철을 맞은 양배추 수확이 한창이다. <br/> <br/>지난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5월의 제철 농수산물로 양배추를 선정한 가운데, 출하량 증가로 가격까지 크게 떨어지며 양배추가 주부들의 애정을 한 몸에 받고 있다. <br/> <br/>양배추는 녹색양배추 외에도 자색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등 그 품종이 다양해 활용도가 높다. 제철 양배추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양배추 요리레시피를 소개한다. <br/> <br/>항산화물질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자색양배추는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암과 심장병 등 각종 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준다. 무, 양파와 함께 자색양배추 피클을 만들면 오이 피클보다 영양가가 높다. <br/> <br/>자색양배추 피클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자색양배추와 양파, 무를 준비한 후, 각각 두께 1㎝, 길이 3㎝로 썬다. 피클에 들어가는 단촛물은 냄비에 물과 설탕 한 컵, 소금 두 숟가락을 넣어 끓인 다음 식초를 한 컵 섞어 완성한다. 먹기 좋게 썰어둔 재료를 단촛물에 버무려 대여섯시간 두고 밀폐 용기에 담아 하루 정도 익힌 뒤 먹는다. <br/> <br/>세계 10대 슈퍼푸드 ‘브로콜리’는 다량의 항산화물질과 칼슘, 비타민을 함유해 골다공증과 항암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늘과 볶아 브로콜리마늘볶음으로 쉽게 건강 반찬을 만들 수 있다. 브로콜리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끓는 물에 빠르게 데치고 찬물로 헹군다. 팬에 올리브유를 두른 뒤 얇게 썬 마늘을 볶다가 브로콜리를 투하한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여 마무리한다. <br/> <br/>고소한 맛의 콜리플라워는 한끼 식사로 든든한 수프를 만들기에 적합하다. 통마늘과 콜리플라워를 살짝 볶다가 치킨스톡 육수를 붓는다. 10분이 지나면 믹서기로 마늘과 콜리플라워를 곱게 갈아낸다. 우유와 생크림을 넣어 농도를 맞추고 한소끔 끓인다. <br/> <br/>양배추의 효능은 영양소가 열에 의해 손실되지 않도록 생으로 먹었을 때 극대화된다. 샐러드나 양배추즙으로 만들면 영양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양배추즙 만들기는 유기농양배추와 토마토, 브로콜리, 사과 등을 녹즙기에 갈아 주스처럼 만들면 완성된다. <br/> <br/>시중에 판매되는 양배추즙 제품도 양배추 효능을 간편하게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양배추즙 제품을 구매하기 전 브랜드마다 상이한 양배추즙의 제조방식을 살펴봐야 한다. 일반적인 양배추즙은 물에 영양소를 우려내는 ‘물 추출 방식’으로 제조되는 경우가 많다. 물 추출 방식은 양배추의 영양성분 중 물에 녹는 성분을 담아내기에는 적절하나 물에 녹아 나오지 않는 불용성 영양성분은 추출이 어려운 편이다. <br/> <br/>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전체식 방식’이 있다. 전체식 양배추즙은 유기농양배추를 겉잎까지 통째로 넣고 초미세분말로 분쇄한 후 양배추진액과 혼합하는 절차로 만들어진다. 물에 녹지 않는 성분뿐 아니라 양배추 겉잎이 지닌 풍부한 영양소까지 추출이 가능하다. <br/> <br/>진단검사기관인 슈어퀘스트랩(SureQuestLab)이 양배추즙과 양배추분말의 영양소 함량에 대해 연구한 결과, 실제로 양배추 분말의 게르마늄, 플라보노이드, 칼슘, 칼륨, 셀레늄 등 무기질 함량이 양배추즙보다 각각 18.54배, 10.5배, 8.18배, 5.05배, 2.25배 더 높은 것으 나타났다. <br/> <br/>전재우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521.txt

제목: 아모레퍼시픽, 여성 암 환자 돕는 희망 캠페인 실시  
날짜: 20170512  
기자: 김유나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12194055001  
ID: 01100201.20170512194055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아모레퍼시픽은 자사 방문판매원 ‘아모레 카운셀러’가 함께하는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의 2017년 상반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는 피부 변화와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심적 고통을 겪는 여성 암환자들에게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뷰티 노하우를 전수하는 캠페인이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1만1078명의 여성 암 환자 및 4033명 아모레 카운슬러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2011년에는 중국, 2015년에는 베트남으로 지역이 확대됐다. <br/> <br/> 올해 국내 캠페인은 상·하반기로 나뉘어 전개된다. 상반기에는 전국 주요 20개 지역 병원에서 85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전문 강사와 봉사단이 참여자들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노하우를 전수한다. 암 수술 후 2년 이내인 여성 환우(현재 방사선 또는 항암치료 중인 환우 대상)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헤라 메이크업 제품과 프리메라 스킨케어 제품,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브로셔로 구성된 키트가 제공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22.txt

제목: [특별기고-소강석] 새 대통령 탄생과 한국교회의 역할  
날짜: 201705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11130755001  
ID: 01100201.20170511130755001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국민의 한 사람이자 한국교회의 목사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도 있지만, 머리털 하나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통령 선거에 우리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을 것이다. 최소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은혜로 새 대통령이 선출됐음을 믿는다. <br/> <br/> 필자는 이번 대선을 통해 한국정치의 긍정적 측면을 봤다. 한국정치의 가장 큰 암 덩어리였던 지역주의가 현저히 약화됐기 때문이다. 한 가지 걱정은 새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보다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념 세대 계층 지역 간 찢겨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일이 새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이다. <br/> <br/>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국회로 가서 각 당 대표들을 만나 소통하고 탕평인사를 단행했다. 국민통합을 위해 참 좋은 행보다. 그에 못지않게 문 대통령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일도 중요하다. 문 대통령도 계속해서 대화와 포용과 협치의 정치를 해나가야 한다. <br/> <br/> 특별히 한국교회는 더 그렇다. 한국교회 안에도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었다. 일부 교계 인사들은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그 후보의 공약이 한국교회 공익 코드와 많은 부분 일치한다고 했다. 한국교회를 향한 그분들의 용기와 의협심을 존중하면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다. 민감한 시기에 자칫 교인과 국민들의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 대신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후보 캠프의 대표자들을 초청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슬람, 종교인 과세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도록 요구했다. 그때만 해도 문 대통령의 입장은 일부 모호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캠프 대표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현장에서 문 대통령과 직접 통화까지 하며 확실한 입장을 정리해줬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TV토론에서도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br/> <br/> 한국교회도 동성애자들이 사회적 차별을 받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차별금지법 자체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그 안에 있는 성적 지향이나 종교 차별에 대한 독소조항이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할 뿐이다. 독소조항만 뺀다면 한국교회가 왜 반대를 하겠는가. 나는 문 대통령께서 후보 때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는다. <br/> <br/> 한국교회는 그런 믿음을 갖고 새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야 한다. 특정 후보를 지지 했던 일부 인사들 역시 선거결과를 인정하고 승복해야 한다. 계속 대결구도로 가선 안 된다. <br/> <br/> 성경에서도 교회는 국가와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다.(딤전 2:1∼3) 백성들이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다.(딤전 2:2, 2:4) 종교개혁자 칼뱅도 “국가와 통치자가 교회를 박해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면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통치 행위에 협력해야 한다. 국가와 통치자는 교회를 보호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br/> <br/>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적대시하는 정치를 한다면 그때 견제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이 양치기 목자의 가슴과 아량을 갖고 새 대통령이 선한 통치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협력해야 할 때다.

언론사: 국민일보-3-523.txt

제목: 건국대병원, 선행 항암화학요법으로 유방 보존 암치료율 높여  
날짜: 20170511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11104544001  
ID: 01100201.20170511104544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조기 발견 유방암은 항암화학요법을 먼저 시행, 암의 크기를 줄인 다음 수술을 시행하면 유방 보전은 물론 완치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는 임상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건국대학교병원은 유방암센터 양정현( <br/>사진) 유영범 정수민 교수 연구팀이 국소 진행성 유방암 진단 환자 54명을 대상으로 선행항암화학요법에 이어 유방보존 수술을 시행하고 추적 관찰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br/> <br/>연구팀은 2011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건국대병원에서 아드리아 마이신(Adriamycin)과 탁산(Taxane), 허셉틴(Herceptin)을 기본으로 한 선행항암화학요법을 받은 국소 진행성 유방암 환자 54명을 대상으로 치료 경과를 조사했다.  <br/> <br/>그 결과, 선행항암화학요법 후 병소의 크기가 줄어 유방 전절제 대신 유방 보존 수술이 가능해진 환자가 59%(37명)에 이른 것으로 밝졌다. 더욱이 이 중 9명은 항암제 치료 만으로 병소가 사라진 것(완전 관해)으로 확인됐다. <br/> <br/>연구팀은 병리학적으로 완전 관해 소견을 보인 9명의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들의 차이도 조사했다. <br/> <br/>그 결과, 유방암의 몇 가지 아형 중 HER2형(HER2 양성)과 여성 호르몬의 수용체 중 하나인 PR(progesterone receptor)이 음성인 경우, 완전 관해(완치)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br/> <br/>양정현 유방암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병리학적 완전 관해를 예측할 수 있는 툴이 개발된다면, 미래에는 선행항암화학요법 후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을 미리 선별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 <br/> <br/>연구결과는 지난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제18차 미국 유방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24.txt

제목: [로컬브리핑] 성동구, 우리동네 영화관 운영  
날짜: 20170509  
기자: 라동철 선임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09214955001  
ID: 01100201.20170509214955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금호1가동주민센터에서 ‘우리동네 독립영화관’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br/> <br/> 동주민센터 3층 마을활력소 숲속아트홀에서 매월 2회, 둘째·넷째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다. <br/> <br/> 오는 12일 상영되는 첫 작품은 ‘초인’으로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대명컬쳐웨이브상 수장작이다. 26일에는 희귀암을 앓는 청년의 프랑스 정복기 감동실화를 담은 다큐영화 ‘뚜르’가 상영된다. <br/> <br/> 마을활력소는 주민 공동체공간으로 청소년 탁구교실을 운영하며 생활공구도 무료 대여해 준다. <br/> <br/>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25.txt

제목: [역경의 열매] 송순복 <7> 투자 확대 와중에 날벼락같은 암 진단  
날짜: 20170509  
기자: 정리=노희경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09000255002  
ID: 01100201.20170509000255002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1996년 4월은 싱크대 관련 비품들을 취급하는 하나산업 유통회사를 설립해 사업의 규모를 확장해가던 때였다. 백조싱크 대리점을 운영하며 차곡차곡 모아온 ‘4번 배가 재테크(투자 준비금)’ 통장으로 싱크대 상판 및 비품들을 구입해 유통회사 창고를 꽉 채웠다. ‘세계선교 기업’이라는 비전에 걸맞게 더 많은 이슬람 지역에 교회를 세울 생각으로 투자를 감행한 것이다. <br/> <br/> 그렇게 신바람 나게 일하고 있는데 지인들은 오히려 내 안색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수원 성빈센트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고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다. 둘째 아들을 힘들게 낳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 고생한 것 외에는 크게 아파본 적이 없어 체력에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br/> <br/> 10시간이 넘는 대수술 후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 등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 머리카락은 다 빠졌고 몸무게도 18㎏이나 줄었다. 지독한 구토에 시달리다 흉측한 몰골을 마주한 순간 그대로 바닥에 누워 숨만 헐떡이며 서럽게 외쳤다. “<span class='quot0'>하나님, 저 좀 천국 데려가 주세요.</span>” <br/> <br/>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른 기도가 흘러나오는 게 아닌가. “<span class='quot0'>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통을 알게 하소서.</span>” 그러면서 골고다 길을 올라가시며 채찍질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졌다. <br/> <br/>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span class='quot0'>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span>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롬 5:3∼5) <br/> <br/> 그동안 나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잊고 살았던 것이다. 비록 병과 고통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오늘 나는 아픈 몸에 집중할 것인지, 언젠가 나을 것이라는 소망에 집중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당연히 나의 선택은 후자였고 이전과는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됐다. <br/> <br/> 2년 가까이 항암제 치료를 마치고 일선에 복귀했다. 투병 직전 사업 규모를 키울 생각으로 자재들을 구입해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십일조와 선교통장 외에 나머지 3개 통장의 잔액은 바닥이었다. 남들처럼 마케팅비로 돈을 쓸 수는 없는 상황. 게다가 당시는 IMF 외환위기까지 겹쳐 곳곳에서 한숨만 터져나왔다. <br/> <br/> 나는 전화번호부를 뒤져 거래처가 될 만한 곳들에 일일이 편지를 써 보냈다. 상황이 암울할수록 내겐 선명하게 다가오는 로마서 말씀이 있었다. “<span class='quot0'>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span>” <br/> <br/> IMF로 인해 싱크대 관련 자재들을 충분히 공급 받을 수 없게 된 거래처들이 내 편지를 받고 쉴 새 없이 전화하기 시작했다. 그 어렵다는 IMF 시절 우리의 거래처는 100곳을 돌파했고, 제품들은 날개 돋친 듯 팔렸다. 하나님은 우리 기업에 기적을 베푸셨다. <br/> <br/> 사람은 당장 내일을 바라보고 안 되면 실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십 년 후, 영원을 예비하고 일하신다. 지금 각자 처한 상황이 막막한가. 훗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고난의 훈련 과정을 지나고 있음을 깨달았으면 한다. <br/> <br/> 정리=노희경 기자 hkroh@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26.txt

제목: 어버이날 챙기세요… 부모님 위한 ‘금융거래 금융꿀팁’  
날짜: 20170508  
기자: 나성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08050059001  
ID: 01100201.20170508050059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은퇴생활자인 김모(65)씨는 비과세 종합저축이 수시입출금 저축예금 통장에도 적용된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김씨는 “<span class='quot0'>한 푼이 아쉬운 노후 생활인데 피할 수 있는 세금을 냈다</span>”며 “<span class='quot0'>연휴가 끝나면 곧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것</span>”이라고 했다. 매달 개인연금을 자신의 보통예금 계좌로 받고 있는 이모(70)씨는 개인연금 전용 금리우대 통장이 있다는 걸 최근에야 알게 됐다. 그동안 놓친 이자만 수십만원이 된다는 은행 직원 설명을 듣고 부랴부랴 전용통장을 만들었다. <br/> <br/> 은행 거래에서 우대금리나 세금감면 혜택을 챙길 수 있는데도 이를 모르는 고령층이 의외로 많다. 금융감독원은 7일 고령층을 위한 ‘은행거래 금융꿀팁’을 공개했다. <br/> <br/> 만 63세 이상이라면 가장 먼저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예·적금에 가입하면 세금(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이 면제된다. 일반 예·적금은 이자수익 10만원에서 세금 15.4%를 떼고 8만4600원을 받는다. 반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자는 10만원을 전부 받을 수 있다. 가입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 종합저축을 합산해서 5000만원이다. <br/> <br/> 연금 수령자에겐 우대혜택을 주는 상품도 많다. 시중은행들은 급여이체 통장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우대 및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연금우대 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개인연금을 정기적으로 받는다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에게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예·적금 상품도 있다. 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 연금사랑 패키지는 연금 계좌로 예·적금, 카드, 보험 등을 연계하면 최대 연 2.5% 우대이율을 준다. <br/> <br/> 각 은행은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고, 직원의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노년층을 위해 ‘어르신 전용 상담창구’도 만들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개 은행의 4935개 지점에 전용 상담창구가 개설돼 있다. 금감원은 전문 재무상담사가 재무설계, 노후대비 등을 상담해주는 금융자문서비스(국번 없이 1332로 전화)를 제공하고 있다. <br/> <br/> 또한 시중은행들은 각종 신탁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치매에 종합 대비하는 치매안심 신탁상품을 출시했다. 치매에 대비한 자산관리 설계, 상속 지원과 함께 치매 판정 후 병원비 등에 쓰고 남은 돈을 자녀에게 나눠준다. 신한은행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계약 내용대로 자산을 분배·관리하는 내리사랑신탁 상품을 판매 중이다. <br/> <br/> 금융회사들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각종 효도 상품도 내놓았다. 한화생명 ‘라이프플러스 용돈 드리는 효보험’은 계약자 자녀에게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3대 질병을 80세까지 보장해주고, 계약자 부모에게 최대 10년간 용돈을 지급한다. <br/> <br/>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527.txt

제목: “헌혈로 소중한 생명 살린다” 공군 전투비행단 장병들 헌혈증 5000장 기부  
날짜: 20170505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05000056002  
ID: 01100201.20170505000056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공군은 제8전투비행단 장병들이 모은 헌혈증 5000장을 강원도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에 기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기부한 헌혈증은 중환자 250명을 살릴 수 있는 200만㏄에 해당한다. 헌혈증은 원주 지역 저소득층의 암·백혈병·고위험 질병 수술과 치료에 쓰일 예정이다. <br/> <br/> 제8전투비행단은 2011년부터 ‘혈액은행제도’를 만들어 헌혈증을 저축해 왔다. 장병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인 헌혈증은 1만장에 달했다. 이 중 2000장은 수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8차례 기부했다. 이번에 기부한 5000장은 5년간 장병들이 모아 온 것이다. 이 비행단은 최근 4년간 총 1만6132명이 헌혈해 공군 내에서 헌혈을 가장 많이 했다. 지난해 8월 중증재생불량성빈혈 환자를 위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김재헌 하사도 이 비행단에서 복무하고 있다. <br/> <br/>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28.txt

제목: 일본 국민 작가 나카니시 레이 “평화 헌법은 예술 작품”  
날짜: 20170504  
기자: 구성찬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04204244001  
ID: 01100201.20170504204244001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일본의 저명한 작가 겸 작사가인 나카니시 레이(79)가 4일 아사히신문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노래한’ 일본 평화 헌법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예술 작품</span>”이라고 강조했다. <br/> <br/>  만주 태생인 그는 일본 패망 이후 ‘버려진 국민’으로 자신이 겪었던 참혹한 경험들을 들려주며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밀어붙이고 있는 ‘재무장을 위한’ 개헌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br/> <br/>  평화 헌법이 시행 70년 만에 최대 고비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비참한 전쟁과 화려한 번영을 동시에 겪은 작가는 “<span class='quot1'>총리가 2020년 개정 헌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을 듣고 놀랐다</span>”며 “<span class='quot1'>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가 있는 총리가 말장난을 하고 있다</span>”고 일침을 놨다. 나카니시는 이어 “<span class='quot2'>(나쁜) 권력은 궁극적으로 개인이 국가 이외의 대상을 사랑하는 것을 싫어해 개인을 공포로 묶어 놓으려 한다</span>”면서 ‘저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br/> <br/>  작가는 평화 헌법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 기쁘다며 자신이 평화의 소중함을 강하게 인식하게 된 계기가 무엇보다 강렬했던 전쟁의 체험이었다고 말했다. <br/> <br/>  그는 종전을 전후로 세 번이나 국가에 농락당하고 버려지는 것을 경험했다면서 첫 번째 ‘버려짐’은 자신이 ‘무적(無敵)’이라 믿었던 만주 관동군으로부터 당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나카니시는 “<span class='quot2'>(종전 직전인) 1945년 8월 8일 소련군이 일본과 소련의 중립 조약을 깨고 침공을 시작하자마자 관동군은 일본인 거류민들을 버리고 도망쳤다</span>”고 회상했다. <br/> <br/>  회한에 젖은 작가는 “두번째는 일본 정부로부터 버려졌다.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 8월 14일 (제국) 외교부는 재외기구에 (해외) 일본인 거류민을 가능한 현지에 묶어두라는 방침을 하달했다. 일본 국내에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증언을 이어갔다. <br/> <br/>  나카니시가 기억하는 세 번째 ‘버려짐’은 일본 정부가 전후 재외 거류민 귀국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거류민들은 스스로 집단거주지를 만들어 피신해가며 돈을 모아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미국, 소련과 교섭했다. 나카니시가 일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1946년 늦여름이었다. <br/> <br/>  일본의 ‘국민 작가’로 추앙받아 온 그는 “개헌을 호소하는 정치인들은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 앞에 벌어졌던 것이 ‘기민(棄民·국민을 버림)’이다. 지옥 같은 체험을 하고 몇 번이나 목숨을 잃을 위험에 노출됐다. 소련군의 포격을 피했더니 기관총에 맞을 뻔 한 적도 있었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회상했다. 나카니시는 절박하던 그 당시 젊은 관동군 장교가 일본도를 쳐들고 동족인 일본인 거류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던 장면을 여전히 잊지 못했다. <br/> <br/>  현재 암 투병 중인 노(老) 작가는 “이상의 실현은 쉽지 않다”며 “<span class='quot1'>하지만 이상을 잊어버리면 끔찍한 현실밖에 없다</span>”고 인터뷰의 방점을 찍었다. <br/> <br/>◇ 나카니시 레이는 누구? <br/>나카니시 레이(なかにしれい)는 일본의 작사가 겸 소설 작가다. 본명은 나카니시 레이조(中西禮三). 1938년 9월 2일 만주국 무단장시에서 아버지 나카니시 세이타로(中西政太郞)와 어머니 요키(よき)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종전 후 일본에 돌아와 릿쿄 대학 문학부 불문과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프랑스 샹송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일을 주로 하다 작사가로 직업을 바꿨다. 그가 작사한 곡 중 3곡이 일본 레코드 대상을, 2곡이 작사상을 수상했다. 그 외 오페라 극본과 소설도 다수 집필했다. 2000년 발표한 그의 두 번째 작품 ‘나가사키 어슬렁어슬렁 타령(長崎ぶらぶら節)’으로 제122회 나오키상을 수상했다. <br/> <br/>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29.txt

제목: [저자와의 만남-최충희 사모] “말씀은 삶의 자양분 가족이라는 나무 뿌리 깊어졌습니다”  
날짜: 20170504  
기자: 강주화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04000355001  
ID: 01100201.20170504000355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우리는 모두 가족이라는 나무에서 나온 가지다. 누군가의 딸이고 아들이다. 나무가 하나님에게 뿌리내리고 있다면 가지는 하나님을 향해 자랄 것이다. ‘희망 온 에어’(홍성사)를 낸 최충희(62) 사모를 최근 서울 마포구 성지로 양화진책방에서 만났다. 최 사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자양분을 끌어 올려 살며 이웃을 위로해온 이야기를 책에 담았다. <br/> <br/>진지한 표정과 유쾌한 웃음이 다 잘 어울리는 그녀는 남편 서정곤(67) 목사와 함께 미국 세인트루이스한인장로교회에서 사역했다. 퇴임 후인 지난해 초 34년간의 타국 생활을 정리하고 남편의 고향 전남 여수로 돌아왔다. 책에는 신앙 가족 교회에 관한 글 30편이 실려 있다.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하트앤서울 라디오에 발표했던 원고다. <br/> <br/> 첫 글은 골육종(뼈암) 말기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야기. “암 말기 판정을 받고 떠날 준비를 했어요. 유서를 쓰고 옷장을 정리하고…. 이 땅의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제 안에 가장 소중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br/> <br/> 다행히 뼈암은 오진이었고 병은 악성 림프종으로 판명 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영혼의 병이 발병했다고 한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다 굳건한 제 믿음에 도취돼 스스로를 믿음의 용사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br/> <br/> ‘믿음 큰 자’라는 신앙적 교만을 발견한 뒤 최 사모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큰 죄악이 있겠습니까. 나의 의(義)가 나를 구원하고 있노라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것을 사죄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교만으로 변질된 것을 자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 드물 것이다. <br/> <br/> 이 믿음은 어느 나무에서 자란 것일까. “제가 열두 살 되는 해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는 재혼했습니다. 어머니는 이후 하나님을 만났고 제게 믿음의 본이 돼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기 전 새 어머니와 화해하셨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섭섭하게 한 것 있으면 용서해주기 바라네’라고 하시면서.” ‘어머니의 용서’ 편에 나오는 얘기다. <br/> <br/> 최 사모는 한때 미워했던 아버지와 새 어머니에게 전도를 했다. 그녀는 새 어머니에게서 ‘충희야 고맙다. 하나님을 아는 행복을 전해 주어서!’라고 편지를 받기도 했다. 사범대를 졸업한 최 사모는 1982년 남편을 따라 미국에 갔다. 남편은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신학교에 진학했다. 목사 안수를 받고 94년부터 목회를 했다. <br/> <br/> “봉제공장 같은 데 다니면서 유학 뒷바라지를 했죠. 남편이 목회자가 된 뒤엔 사모 역할을 했고요. 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도 있지만 희생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공부하는 동안 집에서 사람들을 모아 성경공부를 인도했고 사모가 된 뒤에는 교회에서 북클럽을 운영했어요.” <br/> <br/> 부부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세인트루이스한인장로교회 출석 교인은 50명 안팎에 불과했으나 마칠 때는 600명이 넘는 이 도시 최대 한인교회로 성장했다.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최 사모는 외동딸 은아(38)씨에게 무엇을 물려주었을까. <br/> <br/>“부모도 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미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악인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지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의 나무와 같다고 하잖아요. 자녀가 하나님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땅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최선입니다. 부모는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br/> <br/> ‘딸의 편지’ 편에 나오는 교훈이기도 하다. 은아씨는 아버지가 공부했던 신학교에서 상담학을 공부한 뒤 두 아이를 키우며 이 분야에서 활동한다. 최 사모는 얼마 전 미국에 있는 딸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엄마 아빠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최 사모는 잘 모르겠다고 답한 모양이다. <br/> <br/> 그녀의 책을 읽는 이들은 이 답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대지에 뿌리 내리려 애쓰는 사람에게서 믿음의 가지가 뻗어 나가는 걸 보여 주니까. <br/> <br/>글=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사진=강민석 선임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530.txt

제목: 암과 투병하며 사역 중인 유수영 목사 부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삶에 시한부 없습니다”  
날짜: 201705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03000455001  
ID: 01100201.20170503000455001  
카테고리: 문화>종교  
본문: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정문을 지나 우측의 나지막한 언덕을 오르면 루스채플이 나온다. 지난달 27일 이곳 로비에서 만난 유수영 목사와 백소현 사모 부부는 인사를 나누자마자 결혼식을 이곳 루스채플에서 올렸다며 감회에 젖었다. <br/> <br/>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노숙인과 사창가 여성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유 목사는 현재 간암 말기로 투병하고 있다. 암은 폐로도 전이됐다. 장기간 투병으로 지친 가운데 건강했던 젊은 시절을 돌아보며 추억에 잠기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br/> <br/>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유 목사는 현대건설에 입사해 전 세계를 누비다 41세였던 1989년에 신학교에 입학했다. 51세가 돼서야 목사안수를 받고 2001년 용산역 앞 사창가 한 가운데에 민족사랑교회를 개척했다. 2007년엔 서울역 옆 서계동, 지금의 자리로 교회를 옮겨 소외된 이웃을 위한 공동체를 꾸려오고 있다. 유 목사는 2013년부터 중국 북부 네이멍구 자치구의 사막지대에서 나무심기 운동도 펼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황사가 무척 심했던 해에 기도하며 중국 사막에 나무를 심겠다고 다짐한 게 계기였다. <br/> <br/> 가쁜 숨을 내쉬던 유 목사는 오는 10일 100여명의 봉사자들이 나무를 심기 위해 중국에 가는데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병색이 완연했지만 신체의 고통보다는 벌여놓은 일 걱정이 더 컸다. <br/> <br/>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잘되고 있다”며 짧게 답하고는 “이미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span class='quot0'>주치의가 당장 쉬지 않으면 올해를 넘기지 못한다고 했는데…</span>”라면서도 유 목사의 관심은 온통 사역에만 쏠려 있다. “생과 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병은 이미 얻었고 저는 제게 맡겨진 소임을 끝까지 다하려고 합니다.” <br/> <br/> 그는 투병 중에도 교회 이전을 준비 중이다. “후암동에 쪽방촌이 있어요. 용산역 사창가에서 밀려난 사람들도 여기 살고 있죠. 1200명쯤 됩니다. 자꾸 이분들 생각이 나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려고요. 사실 일이 많이 진행됐어요.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조정하고 있으니까. 가진 게 없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죠. 제 건강은 문제가 안 됩니다.” <br/> <br/> 그의 눈빛에선 말기암 환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한마디만 당부하고 싶다고 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소외된 이웃과 열방을 위해 교회 예산의 절반을 집행하면 됩니다. 많이 가지면 더 갖고 싶고 결국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죠.” <br/> <br/>글·사진=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31.txt

제목: [지역경제 이끄는 강소기업] “中 현지 생산공장… 한국제품과 똑같이 만들어요”  
날짜: 20170503  
기자: 인천=정창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03192055001  
ID: 01100201.20170503192055001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2007년 인천남동공단에서 창업한 작은 네일 전문기업이 2013년 법인 전환 후 고도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트리샤가 주인공이다. 황인자(62·여) 대표이사는 2007년 3월 ㈜트리샤를 개인기업으로 설립했다. 첫해 매출은 2억5000만원에 불과했으나 불과 5년 후인 2012년 매출액은 100억원을 돌파했다. 이 회사의 사업영역은 네일 에나멜, 네일 케어, 네일 리무버 등 네일 메이크업 제품 생산이다. 프탈레이트,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성분이나 발암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네일 전문회사로도 유명하다. 불황으로 인해 내수 매출이 대폭 줄었음에도 중국 현지공장의 성장에 힘입어 연 매출액을 75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br/> <br/>㈜트리샤의 중국공장은 산둥성 웨이하이시 인근에 자리잡고 있다. 중국공장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중국법인의 물량 100%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허가가 나온 뒤 지난달부터 본격가동에 들어갔다. <br/> <br/> 중국에서 외국인 기업으로서 네일 사업을 하는 것은 ㈜트리샤가 처음이다.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중국에서 네일 제품 생산허가를 갖고 있어 유리한 점이 많다. 세계 3위의 화장품 시장인 중국시장은 한국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br/> <br/> ㈜트리샤 전재형 전무(경영총괄 및 연구소장)는 “<span class='quot0'>파트너사에서 한국 제품과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요청해 원료를 전량 한국에서 가공해 중국법인으로 수출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한국에 오지 않고도 한국과 동일한 품질의 매니큐어를 중국 현지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span>”이라고 설명했다. 변화가 빠르고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은 한국에서의 경험이 중국시장에서도 통하면서 개발능력이 있는 업체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br/> <br/> 친환경 네일 베이스 제조능력을 갖춘 ㈜트리샤는 국내 유명 화장품 브랜드에 네일 제품을 공급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일본 브랜드 제품을 남동공단 제2공장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다양한 컬러를 만들 뿐만 아니라 네일 베이스까지 직접 생산한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얻은 성과다. <br/> <br/> 일본 다이소에서는 ㈜트리샤의 제품을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조하고 있다. 일본제품 ‘피카소’는 1000만개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산이기 때문에 수출실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본 시장에 ㈜트리샤에서 생산된 제품이 전달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br/> <br/> 현재 추진 중인 제2공장 신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매출은 150억∼200억원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품 시장에서 네일 산업은 연평균 7.85%의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br/> <br/> ㈜트리샤의 제품은 네일살롱에서 일부 연예인들이 애용할 정도로 고급화되어 있는데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도 속속 내놓고 있다. 물로 만든 수성 매니큐어 시대를 개척하고 있는 것도 ㈜트리샤고, 뜨거운 물이나 비누에 버티면서도 광택을 유지하는 제품도 이 업체가 내놨다. 화장품 대표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의 동반성장 중소기업 15개 기업 중 한 곳이 바로 ㈜트리샤다. <br/> <br/> 이 업체는 신규영업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서도 매출신장을 이루어내고 있다. 입소문을 듣고 이직해오는 직원들이 거래처를 연결하는 등 기술력을 갖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트리샤는 색깔을 선점한 회사라는 명성을 얻은 결과 대기업을 포함 30여 곳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있으며 수성 신제품이나 어린이 제품 시장까지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조만간 미국과 인도 시장으로의 수출도 예정하고 있다. <br/> <br/> 현재 ㈜트리샤는 월 200만∼300만개의 매니큐어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공장이 확장되고 한국공장이 신축되면서 향후 네일산업 선진국인 프랑스나 미국과도 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글로벌 업체로 성장하고 있다. 내년이면 신축공장 물량까지 합해 월 500만개의 매니큐어를 생산하는 양산체계를 갖추게 된다. <br/> <br/> ㈜트리샤는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른 네일 업체들이 일반 컬러 제품에 주력할 때 반짝이 컬러에 집중하는 식이다. 네일 원재료에 대한 노하우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원재료 기준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더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br/> <br/> 이 업체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가발업체에서 암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매니큐어를 지원하는 등 업체가 성장하는 만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br/> <br/>황인자 대표 “<span class='quot1'>독창적인 자체컬러 개발… 세계시장 선점</span>” <br/> <br/>“<span class='quot2'>중국 웨이하이시 인근 3만3000㎡(1만평) 규모의 매니큐어 공장에서 한국에서 생산한 것과 똑같은 제품이 생산돼 중국 전역에 한국브랜드를 달고 유통되고 있습니다.</span>” <br/> <br/> 황인자 ㈜트리샤 대표이사는 기술력과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다. 2012년 이후 ‘트리샤’라는 브랜드를 표시하지 못하게 되면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품 개발에 소홀한 것은 아니다. 황 대표는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1'>우리의 유일한 경쟁사는 ‘미래의 트리샤’라는 생각을 갖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승부하고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 <br/> 그가 매니큐어 사업가가 된 것은 남편과의 인연에서 비롯된 것이다. 1979년 국내 최초로 대기업에서 매니큐어 기술도입 담당으로 일하던 남편 전대환(2009년 8월 작고)씨와 사내결혼을 했고 이후 매니큐어 색조에 대한 고민은 그의 일이 됐다. <br/> <br/> 황 대표는 공장에서 승용차로 1분 거리인 기업 부설 연구소를 사랑한다. 남편의 땀과 흔적이 배어있는 곳일뿐더러 트리샤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한 원동력을 이끌어낸 곳이기 때문이다. 연구소 내부에 있는 트리샤 갤러리에는 매니큐어 색깔을 보기 위해 외국인 바이어들과 화장품 대기업 관계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황 대표는 “<span class='quot1'>자체적인 컬러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 <br/> 황 대표는 “<span class='quot1'>네일 전문기업으로 선두를 유지하는 비결은 한국산 원료를 고수하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중국 공장에서도 똑같은 원료로 한국산과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현지 반응이 폭발적</span>”이라고 덧붙였다. <br/> <br/> 개인사업체로 시작한 ㈜트리샤는 지난 2013년 법인으로 전환했는데 가족들이 주요 업무를 맡아 끈끈한 팀웍을 자랑하고 있다. 큰 아들 전재형(38)씨가 전무이사로 가업을 잇고 있고 둘째 아들 재광(36)씨도 영업 및 마케팅 담당으로 사세확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br/> <br/> 황 대표는 “<span class='quot1'>수인선 호구포역 역세권에 연면적 1500평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span>”고 귀띔했다. 이곳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젖히겠다는 각오다. 황 대표는 여성기업인으로 3년째 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인천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br/> <br/>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532.txt

제목: [And 건강] 위암 덕에 ‘조기발견’ 살아난 남자… 췌장암을 이긴 사람들  
날짜: 20170502  
기자: 글·사진=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02200455001  
ID: 01100201.201705022004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췌장암인데,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 다들 놀랍니다. 단골 병원 의사 선생님조차 주변에서 췌장암 생존자를 본 적이 없다며 신기해해요."<br/> <br/> <br/><br/> 경기도 부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김문구(60)씨는 30대에 패러글라이딩에 심취할 정도로 운동을 좋아했고 건강에 자신 있었다. 그러던 그가 2004년 아직은 젊은 나이에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하게 됐을 때만 해도 이 고비만 넘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2008년 위암 추적 검진을 위해 촬영한 복부CT 영상에서 췌장암이 새로 발견됐다. 위암과는 별개로 생긴 암이었다. 다행히 수술하면 진행 경과가 좋은 췌장 부위에 암이 생겼고, 주변 림프절과 장기에 전이가 안 된 2기에 해당됐다. <br/> <br/> <br/><br/> 김씨는 1일 "처음 췌장암이란 얘기를 듣고 '이젠 죽었구나' 생각했다. 아내가 많이 울었다"고 했다. 그래도 담당의사인 국립암센터 박상재 전문의는 "<span class='quot0'>초기라서 수술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span>"며 안심시켰다.<br/> <br/> <br/><br/> "위암 걸린 게 천만다행입니다. CT 안 찍어봤으면 아마 췌장암이 있는 줄도 몰랐거나 늦게 발견했을 거고, 그땐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일이죠." <br/> <br/> <br/><br/> 김씨는 의사의 말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는 국립암센터에서 곧바로 암 제거 수술을 받았고 이후 6개월간 고통스러운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견뎌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2013년 완치 판정을 받아 10년째 암 재발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br/> <br/> <br/><br/> 매년 한 번씩 꼬박꼬박 정기검진을 받고 결과를 들으러 올 때마다 1년간의 성적표를 받는 기분으로 떨리고 긴장된다고 말한다. 지난달 19일 1년 만에 국립암센터를 찾은 김씨는 "<span class='quot1'>MRI(자기공명영상) 영상에서 '깨끗하다'는 소리를 들었다</span>"며 만족해했다. <br/> <br/> <br/><br/> 김씨는 암 수술 후 사무실에 헬스기구를 갖다 놓고 하루 2시간씩 운동하는 걸 빼먹지 않는다. 우상명 국립암센터 췌장암클리닉 전문의는 "<span class='quot2'>췌장암은 대부분 치료가 어려운 단계에서 발견되는데, 김씨의 경우 운 좋게 일찍 암을 발견했고 수술 경과도 좋아 생존기간 연장에 도움됐다</span>"고 설명했다. <br/> <br/> <br/><br/> 췌장암을 유명하게 만든 스티브 잡스가 자신과 같은 또래라고 말하는 김씨는 "<span class='quot3'>'췌장암=죽는 병'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 우울하고 침체될 수밖에 없다</span>"면서 "<span class='quot3'>나 같은 사례가 더 많이 알려져 췌장암뿐 아니라 다른 많은 암 환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을 주면 좋겠다</span>"고 했다.<br/> <br/> <br/><br/> 임유례(64·여·경기도 성남)씨도 2009년 초 췌장암 선고를 받아 췌장 일부를 잘라냈지만 9년간 암을 잘 이겨냈다. 임씨는 어느 날 즐기던 회를 먹고 배가 아프고 설사 증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가 뜬금없는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br/> <br/> <br/><br/> 임씨 또한 "주변에 췌장암으로 죽는 걸 여럿 봤다. 참 힘든 암이란 걸 알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살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천인 임씨는 거의 매일 전도를 하며 만보 이상 걷기를 실천하고 짜고 매운 음식 안 먹기, 검은콩 등 항암식품 섭취를 생활화하고 있다. <br/> <br/> <br/><br/> 임씨 주치의인 서울아산병원 간담도췌외과 김송철 교수는 "<span class='quot4'>임씨도 수술이 가능한 단계인 2기에 암을 발견했고 수술 이후 주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이어가는 것이 암 극복의 비결</span>"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4'>하지만 췌장암은 5년 후에도 다른 암에 비해 재발이 잦기 때문에 10년 이상 평생 체크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br/> <br/> <br/><br/> 5년 생존율 10%, 고약한 암? <br/> <br/> <br/><br/> 췌장암은 암 완치 판정 기준인 '5년 상대 생존율'이 가장 낮은 '고약한 암'이다. 국가암등록통계가 시작된 1993년 이후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쭉 10% 밑을 맴돌다가 최근에야 10.1%(2010∼2014년)를 기록했다. 췌장암에 걸려 5년까지 사는 사람이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얘기다.<br/> <br/> <br/><br/> 서울대병원 외과 장진영 교수는 "<span class='quot5'>췌장암 생존율이 20년째 10% 근처를 맴도는 것은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려운 데다 환자의 70% 이상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인 수술을 하지 못하는 단계(전이 혹은 인근 조직·장기 침범이 심한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 <br/><br/> 췌장은 뱃속 깊숙한 곳에 위치해 기능이 많이 떨어지더라도 좀처럼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때문에 초기에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암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나마 췌장암을 의심할 만한 황달이나 체중 감소, 극심한 복통 등 증상이 있을 땐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됐다고 보면 된다.<br/> <br/> <br/><br/> 췌장은 특히 중요 혈관들과 맞닿아 있어 암이 빨리 퍼지고 조금만 진행돼도 수술이 힘들다.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20% 정도에 불과하다. 수술해도 생존 기간은 평균 18∼20개월로 짧다. 수술이나 항암치료 후 2년 안에 60∼70%에서 재발한다. <br/> <br/> <br/><br/> 장 교수는 "<span class='quot5'>암 진행 단계인 병기(病期)로 따지면 1, 2기는 수술이 가능하고 3, 4기는 수술 대상이 아니다</span>"면서 "<span class='quot5'>수술이 불가능한 단계에선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해도 완치를 기대하기 힘들고 통증 개선 등 증상 완화 치료에 중점을 둔다</span>"고 했다. 1기 췌장암의 경우 수술 후 약 50%, 2기는 20∼30%에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br/> <br/> <br/><br/> 다시 말해 췌장암은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지만 걸렸더라도 가급적 초기인 1, 2기에 발견해 수술받고 이후 꾸준한 검진과 암 극복 노력이 뒤따라야 김씨나 임씨처럼 오래 생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췌장암 진단 후 5년 이상 생존자는 2017년 1월 기준으로 1913명이다. 이 중 654명은 10년 넘게 살고 있다. <br/> <br/> <br/><br/> 소화불량 복통 있으면 CT 검사로 체크<br/> <br/> <br/><br/> 췌장암은 국내 전체 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4년 기준 2.9%(8위)로 크게 높진 않다. 하지만 국가암검진 덕분으로 대장암 위암 간암 등이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는 데 비해 췌장암은 폐암 등과 함께 오히려 늘고 있다. 2014년 신규 췌장암 환자는 전년보다 403명 늘었다. 노령인구와 흡연, 음주, 서구화된 식생활 증가 등이 새로운 췌장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분석된다.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복부CT나 초음파검사가 많이 이뤄져 발견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br/> <br/> <br/><br/> 흡연은 췌장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췌장암의 3분의 1이 오랜 흡연에 의한 것이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췌장암 위험이 약 2배 높다. 국립암센터 우상명 전문의는 "<span class='quot2'>담배를 끊었을 경우 10년 이상 지나야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만큼 낮아진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span>"고 소개했다. <br/> <br/> <br/><br/> 만성췌장염을 앓고 있을 경우 췌장암 발생 위험은 약 15배 높아진다. 만성췌장염은 췌장에 염증이 생겨 딱딱하게 굳어지는 병으로, 지나친 음주가 가장 큰 원인이다. 1주일에 3회 이상 술을 마실 경우 췌장암 위험이 최대 1.3배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 장진영 교수는 "<span class='quot5'>과도한 음주는 그 자체로 암의 위험 요인이면서 췌장암으로 이어지는 만성췌장염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span>"고 말했다. 당뇨 환자는 2∼10배 높은 췌장암 위험을 안고 있다.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없는데 중년 이후 당뇨병을 갑자기 진단받았다면 췌장암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 검진에서 췌장에 '점액성 낭종(물혹)'이 발견된 경우도 차후 췌장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br/> <br/> <br/><br/> 췌장암의 약 10%는 유전적 원인으로 발생한다. 우상명 전문의는 "<span class='quot2'>직계가족 가운데 50세 이전에 췌장암에 걸린 사람이 하나 이상 있거나 발병 나이와 상관없이 췌장암 환자가 2명 이상 있다면 '가족성 췌장암'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 <br/><br/> 췌장암은 갑자기 체중이 줄고 구역질 같은 애매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 복통이 생기지만 심하지 않은 경우 배의 불편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br/> <br/> <br/><br/> 서울아산병원 김송철 교수는 "<span class='quot6'>이런 통증은 등 쪽으로 퍼지는 방사통 형태를 띠는 특성이 있는 만큼 유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span>"고 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span class='quot4'>평소 소화불량이나 복부의 불쾌감, 복통 등 막연한 위장 증상이 있을 경우 췌장암이 있지 않을까 한 번쯤 의심하고 복부 초음파내시경이나 CT, MRI 검사 등으로 췌장의 이상 유무를 꼭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span>"고 조언했다.<br/> <br/> <br/><br/>글·사진=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533.txt

제목: 난소암 70% 수술 어려운 3기에 발견…"40대 이상 폐경 여성 1년에 한번 초음파 검사"  
날짜: 20170502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02211944001  
ID: 01100201.201705022119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오는 8일은 ‘세계 난소암의 날’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난소암 환자는 1만6172명으로 자궁경부암 환자(5만4603명)에 이어 부인암 중 두번째로 흔한 암이다. 5년 생존율은 80.3%에 달하는 자궁경부암과 달리 난소암의 5년생존율은 61.9%로 훨씬 낮다. <br/> <br/>난소암의 5년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조기 발견이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난소는 골반 안쪽에 위치해 있어, 위내시경이나 자궁경부암 검사처럼 장기를 들여다보고 바로 조직을 채취할 수 있는 검진 방법이 아직 없다. <br/>난소암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만큼, 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대부분 암세포가 난소를 넘어 다른 곳으로 퍼지는 3~4기에 나타난다. 실제 국내 난소암 환자의 70% 이상은 종양이 다른 기관으로 퍼지는 3기 이후에 진단되고 있다. 이 시기에 발견될 경우 5년 생존율은 30%도 채 되지 않는다. <br/> <br/>더불어 난소암의 주요 증상이 복통∙복부팽만∙소화불량∙질 출혈 등 비특이적인 징후인데, 난소암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40~50대(53%)들은 이를 단순한 소화기 불편감이나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로 여겨 암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많다. <br/> <br/>김윤환 이화여대여성암병원 재발성부인암센터장은 “<span class='quot0'>난소암은 특별한 증상 없이 찾아오고 증상이 있더라도 다른 소화기계 이상으로 오인해 조기 발견이 쉽지 않아 다른 여성암에 비해 생존율이 낮다</span>”며 “<span class='quot0'>암이 난소에만 있는 1·2기에는 70~90%에 가까운 완치율을 보이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가족력이나 유방암 발병 경험이 있는 고위험군, 40대 이상의 폐경 후 여성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span>”고 전했다. <br/> <br/>대다수의 난소암 환자에 해당하는 3기 이상의 환자들은 치료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임신 계획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흔히 수술을 통해 종양을 최대한 제거한 후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로 남은 종양을 제거한다. <br/> <br/>난소암은 다른 암보다 항암제 효과가 좋은 편에 속하지만, 문제는 치료를 시행해도 전이가 잘되는 암이라 2년 이내에 재발하는 경우가 약 80%로 매우 높다. 따라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검진을 비롯한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34.txt

제목: ‘두번째 암’ 전이·재발암 막는 길 열렸다  
날짜: 20170502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02094255001  
ID: 01100201.2017050209425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두번째 암’으로 불리는 전이·재발암은 처음 발생한 암보다 치료가 어렵다. <br/> <br/> 원자력의학원 엄홍덕(사진) 박사팀이 암세포 안에 존재하는 p53과 p21단백질의 결합체가 이런 암 전이와 재발을 막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p53 단백질은 암의 재발과 전이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 p53 단백질이 홀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세포 성장을 조절하는 p21 단백질과 ‘짝’을 이뤄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실험으로 규명해냈다. <br/> <br/> 폐암과 대장암을 앓는 쥐를 통해 p53, p21 단백질 결합체가 암의 전이 및 재발 촉진 인자(Bcl-w, Bcl-XL, Bcl-2 등)의 활동을 억제함을 관찰한 것이다. 이는 p53 단백질과 p21 단백질이 서로 붙지 못하면 암 전이와 재발이 촉진됨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폐암 대장암 신경아세포종 환자들에게서 p53, p21 단백질 결합체가 암세포 안에 없으면 전이와 재발이 잘 일어나는 등 예후가 좋지 않음을 확인했다. <br/> <br/> 엄 박사는 “<span class='quot0'>암 전이와 재발 예측은 물론 새로운 항암치료 기술 개발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35.txt

제목: [헬스 파일] 이른 아침 흡연과 두경부암  
날짜: 201705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02000056001  
ID: 01100201.2017050200005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흡연과 음주는 구강암, 후두암 등 두경부(頭頸部)암을 일으키는 주원인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더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다. <br/> <br/> 정말 그럴까. 기상 직후 30분 이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1시간 이후 흡연하는 사람보다 두경부암 발생위험이 59%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의대 연구팀이 2011년, 미국암협회(ACS)가 발행하는 학술지 ‘캔서’에 보고한 것이다. <br/> <br/> 조사결과 잠에서 깨어나 바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30분 이상 지난 후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 체내에 니코틴 수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 직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 담배 연기를 다량으로 깊이 흡입하게 되고, 그만큼 일반 흡연자들에 비해 혈중니코틴과 여타 독소들을 더 많이 흡입할 가능성도 커진다. <br/> <br/> 따라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담배부터 찾는 애연가들은 두경부암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평소 입속 건강에 신경을 쓰며 구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 <br/> <br/> 두경부암은 조기에 진단되면 80∼90%가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암이다. 그러나 이미 상당히 진행되거나 다른 부위로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되면 완치가 어렵다. 이렇듯 진행 단계에서 뒤늦게 암을 발견하는 두경부암 환자가 66%나 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두경부암의 약 90%는 음주와 흡연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아침 흡연은 두경부암을 일으키는 고위험인자다. 평소 술·담배를 즐기며, 특히 이른 아침 흡연을 즐기는 애연가는 후두암 등 두경부암의 조기발견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비인후과를 방문, 후두내시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br/> <br/> 후두내시경검사는 후두경을 목이나 코 안쪽으로 넣어 후두를 면밀히 관찰하는 진단의술이다. 위·대장 내시경처럼 마취를 하거나 사전에 약물을 복용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만일 검사 중 혹이 보이면 즉시 조직을 채취, 암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br/> <br/> 두경부암이 생기면 갑자기 목소리가 쉬는 등 목소리 변화가 나타나고, 입안에 염증이나 혓바늘이 돋아난다. 이밖에도 한쪽 코가 지속적으로 막혀 있거나, 피가 섞인 콧물이 동반될 때, 연하곤란(삼킴 장애), 목 통증 중 1가지 이상 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될 때는 두경부암을 의심해 봐야 한다. <br/> <br/> 최근에는 잦은 흡연과 음주 행위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가 두경부암과 관련이 깊다는 연구 결과도 잇따라 나와 주목된다. 두경부암 환자 10명 중 6∼7명의 목에서 HPV가 검출되고 있어서다. 이는 두경부암 예방을 위해 HPV백신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br/> <br/>이세영 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그래픽=전진이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536.txt

제목: 장병 16쌍의 ‘특별한 합동결혼식’  
날짜: 20170501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01213955001  
ID: 01100201.20170501213955001  
카테고리: 정치>정치일반  
본문: 육군 장병 16쌍의 합동결혼식이 29일 장준규 참모총장 주관으로 충남 계룡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열렸다. <br/> <br/> 합동결혼식은 결혼을 계획한 예비부부나 개인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를 위해 육군이 마련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육군은 2월 초부터 합동결혼식 공모를 진행해 신청한 예비·동거부부 120여쌍 중 16쌍을 선정했다. <br/> <br/> 이번 결혼식은 소박하고 검소한 혼례문화를 적용한 작은 결혼식 개념으로 진행됐다. <br/> <br/> 육군은 결혼식부터 피로연, 청첩장, 예식촬영 및 웨딩사진 CD 앨범 제작 등 전 비용과 3박4일 제주도 신혼여행 경비도 지원했다. KT&G, LG유플러스, 롯데하이마트 등 기업들이 결혼식 경비와 혼수 가전제품 등을 후원했다. <br/> <br/> 김남규(41) 상사는 암을 극복한 아내의 손을 잡고 늦깎이 결혼식을 올렸다. <br/> <br/>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진 아버지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그동안 모은 결혼자금을 모두 써야 했던 천동식(26) 중사도 꿈을 이뤘다. <br/> <br/> 장 총장은 주례사에서 “<span class='quot0'>행복한 군인이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부부가 서로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해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기 바란다</span>”고 당부했다. <br/> <br/>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37.txt

제목: [안기종의 환자 샤우팅] 환자 피해없이 불법 리베이트 근절할 수 없을까  
날짜: 201705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01203455001  
ID: 01100201.201705012034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7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총 42개 품목 중에서 33개 품목에 대해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9개 품목에 대해서는 6개월간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했다. <br/> <br/> 만성골수성백혈병, 위장관기질종양(GIST) 등 8개 질환 약 6000명의 암환자들이 복용하고 있는 표적항암제 글리벡의 경우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전문가와 환자단체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되었다. 6000명의 암환자들이 한 달에 130∼260만원의 비급여 약값을 지불하고 글리벡을 계속 복용하거나 아니면 스프라이셀, 타시그나, 슈팩트 등 대체 신약이나 제형이 다른 글리벡 복제약으로 바꾸어 복용하는 대규모 파국만은 피하게 되어 다행이다. <br/> <br/> 이번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 관련하여 글리벡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정지 여부가 논란이 된 것은 암환자가 원해서가 아니라 글리벡 치료로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16년째 암세포를 없애고 부작용 관리를 잘 하면서 장기 생존하고 있는 6000명 암환자들에게 강제로 글리벡을 다른 대체 신약이나 복제약으로 바꾸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br/> <br/> 이들 암환자들은 한국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복용해 온 글리벡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을 하면 이는 글리벡을 복용하는 6천명의 암환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아울러 환자의 생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약물에 대해서는 오리지널이건 복제약이건 가능하면 중간에 다른 회사에서 나온 약으로 바꾸지 않고 한 회사에서 나온 약을 지속적으로 쓰는 것은 환자 치료의 가장 기본이다. <br/> <br/> 문제는 42개 품목 중에서 실제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을 받은 품목은 9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은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 되었고, 그 과징금의 규모도 해당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총 551억원에 불과하다. 대규모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두 번 씩 <br/> <br/>나 적발된 범죄행위치고는 과징금 액수가 너무 적다. <br/> <br/> 2014년 7월2일 국회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행정재제 수단인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도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를 신설해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로 두 번째 적발되면 해당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정지시키고, 세 번째 적발되면 건강보험에서 아예 영구 퇴출시켜 버리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법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정지 및 제외 처분은 필연적으로 불법행위자가 아닌 해당 약제로 치료받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는 해당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 정지 및 제외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다. <br/> <br/>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징수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2항에서 정한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돼있으나 이를 제99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개정하면 해당 제약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수준의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br/> <br/>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은 2014년 폐지된 보건복지부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 규정된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제도’를 국민건강보험법에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리베이트에 연동되어 있는 약제의 상한가를 대폭 인하하는 조치로써 이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큰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건강보험 재정도 절약하고, 환자들도 약가가 인하된 만큼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br/> <br/>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대로 국회에서 해당 약제로 치료받는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으면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엄중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br/> <br/>안기종 (한국환자단체 연합회대표)

언론사: 국민일보-3-538.txt

제목: [이제는 정신건강이다] WHO 권고 비슷하게 정신건강 연구비 투자를  
날짜: 201705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01203355002  
ID: 01100201.20170501203355002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최근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DP) 대비 연구 개발(R&D) 투자비율이 2014년 기준 4.29%로 2013년, 2014년 2년 연속 세계 1위라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발표가 있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세계 1위라고 보도했다. 연구개발비 총액 면에서는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지만 정부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높게 잡았다는 증거니 자랑할 만한 일이다. <br/> <br/>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경쟁심화로 국민 상당수가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결과에 의하면 평생 한번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이 18세 이상 전체국민의 27.6%로, 성인 10명 중 3명은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1년 보건복지부). <br/> <br/>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WB)은 2016년 ‘란셋 정신의학지’(Lancet Psychiatry)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울, 불안장애가 매년 1조 달러(1120조원)의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했다. 금년 2월 세계보건기구는 “<span class='quot0'>2015년은 전 세계 인구의 4%에 해당하는 3억2200만 명이 우울증을 앓았다</span>”고 발표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span class='quot1'>세계적으로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이 수억 명에 달하는데 정신보건 치료는 매우 미흡한 실정</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노동력과 생산력 상실은 세계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므로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할 때</span>”라고 말한 바 있다. <br/> <br/> 지난해 우리나라는 우울증 환자가 60만 명을 넘어 고혈압 다음으로 환자수가 많다고 한다.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한 사람의 3분의 1은 우울증을 앓았으며 OECD국가 중 12년째 자살률이 가장 높다. 우울증과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011년 10조3826억 원으로 조사되었고 2012년 ‘국가중독예방관리정책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발연구’에 따르면 4대 중독(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으로 인해 109조5000억원의 손실이 생긴다는 보고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강남역 살인사건’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다. <br/> <br/>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신건강 R&D기반구축 및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2014년 6월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을 출범, 2019년 6월까지 기한 사업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부 방침은 이제까지 질병의 원인, 생리 같은 연구와는 달리 현장 적용이 가능한 연구를 위한 획기적인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많은 연구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2019년 이후 후속 R&D사업을 기획할 때다. <br/> <br/> 선진국에서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이 투자 효과성이 좋다는 많은 보고가 있다. 미국에서는 정신건강연구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감염질환, 심혈관질환, 암 연구보다 많이 높다는 보고가 있고 우리나라처럼 자살률이 높았던 핀란드도 국가적 차원에서 300억원을 투자해 심리부검을 시행 한 결과 인구 10만 명당 30.3명(1980년대)에서 2012년에는 17.3명으로 감소했다. <br/> <br/> 앞서 밝혔듯이 우리나라는 GDP 대비 연구개발비가 세계 1위로 앞서가는 나라다. 그렇다면,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는 어떤가? 세계적인 참고 지표로 삼는 것 중 하나가 전체 보건의료 R&D투자 대비 정신건강 관련 연구의 지원 규모다. 우리는 2.6%로 고소득 국가 평균 5.1%의 절반 정도이고 WHO 투자 권고 비율인 5∼15%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br/> <br/> 꼭 이런 지표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의 역동성 때문에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정신건강 연구개발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br/> <br/>김철응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언론사: 국민일보-3-539.txt

제목: 넘치는 오해와 편견… 에이즈 바로알면 두렵지 않다  
날짜: 20170501  
기자: 송병기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01203155001  
ID: 01100201.201705012031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HIV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증식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한에이즈학회 도움말로 에이즈에 대한 오해에 대해 알아본다. <br/> <br/> ◇에이즈와 HIV 감염은 같다?=흔히 HIV 감염과 에이즈를 혼동하는데, 모든 HIV 감염인이 에이즈 환자는 아니다. HIV 감염인은 HIV에 감염된 모든 사람을 말하며, 그 중 질병이 진행돼 면역체계가 손상 또는 저하됐거나 감염증, 암 등의 질병이 나타나는 사람을 에이즈 환자라고 한다. <br/> <br/> ◇HIV에 감염되면 빠른 시간 내에 사망한다?=에이즈는 죽음에 이르는 불치병이 아니다. HIV 감염인은 급성 증상기, 무증상 잠복기를 거쳐 에이즈 시기로 이행돼,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아도 면역결핍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10∼12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된다. 하지만, HIV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되고 표준 HIV 치료법으로 세 가지 종류의 약을 동시에 사용하는 칵테일요법이 정착되면서, 에이즈는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의 개념으로 변화됐다. 여전히 완치는 어렵지만 꾸준한 약물 복용을 통해 에이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br/> <br/> ◇감염인과 성관계를 가지면 무조건 HIV에 감염된다?=1회 성관계로 HIV에 감염될 확률은 평균 0.1∼1% 정도에 불과하다. 적은 확률이지만 단 한번의 성관계로도 감염은 될 수 있어, 콘돔 사용을 습관화하고 모르는 사람과 콘돔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거나 성관계 파트너가 여러명이거나 상대방에게 여러명의 파트너가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HIV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br/> <br/> ◇감염인과 일상생활을 공유하면 감염된다?=HIV 감염경로는 정액, 질 분비액, 혈액으로 명확하다. 때문에 HIV 감염인과 함께 음식을 먹거나 손을 잡거나 같이 운동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공유한다고 해서 HIV에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 신체접촉으로 교환될 수 있는 체액에는 극히 소량의 바이러스가 있어 상대방의 몸 안에 들어간다 해도 HIV 감염을 일으킬 수 없다. 다만, 혈액이 묻기 쉬운 칫솔, 면도기, 손톱깎이 등은 감염인과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감염인을 문 모기에게 물리면 HIV에 감염된다는 오해도 있는데, HIV는 인간의 체내에서만 생존하고 증식하므로 감염인을 문 모기나 벌레 등을 통해서는 HIV에 감염되지 않는다. <br/> <br/> ◇HIV는 치료나 예방이 불가능하다?=현재 HIV 감염인들이 복용하는 치료제는 완치제는 아니지만 HIV의 증식을 억제해 질병 진행을 지연시킨다. 2013년 출시된 스트리빌드를 시작으로 최근 출시된 젠보야까지 복약 편의성과 부작용 문제까지 개선한 치료제가 개발됐다. 현재는 1일 1회 1정만 꾸준히 복용해도 HIV 치료가 가능해졌다. 또 HIV는 콘돔 사용이나 포경수술, 노출 후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경구용 예방약을 통한 노출전 예방요법(PrEP) 등으로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노출전 예방 요법은 고위험군에 상당한 예방 효과가 있음이 입증돼 세계보건기구(WHO)가 HIV 감염 고위험군이 PrEP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한에이즈학회도 지난해 남성 동성애자와 에이즈 환자 배우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PeEP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송병기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540.txt

제목: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 남편 세상 떠난 후 우울 증세… 복음으로 두려움 사라져  
날짜: 201705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01202655001  
ID: 01100201.20170501202655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우리 형제들은 다 눈이 부리부리하게 잘 생겼는데 나만 유독 눈이 작고 몸은 뚱뚱했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고 어느 것 하나 잘하는 것 없는 내 모습에 성격이 점점 소심해져 갔다. <br/> <br/> 그러다 오빠의 선배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유머도 있고 모든 면에서 적극적인 게 너무 좋아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했다. 남편은 나를 아기 다루듯 잘해줬고, 집에서 그런 정을 받아 보지 못했기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점점 변해갔다. <br/> <br/> 남편은 성격에 맞지 않는다며 자주 직장을 옮겼고 답답한 마음을 술로 풀더니 나중에는 화투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나는 동네 밭에 나가 일을 하고 공사판에도 나가 일했다. 이혼도 결심해 봤지만, 아이들이 눈에 밟혀 차마 하지 못했다. <br/> <br/> 그러다 남편의 얼굴에 종기가 생겨 병원에 갔더니 피부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수술해도 얼마 살지 못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은 남편은 집에 가자고 했고, 집에 돌아와 몇 개월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때 나는 병원비와 장례비 등으로 염려를 많이 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고 있던 큰아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br/> <br/> 나는 아들의 그 말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죽고 난 후 그동안 있던 빚과 살림을 꾸려 가기 위해 식당에서 일을 했다. 그리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와 누워 있으면 힘들게 했던 남편이 생각나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남편을 미워하고 욕도 했다. 그렇게 밤새 뒤척이다 날이 샜고 마음이 자꾸 우울해졌다. 그러다 너무 피곤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간경화였다. <br/> <br/> 간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이식을 받기 위해선 6∼7년씩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집에 돌아와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지내던 중 큰아들이 다니던 교회 지체들이 찾아와 복음을 전해 주며 같이 교회 가자고 했다. <br/> <br/>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믿었다고 하시며, 사람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셨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동안 예수님이 큰아들을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는데, 나는 바쁘다고 핑계 대며 예수님을 내 마음 문 밖에 세워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나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믿을만한 증거를 보여 주셨음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다. 그게 죄였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으로 믿게 됐다. <br/> <br/> 그 후 놀랍게도 우울증과 불면증이 떠나갔다.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생긴다는 검버섯과 모래 뿌려 놓은 것처럼 거칠거칠했던 피부가 뽀얘지고 부드러워졌다. 하나님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던 나를 살려 주시고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체육대회도 하고 단풍구경도 다녀오게 하셨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예쁜 며느리도 얻게 해 주셨다. <br/> <br/> 얼마 전 다시 간암 판정을 받았다. 예전 같았다면 낙심하고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런데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하니 두렵거나 염려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아들과 함께 전도를 했다. 지금도 암을 가지고 있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기쁘게 산다. 나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기쁘게 살기를 소망한다.

언론사: 국민일보-3-541.txt

제목: 동성제약 60년… 든든한 국민건강파트너  
날짜: 20170501  
기자: 조민규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01195955001  
ID: 01100201.20170501195955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올해로 창립 60년을 맞이한 동성제약은 1957년 창립 이후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품질혁신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기술적 성과를 이뤄 왔다. 특히 진보된 의약기술과 대한민국 최고의 염모제 기술, 신개념 기능성 화장품 분야 등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다각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신설비의 대규모 공장과 연구소 설립을 통해 신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차별화된 기술과 국제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는 제2의 도약을 위해 ‘Health From Nature’를 기업 슬로건으로 정하고, 염모제, 화장품, 완제의약품에 이르기까지 다음세대를 위한 인류의 생활과 국민 건강 향상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하며 또 한번 비상해 나갈 계획이다. <br/> <br/> ◇국민생활 건강파트너로 성장한 60년=동성제약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의 염모제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염모제 분야에 있어서 강점을 보여 왔다. 끓이지 않는 염색약 양귀비를 시작으로 컬러염모제의 시초인 훼미닌과 새치염색의 셀프염색 대중화를 이끈 세븐에이트까지 다양한 제품개발로 대한민국 염모제 시장을 주도해왔다. 최근에는 새치염색과 멋내기 염색이 동시에 가능한 멋내기새치 컬러를 다양하게 출시하면서 또 한번의 셀프염색 트랜드를 제안하고 있다. <br/> <br/> 염모제 외에도 ‘배탈설사엔 정로환’이라는 카피로 유명한 국민상비약 정로환 등 생활 속에서 친숙한 제품을 통해 친근하고 신뢰감 있는 제약기업으로 성장해왔다. 제약회사 특유의 꼼꼼함을 바탕으로 제품 개발 및 품질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선보여왔으며, 최근에는 생활용품부문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국민생활건강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생활용품은 동성제약이 새롭게 주목하는 사업분야로 생활전반에 필요한 제품을 통해 국민생활 저변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목표로 올해 황사마스크와 건강마스크가 각각 출시됐으며, 상반기 순면 100%커버의 여성위생용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br/> <br/> ◇동성제약의 100년을 이끌어갈 미래 핵심 전략사업=광역학치료(PDT, Photodynamic Therapy)는 빛을 이용해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법으로 광과민성 물질을 정맥주사한 후 암세포에 축적되면 내시경을 이용해 암세포에 적색광을 조사하며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시키는 치료법이다. 즉 절개 없이 암을 제거하는 혁신기술로 유럽에서는 피부암, 두경부암, 자궁경부암 등에 사용되고 있다. 동성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은 2세대 광과민제 ‘포토론’을 췌장암·담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박도현 교수의 주도 아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발병 후 생존율이 극히 낮은 췌장암과 담도암에 적용해 결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대구첨복단지 내 신약개발연구소를 완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성제약은 제2연구소 완공과 함께 내시경을 사용하지 않고 초음파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음향역학치료(SDT, Sono Dynamic Therapy)의 연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제2연구소에서는 광역학 치료법 등을 활용한 항암치료제 연구개발을 주력으로 연구 개발할 예정이다. <br/> <br/> ◇동성제약이 추구하는 헬스케어=‘Health from Nature’(헬스 프롬네이처). 의약품, 화장품 등의 소재를 자연에서 직접 가져온다는 것이 동성제약의 큰 방향이다. 예를 들어 실크프로테인을 함유한 화장품의 경우 직접 농장에서 누에를 키워 추출한 원료를 가공해 사용한다. 농촌진흥청의 연구결과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실크프로테인이 피부보습막을 형성, 경피수분손실을 효과적으로 막아 보습력을 향상시키고 피부노화방지 및 재생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독(벌침액)을 활용해 여드름전용 화장품을 개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br/> <br/> ◇기업이윤 사회환원… 20년간 이어온 염색봉사=동성제약의 염색봉사는 1998년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다. 처음에는 뜻이 맞는 몇 명의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봉사를 하다가, 6년 전부터는 봉사단을 결성해 조직적으로 복지관이나 단체를 찾아가 봉사를 하고 있다. 봉사팀은 서울 본사에 4개팀과 공장이 있는 아산에 2개팀이 운영 중이다. 봉사팀의 실력이 입소문을 타면서 여러 곳에서 봉사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가능하다면 봉사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 봉사를 하겠다는 것이 염색봉사단의 의지다. 또 동성제약의 대표 염모제 브랜드인 세븐에이트를 의미하는 7월 8일을 ‘세븐에이트데이’(Seven-Eight Day)로 지정하고 매년 염색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7번의 세븐에이트데이 행사를 진행해왔으며, 지난해에는 고양시 일산동구청과 도봉구청에서 ‘정성 어린 염색봉사 다시 찾은 이팔청춘! 염색봉사는 사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400여명의 어르신에게 염색봉사를 통한 청춘을 선물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해 6월에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제1회 행복나눔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br/> <br/>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노력… 송음 건강마라톤대회=동성제약은 지난 4월29일 성균관대학교 도봉선수촌에서 ‘송음건강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마라톤 대회는 성균관대 도봉선수촌에서 출발해 돌아오는 코스로 하프, 10㎞, 5㎞ 러닝코스와 5㎞ 가족걷기 코스로 구성됐다. 우수 선수에게는 상금을, 완주자에게는 완주메달과 완주기록증이 수여됐다. <br/> <br/> 동성제약 이양구 대표는 “<span class='quot0'>창립 60주년을 맞아 창업주인 송음 이선규 명예회장의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정신을 계승하고자 송음건강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span>”며 “<span class='quot0'>다양한 연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코스들로 온 가족의 건강 증진은 물론 가족간의 사랑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span>”고 강조했다. 동성제약은 건강한 러닝문화를 전파하고, 국민 건강에 앞장서는 마라톤대회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br/> <br/> 기업이 60년 동안 존속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많은 소비자들이 잊지 않고 제품을 찾아줬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성제약의 60년을 이끌고 온 원동력은 제품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개발이다. 이에 동성제약은 앞으로도 광역학치료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염모제 및 일반의약품의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삶 속 곳곳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약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r/> <br/>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3-542.txt

제목: 4대중증 건강보험 보장률 증가세  
날짜: 20170501  
기자: 박예슬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501195155001  
ID: 01100201.201705011951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5년 기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4대 중증질환 치료로 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오면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뜻이다. <br/> <br/>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건강보험 보장률 파악을 목적으로 2004년 이후 매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비 내역을 조사해 분석하는 것이다. 2015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모집단의 약 2.1%에 해당하는 1825개 요양기관을 표본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요양기관에서 2015년도 6월 및 12월에 발생된 진료건 총 1025만4709건(입원 32만3055건, 외래 930만6315건, 약국 62만5339건)을 분석했다. 외래의 경우 2015년 6월 및 12월에 표본 요양기관에서 발생된 모든 진료건이 해당된다. 입원은 입원 시작 일과는 상관없이 2016년 6월 및 12월에 발생된 퇴원건이 해당된다. <br/> <br/> 분석에 따르면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해 상승세에 이어 0.2%포인트 상승한 63.4%였다. 건강보험 혜택에 적용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부담률은 16.5%로 전년(17.1%) 대비 0.6%p 감소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9.9%로 크게 상승해 80%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77.7% 보다 2.2%p 상승한 수치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암 76%, 뇌혈관질환 77.1%, 심장질환 81.2%, 희귀난치성질환 86.1%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부담률은 11.5%로 전년(14.7%) 대비 3.2%p 대폭 감소했다. 질환별로는 암 15.2%, 뇌혈관질환 15.2%, 심장질환 12.6%, 희귀난치성질환 4.8%로 조사돼, 다른 질환보다도 희귀성난치성질환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br/> <br/> 또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자의 비급여 세부항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선택진료비가 30.1%로 가장 높았으며, 병실차액 14.8%, 치료재료대 10.3%, 처치 및 수술료 8.4% 등이 뒤를 이었다. 고액의료비 발생으로 개인 및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올랐으며, 상위 50위 내 질환의 경우 1.0%p 증가했다. 고액진료비 상위 질환은 2015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298상병을 기준으로 1인당 진료비(공단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가 높은 질환을 순서대로 정렬해 상위 30위(50위)내에 포함되는 질환의 보장률을 산출한 것이다. <br/> <br/>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보장률이 61.8%로 집계돼 전년보다 1.3%p 올랐다.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61.3%로 전년보다 0.5%p 증가했다. 다만 선별급여 등 본인부담률(본인부담 50∼80%)이 높은 항목의 보장성 확대로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해 전체 보장률의 상승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건보공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0'>4대 중증질환 보장 효과가 상승한 요인으로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병실차액,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개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또한 고액진료비 질환이 중증질환으로 확대가 큰 영향도 있었고, 2014년도 성과가 누적되면서 보장률이 상승한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3-543.txt

제목: “에라! 도둑놈 XX들”… 홍준표가 하루에 쏟아낸 ‘막말성 발언’ 7건  
날짜: 20170430  
기자: 김철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30131444001  
ID: 01100201.20170430131444001  
카테고리: 정치>선거  
본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진영이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막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불량 후보’라고 비난했다. 문 후보 진영은 홍 후보가 하루 동안 쏟아낸 ‘막말’을 7가지 유형으로 분석했다. <br/> <br/>민주당은 30일 문재인 대선캠프 공보단장인 박광온 의원 명의의 논평을 내고 “국민 얼굴에 먹칠하는, 나라를 망칠 ‘불량후보’에 대해 얘기하겠다. 홍 후보는 더 이상 국민의 귀를 피곤하게 만들지 말길 바란다”며 “국민을 폄하하는 홍 후보는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br/> <br/>이어 “전날에도 홍 후보의 유세장에서 대선후보의 말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독설과 욕설이 쏟아졌다. 국회의원 93명이 소속된 정당의 대선후보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는 홍 후보의 저질 막말에 국민의 귀는 점점 더 피곤해지고, 대선은 수준 낮은 선거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br/> <br/>민주당은 논평에서 홍 후보가 부산·울산·경남을 집중 공략한 지난 29일 하루 동안 쏟아낸 발언들을 수집해 7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소개했다. 논평을 낸 박 의원은 “<span class='quot0'>내가 차마 읽을 수 없어 자료로 배포한다</span>”고 설명했다. 항목의 유형과 발언 내용은 민주당이 작성했다. 설명은 민주당이 논평에 담지 않은 내용에 대한 보충이다. <br/> <br/>1. 욕설비하 <br/>“집 앞에서 물러나라고 데모하지 않나. 에라! 이 도둑놈의 XX들이 말이야.” <br/>-설명: 경남 김해 수로왕릉 앞 유세에서 경남지사 시절 자신에게 비판적이던 도민들을 비난하며 <br/> <br/>2. 협박공갈 <br/>“전교조가 대한민국 어린 학생들을 종북좌파 교육시킨다. 대통령이 되면 전교조 용서하지 않겠다.” <br/>-설명: 수로왕릉 앞 유세에서 일부 노조를 ‘귀족·강성·종북’으로 규정하고 이들 단체에 대한 해체를 공약하며 <br/> <br/>3. 색깔론(지역주의) <br/>“1번하고 3번은 자세히 보면 정당이 하나다. 말하자면 호남 1, 2중대다. 1번은 종북좌파다.” <br/>-설명: 수로왕릉 앞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비난하며 <br/> <br/>4. 적반하장 <br/>“<span class='quot1'>좌파정부가 들어오면 코리아 패싱을 하겠다는 것.</span>” <br/>-설명: 경남 김해공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압박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할 대선후보가 자신 뿐이라며 <br/> <br/>5. 공갈협박 <br/>“<span class='quot1'>집권하면 경남지사 때 했던 방식대로 이 회사는 반드시 응징하겠다.</span>” <br/>-설명: 페이스북에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지지율 1, 2위로 집계한 여론조사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 업체들을 비난하며 <br/> <br/>6. 국민폄하(촛불민심 왜곡) <br/>“툭하면 촛불민심을 운운하며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있지만. 촛불민심이라는 것은 광우병 때처럼 전교조, 민주노총 등 좌파단체가 주동이 돼 선동한 민중혁명이 아니냐.” <br/>-설명: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을 이끈 촛불집회를 비난하며 <br/> <br/>7. 안하무인 <br/>“저는 제 성질대로 산다. 성질 참으면 암에 걸린다. 내 성질대로 살고 안 되면 집에 가면 된다.” <br/>-설명: 수로왕릉 앞 유세에서 “에라! 이 도둑놈의 XX들이 말이야”라고 말한 뒤 <br/> <br/>민주당은 “홍 후보와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 당장 저질 ‘막말 퍼레이드’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부정부패 기득권세력과 결탁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일으켜 국가 위기를 초래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도 없이 막말과 거짓말로 국민에게 상처만 주는 홍 후보의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 본격적으로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br/> <br/>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44.txt

제목: 내 ‘드라마’는 해피엔딩이다… 시각장애인 가수 오하라  
날짜: 20170429  
기자: 오산=글·사진 유영대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29000055001  
ID: 01100201.20170429000055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무대 위에서 늘 밝은 미소로 노래하는 가수 오하라(47)씨. 아름다운 얼굴이지만 그녀는 시각장애인 가수다. 눈앞의 사물조차 구분해내지 못한다. <br/> <br/> 서른다섯 살 때까지 오씨는 평범한 주부였다. 남편과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재앙이 찾아왔다. 조금씩 시야가 흐려져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가 ‘망막색소변성증’이라고 했다. 급속히 망막이 파괴돼 시력을 잃는 난치병이었다.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도리가 없다는 판정도 받았다. <br/> <br/> 불행이 닥치면서 그녀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쫓겨나다시피 이혼해야 했다. 피붙이가 보고 싶어도 제대로 만날 수 없었고, 만나도 앞이 보이질 않으니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다. <br/> <br/> 죽고 싶다는 생각이 여러 번 오씨의 머리를 지배했다. 세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마지막 순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하지 못했다. 매일 가슴속으로 울면서 되돌아본 삶은 그녀를 교회로 이끌었다. 스스로를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성경공부를 하면서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 그리고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br/> <br/> “그때 ‘아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언제나 낮은 자와 함께하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br/> <br/> 시각장애인 안마사 교육도 받고, 중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행 교육도 열심히 받았다. 어느 날 점자교육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도와드릴까요?” <br/> <br/> 뒤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방향을 잃은 그녀에게 한 남성이 길을 알려주고 이끌어줬다. 바로 지금의 남편 이태웅(46)씨다. <br/> <br/> 사업 실패로 방황하던 이씨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햇빛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오씨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첫눈에 반한 것이다. 그렇게 남자는 여자를 매일 길에서 기다렸다. 시각장애에 이혼녀란 꼬리표는 이씨에게 전혀 문제될 게 없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청혼했다. <br/> <br/> 오씨는 단칼에 거절했다. “<span class='quot0'>이건 드라마도 영화도 아니에요.</span>” 그래도 이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부모로부터 결혼 허락까지 받아왔다. 이씨의 구애는 바위 같던 오씨를 움직였고, 2014년 결혼에 골인했다. <br/> <br/> 결혼은 두 사람에게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이씨는 사회적기업 ㈜더불어샵에서 근무하며 가수인 아내 오씨의 매니저도 맡고 있다. 아내가 무대에 오르면 메이크업과 의상도 담당한다. 오씨는 KBS 전국노래자랑 ‘오산시 편’에서 대상을 받았고, 그녀를 눈여겨봤던 작곡가의 도움으로 가수로 데뷔했다. 2015년 11월 ‘당나귀’(당신은 나의 귀한사랑) 등 12곡을 담은 앨범도 냈다. 오씨의 이름 ‘오하라’는 ‘감사하라’ ‘사랑하라’ ‘행복하라’ ‘겸손하라’ ‘노력하라’ 등 다섯 가지 뜻을 담아 지은 예명이다. 오씨는 가수생활로 번 돈 대부분을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노숙인 무료급식센터, 말기암환자센터, 유기동물 후원센터 등에 보내고 있다. <br/> <br/> 27일 경기도 오산의 한 음식점에서 부부를 만났다. 이씨가 아내의 입에 쌈밥을 넣어주면서 말했다. “<span class='quot0'>이렇게 아름다운 눈을 가진 여자와 결혼하는 게 꿈이었는데 수지맞은 셈</span>”이라며 빙그레 웃었다. 그러자 오씨가 “자기야 정반대잖아. 나는 눈이 안 보이는데”라고 했다. 오씨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지자 남편 이씨가 닦아줬다. “당신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아마 세상에서 가장 맑은 눈 아닐까 싶어. 가장 아름다운 눈 아닐까 싶어.” <br/> <br/> 오씨는 “눈이 보일 때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며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불우이웃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 안 보여도 세상을 더 많이 본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말하며 웃음을 되찾았다. <br/> <br/>오산=글·사진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45.txt

제목: 내 ‘드라마’는 해피엔딩이다… 시각장애인 가수 오하라  
날짜: 20170428  
기자: 오산=글. 사진 유영대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28083644001  
ID: 01100201.20170428083644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무대 위에서 늘 밝은 미소로 노래하는 가수 오하라(47)씨. 아름다운 얼굴이지만 그녀는 시각장애인 가수다. 눈앞의 사물조차 구분해내지 못한다. <br/> <br/> <br/> <br/>서른다섯 살 때까지 오씨는 평범한 주부였다. 남편과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재앙이 찾아왔다. 조금씩 시야가 흐려져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가 ‘망막색소 변성증’이라고 했다. 급속히 망막이 파괴돼 시력을 잃는 난치병이었다.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도리가 없다는 판정도 받았다. <br/> <br/>불행이 닥치면서 그녀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쫓겨나다시피 이혼해야 했다. 피붙이가 보고 싶어도 제대로 만날 수 없었고, 만나도 앞이 보이질 않으니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다. <br/> <br/>죽고 싶다는 생각이 여러 번 오씨의 머리를 지배했다. 세 번이나 자살시도를 했지만, 마지막 순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하지 못했다. 매일 가슴 속으로 울면서 되돌아본 삶은 그녀를 교회로 이끌었다. 자기 스스로를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성경공부를 하면서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 그리고 또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br/> <br/>“그때 ‘아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언제나 낮은 자와 함께하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br/> <br/>맹인 안마사 교육도 받고, 중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행 교육도 열심히 받았다. 어느 날 점자교육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도와 드릴까요?” <br/> <br/> <br/> <br/>뒤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방향을 잃은 그녀에게 한 남자가 길을 알려주고 이끌어줬다. 바로 지금의 남편 이태웅(46)씨다. <br/> <br/>사업실패로 방황하던 이씨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햇빛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오씨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첫눈에 반한 것이다. 그렇게 남자는 여자를 매일 길에서 기다렸다. 시각장애의 이혼녀란 꼬리표는 이씨에게 전혀 문제될 게 없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청혼했다. <br/> <br/>오씨는 단칼에 거절했다. “<span class='quot0'>이건 드라마도 영화도 아니에요.</span>” 그래도 이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부모로부터 결혼 허락까지 받아왔다. 이씨의 구애는 바위같던 오씨를 움직였고, 2014년 결혼에 골인했다. <br/> <br/>결혼은 두 사람에게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이씨는 사회적 기업 ㈜더불어샵에서 근무하며 가수인 아내 오씨의 매니저도 맡고 있다. 아내가 무대에 오르면 메이크업과 의상도 담당한다. 오씨는 KBS 전국노래자랑 ‘오산시 편’에서 대상을 받았고, 그녀를 눈여겨봤던 작곡가의 도움으로 가수로 데뷔했다. 2015년 11월 ‘당나귀(당신은 나의 귀한사랑)’ 등 12곡을 담은 앨범도 냈다. 오씨의 이름 ‘오하라’는 ‘감사하라’ ‘사랑하라’ ‘행복하라’ ‘겸손하라’ ‘노력하라’ 등 다섯 가지 뜻을 담아 지은 예명이다. 오씨는 가수생활로 번 돈 대부분을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노숙인 무료급식센터, 말기암환자센터, 유기동물 후원센터 등에 보내고 있다. <br/> <br/>지난 27일 경기도 오산의 한 음식점에서 부부를 만났다. 이씨가 아내의 입에 쌈밥을 넣어주면서 말했다. “<span class='quot0'>이렇게 아름다운 눈을 가진 여자와 결혼하는 게 꿈이었는데 수지 맞은 셈</span>”이라며 빙그레 웃었다. 그러자 오씨가 “자기야 정반대잖아. 나는 눈이 안 보이는데”라고 했다. 오씨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지자 남편 이씨가 닦아줬다. <br/> <br/>“당신 얼굴 한 번도 본적이 없지만, 아마 세상에서 가장 맑은 눈 아닐까 싶어. 가장 아름다운 눈 아닐까 싶어.” <br/> <br/>오씨가 “눈이 보일 때는 나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며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불우이웃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 안보여도 세상을 더 많이 본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이내 웃음을 되찾았다. <br/> <br/>오산=글. 사진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46.txt

제목: 세브란스병원 ‘중입자 암치료기’ 국내 첫 도입  
날짜: 20170428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28201855001  
ID: 01100201.20170428201855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이 현존하는 최고의 암 치료기기인 ‘중입자 치료기’를 국내 처음으로 들여온다. 2021년쯤부터 5년 생존율 30% 이하의 3대 호발 난치암(췌장 폐 간암) 환자 등 치료에 본격 활용될 전망이다. <br/> <br/> 연세의료원은 지난 26일 ㈜한국히타치와 중입자 치료기 도입에 관한 사업추진협약서(LOI)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br/> <br/> 중입자 치료기는 탄소 이온의 중입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암 덩어리에 정확하게 조사(照射), 암세포의 DNA 자체를 파괴하고 암 조직도 사멸시킨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47.txt

제목: 메드트로닉, ‘2017 글로벌챔피언스’마라톤 참가자 모집  
날짜: 20170427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27163044001  
ID: 01100201.20170427163044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메드트로닉이 전세계 의료기기 이식환자가 참여하는 마라톤 대회인 ‘2017 글로벌 챔피언스(Global Champions)’에 참가할 한국인 이식환자들을 찾고 있다.  <br/> <br/>메드트로닉의 글로벌 챔피언스는 의료기술 및 솔루션의 혜택으로 건강한 삶을 되찾고, 활발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환자들을 독려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br/> <br/>메드트로닉은 비영리 단체 ‘트윈 시티즈 인 모션(Twin Cities In Motion)’과 손잡고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신청자 중 최종 20명을 선발, ‘2017 글로벌 챔피언스’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br/> <br/>선정된 참가자와 마라톤 파트너들은 메드트로닉 트윈 시티 마라톤(풀코스 42.195㎞) 또는 메드트로닉 10마일 마라톤(약 16㎞)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br/> <br/>이들은 대회에 필요한 비용, 항공 및 숙박 서비스 일체를 메드트로닉으로부터 지원받게 되며, VIP 이벤트에도 초대될 예정이다. <br/> <br/>의료기기 제조사와 상관없이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병, 암, 만성통증, 척추 또는 신경질환, 비만, 소화기질환, 비뇨기질환등의 치료를 위해 의료기기를 몸속에 이식했거나 시술을 받은 환자라면 누구나 이대회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회 참가를 위해서는 여행 및 마라톤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먼저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br/> <br/>메드트로닉 트윈 시티 마라톤 대회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개최된다. 참가 지원자는 5월 12일까지 메드트로닉 홈페이지(medtronic.com/globalchampions)에서 신청하면 된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48.txt

제목: 뚱뚱하고 술 많이 마시는 여성, 대장암 씨앗 '선종' 위험 높다  
날짜: 20170427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27155944001  
ID: 01100201.20170427155944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비만이거나 음주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대장암의 씨앗인 '선종'의 발생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선종은 대장 점막에 생기는 혹으로 종양성 용종(폴립)을 말한다.  <br/> <br/> 기존에도 체질량 지수(BMI)와 음주는 대장 선종의 위험요인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 여성에서 그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br/> <br/>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양선영, 김영선 교수팀은 건강검진을 위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1700여명에게 식품 빈도 설문지(FFQ)를 작성하게 해 대장선종이 발견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일반적 특성과 식생활을 비교 분석했다.  <br/>  그 결과 여성 대상자 중 선종이 발견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비만 비율은 약 2배 가량, 알코올 섭취량은 약 1.6배 가량 높았다고 27일 밝혔다. <br/> <br/> 대장 선종은 시간이 지나면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불리며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선종의 발생 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고령(50세 이상), 남성, 동물성지방의 과도한 섭취, 섬유질 섭취 부족, 칼슘이나 비타민 D의 부족, 굽거나 튀기는 조리방법, 운동부족, 유전적 요인 등이 꼽힌다. <br/> <br/> 이번 연구에서도 대장 선종 환자 집단이 발견되지 않은 집단보다 고령이었고 고지혈증과 당뇨의 빈도가 높았다. 여성의 경우 선종 환자 집단의 비만 비율은 22.5%였고 하루 평균 알코올 섭취량은 7.6g(맥주 약 210cc)인 반면 선종이 발견되지 않은 집단의 비만(BMI 25초과) 비율은 11.8%, 하루 평균 알코올 섭취량은 4.8g(맥주 약 130cc)으로 두 그룹 간 차이를 보였다. <br/> <br/> 대장 선종과 식생활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여성의 경우 콩 두부 등의 식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많을수록 대장선종의 위험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br/> <br/> 양선영 교수는 "한국인의 대장 선종 발생에는 식이섭취 위험요인 보다는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음주 등 위험 요인의 기여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대장암 위험 요인으로 흔히 알려진 붉은 육류의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 외에도 몸무게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고 금주와 금연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메디신' 최신호에 실렸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49.txt

제목: 담뱃갑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 발견한 황당한 사연  
날짜: 20170427  
기자: 박효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27110244001  
ID: 01100201.20170427110244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span class='quot0'>담뱃갑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을 발견했어요.</span>” <br/> <br/>혈액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이 가족의 허락도 없이 ‘담뱃갑 폐암경고‘ 사진으로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br/> <br/>지난 24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엠버 리프 타바코’ 담배회사가 “<span class='quot1'>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span>”고 주장하는 조디 찰스(44)의 사연을 소개했다. <br/> <br/>조디 찰스는 얼마 전 자신의 집에 놀러온 친구의 담뱃갑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 <br/> <br/>담뱃갑에는 '흡연은 뇌졸중과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힌 문구 밑에는 인공호흡기를 끼고 침상에 누워 있는 아버지의 사진이 버젓이 인쇄돼 있었다. <br/> <br/>조디는 “사진 속 남성이 아버지라는 것을 110% 확신한다. 내가 지난 20년 동안 아버지 머리카락을 잘라드렸다. 이마 라인까지 기억하고 있다”면서 “사진을 본 어머니도 동의했다. 심지어 딸도 담뱃갑을 보고 '할아버지다'라고 말했을 정도다”고 말했다. <br/> <br/>조디의 아버지 데이비드 로스는 림프종으로 투병하다 2015년 6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br/> <br/> <br/> <br/> <br/>조디는 “<span class='quot2'>아버지가 담배를 피우기는 했지만 폐암으로 돌아가시지 않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2'>사진은 마치 담배가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것처럼 오해하게 한다</span>”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담배 제조사가 병원 측을 통해 사진을 무단으로 받았거나, 병원 관계자가 가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을 넘긴 것 같다“고 주장했다. <br/> <br/>그는 “담뱃갑에 경고 사진을 싣도록 규제한 유럽위원회(EU Commission)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br/> <br/>유럽연합(EU)은 2016년 5월부터 담뱃갑에 특정 브랜드의 디자인을 모두 없애고 제품 이름만 사용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공간 65%는 혐오스러운 경고 사진으로 뒤덮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제안을 시행해 오고 있다. <br/> <br/>이와 관련해 병원 대변인은 “<span class='quot3'>사진을 찍는 부서는 두 곳인데 자선행사와 의료 목적의 사진만 찍고 있으며 다른 곳에는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span>”고 반박했다. <br/> <br/>또 유럽위원회 관계자도 “<span class='quot4'>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본 결과 데이비드가 아니다</span>”면서 “<span class='quot4'>그와 유사한 외모로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사진 속 남성에게 동의를 구했다</span>”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디 측이 사진 속 남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자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공개를 거절했다. <br/> <br/>이에 조디는 “<span class='quot2'>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을 담뱃갑에서 본다는 건 가족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일</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2'>사진 속 남성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강경대응 하겠다</span>”고 밝혔다. <br/> <br/>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50.txt

제목: 세브란스병원, 꿈의 암치료기 ‘중입자 가속기’ 도입한다  
날짜: 20170427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27104144001  
ID: 01100201.20170427104144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세브란스병원에 꿈의 암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 가속 치료기’가 새로 설치된다. <br/> <br/>연세의료원은 26일 오후5시, 윤도흠 의료원장과 타케우치 케이지(Takeuchi Keiji) ㈜ 한국히타치 대표이 중입자 치료기 도입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br/>사진). <br/> <br/>협약식에는 노성훈 연세암병원장, 한상원 기획조정실장, 윤영설 미래전략실장 등 연세의료원 관계자와 ㈜히타치제작소 헬스케어사업 부문의 와타나베 마사야 사장, 나카무라 후미토 지사장(Chief Executive), 이타미 히로유키 사업부장, 후치가미 시게키 부장 등이 참석했다. <br/> <br/>윤도흠 의료원장은 이날, “<span class='quot0'>반세기 동안 가장 앞선 암치료법을 선도해 온 세브란스가 꿈의 암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 가속 치료기를 국내 최초로 도입, 난치암 정복에 다시 나서게 돼 기쁘다</span>”고 소감을 밝혔다. <br/> <br/>와타나베 마사야 대표도 그간 축적된 입자선 치료기의 개발, 운영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중입자 치료기가 한국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r/> <br/>세브란스병원에 새로 설치되는 히타치사의 중입자 치료기는 3개의 치료실로 구획돼 설치된다. 투입 예산은 기기 도입과 제반 비용을 포함 1600여억원에 이른다. <br/> <br/>이 장치는 오는 2020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게 된다. <br/> <br/> ◇중입자 치료기란?=현재 암 치료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사선치료는 X-선을 외부에서 쏘아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방식이다. 많은 기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주변 정상세포의 방사선 영향으로 치료 부작용과 오랜 치료기간으로 환자와 의료진의 부담이 컸다. <br/> <br/>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2000년대 초반 상용화되기 시작한 것이 ‘양성자치료기’다. 이는 수소원자의 양성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킨 후,환자 몸 속 암조직에 투사한다. 이때 양성자는 암조직에 도달하는 순간 방사선 에너지를 방출해 암조직을 파괴하는 치료원리를 갖고 있다.  <br/> <br/>이 양성자 치료기는 기존 X-선 방사선치료에 비해 방사선 노출량도 적고 정밀도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방사선 치료에 따른 환자 부작용을 대폭 경감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성자 치료기는 현재 국립암센터와 동남권원자력병원 등이 가동 중이다. <br/> <br/>세브란스병원이 새로 도입하기로 한 중입자 치료기 역시 탄소이온의 중입자를 빛에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킨 후, 환자의 암 속의 암조직에 투사하여 암조직에 닿는 순간 방사선 에너지를 방출해 암세포 DNA 자체를 파괴하고 암조직도 사멸시키는 치료효과를 거두는 원리다. <br/> <br/>방사선 량도 양성자 치료에 비해 적은 반면, 양성자에 비해 중입자의 질량이 12배 정도 무거운 특성이 있어 암세포 사멸율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장점을 근거로 국제 학술지 네이처(Nature)는 ‘암의 명사수’(Sharp Shooters)란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br/> <br/>중입자치료 대상은 전체 암 환자의 20%를 차지하는 3대 호발 난치암(5년 생존율 30% 이하)인 폐암, 간암, 췌장암은 물론, 치료가 어려웠던 재발성 직장암, 골육종, 척삭종 등 난치암 치료 그리고 고령의 암 환자들에 대한 비침습적 치료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r/> <br/>일본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NIRS)가 주요 의학학술지에 발표한 바에 따르며 수술이 가능한 췌장암 환자에게 수술전 중입자 치료를 시행한 결과 5년 생존율이 20%이하에서 53%까지 향상되었다. <br/> <br/>또 수술이 불가능한 췌장암 환자의 경우 항암제와 중입자치료를 병행할 경우 2년 생존율이 10% 미만에서 66%까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아울러 기존 방사선 및 양성자 치료횟수가 평균 30회에 이르고 있으나, 중입자치료는 그 절반이하인 12회이다. <br/> <br/> 치료기간도 보통 5~7주 치료하는 기존의 방사선치료에 비해 중입자치료의 경우 초기 폐암의 경우 1회, 간암 2회, 가장 치료 기간이 긴 전립선암이나 두경부암의 경우 3주 이내에 치료를 완료한다. <br/> <br/>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국내 암환자들은 수년 전부터 중입자 치료를 받기 위해 독일과 일본으로 원정을 가기도 했다. 그러나 치료비용이 8000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것이 큰 부담이었다. <br/> <br/>세브란스병원은 암 환자들의 이 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외원정 중입자 치료 비용의 절반 수준에서 수가를 책정,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51.txt

제목: 무병장수 꿈 이뤄지나… 노화세포 제거 기술 개발  
날짜: 20170427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27184455001  
ID: 01100201.2017042718445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인간의 무병장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과 약물이 개발됐다. 우리 몸에 쌓인 노화세포를 제거해 신체 조직의 재생능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br/> <br/> 울산과학기술원(UNIST) 화학과 김채규(사진) 교수는 국제 연구진과 공동으로 노화세포를 제거해 퇴행성관절염을 완화하는 기술과 후보 약물을 개발해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신 최신 온라인판에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br/> <br/>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는 모두 늙는데, 이 과정에서 세포도 함께 노화해 신체 조직과 장기 등에 쌓인다. 노화 세포가 축적되면 만성 염증반응이 생기는 환경을 만들고 주변 조직과 세포도 쉽게 손상시킨다. 결국 생체조직의 재생능력이 떨어져 암이나 치매 당뇨병 퇴행성관절염 같은 다양한 퇴행성(노인성) 질환이 유발된다. <br/> <br/>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에서 퇴행성관절염에 걸린 생쥐를 이용해 노화세포를 제거하면 생체 재생능력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span>”고 설명했다. 또 노화세포를 없앨 수 있는 후보 물질(UBX0101)을 찾아냈다. 연구진이 수술을 통해 생쥐에 퇴행성관절염을 발생시킨 뒤 후보 물질을 투여했더니 노화세포가 없어졌고 생쥐의 퇴행성관절염도 완화됐다. 민태원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552.txt

제목: 14알 먹으면 사망 '복어독 환' 불법 제조 암 환자에 판매  
날짜: 20170426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26104944001  
ID: 01100201.201704261049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인체에 치명적인 복어독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불법 제조해 암 환자 등에게 판매한 업자가 붙잡혔다. <br/> <br/>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어독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된 의약품 ‘복어환’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권모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br/> <br/> 테트로도톡신은 복어의 난소나 간장에 많이 들어있는 맹독성 신경물질로 성인은 0.5mg이 치사량이다. 독성이 청산나트륨의 1000배에 달한다. <br/> <br/> 조사결과 권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 카페 ‘복어독의 신비’를 개설해 해당 카페에 방문하는 암 환자 등에게 복어환이 모든 질병에 효과 있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약 100kg(250명분)을 제조해 2130만원 상당을 팔았다. <br/> <br/> 권씨가 제조한 복어환 1개(0.8g)를 검사한 결과 테트로도톡신 0.0351mg이 검출됐다. 복어환 14개(11g)를 한꺼번에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53.txt

제목: 전남 곡성, 자궁경부암 접종 전국 최고  
날짜: 20170426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26180355001  
ID: 01100201.20170426180355001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전남 곡성이 만 12세 여성 청소년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률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곡성 보건당국과 교육 현장의 긴밀한 협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br/> <br/> 질병관리본부는 곡성군의 2004년생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률이 86.3%로 전국 255개 보건소 평균(46.6%)을 훨씬 초과해 1위에 올랐다고 25일 밝혔다. <br/> <br/> 곡성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보건-교육당국이 접종 대상자 현황을 공유해 대상자의 재학 상황을 파악하고, 교육청이 학교별로 접종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등으로 접종을 안내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접종하지 않은 학생은 의료원 측이 학교에 알려 한번 더 접종을 지도하도록 협조요청하고 대상자와 학부모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적기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독려한 점이 주효했다.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본부장은 이날 곡성군청에서 현장 간담회를 갖고 “<span class='quot1'>예방접종을 통해 자궁경부암의 질병 부담을 줄이려면 지자체와 교육 현장의 협력이 필수</span>”라면서 “<span class='quot1'>곡성군의 성과가 좋은 롤 모델이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 곡성 외에 전남 신안(79.7%) 강원 양양(79.2%) 충북 단양(75.9%) 경북 군위(71.4%) 보건소 등이 예방접종률 상위에 올랐다. 반면 제주 동부(28.9%) 경북 영덕(29.9%) 경남 거창(30.2%) 전북 정읍(31.4%) 보건소 등은 하위권이었다. <br/> <br/>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자궁경부암은 다른 어린이 예방접종과 달리 만 12세에 1차 접종을 받은 뒤에도 예방접종의 암 예방 효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데다 이상 반응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퍼져 일부 보호자들이 접종을 주저하는 것 같다</span>”면서 “<span class='quot2'>올해는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로 대상자 접종률을 70%까지 올릴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민태원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554.txt

제목: [기획] 살인죄 기본형량 10∼16년… 성범죄보다 가볍나  
날짜: 20170425  
기자: 이경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25050255002  
ID: 01100201.20170425050255002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대검찰청이 홈페이지에서 살인범죄의 처벌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이는 목적은 현재 처벌수준이 적정한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을 파악해 검찰 사건처리기준의 설정에 참고하려는 것이다.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살인범죄의 선고형량이 낮다는 문제 제기는 검찰 안팎에서 계속돼 왔다. 5% 수준을 꾸준히 상회하는 살인범죄 재범률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뒷받침한다. <br/> <br/> 국민일보는 대검 공판송무부에 살인범죄 재범 현황, 해외와의 유사행위 처벌사례 비교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4일 이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살인범죄 재범자는 2006년 이후 최근 10년간 53∼80명으로 조사됐다. 재범률은 4.8∼7.0%로 드러났다. 대검이 집계한 살인 기·미수 범죄사범의 숫자가 1000명 안팎임을 고려하면 매년 50명가량이 살인 재범자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다. <br/> <br/> 이 같은 이들 가운데 다수는 이미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만기출소나 가석방으로 사회에 복귀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대검이 파악한 사례 중에는 2차례 살인을 저질렀지만 결국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다. A씨는 1985년 살인으로 징역 4년의 처벌을 받았는데, 이후 2012년 공사 현장 일당이 16만원인지 15만5000원인지를 두고 다투다 고용주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징역 12년형을 선고하며 “술에 취한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br/> <br/> 헌법이 보장하는 최상위 가치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사실을 살인범죄의 처리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대검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살인범죄 피고인 중 종신형을 선고받는 비중이 2010∼2015년 19.1∼26.0%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비중은 0.9∼3.5%였다. <br/> <br/> 유사 범행의 향후 처벌을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형이 위축돼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 시카고에서 56세 어머니가 뇌졸중을 앓는 28세 딸과 동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하다 결과적으로 딸만 숨진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 어머니는 자신이 2차례나 암 치료를 하느라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딸이 혼자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해 함께 약물을 과다복용했다. 이 어머니는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다. <br/> <br/> 우리나라에서는 78세 남편이 치매 증상을 앓는 73세 부인의 병간호를 하다 부인을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병간호에 지친 와중에 부인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었다. 이 남편에게는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br/> <br/> 법조계에서는 살인범죄가 양형기준에서 성범죄보다 낮게 설정된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가중적 형태의 특수강간치상의 경우 보통의 살인 행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주거침입 등 강간과 특수강간·치상의 가중영역 형량범위는 12∼16년이다. 이는 보통 동기 살인(10∼16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br/> <br/> 법원의 양형뿐 아니라 검찰의 구형에 있어서도 법정 최고형이나 무기징역의 제시는 점점 소극적으로 변해간다는 진단이 나온다. 살인범죄에 대한 엄단, 중대 살인범죄자에 대한 영구격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재범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대검의 대국민 설문조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시되고 있다. <br/> <br/>글=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555.txt

제목: 한국인 유방·난소암 유발 돌연변이 유전자 발견  
날짜: 201704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25000555001  
ID: 01100201.2017042500055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우리나라 유방암·난소암 환자에게 흔한 돌연변이 유전자가 발견됐다. <br/> <br/> 연세암병원은 암예방센터 박지수(사진) 교수와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승태 교수 연구팀이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위험을 높이는 새 돌연변이 유전자 ‘L1780P’를 발굴했다고 24일 밝혔다. L1780P변이는 유방암 예방 목적으로 멀쩡한 유방을 절제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가진 BRCA1, 2 유전자의 아형이다. <br/> <br/> 연구결과 L1780P변이를 보유하고 있으면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위험이 배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유방암 난소암 환자군의 발생률이 일반인 대비 41.2배에 달했다. <br/> <br/> 연구팀은 2008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연세암병원에서 유전일 가능성이 높은 유방암 또는 난소암 환자 745명과, 일반인 1314명의 유전자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br/> <br/> 연구 결과는 암 연구 학술지 ‘캔서 리서치 앤드 트리트먼트’ 온라인판 최근호에 게재됐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556.txt

제목: 경희의료원, 후마니타스암병원 개원 맞춰 임상연구 본격화  
날짜: 20170424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24095244001  
ID: 01100201.201704240952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경희의료원(의료원장 임영진)이 2018년 후마니타스암병원 개원을 앞두고 경희의과학연구원 중심의 임상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br/> <br/>경희의료원은 21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한 국내 최초의 ‘의대·치대·한방병원’ 3개 병원과 경희의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환자 개인별 정밀진단과 맞춤치료 연구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진). <br/> <br/>경희의료원은 특성화 중개연구의 구심점이자 난치성 질환 및 고난도 중증질환 환자 치료를 위해 2015년 약 35억을 투자하여 경희의과학연구원을 개원했다. 의료원은 앞으로 후마니타스 암병원 건립공사와 더불어 ‘정밀의학·정밀수술팀’ 중심의 임상연구와 선도적 암치료법 개발을 통한 산업화, 그리고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간 협력 강화 사업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br/> <br/> <br/>경희의과학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이끄는 대표적 사업 중 하나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단장 이태원 경희의과학연구원장)’로 경희대학교의 ‘5대 연계협력클러스터’ 중 하나이다. <br/> <br/>이태원 경희의과학연구원장은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사업에 대해 총 6개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 중점분야는 △정밀의학(책임교수 응용과학대학 김광표) △재생의학(책임교수 생명과학대학 손영숙) △암(책임교수 경희의료원 외과 이길연) △노인성질환(경희의료원 내분비내과 우정택) △의료기기와 천연물부문으로 구성된 생활건강(책임교수 공과대학 김윤혁·한의과대학 이재동·약학대학 이경태) △건강노화(책임교수 경희의료원 가정의학과 원장원)로 구성된다. <br/> <br/>바이오헬스 클러스터는 홍릉 지역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간호과학 등을 포괄하는 경희대의 의학계열 및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을 포함해 모든 역량이 집중될 예정. <br/> <br/>특히, 이태원 경희의과학연구원장은 사업단장으로 의·치·한 의료기관 연구활성화를 중심으로 첨단의학 분야의 연구 활성화, 임상-기초 연계를 통한 중개연구 활성화, 동서의학 협력연구 기반 강화 그리고 임상적용이 가능한 신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화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br/> <br/>이태원 원장은 “<span class='quot0'>중견 교수 60여 명이 참여하는 ‘정밀의학·정밀수술팀’을 핵심연구인력으로 키워 장차 후마니타스 암병원의 핵심진료모델인 ‘정밀의학’을 구현하는 임상연구 활성화의 견인차로 삼을 계획</span>”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57.txt

제목: [살며 사랑하며-유형진] 엄마의 종이컵  
날짜: 201704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24183355001  
ID: 01100201.20170424183355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오이김치와 얼갈이 열무김치 담가 놨으니 가져가라고. 내가 가지러 가면 엄마는 집에 없을 거라 하셨다. “어디 가시는데?” “우리 엄마한테!” 외할머니는 3년 전 유방암 수술을 하셨는데, 그때가 구순이었다. 할머니는 살만큼 살았으니 땅으로 돌아가더라도 암 덩어리는 떼고 들어가고 싶다고 하셨다. 고령이라 암세포도 더디 컸다. 통증보다 수술과 항암치료가 더 무리일거라 해서 7년을 키운 종양이었다. <br/> <br/> 종양은 깔끔하게 제거되었고, 다른 부위 전이는 없었다. 할머니가 처음 암센터에 오셨을 때 조직검사를 하느라 가슴에 출혈이 있었는데, 처치하던 간호사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힘으로 오랫동안 꾹 누르고 있어야 한다고 도와 달라 했다. 곁에 큰외숙모와 엄마가 있었지만 며느리보단 딸이, 딸보단 손녀가 더 나았던 것이다. 엄마는 칠순이 다되어 기운도 나보다 떨어졌지만, 엄마의 피 흘리는 가슴을 꾹 누르며 서 있을 수가 없다며 우셨다. 나에겐 엄마라도, 할머니에겐 딸인 엄마의 약한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다. 나는 있는 힘껏 할머니의 가슴을 꾹 눌렀다. 할머니의 가슴에서 한 방울의 피도 새지 않도록. “할머니 많이 아파?” 할머니는 오히려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럼 무쟈게 아프지.” 속으로는 울어도 겉으로는 활짝 웃을 수 있다는 것에 신기해하며 나도 할머니를 따라 웃었다. <br/> <br/> 엄마 없는 친정집에 들어가는데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가 차를 막았다.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라는 빨간 경고등과 함께. 비밀번호를 누르며 엄마 없는 엄마 집에 들어간다. 이사 온 지 3년이 되었어도 주차장 차단기 때문에 친정이 아닌 거 같다. 하지만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여긴 우리 친정이 맞다. 각종 젓갈, 매실청, 말린 사과, 말린 표고버섯, 두릅을 삶았던 냄새. 올케언니와 내가 가져갈 몫을 살뜰히 싸둔 김치에서 나는 냄새들. 김치꾸러미 옆 작은 접시 위에 종이컵이 놓여 있다. 빈집에 왔어도, 물이라도 한잔 마시고 가라는 엄마의 배려. 하지만 네가 먹은 컵은 닦기 귀찮아 버릴 거라는 우리 엄마의 귀여운 유머였다. <br/> <br/>글=유형진(시인), 삽화=전진이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558.txt

제목: [재테크] 개인 사업자를 위한 ‘소호 베이직 카드’ 外  
날짜: 201704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21203355001  
ID: 01100201.20170421203355001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재테크는 보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최대 이익을 내는 방법이나 행위를 뜻하는 합성어다. 본래 기업 경영에서 사용되던 단어였다. 외환위기(IMF) 때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었지만, 실직이나 해고 등을 고스란히 감내한 가계 경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 뒤로 재테크는 가계 경제의 필수로 등장했다. 가장 고전적 재테크는 저축이다. 하지만 금리가 갈수록 떨어지고 비과세 저축 등이 축소되면서 재테크 수단은 주식이나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위험자산에 투자를 할 경우 ‘대박’보다는 ‘쪽박’을 차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자산 배분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저축상품, 수익률이 안정적인 금융상품,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보험상품 등을 잘 고르는 게 재테크의 첫 걸음이다. <br/> <br/><br/>■ NH농협은행 <br/><br/>개인 사업자를 위한 ‘소호 베이직 카드’ <br/> <br/><br/>NH농협카드가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에 의한, 개인사업자를 위한 ‘SOHO BAZIC 카드’를 출시했다. 소호 베이직 카드라고 읽는다. <br/> <br/> 농협카드는 이용 고객에게 국내외 전 가맹점 0.3∼0.7% 무제한 할인 혜택을 준다. 주유·마트·온라인몰·이동통신·의료·골프·전기·미용·차량정비·해외업종에서 이용할 때는 전월 실적에 따라 매달 최대 10만원까지 추가로 할인을 해 준다. <br/> <br/> 개인사업자의 골칫거리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돕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사업자금 통합 관리가 담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농협카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개인사업자 고객 대부분이 일상적 소비에 사업자카드를 주로 이용하며, 사업비용 절감에 대한 니즈가 크다는 빅데이터 분석결과가 반영됐다</span>”고 설명했다. 농협카드는 소호 베이직 카드를 사용 중인 개인사업자 고객의 세무지원을 위해 ‘NH소호비즈 앱’을 추가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카드사용 내역을 자동 분류해 세무사 및 기관에 즉시 영수증을 전송하도록 돕는다. <br/> <br/><br/>■ 신한은행 <br/><br/>‘알파레이디 적금’ 석달만에 100억 실적 <br/> <br/><br/>신한은행이 여성만을 위한 ‘신한 알파레이디 적금’을 출시해 3개월 만에 잔액 100억원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다. 알파는 그리스어 자모의 첫째 글자를 말하는 것으로 종합하면 ‘첫째가는 여성’을 위한 적금이란 뜻이다. <br/> <br/> 능동적 여성상을 내세운 만큼 우대금리 적용방식도 매우 능동적이다. 친구에게 상품가입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추천해 성공하면 연 0.4%, 신한은행이 지정한 월 2회 기념일에 입금시 연 0.2%를 더 준다. 신한은행 지정 기념일은 1월1일 가래떡데이, 2월22일 2%데이, 6월6일 고기데이, 7월7일 럭키데이, 8월8일 꽈배기데이, 9월9일 치킨데이 등이 포함돼 있다. 신한은행은 이 적금에 가입해 10만원 이상 잔액을 유지하면 문화서비스 플랫폼인 ‘Mint레이디클럽’에서 프리미엄 문화 이벤트에 응모할 기회를 얻는다고 밝혔다. 민트레이디클럽 게시판에 본인 사연을 올려주면 또 0.1%의 우대금리가 따라간다. 여성의 입소문을 정면 타게팅한 금융 상품이다. <br/> <br/><br/>■ 삼성화재 <br/><br/>충청사업부 “재테크·문화 강좌 열어요” <br/> <br/><br/>삼성화재 충청사업부는 오는 24일부터 지역단별 ‘금융창업 세미나’를 진행한다. 다양한 문화·재테크 강좌를 누구나 들을 수 있다. <br/> <br/> 삼성화재 청주지역단은 24일 청주 율량동 파티가든 이안에서 ‘생활 속 진솔한 재테크 이야기’ 강좌를 연다. 대전지역단과 대전세종지역단은 26일 대전 유성구 덕명동 삼성화재 유성연수원에서 ‘황영택 성악가와 함께하는 삼성화재’ 강좌를 연다. 충주지역단은 같은 날 충주 교현동 지역단 교육장과 제천 강제동 교육장에서 ‘가족력을 보면 내 질병이 보인다’ 강좌를 진행한다. 충남지역단은 같은 날 서산 읍내동 지역단 교육장에서 ‘삼성화재와 함께하는 미래 설계’ 강의를 연다. 천안아산프론티어는 26∼27일 천안 서북구 불당동 지역단 교육장에서 ‘부자되는 인생테크 전략’ 강좌를 진행한다. 충남중앙지역단은 다음달 11일 부여읍 구아리 교육장에서 ‘성공하는 인생테크 전략’ 강좌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70-7111-3208) 문의하면 된다. <br/> <br/><br/>■ 교보생명 <br/><br/>보험료 확 낮추고 보장 늘린 신개념 상품 <br/> <br/><br/>교보생명은 보장을 늘리고 보험료를 대폭 낮춘 신개념 중대질병(CI) 보험 ‘교보프리미어CI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사망 보장은 물론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CI와 중증치매 등 장기간병 상태를 평생 보장한다. <br/> <br/> 기존 상품보다 주계약의 보장 범위를 넓히고 CI와 연관성이 높은 질병을 추가로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중증세균성수막염, 루게릭병, 다발경화증 등 4가지 질환을 새롭게 CI에 포함시켰다. 갑상선암 가운데 예후가 좋지 않은 일부 암을 중대한 갑상선암으로 분류해 보장 범위에 넣었다. <br/> <br/> 소액보장도 확대했다. 뇌출혈, 뇌경색증처럼 CI 발생 이전 단계의 질환이나 CI와 연관성이 높은 중증질환 9종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br/> <br/> 보험료는 큰 폭으로 내렸다. 해지환급금을 미리 확정된 예정이율로 보증해주지 않는 대신 공시이율로 적립해 보험료를 10∼20% 낮췄다. 해지환급금이 기존보다 작지만 보장혜택과 낮은 보험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br/> <br/><br/>■ KB국민은행 <br/><br/>1코노미 스마트 적금 질주… 1만계좌 돌파 <br/> <br/> <br/>KB국민은행은 1인 가구 맞춤형 스마트폰 전용상품 ‘KB 1코노미 스마트적금’이 출시 10거래일 만에 1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기존 국민은행 스마트폰 전용적금 출시 초기 실적 대비 3배 정도 높다. <br/> <br/> 급증하는 1인 가구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특화상품인 ‘KB 1코노미 스마트적금’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적금 가입만 해도 KB손해보험의 ‘여행자보험’ ‘新주말 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 ‘자동차사고 시 성형치료비 보험’ 무료 가입 서비스가 적금 가입기간 동안 제공된다. 가입금액은 최소 1만원 이상, 계약기간은 6개월에서 36개월 중 월단위로 선택 가능하다. 금리는 3년제 기준 최고 연 2.5%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br/> <br/> KB국민은행 관계자는 “<span class='quot1'>KB 1코노미 스마트적금은 실제 1인 가구 고객 1500명 대상의 설문과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개발한 상품</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앞으로도 1인가구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 <br/> <br/><br/>■ IBK기업은행 <br/><br/>금융권 첫 전자문서 사용률 50% 넘어 <br/> <br/><br/>IBK기업은행은 2015년 금융권 최초로 종이 대신 태블릿PC로 업무를 처리하는 ‘IBK전자문서(e-紙)’ 사용률이 50%를 넘겼다고 밝혔다.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 2명 가운데 1명은 태블릿PC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br/> <br/> 기업은행은 높은 전자문서 사용비중은 종이 및 비용절감, 업무시간 단축,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A4용지 기준 연간 3700만장의 종이를 절약해 25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br/> <br/> BM특허 등록에도 성공했다. ‘IBK전자문서(e-紙)’의 특징은 고객이 작성할 서류와 항목을 자동으로 안내해주고, 필수 작성 항목이 입력되지 않으면 거래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진다. BM특허 등록은 서류미비에 따른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br/> <br/> 기업은행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전자문서로 거래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직원과 고객이 많아졌다</span>”며 “<span class='quot2'>영업점 창구에서 기다리는 고객을 위한 ‘사전작성 서비스’ 등 서비스를 늘릴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 <br/> <br/>그래픽=전진이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559.txt

제목: 건강보험 보장률 0.2%P 올라  
날짜: 20170421  
기자: 김동우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21184255001  
ID: 01100201.201704211842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건강보험 보장률이 소폭 상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4년보다 0.2% 포인트 상승한 63.4%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br/> <br/> 보장률은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 비중이다.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보장률은 61.8%로 전년보다 1.3% 포인트 상승했다.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도 61.3%로 전년보다 0.5% 포인트 올랐다. <br/> <br/> 특히 국가 차원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펼친 질환의 보장성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암과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9.9%로 전년보다 2.2% 포인트 증가했다. 공단은 “<span class='quot0'>2014년 하반기부터 집중된 중증질환 보장효과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 환자의 부담을 가중하는 고액 진료비 상위 30위·50위 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0.5% 포인트, 1.0% 포인트 상승한 77.9%, 76.6%로 조사됐다. 고액 진료비 상위 항목은 백혈병 림프·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악성종양)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췌장의 악성신생물 비호지킨 림프종 순이다. <br/> <br/>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진료는 20∼30%의 비용을 법정 본인 부담금으로 둔다. 감기에 걸려 의원을 찾았을 때 진료비 일부를 내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법정 본인 부담률은 2015년 20.1%로 전년보다 0.4% 포인트 높아졌다. 유방재건술이나 카메라 내장형 캡슐 내시경 등 건강보험에서 20∼50%만 부담하는 선별급여 항목이 늘어난 게 법정 본인 부담률을 높인 이유로 꼽힌다. <br/> <br/>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60.txt

제목: 암 수술 후 새는 '림프액' 막는 획기적 치료법 '주목'  
날짜: 20170420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20173344001  
ID: 01100201.201704201733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 수술 후 림프액이 새는 걸 막아 치료율을 높이고 퇴원 시기를 앞당기는 획기적인 치료법이 주목을 끌고 있다. 림프액은 우리 몸을 돌며 면역과 관련된 중요한 일을 한다. 암이나 외상 등 여러 이유로 임파선을 잘라낸 환자에서 수술 후 림프액이 누출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br/> <br/> 아주대병원 영상의학과 인터벤션 김진우 교수팀은 림프액이 누출되는 곳을 막는 림프관 색전술을 시행해 림프액 누출을 없애거나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술을 통해 림프액 배액관을 빨리 제거하게 되면서 환자의 수술 만족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입원기간이 단축됐다. <br/> <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림프액이 누출되면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서 조금씩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것이 기존의 치료법인데,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다량의 림프액 누출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김 교수팀은 수술 후 림프액이 누출된 환자에 대하여 2014년 처음으로 림프관 색전술을 시행해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102건을 성공했다. 관련 논문을 2016년에만 다섯 편을 발표했다. <br/> 지난해 8월 국제학술지 ‘심혈관 및 인터벤션 영상의학(Cardiovasc Intervent Radiol)’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암 수술 후 림프액 누출이 발생한 환자 21명을 대상으로 림프관 색전술을 시행한 결과 치료 성공률이 95.2%였고 시술 후 평균 입원기간은 5.9일로 나타났다. <br/> <br/> 김진우 교수는 “<span class='quot1'>림프관 색전술은 수술 후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61.txt

제목: 국민 10명 중 3명 "병원 중복검사 불편·부담 우선 개선돼야"  
날짜: 20170420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20145044001  
ID: 01100201.201704201450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우리 국민 10명 중 3명 정도는 의료기관 이용 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으로 '병원별 중복 검사 불편과 부담 개선'을  꼽았다. 국가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질병으로 암, 신종 감염병, 만성질환 등 순으로 답했다. <br/> <br/>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지난 3월 16일~23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의료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br/> <br/> 국민 79.6%는 우리나라 의료 제도 및 정책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응답한 반면 17.7%는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br/> 의료기관 이용 관련 우선 추진 정책으로는 ‘의료기관별 중복검사 불편 및 부담 개선'(28.0%)’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강화(22.4%)’ ‘동네의원 기능과 역할 강화(20.4%)’순으로 중요성이 높게 평가됐다. <br/>  <br/> 국가 중점 관리 질병으로는 암 질환(35.6%),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20.5%),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9.7%), 암 이외 중증질환(7.9%), 치매(3.9%) 순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신종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가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r/> <br/>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정도로 나타났으며, 국민 절반 정도가 보험료를 더 지불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br/>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 비율은 43.3%로 나타난 반면, ‘불만족’ 하거나 ‘보통’인 비율은 55.6%로 만족 수준은 ‘보통’이며, 100점 만점에 평균 55.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국민의 47.7%는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더라도 더 많은 보험 혜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3.9%는 ‘보험 혜택을 축소하더라도 보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20.4%는 ‘지금이 좋고 변경이 필요없다’고 했다. <br/>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더라도 더 많은 보험 혜택을 원하는 응답자들에게 어느 정도 건강보험료를 추가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현재 납부 금액의 최대 10~20%를 추가로 지불할 수 있다는 비율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br/> <br/> 건강보험 의료보장 혜택 강화시, 우선 혜택 분야로는 ‘암, 뇌졸중 등 중증질환 보장 강화’가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관리 및 건강검진 수준 향상’(31.3%), ‘입원 시 간병비 지원’(23.9%) 등의 순으로 나타나 건강관리와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br/> <br/> 의료 정책 관련 태도 조사 결과, 의료 공공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니즈(Needs)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보험료 인상을 통해 중증질환 입원 및 간병, 소아청소년 진료 등에 대한 무상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의견에는 76.0%가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22.4%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br/> 또 국공립병원 지원을 늘려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83.4%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반면, 14.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br/> <br/>김연수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겸 진료부원장은 “<span class='quot0'>국민의 83.4%가 국공립병원의 지원을 늘려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개발을 강화할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62.txt

제목: 60세 이상 암 환자 10명 중 3명 "가족에 짐될까 걱정"  
날짜: 20170420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20104144001  
ID: 01100201.20170420104144001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암은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다. 인구의 노령화와 함께 2020년에는 전체 암환자의 3분의 2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br/> 60세 이상 암 환자 10명 중 3명은 가족에 짐이 될까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국립암센터 박기호 암정책지원과장은 삼성서울병원 신동욱 교수, 국립정신건강센터 구애진 전문의 연구팀과 함께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전국 10개 병원에서 2014년에 치료받은 60세 이상의 위암, 대장암, 폐암 환자 4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br/>  그 결과, 노인들은 가족과 병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문제(약 45%), 인생의 목적에 대한 고민(약 40%), 가족에게 짐이 될까 하는 걱정(약 30%), 주변 사람들에 대한 걱정(약 25%), 미래에 대한 걱정(약 25%), 거동장애(약 20%), 관절 경직 문제(약 15%)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br/> 특히 병기가 높을수록 주변 사람에 대한 걱정이 많았으며, 거동 장애가 있을수록 질병에 대한 부담감이 높고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연구팀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암환자 대상의 한국어판 삶의 질 척도’를 개발했다. <br/> 연구를 주도한 박기호 암정책지원과장은 “<span class='quot0'>노인 암환자가 겪는 삶의 질 문제는 분명 젊은 성인과 다른데,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삶의 질 평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span>”라고 연구의 배경을 밝혔다.   <br/> 이어 “이번 연구가 통합적 지지의료 측면에서 노인 암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심리적·정서적 문제를 규명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r/>이번 연구성과는 노인종양학회지(Journal of Geriatric Oncology) 최신호에 게재됐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63.txt

제목: [내일을 열며-이기수] 의약에도 징벌적 과징금 필요  
날짜: 201704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20174955001  
ID: 01100201.201704201749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여기 두 종류의 회사가 있다. A는 특정 암 환자의 90%가 1차 약으로 쓰는 표적항암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 시판하는 다국적 제약사다. B는 A의 약을 복제한 ‘제네릭’을 팔고 있다. 의사와 환자는 A의 오리지널 약을 선호한다. B의 약값이 싸긴 해도 약효가 미덥지 않고, 안전성도 떨어지는 것 같다고 보는 까닭이다. <br/> <br/> 요즘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걸려 주목받고 있는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꺼낸 예화다. 이 회사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내 의사 십수 명에게 리베이트를 두 번 이상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재판을 받고 있다. 만성골수성백혈병과 위장관기질종양(GIST) 치료에 쓰이는 글리벡 등의 판촉을 목적으로 약 25억900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다. 평상시 의사들과 친하게 지내야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탓일까? 아니면 자기네 약을 지고지선(至高至善)으로 여기는 암 환자를 볼모로 삼으면 정부도 어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일까? 노바티스의 글리벡 리베이트 사건은 들여다볼수록 국내 의약 시장과 보건 당국의 후진적 민낯이 드러나 참담한 느낌이 든다. <br/> <br/> 한마디로 이 사건은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대상 품목(보험약가집)에서 글리벡을 일단 퇴출시키는 것이 합당한 처분 방식이라고 본다.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 규정’에 딱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리지널 약 쓰기를 고집하는 암 환자 6000여명 때문에 그러기가 힘든 것이 딜레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란 리베이트로 물의를 빚은 약에 대해 리베이트 액수에 비례해 건강보험 급여를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다. 같은 약이 5년 이내에 정지 대상에 다시 오르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거나 보험약가집에서 완전히 퇴출당한다. 보험약가집에서 빠지면 해당 약을 쓰는 환자는 약값 부담이 크게 오르게 된다. 예컨대 글리벡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약값이 한 달에 6만5000∼13만원 정도다. 하지만 비(非)급여 대상으로 전락, 보험 혜택을 못 받게 되면 130만∼26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글리벡의 경우 리베이트 투아웃 원칙을 사수하기가 쉽지 않게 된 배경이다. <br/> <br/> 보건복지부는 그간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드러난 노바티스의 41개 품목 중 글리벡을 포함해 대체약이 있는 18개 제품에 대해 급여 정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은 벌써부터 다른 약은 몰라도 글리벡에 대한 행정처분만큼은 과징금 부과로 대신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내놓고 말은 못해도 관련 의사들 역시 여기에 상당수 동조하는 모양새다. 범죄를 저지른 제약사가 밉다고 환자가 그 고통을 떠안게 할 순 없다는 것이다. 해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징벌적 과징금으로 노바티스 측에 급여 정지 못잖은 타격을 주는 방법이다. 징벌적 과징금제란 기업이 고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끼친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 제도다. 막대한 금전적 불이익을 줘 불법행위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해행위를 방지하자는 목적도 있다. <br/> <br/> “정해진 규정은 가능한 한 지키는 것이 맞다.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해당된다면 아웃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야 일벌백계가 가능하다. 다만, 징벌적 과징금으로 대신할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혼란을 줄이는 대안일 수도 있겠다. 몇 년 전 비슷한 혐의로 다른 제약사 GSK에 4960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 반면교사로 삼도록 한 중국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수도권 모 대학병원 종양내과 중진 교수의 조언이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64.txt

제목: ‘가리베가스’ 김선민 감독, 암 투병 끝 별세  
날짜: 20170419  
기자: 권남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19214244001  
ID: 01100201.20170419214244001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영화 ‘가리베가스’ 등을 연출한 김선민(43) 감독이 지난 18일 암으로 별세했다. <br/> <br/>서울예대 영화과 출신인 고인은 ‘이름없는 들풀’(1999) ‘돌아보면’(2001) ‘달팽이의 꿈’(2003) ‘후(後)애’(2004) 등 단편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주로 연출했다. 이창동 감독의 ‘밀양’(2007) 연출부로도 일했다. <br/> <br/>고인의 대표작 ‘가리베가스’는 가리봉동 쪽방에 살던 20대 여성 노동자 선화의 하루를 담은 영화다. 2005년 미쟝센단편영화제 비정성시 부문 최우수상, 서울여성영화제 단편경선 우수상,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 후지필름상 등을 수상했다. <br/> <br/>빈소는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1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1일 오전, 장지는 성남 영생원이다. <br/> <br/>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65.txt

제목: 돌처럼 굳는 질병 ‘폐섬유화증’, 그 해결책은?  
날짜: 201704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19090044001  
ID: 01100201.201704190900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폐섬유화증(간질성폐질환)은 폐조직이 굳어서 호흡장애를 불러일으키는 호흡기 질환이다. ‘폐가 굳는다’라는 의미는 섬유질 결합 조직의 과다 누적을 의미하며 이 과정을 섬유화라고 부른다. 섬유화가 진행될수록 폐의 벽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혈액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줄어든다. <br/> <br/>보통 병원에서는 이 병을 두고 치료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이미 파괴된 폐 조직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일 뿐이다. 자가 면역 질환에 속하는 간질성폐질환은 뚜렷하게 밝혀진 원인은 없지만 폐가 건조할수록 신체 내열이 축적되며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br/> <br/>폐섬유화증에 걸리면 호흡곤란을 비롯해 기침, 소량의 가래가 발생한다. 발병 초기에 일어나는 호흡곤란은 보통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잘 관리만 한다면 암보다 진행속도가 느리다는 것이다. 진단을 받은 후에는 자신의 폐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 이후 진행 속도 및 경과를 관찰해 필요한 치료, 관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br/> <br/>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될 점은 돌연 사망에 이르는 질병이 아니라는 점이다. 질병의 경과가 분명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잘 파악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생존 기간과 예후가 달라질 수 있다. <br/> <br/>또한, 폐섬유화증 환자는 폐렴과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이 좋다. 모든 폐질환은 말기로 가면 가장 위험한 것이 감기와 폐렴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 유지를 통해 기관지 점막의 안정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폐가 굳는 병인만큼 마음도 함께 굳어갈 수 있으니, 조급한 마음을 푸는 것이 증상 완화의 시작이다. <br/> <br/>경희숨편한한의원 부산점 권영빈 원장은 “<span class='quot0'>폐섬유화증(간질성폐질환)은 보통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미 섬유화 된 부위는 돌이킬 수 없지만 속수무책으로 나빠지는 병은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0'>합리적인 방법을 바탕으로 진행 속도를 늦추고 안정화 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질병의 진행도에 따라 경중을 나누고 증상에 맞는 올바른 치료를 시행하면 현재보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전했다.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66.txt

제목: 안철수 칭찬한 전인권…'걱정 말아요~'에 눈물 쏟은 안철수  
날짜: 20170419  
기자: 태원준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19082944001  
ID: 01100201.20170419082944001  
카테고리: 정치>선거  
본문: 가수 전인권이 공개석상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스티브 잡스에 비유하며 칭찬하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온라인에서 그를 향해 "적폐세력"이란 비판을 쏟아냈다. 전인권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안희정 충남지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br/> <br/>전인권은 18일 공연 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span class='quot0'>스티브 잡스처럼 완벽주의자들은 암 수술을 하고 나오자마자 간호사의 명찰이 비뚤어진 걸 신경 썼다고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안철수란 사람도 잡스처럼 완벽증을 갖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어 "안철수 후보를 만난 적이 있다"며 "그런 (완벽증을 가진) 사람들은 얘기가 안 통할 수 있지만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대충 넘어가면 발전하지 못하지 않나"라고 평가했다. 또 "요즘 안씨 성을 가진 사람이 좋다. 이번 콘서트 게스트도 SBS 'K팝스타 5' 준우승자인 안예은"이라고 밝혔다. <br/> <br/>어떤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깨끗하고 남의 말 많이 안 하고 소신 있는 지도자라면 (사람들이) 좋은 면을 닮아가게 돼 있다. TV 토론회를 보는데 머리 쓰는 사람이 보이더라. 재미가 없다. 깨끗하게 소신을 이야기하는 이가 좋다"고 말했다. <br/> <br/>이 발언이 알려지자 인터넷과 SNS에서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과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문 후보 지지자들은 '적폐 세력 전인권의 공연 예매를 취소하겠다'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나' 등의 글을 올리며 반발했고, 안 후보 지지자들은 '전인권의 소신을 지지한다' '전인권의 반골 기질이 안철수와 통했다' 등의 평을 내놓았다. <br/> <br/>논란이 일자 전씨의 공연 기획사 측은 "전씨가 안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것은 아니라는 뜻을 전해왔다"며 "평소 자기 생각을 밝힌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전인권은 대선 직전인 5월 6~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라는 타이틀로 단독 콘서트를 연다. <br/> <br/> <br/>전인권은 지난해 9월 안철수 후보를 만났다. 당시 전인권은 제8회 DMZ국제다큐영화제 사전행사인 ‘다큐&뮤직콘서트’ 무대에 섰고, 안 후보는 이 행사에 참석해 객석에 앉아 있었다.  <br/> <br/>안 후보는 콘서트가 끝난 뒤 페이스북에 “<span class='quot1'>전인권씨가 무대 아래의 저를 소개하며 ‘걱정말아요 그대’를 불러주셨는데, 그 어떤 때보다 큰 울림을 받았다</span>”고 글을 올렸다. “정치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br/> <br/>이 콘서트가 열린 날은 안 후보가 2012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에 뛰어든 지 4년이 되는 때였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던 까닭인지, 안 후보는 전인권의 노래를 듣다가 울컥 눈물을 쏟았다고 한다.  <br/> <br/>동행했던 김경록 당시 국민의당 대변인은 전인권이 공연 도중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라며 객석의 안 후보를 관객들에게 소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분의 마음이 요즘 이럴 것 같다”면서 ‘걱정말아요 그대’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노래를 듣던 안 후보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라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span class='quot2'>안 후보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깜짝 놀랐다</span>”고 말했다. <br/> <br/>이 무대 전까지 안 후보와 전인권은 행사장에서 한 차례 마주쳤을 뿐 특별한 친분은 없었다고 한다. <br/> <br/>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67.txt

제목: 아침 기상 30분내 담배 찾는 애연가들, 두경부암 위험 59% 높다  
날짜: 20170418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18105744001  
ID: 01100201.20170418105744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흡연자 중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두경부암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br/> <br/>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의대 연구팀이 2011년 ‘미국암학회저널(American Cancer Society;Cancer)’에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상 직후 30분 이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1시간 이후 흡연하는 사람보다 두경부암 발생률이 59%나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br/> <br/> 실제 잠에서 깨어나 바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30분 이상 지난 후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 체내에 니코틴 수치가 높았다.  <br/> 연구팀은 "기상 직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 담배 연기를 다량으로 깊이 흡입함으로써 이로 인해 일반 흡연자들에 비해 혈중 니코틴과 여타 독소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두경부암 위험이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br/> <br/> 때문에 아침에 눈뜨자마자 담배부터 찾는 애연가들은 두경부암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평소 입속 건강에 신경을 쓰고 정기적인 구강검진이 필요하다. <br/> <br/> 두경부암의 경우 치료가 매우 어렵지만 조기에 진단되면 완치율이 매우 높은 반면, 처음 두경부암을 진단받은 환자 중 3분의 2는 이미 어느 정도 병기가 진행되거나 다른 부위로 암이 전이된 상태로 발견돼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br/> <br/> 중앙대병원 두경부종양클리닉 이세영 이비인후과 교수는 18일 “<span class='quot0'>두경부암은 조기에 진단되면 80~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5년 생존율이 50% 이하로 떨어진다</span>”고 말했다.  <br/> 또 “두경부암의 약 90%가 음주와 흡연이 주원인인데, 아침 흡연은 두경부암 발생 위험을 더욱 높이기 때문에 평소 술 담배를 즐기고 특히 아침 애연가들은 정기적으로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후두내시경검사를 통한 조기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br/> <br/> 두경부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초기 증상으로는 갑자기 쉰 목소리가 나거나 목소리 변화가 계속되고 입안 염증이나 혓바늘(궤양)이 지속될 경우, 한쪽 코가 지속적으로 막혀 있거나 피가 섞인 콧물이 동반될 때, 연하곤란, 목 통증 등의 1가지 이상 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될 때이다. 이런 경우 두경부암을 전문으로 하는 이비인후과 의사를 찾아 진료를 받아 볼 필요가 있다. <br/> <br/> 한편 최근 흡연과 음주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가 두경부암과 관련이 깊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특정 두경부암의 60~70%에서 HPV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br/> 대한두경부외과학회는 현재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여자 어린이에게만 실시하는 HPV 백신 무료 접종을 남자 아이에게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r/> <br/> 이세영 교수는 “<span class='quot1'>HPV가 여러 연구를 통해 흡연 음주와 함께 두경부암의 주요 위험인자로 밝혀진 가운데 두경부암 예방을 위해 여아들뿐만 아니라 12~13세 남자 아이들에게도 HPV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 이어 “성인의 경우 흡연자들은 담배를 끊거나 아침 흡연을 삼가고, 자신의 구강 내에 붉거나 흰 얼룩은 없는지, 목소리가 이상하거나 아프진 않은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68.txt

제목: ‘사망률 1위’ 폐암 44%가 4기 발견  
날짜: 20170418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18093455001  
ID: 01100201.201704180934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국내 사망률 1위인 폐암은 ‘조용한 암’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암이 진행되기 전까지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고 생존율이 낮다. 실제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비소세포폐암 환자 10명 중 4명은 이미 다른 장기로 암이 많이 퍼진 단계인 ‘4기’에 발견됐다. 남성이 여성보다 2.3배 많이 걸렸다. <br/> <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5년 한 해 원발성 폐암으로 수술·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은 만 18세 이상의 진료 1만350건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7일 밝혔다. 폐암 환자의 82.5%는 여성과 비흡연층에 많은 비소세포폐암이었다. 악성도가 높고 증식 속도가 빠른 소세포폐암은 17.2%를 차지했다. <br/> <br/>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43.7%는 발견 당시 뼈 간 뇌 등으로 전이돼 치료가 어려운 단계였다. 횡격막 등 주위 장기까지 전이된 3기는 18.2%, 폐 안에 국한된 2기는 8.4%, 폐 중심부에 머물러 전이가 안 된 1기는 29.7%였다. 소세포폐암 역시 70.3%가 암이 한쪽 흉곽과 림프절을 뚫고 주변으로 퍼진 상태에서 병원을 찾았다. <br/> <br/> 성별로는 남성(69.7%)이 여성(30.3%)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34.8%) 70대(33.0%) 50대(20.2%) 80세 이상(6.3%) 순으로 10명 중 9명 이상이 50대 이상이었다. <br/> <br/> 심평원은 폐암 10건 이상 진료한 89곳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벌여 1등급 병원 80곳을 공개했다. 서울(31.3%) 경기(26.3%) 등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강원과 제주는 각각 2개뿐이었다. 가톨릭대성바오로병원 동국대경주병원 청주성모병원 등 3곳은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69.txt

제목: 강단서 잠자며 성도들 위해 중보기도 1580여일째  
날짜: 201704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18000356002  
ID: 01100201.20170418000356002  
카테고리: 문화>종교  
본문: “최OO 권사님은 남편과 아들의 믿음이 회복돼 주께 나오게 하옵소서. 김OO 집사님은 직장에서 믿음으로 윤OO씨를 교회로 인도하게 하소서.” <br/> <br/> 16일 오후 11시 30분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강일교회를 찾아갔다. 강대상 뒤에서 기도소리가 흘러 나왔다. 10㎡의 강단은 정규재(52) 강일교회 목사에게 침실이자 기도실이다. <br/> <br/> 고려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생명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정 목사는 92년까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연구원으로 일했다. 북한선교의 꿈, 평생 전문인 선교사의 비전을 갖고 있던 그는 건국대에서 미생물화학 박사학위와 서울 총회신학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목사안수를 받았다. <br/> <br/> 2003년부터 2009년까진 중국 옌볜과학기술대 생명과학과 교수로 일했다. 이후 호주 유학생 사역을 하다 2012년 12월15일 강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됐다. <br/> <br/> “담임목사가 돼 성도의 이름을 하루에 한번이라도 부르지 않고 기도해주지 않는다면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임 첫날부터 강단에서 전기 매트를 깔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 돌입했습니다. 아내를 생과부로 만든 거죠. 허허.” <br/> <br/> 정 목사는 365일 강단에서 잠을 자며 전 교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 송구영신예배 때 제출한 200여장의 기도카드에는 성도 개인의 고민과 소망, 가족사 등이 들어있다. 2시간 넘게 기도하다보면 전도대상자와 손주의 이름까지 등장한다. 정 목사의 기도는 이튿날 오전 1시까지 이어졌다. <br/> <br/> 낮에는 초여름 날씨 같았지만 밤 강단의 공기는 차가웠다. 정 목사는 전기장판과 담요 하나를 꺼냈다. 그는 “중국 옌볜에서 영하 40도의 추위를 이겨내 봤기 때문에 추위는 힘들지 않다”면서 “더위도 견딜 만 하다. 지난여름엔 선풍기 1대로 이겨냈다”고 웃었다. <br/> <br/> 하룻밤을 함께 지내기 위해 기자도 전기장판을 준비해 갔지만 서늘한 냉기가 한동안 올라왔다. 본당 비상등 초록빛이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5분이 지났을까. 정 목사가 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했다. <br/> <br/> 오전 4시. 스피커에서 울리는 쩌렁쩌렁한 복음성가에 눈을 떴다. 정 목사는 목양실로 올라가 세면을 하고 붉은색 넥타이를 맸다. 부활절을 앞두고 21일 금식기도를 했지만 정 목사의 목소리는 우렁찼다. <br/> <br/> 새벽기도 후 오전 6시부터 8시까지는 집에서 쉰다. 오전 9시 다시 출근해 성경 연구를 한다. 오후엔 성도 가정과 직장을 찾아 심방한다. 저녁식사는 사모와 함께한다. 그리고 오후 9∼10시 강단으로 다시 출근한다. <br/> <br/> 담임목사가 성도를 지키기 위해 야전사령관처럼 영적 최전선에서 무릎을 꿇으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술술 풀려갔다. 2013년 7월이었다. “마곡으로 가라.” 분명한 음성이었다. 45년 역사의 교회를 옮기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 강단기도는 모든 문제를 돌파했다. <br/> <br/> 1년 만에 마곡지구 984㎡(298평) 교회 부지를 매입하고 연면적 4132㎡(1250평) 지하 3층, 지상 5층의 교회건축을 마무리했다. 110억원짜리 공사였지만 안전사고 하나 없었다. ‘부채 없이 성전을 짓자’는 목표도 기도대로 이뤄졌다. 암 환자가 치유되고 300명이던 성도가 700명으로 불어났다. <br/> <br/>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다보니 미안한 게 많아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게 반복되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지더군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를 치고 복종시키는 게 강단기도입니다. 기자님을 위해서도 매일 기도할게요.” <br/> <br/> 담임목사가 강단을 지키고 있다는 소문에 성도들은 안정감을 갖고 있다. 김정록(66) 장로는 “목사님께 ‘제발 몸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라’고 말씀 드린다”면서 “성도들은 목사님이 밤새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에 다들 든든해 한다”고 웃었다. 김 장로는 “훌륭하신 분인데 너무 고생한다. 내가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했다. <br/> <br/> 이미숙(52) 사모는 “남편이 틈틈이 짬을 내서 아이들과 집안일을 챙기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귀띔했다. <br/> <br/> 정 목사의 꿈은 마곡연구단지 10만 연구원의 복음화, 전문인 선교사를 세우기 위한 일터교회 100개 개척, 미션스쿨 설립이다. 물론 1584일간 쌓은 강단기도로 모두 돌파할 예정이다. <br/> <br/> 취재 후 하루 종일 정신이 몽롱하고 몸이 찌뿌둥했다. 근데 든든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매일 기도한다니 말이다. <br/> <br/>글·사진=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70.txt

제목: 호텔신라 ‘맛있는 제주만들기’ 18번째 식당 선정… 재개장 후원  
날짜: 20170418  
기자: 김유나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18211355001  
ID: 01100201.20170418211355001  
카테고리: 지역>제주  
본문: 호텔신라는 제주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맛있는 제주만들기’ 18번째 대상 식당으로 ‘황제매운해물짬뽕’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11년부터 이명성(59)씨가 운영해 온 이 식당은 해물짬뽕과 탕수육 등을 주메뉴로 하루 평균 1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소규모 음식점이다. 주방을 담당하던 아내가 암 판정을 받으면서 생활형편이 어려워진 상태다. <br/> <br/> 호텔신라는 식당 주인과의 면담과 주변 상권 조사를 통해 18호점만의 차별화된 메뉴를 새롭게 개발해 노하우를 전수하고 호텔 고객 응대 서비스교육도 실시해 오는 6월 재개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호텔신라는 관광제주 음식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취지로 상생 프로그램 맛있는 제주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br/> <br/>김유나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571.txt

제목: 동산병원 AI ‘왓슨 포 온콜로지' 진료 시작  
날짜: 20170417  
기자: 대구=최일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17200844001  
ID: 01100201.201704172008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17일 인공지능 ‘왓슨 포 온콜로지 (Watson for Oncology)’를 이용한 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br/> <br/> 이번 진료는 현재 동산병원의 다학제팀에서 시행중인 암 치료법과 왓슨이 제시하는 치료법을 비교해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br/> <br/> 대구·경북 왓슨 첫 진료 환자인 이모(70)씨는 동산병원에서 2015년 유방암 4기, 뼈와 다발성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표적치료와 항암제 병합치료로 현재 90% 정도 병소가 줄어든 상태다. <br/> <br/> 이러한 이씨의 데이터를 왓슨 포 온콜로지에 입력해 왓슨이 추천하는 항암치료법과 동산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료법을 비교한 결과 100% 일치했다. <br/> <br/> 이어 진료를 받은 60대 폐암 환자 역시 동산병원의 항암치료법과 왓슨 추천 치료법이 일치했다. <br/> <br/> 왓슨 첫 진료환자의 주치교수인 박건욱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진료를 통해 환자들에게 시행하는 동산병원의 치료법과 왓슨 포 온콜로지의 추천 치료법이 같다는 것이 증명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의료진은 왓슨의 치료방침을 고려해 보다 최적의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span>”고 말했다. <br/> <br/> 암 치료에 특화된 IBM의 ‘왓슨 포 온콜로지’는 매일 쏟아지는 300개 이상의 의학저널, 200개 이상의 의학교과서, 1500만 페이지에 달하는 의료정보, 치료 가이드라인과 전 세계 암 환자 2만명의 치료사례를 분석해 각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한다. <br/> <br/> 여기에 미국 대표 암센터인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센터의 실제 암 환자 진료 경험이 합쳐져 진료 현장에서 암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br/> <br/> 한편 동산병원은 이날 오전 인공지능(AI) 암센터에서 ‘인공지능(AI) 암센터개소식’ 및 ‘인공지능(AI) 왓슨 암 진료 개시 기념행사’를 가졌다. <br/> <br/>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72.txt

제목: “담임목사니까요!” 365일 강단서 잠자며 성도 위해 심야기도  
날짜: 20170417  
기자: 글·사진=백상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17171544002  
ID: 01100201.20170417171544002  
카테고리: 문화>종교  
본문: “최모 권사님은 남편과 아들의 믿음이 회복돼 주께 나오게 하옵소서. 김모 집사님은 직장에서 믿음으로 윤모씨를 교회로 인도하게 하소서.” <br/> <br/>16일 오후 11시 30분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강일교회를 찾아갔다. 강대상 뒤에서 기도소리가 흘러 나왔다. 10㎡의 강단은 정규재(52) 강일교회 목사에게 침실이자 기도실이다. <br/> <br/> <br/> <br/>고려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생명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정 목사는 92년까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연구원으로 일했다. 북한선교의 꿈, 평생 전문인 선교사의 비전을 갖고 있던 그는 건국대에서 미생물화학 박사학위와 서울 총회신학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목사안수를 받았다. <br/> <br/>2003년부터 2009년까진 중국 옌볜과학기술대 생명과학과 교수로 일했다. 이후 호주 유학생 사역을 하다 2012년 12월 강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됐다. <br/> <br/>“담임목사가 돼 성도의 이름을 하루에 한번이라도 부르지 않고 기도해주지 않는다면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임 첫날부터 강단에서 전기 매트를 깔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 돌입했습니다. 아내를 생과부로 만든 거죠. 허허.” <br/> <br/>정 목사는 365일 강단에서 잠을 자며 전 교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 송구영신예배 때 제출한 200여장의 기도카드에는 성도 개인의 고민과 소망, 가족사 등이 들어있다. 2시간 넘게 기도하다보면 전도대상자와 손주의 이름까지 등장한다. 정 목사의 기도는 이튿날 오전 1시까지 이어졌다. <br/> <br/>낮에는 초여름 날씨 같았지만 밤 강단의 공기는 차가웠다. 정 목사는 전기장판과 담요하나를 꺼냈다.  <br/> <br/>그는 “중국 옌볜에서 영하 40도의 추위를 이겨내 봤기 때문에 추위는 힘들지 않다”면서 “더위도 견딜 만 하다. 지난여름엔 선풍기 1대로 이겨냈다”고 웃었다. <br/> <br/>하룻밤을 함께 지내기 위해 기자도 전기장판을 준비해 갔지만 서늘한 냉기가 한동안 올라왔다. 본당 비상등 초록빛이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5분이 지났을까. 정 목사가 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했다. <br/>오전 4시. 스피커에서 울리는 쩌렁쩌렁한 복음성가에 눈을 떴다. 정 목사는 목양실로 올라가 세면을 하고 붉은색 넥타이를 맸다. 부활절을 앞두고 21일 금식기도를 했지만 정 목사의 목소리는 우렁찼다. <br/> <br/>새벽기도 후 오전 6시부터 8시까지는 집에서 쉰다. 오전 9시 다시 출근해 성경 연구를 한다. 오후엔 성도 가정과 직장을 찾아 심방한다. 저녁식사는 사모와 함께한다. 그리고 오후 9~10시 강단으로 다시 출근한다. <br/> <br/> <br/> <br/>담임목사가 성도를 지키기 위해 야전사령관처럼 영적 최전선에서 무릎을 꿇으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술술 풀려갔다. 2013년 7월이었다. “마곡으로 가라.” 분명한 음성이었다. 45년 역사의 교회를 옮기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 강단기도는 모든 문제를 돌파했다. <br/> <br/>1년 만에 마곡지구 984㎡(298평) 교회 부지를 매입하고 연면적 4132㎡(1250평) 지하 3층, 지상 5층의 교회건축을 마무리했다. 110억원짜리 공사였지만 안전사고 하나 없었다. ‘부채 없이 성전을 짓자’는 목표도 기도대로 이뤄졌다. 암 환자가 치유되고 300명이던 성도가 700명으로 불어났다. <br/> <br/>“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다보니 미안한 게 많아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게 반복되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지더군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를 치고 복종시키는 게 강단기도입니다. 기자님을 위해서도 매일 기도할게요.” <br/> <br/>담임목사가 강단을 지키고 있다는 소문에 성도들은 안정감을 갖고 있다. 김정록(66) 장로는 “목사님께 ‘제발 몸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라’고 말씀 드린다”면서 “성도들은 목사님이 밤새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에 다들 든든해 한다”고 웃었다. 김 장로는 “훌륭하신 분인데 너무 고생한다. 내가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했다. <br/> <br/>이미숙(52) 사모는 “남편이 틈틈이 짬을 내서 아이들과 집안일을 챙기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귀띔했다. <br/> <br/>정 목사의 꿈은 마곡연구단지 10만 연구원의 복음화, 전문인 선교사를 세우기 위한 일터교회 100개 개척, 미션스쿨 설립이다. 물론 1584일간 쌓은 강단기도로 모두 돌파할 예정이다. <br/> <br/>취재 후 하루 종일 정신이 몽롱하고 몸이 찌뿌둥했다. 근데 든든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매일 기도한다니 말이다. <br/> <br/>글·사진=백상현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573.txt

제목: [암과의 동행] 다발골수종, 1차 치료 실패하면 보험 안돼 걱정  
날짜: 20170417  
기자: 조민규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17145755001  
ID: 01100201.201704171457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닌 ‘유전무병 무전유병’을 느끼는 저희 환우들이 경제적 고통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진정한 ‘공정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희귀 암환자들이 경제적인 걱정 없이 오직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건강불평등 없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br/> <br/> 대선을 앞두고 암환자들의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를 요구하는 호소가 늘고 있다. 그 중 부담 완화의 요구가 큰 질환이 ‘다발골수종’이다. 최근 다발골수종환우회 백민환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로 나선 문재인 후보의 휴대폰 정책제안 통로를 통해 “다발골수종처럼 병의 진행이 매우 빠르고 재발이 잦은 질환은 언제 어떤 치료를 받는지가 치료성과를 크게 좌우한다. 여생을 병마랑 싸워야 하는 환자들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약으로 치료받고 싶은 것이 당연한 마음”이라고 호소했다. <br/> <br/> 특히 “지난 정권에서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을 통해 환자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는 없고, 결국 돈 없는 서민환자들이 메디컬푸어가 되고 있다”며, 다발골수종을 포함한 희귀암 환자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br/> <br/> 다발골수종은 우리 몸에서 면역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화하거나 증식해서 나타나는 혈액암으로 전체 암의 1% 미만, 인구 10만명 당 약 2∼3명 정도 발생하는 희귀암이다. 질환의 진행이 공격적이고, 치료가 까다로워 기대 여명은 짧은 질환 중 하나로 2명 중 1명 이상이 5년 내에 사망(5년 상대생존율 47%)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무엇보다 다발골수종은 완화와 재발을 반복하다가 어떤 치료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불응’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재발이 거듭될수록 치료제에 대한 반응률 및 반응기간이 감소해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의 범위가 줄어들고, 비용 역시 증가해 환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br/> <br/> 다발골수종은 진단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거나 1차에서부터 약물치료를 하기도 한다. 현재 1차 치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르테조밉 성분의 치료제는 실패하거나 재발할 경우 기대여명은 약 9개월로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1차 이후 치료 효과가 가장 좋은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전체 치료 성과를 좌우하게 돼 신약의 접근성이 중요하다. 문제는 1차 치료에 실패하거나 재발한 환자들에게 효과가 좋은 신약이 출시됐지만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실제로 치료제 혜택을 볼 수 있는 환자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카르필조밉 성분의 치료제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에 대해 레날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손을 병용해 사용한다. 허가된 치료제 중 가장 긴 무진행생존기간(PFS)를 입증하며 환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큰 기대감을 심어주었지만 아직까지 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환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br/> <br/> 환자들의 요구는 다발성골수종 급여뿐만이 아니다. 한 폐암환우회에서는 각 대선캠프에 한달에 1000만원에 달하는 약값을 부담해야 하는 3세대 표적항암제 ‘타그리소’의 보험급여를 요구하는 정책건의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br/> <br/> 유방암 환자들도 마찬가지. 유방암 3기 환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재발 위험이 없는 획기적인 치료제를 두고 평생을 고통과 불안에 살아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가 치료하자고 온 가족이 길거리를 나앉을 수 없는 일’이라고 유방암 치료제 급여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br/> <br/>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3-574.txt

제목: [원자력병원 암전문의가 전하는 ‘건강톡’] 골육종 환자 절반 무릎 뼈 주위에서 발생  
날짜: 20170417  
기자: 이영수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17194355001  
ID: 01100201.201704171943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골육종은 뼈에 생기는 악성종양이다. 발생 빈도는 100만 명당 3∼4명 정도로 드문 질환이지만 다른 암들과 달리 뼈의 성장이 왕성한 사춘기와 20대의 젊은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1.5배 더 많다. 전이가 되지 않은 팔다리 골육종 환자의 경우 완치율이 60%에 이르므로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다. <br/> <br/> 타박상 증상이나 성장통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br/> <br/>-“일반 외상으로 인한 통증과 부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듭니다. 골육종은 처음 가벼운 타박상 정도의 통증이 느껴지다 차츰 통증 시간도 길어지고 강도 역시 심해집니다. 증상은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 지속되며 성장통으로 가볍게 여기거나 운동 중 다친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r/> <br/> 어느 부위의 뼈에 암이 잘 생기나요? <br/> <br/> -“우리 몸 206개의 뼈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발생하는 부위는 무릎 주위의 뼈입니다. 실제 골육종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절반 이상이 무릎 주위에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퇴골(골반과 무릎사이의 뼈), 경골(무릎과 발목사이에 있는 종아리뼈 안쪽의 뼈)의 순으로 종양이 발생했습니다. 골육종은 다른 장기에 발생한 암과 마찬가지로 주변의 근육, 지방, 신경, 혈관을 침범해 혈액을 통해 전이를 일으키며 여러 장기 중 폐 전이가 가장 흔합니다.” <br/> <br/> 엑스레이로 진단할 수 있나요? <br/> <br/> -“골육종 진단은 우선 ‘엑스레이(X-Ray)’를 촬영 하는데 ‘엑스레이(X-Ray)’ 촬영만으로도 이상소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골육종이 의심되면 종양의 크기와 주위조직 침범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고, 조직 검사로 골육종을 확진합니다. 골육종으로 진단되면 전이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뼈 스캔(bone scan)’ 및 ‘폐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의 검사를 시행합니다.” <br/> <br/> 수술을 받으면 완치 되나요? <br/> <br/> -“현재 골육종의 표준 치료는 수술 전에 먼저 항암치료를 약 3개월에 걸쳐 2회 시행하고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전 항암치료 도입 전에는 완치율이 10∼20%에 불과했지만, 수술 전후로 항암치료를 병행하면서 폐 전이 등의 재발을 줄여 완치율이 60∼70%에 이릅니다. 골육종은 비교적 흔한 암이 아니므로 진단 및 치료에 많은 경험이 필요 합니다. 원자력병원의 경우 지난 30년간 1만여 명의 골연부종양 환자 및 1500여 명의 골육종 환자를 진료해 국내 최다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br/> <br/> 골육종도 다른 암처럼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식생활이 원인인가요? <br/> <br/>-“골육종은 흡연, 음주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고지방, 고열량식 등의 식생활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골육종 환자는 뚜렷한 발병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에서 암유전자 돌연변이, 방사선 노출 등이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br/> <br/> 골육종은 예방할 수 있나요? <br/> <br/>-“아직까지 골육종의 특별한 예방법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소아청소년을 둔 부모님은 자녀의 통증 호소를 대수롭게 넘기지 말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팔다리, 특히 무릎 주변과 골반, 척추에서 몇 주 이상 지속되는 깊은 통증이 있거나 덩어리가 만져지면 빨리 전문가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br/> <br/> 이영수 기자 <br/> <br/>▨도움말=원자력병원 골연부종양센터 전대근·송원석(정형외과)·이준아(소아청소년과) 과장

언론사: 국민일보-3-575.txt

제목: [암환자 생활백서-통증관리⑤] 뇌신경 마비 오면 방사선 치료로 종양 줄여  
날짜: 20170417  
기자: 송병기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17192755001  
ID: 01100201.201704171927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국가암정보센터와 함께하는 ‘암환자 생활백서-통증관리’ 주제의 4회 연재를 통해 암환자들의 통증, 호흡기계·소화기계 증상, 피로 관리 방법을 소개한다. <br/> <br/> ◇암성통증의 방사선 치료=암성 통증에서 방사선 치료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등의 치료에서 통증이 조절되지 않을 때 통증 완화 목적으로 혹은 신경 압박이나 골절의 예방 목적으로 시행된다. 통증 완화를 위한 방사선 치료는 환자의 전신 상태 및 잔여 생존 기간을 고려해 1∼3주의 짧은 기간 내에 이뤄진다. 국소적인 골 전이의 경우는 국소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며, 뼈로 전이된 부위가 전신적이고 통증이 전체적일 때는 상반신 또는 하반신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반신 방사선 치료가 시행될 수 있다. 반신 방사선 치료는 골 전이 이외의 많은 장기의 전이로 인한 암성 통증에도 사용된다. 전신적인 통증을 수반한 골모세포성 골 전이의 경우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주사해 광범위한 골 전이의 통증을 조절할 수 있으나 통증이 재발될 가능성이 약 50%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신경 압박에 의한 통증의 경우 척수 신경 압박, 뇌전이, 악성 뇌수막염, 뇌신경 마비의 경우 방사선 치료를 통해 종양의 크기를 줄여 압박을 풀어줌으로써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 <br/> <br/> ◇암성 통증에 대한 신경 블록 요법=신경 블록(신경 차단, Nerve block)은 통증 경로를 무감각하게 만들기 위해 신경 섬유 근처에 진통제를 주사하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3단계 진통제 사다리에 의해 통증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고려하는 방법이다. 국소적인 부위의 통증에 적용할수록 효과가 좋다. 신경 블록 요법에는 교감 신경 블록과 체성 신경 블록, 척수강 내 약물 주입법, 그리고 환자 자가 진통법(PCA) 등이 있다. <br/> <br/> 교감 신경절 블록은 교감 신경 차단을 적용할 수 있는 암성 통증은 신경 파괴제를 사용해도 지각 탈실이나 운동 기능의 상실 없이 통증 조절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성 신경 차단은 지각 신경과 운동 신경의 차단을 포함하므로 상하지 및 하복부 신경을 지배하는 신경을 차단하면 근력 저하나 운동 마비, 배뇨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신경 파괴제에 의한 차단은 그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추간 관절이나 천장 관절부와 같은 국한된 부위의 체성 통증에 대해 치료 효과가 크며, 개흉술 후 지속되는 통증에 대해서는 늑간 신경 차단 등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 <br/> <br/> 척수 진통법은 경막외강이나 지주막 하강에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을 척수 진통법(spinal analgesia)이라고 하며, 얼굴과 머리를 제외하고 경부에서 요천부까지 어떤 분절의 통증에도 적용된다. 방법으로는 경막외강 진통법과 지주막하 진통법이 있다. <br/> <br/> 환자 자가 진통법(PCA)은 약물의 양을 미리 결정하여 약물 주입기(infusion pump)나 일회용 주입기를 장치하고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통증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다. 진통제를 특수한 펌프를 이용하여 경막외강, 정맥 내, 피하 등에 주입하는 방법이다 장점은 통증을 느낄 때 의사나 간호사의 처치를 기다리지 않고 환자 스스로 자신의 통증을 관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br/> <br/> 이외에도 ‘상상 요법’, ‘기분 전환’, ‘마사지나 지압’, ‘냉찜질이나 온찜질’, ‘심호흡과 이완 요법’, ‘규칙적인 진통제 복용’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이 진통제 효과를 높이고 다른 불편한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약을 대신할 수는 없다. <br/> <br/>송병기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576.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아픈사람들 위해 藥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날짜: 20170417  
기자: 조민규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17192555002  
ID: 01100201.2017041719255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면역항암제에 대한 급여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환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대만큼 “잘 안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큰 것이 환자들의 마음이다. <br/> <br/> 최근에는 면역항암제 투여를 일부 병원에서만 진행한다는 소식도 들려오자 환자들은 ‘정부에서 어떤 논의를 하는지도 알 수 없고, 환자 중심의 급여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중심, 아니 공무원 중심의 급여화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비통해 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정부의 치료약의 급여화 과정에 제약사와 정부만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환자들은 왜 자신이 써야할 약이 보험이 안 되는지도 모른다. 때로는 “치료약이 있다는 걸 몰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토로하는 환자들이 있는 게 현실이다. <br/> <br/> 환자들에게 면역항암제는 ‘생명’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환자 A씨는 “오늘 아침도 여느 때와 같이 ‘면역항암제’로 검색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면역항암제를 이야기하면 따가운 시선을 받는데 다음에 진행될 약이 없는 환자들, 임상 참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들, 항암제의 부작용이 너무 심해 더는 희망을 갖기 힘든 환자들, 쓸 수 있다고 해서 써보려고 하면 약값이 몇 백만원이라고 그래서 당일 입원처리라도 해주면 실비처리라도 할 텐데 병원에서는 당일 입원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 환자들, 이런 사연 속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현실에서 투병중인 암환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라고 자조 섞인 말을 했다. <br/> <br/> 특히 “약은 아픈 이들을 위해 개발했고, 정책은 국민을 위해 만드는데 우리 암환자들은 약이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안타까운 호소를 하고 있다. <br/> <br/> 환자 B씨는 “3세대 표적치료제와 면역항암제가 우리나라에 출시됐다. 이 새로운 치료제들은 부작용이 매우 적고, 4기 암환자도 잘하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효과가 뛰어나다고 한다. 하지만 2주 혹은 3주 간격으로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종류에 따라 350만원에서 900만원 가까이 치료비가 든다. 여기에 이런 저런 정밀 검사를 받고, 방사선 치료에 입원까지 하게 도면 한달에 1000만원은 우습게 들어간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암환우 및 보호자들은 집을 팔고 거리에 나앉게 되는가 하면, 좋은 약 한번 써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비싼 약값 때문에 한 번 더 깊이 절망하는데 우리 암환우 및 가족들의 현실이다”라고 토로한다. <br/> <br/> 환자 C씨는 “국민의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일까. 얼마 전 신문기사를 보니 면역항암제 건보 적용에 드는 추정 비용이 약 3000억원이라고 한다. 건보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으로 2017년 3월까지 9조원이 넘는 추가세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감기처럼 조금만 노력하면 자연치유가 가능한 질환들은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해 생기는 수익을 암이나 각종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에 생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면역항암제의 경우 폐암 뿐 아니라 다양한 암 종에서 적응증을 넓혀가고 있다. 피눈물이 암환우나 가족들에게서 더 이상 나오지 않게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치료제의 건강보험을 호소하고 있다. <br/> <br/> 환자들은 왜 면역항암제를 원할까. ‘살고 싶다’는 호소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가 살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처음 환자의 말처럼 약은 아픈 이들을 위해 개발됐다. 때문에 돈이 없어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환자들의 요구이다. <br/> <br/>조민규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3-577.txt

제목: [암과의 동행] 큰 힘 주는 보험 급여 면역항암제는 왜 복잡하게 진행되나  
날짜: 20170417  
기자: 조민규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17192555001  
ID: 01100201.201704171925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면역항암제에 대한 환자들의 보험급여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br/> <br/> 최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면역항암제 옵디보와 키트루다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두 품목은 환급형 위험분담제(RSA) 형태의 보험급여에 대해 타당성이 논의됐는데 참석위원들의 특별한 이견이 없이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하지만 이번 약평위 통과로 급여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심평원 관계자는 “면역항암제는 큰 틀에서 심의된 상황에서만 말을 하면 두 품목 다 급여 하는 것에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약가협상 등 그 이후 부분은 절차가 남아있다”며 “급여기준 세부 안까지는 말하기 어렵다. 세부 내용은 차이가 있겠지만 급여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수용이 됐다. 면역항암제는 작년에 협의체도 했고 여러 차례 논의했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그런 부분에서 일정부분 많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br/> <br/> 또한 이 관계자는 “약평위 심의를 거쳐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자문만 끝난 것으로 보면 된다. 이번 결과가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 비급여’여부가 결정됐다고 말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br/> <br/> 그럼에도 약평위 통과는 급여과정에서 가장 힘든 절차는 넘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후의 절차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실상 제약사들이 급여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약가협상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 역시 면역항암제의 사회적 요구가 큰 만큼 크게 반대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br/> <br/> 이처럼 면역항암제의 보험급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br/> <br/> 옵디보가 허가사항에 없는 PD-L1 발현율 10%를 기준으로 급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키트루다의 경우 PD-L1 발현율 50%, 옵디보의 경우 PD-L1 발현율과 상관없이 허가를 받았는데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키트루다는 PD-L1 발현율 50%, 옵디보는 PD-L1 발현율 10%에 대해 급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br/> <br/> 이에 대해 옵디보 측은 허가사항과 다르고, 환자를 정해 급여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며 투약 후 효과가 없는 환자의 약제비를 제약사가 부담하는 성과기반형 위험분담제를 제시했지만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br/> <br/> 특히 옵디보 측은 발현율 10%를 적용할 경우 많은 환자들이 면역항암제 급여에 따른 치료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허가사항을 보면 ‘옵디보’는 2015년 3월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악성 흑색종 2차 치료, 2016년 4월 PD-L1 발현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 및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악성 흑색종 1차 치료에 동시 허가를 받았다. <br/> <br/> ‘키트루다’는 최근 PD-L1 발현율이 50% 이상이며,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 승인 받았고,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 치료 도중 또는 이후에 진행이 확인된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투여 대상이 PD-L1 발현 양성(TPS 1% 이상)으로 확대됐다. 흑색종 1차 치료에도 승인을 받았다. <br/> <br/> 한편 면역항암제의 국내 급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적응증 확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옵디보는 미국 FDA로부터 2014년 12월 흑색종 허가 후 총 비소세포폐암(편평 및 비편평), 신세포암, 호지킨림프종, 두경부암, 방광암 등 6개의 암 종에 적응증을 획득했다. 또 현재 간세포암, 두경부암, 신장암, 위암 등에 대해 글로벌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보이’와의 병용요법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 <br/> <br/> 키트루다 역시 적응증 확대에 본격 나서고 있는데 최근 미국 FDA에 방광암 1, 2차 치료에 대한 허가자료를 제출했고, 간암·유방암 등 30여개 암 종에서 약 400건의 글로벌 임상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br/> <br/> 이번 논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방광암(요로상피암) 2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티쎈트릭’도 전이성 요로상피암 2차 치료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3상 연구를 진행 중이고, 2017년 하반기에 시스플라틴을 쓸 수 없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1차 치료와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에 대한 적응증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시판까지는 3∼4개월여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광암에 대해서는 타사 제품들이 적응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br/> <br/>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3-578.txt

제목: [쿠키가 만난 명의] 김영삼 인하대병원 흉부외과 교수 “폐암 수술은 무엇보다 사후관리 중요”  
날짜: 20170417  
기자: 박예슬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17191955001  
ID: 01100201.201704171919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다른 암 중에서도 특히 폐암은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며, 사망률로는 1위인 암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2015년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7만6855명으로, 그중 폐암이 22.6%(1만7399명)를 차지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서 발생하고, 가장 많이 사망하는 암인 폐암과 관련해 김영삼 인하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수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수술 후 잘못된 관리로 인해 다른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지론이다. <br/> <br/> 김영삼 교수는 “과거에는 환자를 수술을 한 후에 앞으로 열심히 운동하시라고 말로만 권해주는 정도였다. 그렇게 하면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운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신다. 의욕이 앞서 본인 체력에 비해 과하게 운동하거나, 반면 운동을 너무 적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하지만 오히려 수술 직후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심장에 부담이 돼 부정맥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r/> <br/> 이어 그는 “폐암수술 기법은 다른 병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술을 잘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더불어 수술 후 환자가 일상생활로 무리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재활의학과랑 협진을 해서 재활 운동 처방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br/> <br/> 김 교수가 시행하는 재활 방법은 단순히 환자에게 재활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일종의 교육이다. 걷기나 자전거 타기 등을 시켜서 환자의 심박수나 산소포화도를 체크한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가 환자에게 적정한지, 어느 정도가 부담이 되는지 등을 확인해서 ‘집에 가시면 이정도 속도로 운동을 하세요’라고 알려주는 식이다. 단, 이때 중요한 키워드는 ‘차근차근’이다.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서 환자 상태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br/> <br/>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폐 수술을 하고 나면 폐의 일부가 없어져 폐기능이 떨어지는데, 폐는 심장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로 인해 호흡곤란이나 부정맥, 그 외에 다른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다</span>”고 경고했다. 따라서 “갑자기 너무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하면 근육에 무리가 되듯이, 폐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br/> 김영삼 교수는 폐암 초기로 병원을 찾은 86세의 할머니를 치료한 적이 있다. 고령자 수술은 누구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도 마찬가지였다. 김 교수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처음에 수술 의뢰를 받고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수술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됐다. 그래도 일단 환자를 만나봐야겠단 생각이 들어 병실로 가서 환자를 만나보니 의외로 연세에 비해 정정하신 분이셨다”며 “손도 잡고 얘기도 나눠보다가 수술을 결정하게 됐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폐암 치료에 있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란 걸 알았다. 환자의 몸 상태와 체력, 이와 더불어 환자의 강한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br/> <br/> 특히 최근에는 여성 폐암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와 더불어 비흡연자인 폐암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폐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흡연하고 연관된 ‘편평상피세포암’이 주로 많았는데, 최근에는 흡연과 연관성이 낮은 ‘선암’이 늘고 있으며 이중에는 주로 여성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 폐암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간접흡연을 비롯해 음식을 조리할 때 나는 연기, 미세먼지, 대기오염, 방사선, 석면 등이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 김 교수는 “따라서 여성들은 간접흡연을 주의하고 요리할 때를 비롯해 평소에 집안을 환기시켜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주도록 해야 한다. 특히 담배를 30갑년 피우신 분들이나 가족 중에 폐암 환자가 많은 경우 등 고위험군 대상자는 저선량CT를 찍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또한 암에 좋다고 권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사실무근인 경우가 많다. 그것보단 규칙적인 운동과 체력관리, 균형적인 섭취 등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자기 몸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폐암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br/> <br/>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3-579.txt

제목: 한국인에 92% 발생 식도암 유형 "로봇 수술이 5년 생존율 높여"  
날짜: 20170416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16212444001  
ID: 01100201.201704162124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인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식도 편평상피암' 치료에 로봇 수술 장비를 이용하면 생존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김대준·박성용 교수팀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로봇 수술기를 이용한 식도 및 림프절 절제술을 받은 111명의 식도편평상피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 후 장기 생존 및 재발율을 평균 32개월 관찰했다. 연구대상 환자들은 모두 수술 전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았다.  <br/> <br/> 연구 대상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63.2세였다. 수술 병기는 1기 50.5%, 2기 25.2%, 3A기 11.7%, 3B기와 C기 12.6%였다. <br/> <br/> 그 결과 7명(6.3%)의 환자가 국소부위 재발을 보였다. 5명(4.5%)의 환자는 원격전이 상태를 보였다. <br/> 수술 5년 후 전체 환자의 76.2%가 생존했다. 5년 생존율은 1기 89%, 2기 75%, 3A기 78%였다.  <br/> 수술 후 5년까지 전체 환자의 79.4%가 재발을 보이지 않았다. 5년 무병 생존율은 1기 96.2%, 2기 80.1%, 3A기 79.5% 였다. 이러한 성적은 기존에 보고된 생존율보다 월등하게 높은 결과다. <br/> <br/> 식도암의 한 종류인 식도편평상피암은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발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도암 환자의 92%, 일본은 93%가 편평상피암으로 알려져있다. <br/> 식도평편상피세포암은 초기 단계에서도 림프절 전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특징을 지닌다. 발생 장소와 림프절 전이 양상이 서구에서 쉽게 발생하는 식도선암과 다르기에 수술 방법도 차이를 보인다. 식도 상부 주변의 양측 성대 신경 부근 림프절을 세밀하게 완전히 제거하는 고난도 수술방식이 필요하다. <br/>  <br/> 연구팀은 16일 "로봇을 이용한 수술은 정교한 박리와 림프절 절제가 가능하고 합병증을 줄일 수 있기에 식도암 치료성적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br/> <br/> 이번 연구결과는 수술 후 3년 이상의 장기 추적 관찰을 토대로 한 최초의 보고라는 의미도 있다. 연구결과는 미국 흉부외과학회지 최신호에 발표됐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80.txt

제목: 38세 유상무가 걸린 대장암 "10명 중 1명 30~40대"  
날짜: 20170416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16205544001  
ID: 01100201.2017041620554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최근 개그맨 유상무(38)가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암 판정을 받아 주위에서도 놀랐다.  <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장암 진료 환자는 2012년 13만6000여명에서 지난해 15만 6000여명으로 5년새 15% 증가했다. 대부분 50대 이상이었지만 30~40대도 전체 약 10%를 차지했다. <br/> <br/> 최성일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외과 교수는 16일 “<span class='quot0'>식생활의 서구화 및 잦은 회식 등으로 고지방 음식 섭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점차 발생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그 중에서도 혈변 등 대장암 증상이 나타나도 단순 치질로 생각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아 주의해야한다</span>”고 말했다. <br/> <br/> 대장암은 식도 위 소장 대장으로 이어지는 소화기관의 마지막 부위인 대장에서 암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혈변 빈혈 배변 습관 변화(설사 변비 등)가 있으면서 3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철저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br/> <br/> 대장암 진단에는 대장내시경 검사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당국은 5년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권하고 있지만 검사 중간에 암이 생기는 사람이 많아 3년 마다 검사 받기를 전문의들은 권장한다.  <br/> <br/>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최근 항문출혈 또는 갑작스런 변비, 잦은 술자리와 흡연을 한다면 대장암 또는 그 씨앗인 대장용종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더 이른 나이에도 검사받는 것이 좋다. <br/> <br/> 대장암 수술은 점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대부분 복강경으로 이뤄지고 있다. 복강경 수술은 기존 개복 수술과 달리 작은 상처 크기, 통증 감소, 빠른 회복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배꼽에 한개의 구멍을 뚫는 '단일포트 복강경 수술'까지 선보이고 있어 환자의 만족도가 커지고 있다. <br/> <br/> 최 교수는 “<span class='quot1'>하지만 정확한 수술 계획과 절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외과 전문의에 의한 수술 전 내시경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span>”며 “<span class='quot1'>수술 후에는 절제된 암 조직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이용하여 개인 맞춤형 치료를 시행해 불필요한 항암 치료를 줄이고 독성을 감소시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81.txt

제목: 알코올중독증 치료제가 소아악성뇌종양의 방사선 치료효과 높인다고요?  
날짜: 20170414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14113144001  
ID: 01100201.201704141131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알코올 의존증 치료제인 다이설피람을 방사선치료와 병용하면 소아뇌종양 중 최고 악질인 ‘비정형유기형 간상종양’ 제거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서울대병원은 신경외과 김승기( <br/>사진 왼쪽)·최승아 교수팀과 성균관대 주경민·이영은 교수팀과 비정형유기형 간상종양 환자들을 대상으로 공동 연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연구결과는 뇌종양 분야 저명 국제 학술지 ‘뉴로 온콜로지(Neuro-Oncology) 최근호에 게재됐다. <br/> <br/>‘비정형유기형 간상종양’은 소아뇌종양 중 예후가 가장 좋지 않은 암이다. 수술 후 항암 및 방사선치료를 해도 평균 생존기간이 1년을 넘기 어렵다. <br/> <br/>또 다이설피람은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알코올 의존증 치료제다. 김승기 교수팀은 지난 2015년 동물실험을 통해 다이설피람이 비정형유기형 간상종양에 항암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규명한 바 있다. <br/> <br/>연구팀은 이 연구의 연장선에서 다이설피람이 방사선치료에 어떤 영향을 주고, 병행 시행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비정형유기형 간상종양이 나타난 실험용 쥐를 3군으로 나눠, 각각 다른 치료를 시행했다. <br/> <br/>그 결과, 56일 후 다이설피람+방사선치료 병행치료군(1.02mm3)은 다이설피람 단독처리군(31.23mm3)과 방사선 단독처리군(20.80mm3)에 비해 종양의 크기가 훨씬 작았다. <br/> <br/>생존기간도 병행치료군(129일)이 다이설피람 단독처리군(65일), 방사선 단독처리군(76.5일)보다 길었다. <br/> <br/>방사선은 뇌종양 치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치료 중 주변 정상세포에 손상을 주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뇌가 발달하는 소아환자에게 고선량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br/> <br/>하지만 다이설피람을 병행 사용할 경우 다이설피람이 종양의 방사선에 대한 반응성을 높여, 적은 방사선으로 높은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br/> <br/>방사선량이 줄면서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무엇보다 뇌 발달의 부정적 영향 때문에 사용을 꺼렸던 소아환자에게 치료계획에 맞춰 방사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br/> <br/>김승기 교수는 “<span class='quot0'>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비정형유기형 간상종양은 치료에 많은 제약이 있는데, 이번 연구로 항암 방사선 치료의 강도와 기간을 조절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발판을 마련했다</span>”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다이설피람은 소아뇌종양 외에도 방사선 저항성을 보이는 다른 암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 향후 암치료 및 연구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82.txt

제목: 여성만 아는 말 못할 고민? 유기농 식품과 아로니아로 면역력부터...  
날짜: 201704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14110044001  
ID: 01100201.20170414110044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여자와 남자가 다르다는 것은 아이들도 아는 사실이지만 여자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남자들은 모르는 말 못할 고민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br/> <br/>실제 여자들은 난소의 노화에 의해 여성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생리불순, 안면홍조, 발한, 체중증가, 우울증, 수면장애, 기억력 장애 등 갱년기 증후군을 겪기도 한다. 35세 이상 여성의 40~50%가 앓고 있는 자궁 근종은 폐경기에는 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자궁암, 난소암, 자궁 내막 암 등 폐경 이후 생식기 관련 암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 <br/> <br/>신장의 기능이 약해져 요실금 등 남에게 숨기고 싶은 질환으로 고통받는 여성들도 많다. 우리나라 여성의 약 40%가 요실금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통계 결과도 있다. <br/> <br/>전문가들은 이러한 여성고민들의 대부분의 원인을 면역력에서 찾는다. 특히 요즘에는 이전보다 환경오염이 심해져 몸에 축적되는 화학유해물질 등으로 인해 면역체계가 더 쉽게 교란되고 각종 질병 등에 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br/> <br/>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주범은 바로 활성산소이다. 활성산소는 인체가 흡수하는 산소의 찌꺼기로 과도하게 생성되면 정상세포를 공격하여 세포의 노화 및 약화를 촉진하여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br/> <br/>이렇게 체내에 축적되는 유해물질을 줄이고, 그리고 활성산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번째는 유기농 식품을 먹는 것이다.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깨끗한 땅에서 자란 식품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는 유해물질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br/> <br/>두번째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식품을 먹는 것이다. 안토시아닌은 주로 베리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 중 가장 안토시아닌이 많은 베리는 ‘킹스베리’로 불리는 아로니아이다. 오래 전부터 중국에서는 늙지 않는 열매라는 뜻의 ‘불로매(不老梅)’라고 부르기도 했다. <br/> <br/>아로니아는 전세계 생산량의 90%가 동유럽의 청정국가인 폴란드에서 재배되는데 이는 폴란드의 깨끗한 토질과 높은 일교차가 항산화성분이 더욱 풍부한 고품질 아로니아를 생산하기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br/> <br/>평균수명이 높아진 반면, 유병장수시대로 불리기도 한다. 유기농 식품과 안토시아닌의 보고인 아로니아 섭취가 여성들만의 고민을 해결하고 무병장수시대로 나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83.txt

제목: [가정예배 365-4월 14일] 기쁨  
날짜: 201704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14000256001  
ID: 01100201.20170414000256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찬송 :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95장(통 82) <br/> <br/><br/>신앙고백 : 사도신경 <br/> <br/><br/>본문 :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br/> <br/><br/>말씀 : 어떤 분야에서든 당해낼 수 없는 사람은 즐기며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이 크든 작든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존재의식을 가질 때입니다. <br/> <br/> 누가복음 10장 17∼20절을 보면 예수님에 의해 전도현장으로 파송된 70명의 제자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더니 귀신들이 우리들에게 항복을 하더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쁩니다”라고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도 그것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귀신들한테서 항복을 받아 낸 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했음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 지속적인 기쁨은 소유의식이 아니라 존재의식을 가질 때 생겨진다는 말씀입니다. <br/> <br/>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빌 4:4)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인가를 갖게 되고 어느 위치로 올라가는 등의 소유가 아니라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주 안에 살고 예수님과 매일매일 교통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력을 얻어 저 세상에서 힘 있게, 생기 있게,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br/> <br/>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그 모든 나쁜 상황과 슬픈 조건을 항상 기쁨으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니다. <br/> <br/>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였던 C. S. 루이스는 독신으로 살다가 59세에 여류시인인 조이와 결혼합니다. 그러나 4년 만에 루이스의 아내 조이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상황을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는 성직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자신을 구원해주신 예수님께 드리는 미소였습니다. 미소를 머금고 그녀는 영원의 샘으로 돌아갔습니다.” 루이스는 자기 아내와의 이별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루이스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을 때 그들은 죽음이 갈라놓는 극한 슬픔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br/> <br/>기도 : 사랑의 주님,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r/> <br/>주기도문 <br/> <br/>이현식 목사(서울 진관감리교회)

언론사: 국민일보-3-584.txt

제목: 서울메디케어 건강검진센터, 스마트폰으로 검진예약, 결과확인 가능  
날짜: 201704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13170044001  
ID: 01100201.201704131700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서울메디케어가 스마트 시대에 맞춰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 접속 시, 검진예약과 결과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문진표 작성도 가능하여, 수검자가 미리 작성하여 내원할 경우 병원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br/> <br/>서울메디케어 홈페이지에서는 지난 3년차까지의 누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검진 결과를 열람 가능하여 ‘내 손안의 주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 <br/> <br/>서울메디케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마포구 건강검진 지정기관으로 국가에서 진행하는 일반검진, 5대 암 검진, 생애 전환기 검진이 가능하며, 철저한 사후관리로 유질환자를 추적 검사하고 외래진료센터 및 협력병원으로 연계하고 있다. <br/> <br/>센터관계자는 “서울메디케어는 간 Elastography 기능이 탑재된 최신 MRI, 의료 방사선 피폭량을 40%까지 낮춘 저 선량 MD-CT 등을 도입하여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발맞추어 가고 있다"며 “<스마트 검진 시스템> 도입으로 정확도와 편리성을 높여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85.txt

제목: 선진바이오텍-미나헬스, ‘엠에이치플러스징크’ 한국 공급  
날짜: 201704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13152544001  
ID: 01100201.201704131525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베타글루칸이 고농도 함유된 일본 미나헬스의 ‘엠에이치플러스징크’가 국내에 공급된다. 13일 선진바이오텍에 따르면, 미나헬스사(社)와 엠에이치플러스징크의 국내 수입, 유통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br/> <br/>주 성분이 꽃송이버섯 추출물인 건강기능식품 엠에이치플러스징크의 주요 효능은 면역증강과 정상 세포분열을 돕는 역할이며, 베타(1,3)글루칸, 아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다. <br/> <br/>꽃송이버섯은 고산지대에만 한정적으로 자라 채집량이 많지 않다. 자연산을 구경하기가 힘들고 베타글루칸 등 유익한 성분이 많아 ‘신비의 버섯’으로도 불린다. 베타글루칸 β-1, 3-D-glucan 함량이 가장 높은 버섯도 바로 이 꽃송이버섯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이 꽃송이버섯의 인공재배가 가능해진 시기는 1999년 미나헬스가균주 개발에 성공하면서부터다. 2008년 9월, 미나헬스는 꽃송이버섯추출물 베타(1,3)글루칸의 항암성분 추출 및 제조법에 대해 일본에서 특허(특허 4183326)를 취득했다. <br/> <br/>버섯류에 풍부하게 함유된 베타글루칸은 씹어서 섭취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인체가 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단단한 세포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갈아서 세포벽을 부셔야 효율적인 섭취가 가능하다. <br/> <br/>선진바이오텍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꽃송이버섯 추출물을 주 성분으로 제조된 엠에이치플러스징크가 베타(1,3)클루칸 흡수에 용이한 것도 갈아서 세포벽을 부수어 제조했기 때문</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이 관계자는 “도쿄약과대학 야도마에 토시로 명예교수도 미나헬스의 꽃송이버섯 건조물 100g에는 베타글루칸이 63.2g이 들어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는 잎새버섯(15~20g), 영지(8~15g), 아가리쿠스(11.6g), 송이버섯(18.1g), 표고버섯(5g)에 비해 3~5배나 많은 수치다“고 덧붙였다. 야도마에 명예교수는 미나헬스와 공동으로 관련 연구에 참여해 왔다. <br/> <br/>대중매체를 통해 잘 알려진 베타글루칸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인간의 정상 세포의 면역기능을 활성화시켜 암세포의 증식과 재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즉, 면역세포인 T세포와 B세포의 면역기능을 활성화시켜 준다. 네이쳐 면역학회지도 2007년 1월 꽃송이버섯의 베타(1,3)글루칸은 소장의 수용체가 자극되어 면역력 강화작용을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br/> <br/>아연은 인체 내 대사조절과 핵산 합성, 면역기능 강화와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 관여하는 성분이다.  <br/> <br/>2002년 일본 암학회에 오모테산도요시다병원(구마모토)과 공동연구 결과 미나헬스의 발표에 따르면, 꽃송이버섯 추출물의 베타(1,3)글루칸을 1일 300㎎씩 6개월간 섭취한 결과 9명의 환자에서 50% 이상 암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NK세포와 백혈구 등 면역력은 전원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86.txt

제목: [경제브리핑] 매월 생활자금 주는 암보험 출시  
날짜: 201704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13173755003  
ID: 01100201.20170413173755003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삼성생명은 암 진단 시 진단금과 함께 매월 생활자금을 최대 5년간 지급하는 ‘올인원 암보험’을 12일 내놓았다. 이 상품은 기존 암보험에 매월 생활자금 지급과 건강관리 서비스, 한방 보장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보험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지급형’ ‘생활자금형’으로 구분해 판매한다. 기존처럼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고액의 진단금을 원하면 일시지급형, 생활비가 필요하면 생활자금형을 선택하면 된다.

언론사: 국민일보-3-587.txt

제목: [개척교회 열전] ‘좋은 엄마’ 프로그램서 만난 비신자들 학부모가 아이들 데리고 교회 찾아와  
날짜: 20170412  
기자: 이사야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12145755001  
ID: 01100201.20170412145755001  
카테고리: 문화>종교  
본문: 인천 중구 넙디로 하늘기쁨교회의 김태광(57) 목사와 이상애(58) 사모는 고신대 신학과 동문입니다. 캠퍼스커플로 교제하다 결혼에 성공했죠. 두 사람은 부부이자 30년 넘게 복음전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앙적 동지입니다. <br/> <br/> 김 목사 부부는 부산과 대전, 경기도 안산 등에서 목양사역을 했습니다. 큰 부흥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임마누엘교회에서 청빙을 받아 사역하던 중 이 사모가 암이 걸려 사임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개척자금을 받아 영종도에 전세로 얻어 이사를 했고, 요양을 하면서 현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br/> <br/> 다행히 병세는 점차 호전됐습니다. 부부는 다시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심합니다. 전도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있는 현실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 목사 부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이 진행 중인 ‘3000교회 100만성도 운동’의 대상자로 선정돼 2015년 11월 현재 위치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br/> <br/> 교회 근처에는 직장인들이 거주하는 원룸 촌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김 목사 부부는 그들을 대상으로 ‘출근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출근시간에 맞춰 아침마다 계란 등의 식사거리를 나눠주며 전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br/> <br/> 길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열렸습니다. 다리에 장애가 있는 이 사모가 운서동 지역의 복지관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마침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모는 고신대 신학과를 졸업한 후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영재교육과를 전공했습니다. 부모교육에 대한 과목도 배웠죠. <br/> <br/> 이 사모는 지난해부터 복지관에서 부모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조은맘(좋은엄마)’ 프로그램을 만들어 매주 목요일 지역 학부모들에게 ‘올바른 자녀교육법’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녀교육, 부부 간 갈등에 대한 상담을 하고 수강생들과 소통도 활발히 합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가족에게 예쁜 말 하기’ ‘일주일에 한 가지 이상 봉사활동 하기’등의 과제를 내주고는 과제 완수를 증명하는 사진을 찍어 올리게 합니다. <br/> <br/> 현재 3기까지 진행됐는데 20∼30명씩 매주 참석합니다. 비신자들이 50% 이상입니다. 이 사모는 “학부모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져 강좌를 들으려는 사람들이 대기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모가 아직 완치되지 않았기에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김 목사가 대신 강의를 합니다. <br/> <br/> 수강생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진 것은 교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 목사는 “<span class='quot0'>우리의 최종 목표는 결국 복음전파인 만큼 하나님이 실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예수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말했습니다. <br/> <br/>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88.txt

제목: 고려수지침학회, 새 책 ‘유태우의 서금요법’ 상·하권 펴내  
날짜: 20170412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12101244001  
ID: 01100201.20170412101244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고려수지침학회는 서금요법 창시자 유태우 회장의 치료 노하우를 일반인이 쉽게 따라 읽힐 수 있도록 풀이한 새 책 ‘유태우의 서금요법’( <br/>사진)을 펴냈다고 17일 밝혔다. <br/> <br/> 서금요법은 손에 침을 놓은 독특한 방식의 수지침요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손 피부에 분포한 인체 경혈 상응점을 압박하거나 접촉하고 온열 및 전자 자극을 가하는 침술을 말한다. <br/> 손을 중심으로 압박 및 접촉 자극을 주는 방식이어서 안전하게 건강 증진과 질병 치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br/> 새 책 유태우의 서금요법은 그동안 일간신문에 연재해 온 칼럼 250여 편을 엮은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질병 극복에 도움이 되는 침법을 소개하고 있다. <br/> 기구 역시 침봉에서 압진봉 자극과 기마크봉에서 금봉, 황토서암뜸, 신서암뜸, 서암온열뜸기, 아큐빔Ⅲ의 전자자극법, 큰 도움이 되는 반지요법, 서금요법의 음식요법, 서암목요법과 염파요법, 최신의 기감요법 까지도 간략하게 소개했다. <br/> 상`하편, 두 권으로 편집, 출판됐고 상권에서는 제1편 서금요법의 개요와 원리, 제2편 서금요법의 응용처방에서는 눈 질환, 코 질환, 입·턱·치아 질환, 귀 질환, 두통, 기타 얼굴 부위의 목, 어깨, 쇄골, 견관절 질환, 감기, 기관지, 호흡기능, 심장 질환을 수록했다. <br/> 하권에서는 복부·위장·간·대장·신장 질환과, 허리·척추, 여성·남성 질환, 무릎·하지, 손·발, 당뇨, 혈압, 혈관, 암, 다이어트, 소아, 기타 증상들에서는 치매, 정신 질환, 더위, 추위, 오한, 고열, 외상, 피부, 수면, 갑상선, 뇌출혈 등에 대해서 수록했다. <br/> 각권 349쪽, 값 1만5000원.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89.txt

제목: [투데이 포커스] “정말 끊어야겠네”… 담배 발암물질 9개 또 검출  
날짜: 20170412  
기자: 민태원 김동우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12004655001  
ID: 01100201.20170412004655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국내 유통 중인 담배(궐련) 연기에서 경고문에 표시되지 않은 발암성분 9개가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 등 1급 발암물질이 4개나 나왔다. 전자담배 연기에서는 포름알데히드 함량이 액상일 때보다 19배 높았다. <br/> <b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궐련 담배 5개 제품(디스플러스, 에쎄프라임, 던힐, 메비우스스카이블루, 팔리아먼트아쿠아5)과 전자담배 35개 제품을 수거해 연기 유해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정부 차원에서 담배 유해성분을 조사해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br/> <br/> 시중에 팔리는 담배에는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식약처가 국제표준기구(ISO)와 캐나다 정부의 HC 분석법을 활용해 담배연기를 분석해보니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유해물질이 대거 검출됐다. <br/> <br/> 니코틴과 타르 함유량은 개비당 각각 0.4∼0.5㎎, 4.3∼5.8㎎으로 담뱃갑에 표시된 수치 이내였다. 해외 유통 담배의 검출량과 비슷했다. 담뱃갑 경고문에 성분명이 표시된 1급 발암물질 벤젠 나프틸아민도 각각 13.0∼23.8㎍, 0.0076∼0.0138㎍이 나왔다. 비닐클로라이드 니켈 비소 카드뮴은 담뱃갑에 경고 표시가 돼 있지만 검출되지 않았다. <br/> <br/> 대신 담뱃갑에 표시돼 있지 않은 유해물질이 추가로 검출됐다.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1,3-부타디엔 4-아미노비페닐 등 4개 성분이다. 1급 발암물질은 체내에서 암을 일으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충분한 물질이다. 또 인체 암 유발 가능성이 있어 2B급으로 분류된 아세트알데히드 카테콜 스티렌 이소프렌 아크릴로니트릴도 나왔다. 발암 성분은 아니지만 페놀 톨루엔 아세톤 등 유해물질 18개도 연기 속에 녹아 있었다. <br/> <br/> 전자담배도 안전하지 않았다. 전자담배를 피울 때 들이마시게 되는 연기 중 니코틴 함량은 10번 빨아들일 때 0.33∼0.67㎎으로 일반 담배 1개비와 비슷했다. 전자담배에서도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와 유해성분인 니코틴 아세톤 프로피온알데히드 등이 검출됐다. <br/> <br/> 특히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는 기체 상태일 때 함량이 액상일 때보다 각각 19배, 11배 증가했다. 권경희 동국대 약학대학장은 “<span class='quot0'>발암물질은 표시가 안 돼 있든 혹은 표시 범위 내에 있든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span>”며 “발암물질은 다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br/> <br/> 식약처는 궐련담배 연기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성분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다. <br/> <br/>민태원 김동우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90.txt

제목: 세브란스병원 정기양 교수팀, ‘모즈’ 피부암 절제술 2000례 첫 돌파  
날짜: 20170411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11114244002  
ID: 01100201.20170411114244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세브란스병원은 피부과 정기양( <br/>사진 오른쪽) 교수팀이 최근 피부암 절제술의 한 방식인 ‘모즈(Mohs)미세도식수술’ 2000례를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br/> <br/> <br/>모즈미세도식수술은 피부 및 연부조직에 발생한 암조직을 완전 절제함으로써 완치율을 높이는 치료법이다. <br/> <br/>정 교수팀은 지난 2000년 7월 처음으로 이 방식으로 피부암 절제수술을 시작한 이후 2013년 5월 1000례를 돌파했고, 이후 불과 3년 여 만에 또 다시 1000례를 달성, 합계 수술실적 2000건을 넘어서게 됐다. <br/> <br/>치료는 먼저 환자의 암부위 조직검사를 통해 암 유형을 확인 후, 진단된 암의 특성을 고려해 수술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때 환자는 입원이 아닌 수술 당일 피부과 외래 수술실에서 절제할 피부부위를 국소 마취 후 수술하게 되며, 제거한 암조직은 즉시 특수 동결절편을 만들어 병리과 전문의에 의해 암 조직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세심하게 판독된다. 만약 암 세포가 남아 있을 경우, 남아있는 암 부위만 재차 절제하는 수술을 더해야 한다. <br/> <br/>정 교수는 “일반적인 광범위 절제술로 피부암 부위를 제거할 경우 적잖은 흉터가 발생할 수 있고 재발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즈미세도식수술을 시행하면 암조직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으면서도 절제 범위를 최소화해 미용 효과는 물론 치료 효과와 환자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br/> <br/>한편 정 교수팀이 최근 5년간 수술한 피부암 환자들의 재발률은 기저세포암의 경우 1%미만, 편평상피암은 3%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91.txt

제목: 국민대,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아빠’, ‘뢰스덴호’ 공연  
날짜: 201704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10154544001  
ID: 01100201.20170410154544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국민대학교 스토리 작가 데뷔 프로그램 S.T.E.P.’이 뮤지컬 창작인 양성 과정을 성공리에 마친 후 최종 2작품을 선정해서 공연으로 선보인다. <br/> <br/>‘S.T.E.P.’은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뮤지컬 창작소 <불과 얼음>, (사)한국뮤지컬협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인문, 예술, 공학 등을 융합한 과 <뮤지컬 창작 Lab>을 통해 다양한 소재와 형식의 실험을 지원함으로써 창의적인 작가 양성 및 작품 창작 플랫폼을 구축한 프로그램이다. <br/> <br/>8개월간 진행된 워크숍, 창작 랩, 1, 2차 독회 발표를 거치면서 최종 선발되어 무대에 오르는 작품은 ‘이상한 나라의 아빠’와 ‘뢰스호’다. <br/> <br/>강보영 작가, 이주희 작곡가의 뮤지컬인 ‘이상한 나라의 아빠’는 이석준 연출가와 구소영 음악감독이 힘을 보태어 12일 수요일 7시에 국민대학교 예술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br/> <br/>아빠를 이해 못하던 동화작가 지망생 주영과 주영이 하는 일을 무시하고 늘 화만 내는 고집불통 아빠가 어느 날 뇌로 암이 전이되면서 자신을 열아홉 살로 착각하고, 주영은 그런 아빠 곁을 지키면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를 담았다. <br/> <br/>주인공은 시인이 되고 싶었던 아빠의 옛 모습들을 마주하게 되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 캐릭터들인 시계토끼, 하트퀸, 도도새, 체셔고양이를 따라 아빠와 함께 하는 이상한 나라 시간 여행이다. <br/> <br/>오혜인 작가, 이지현 작곡가의 뮤지컬인 ‘뢰스호’는 추리와 반전을 통해 재미를 주는 작품으로 정태영 연출가와 정도영 안무가가 함께 만들어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14일 금요일 7시에 국민대학교 예술관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br/> <br/>1776년 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해운회사D.A.C.의 신임사장 맨드빌은 아버지가 생전에 38년 전 선박사고에 대한 재심의를 준비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버지가 남긴 항해일지의 마지막 기록을 단서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맨드빌과 사고확인서를 훔치려는 부사장 암브로스 그리고 사고에서 살아남은 증인들 사이의 갈등과 반전이 이어진다. 점점 커져가는 의문 속에 아버지의 발자취를 좇던 맨드빌은 뢰스덴호 사고의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br/> <br/>공연은 전석 무료초대이며 티켓은 ‘네이버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92.txt

제목: 최강희 "엄마, 천국 어때요?" 故김영애 애도 글  
날짜: 20170410  
기자: 박효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10113644002  
ID: 01100201.2017041011364400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배우 최강희가 고(故) 김영애를 추모했다. <br/> <br/>최강희는 9일 인스타그램에 "엄마, 천국 어때요? 나도 엄마 안 아파서 좋아요. 얼마나 예쁘게 계실까. 그렇게 사랑스럽게 거기서"라는 글을 게재했다. <br/> <br/>이어 "천국 시간은 정말 눈 한 번 깜빡하면 저도 거기 있을 것 같아요. 거긴 고통이 없으니까. 보고 싶다. 나는 늘 보고 싶어만 했으니까. 보고 싶어요. 어제도 내일도. 아주 금방 만나요. 사랑해요"라며 고인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br/> <br/>최강희는 글과 함께 김영애와 2009년 모녀지간으로 호흡을 맞춘 영화 ‘애자’의 스틸컷을 첨부했다. KBS2 ‘추리의 여왕’을 촬영 중인 최강희는 이날 빈소를 찾았다. <br/> <br/> <br/> <br/> <br/>SNS에서도 추모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배우 조민기는 “배우가 얼마나 아름다운 수행인지 묵묵히 삶으로 보여주신 선배님”이라며 “이제는 아무런 고통 없고 병마 없는 곳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계시리라 믿습니다. 내내 간직하겠습니다”라고 했다. <br/> <br/>신현준은 “암 투병 중에도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연기혼을 불태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우 김영애 선배님.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마셨으면 한다. 선배님, 사랑한다”고 적었다. <br/> <br/>진태연도 SNS에 “MBC 공채 대선배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훌륭하게 걸어가신 선생님들이 한 분씩 떠나실 때 존경과 감사를 느낀다. 좋은 곳에서 아픔 없이 푹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고 글을 남겼다. <br/> <br/>김영애는 췌장암 합병증으로 9일 오전 10시58분 별세했다. 향년 66세. 고인의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1일이며 장지는 분당 메모리얼 파크다. <br/> <br/>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93.txt

제목: 서울아산병원 삶의 질 향상 클리닉, 이용자 7년간 7배 증가  
날짜: 20170410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10113144002  
ID: 01100201.20170410113144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최근 암 생존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암은 더 이상 ‘걸리면 무조건 죽는 병’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암 발병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삶의 질 향상 클리닉’을 찾는 암 환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br/> <br/>서울아산병원 암병원은 최근 암 스트레스 클리닉, 평생건강 클리닉 등 ‘삶의 질 향상 클리닉’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를 추적 조사한 결과, 작년 한해에만 약 1만7000명이 이용하는 등 지난 7년간 환자 수가 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br/> <br/>조사 결과 2010년에는 2 400여 명이 삶의 질 향상 클리닉을 찾았고 이후 연평균 38%씩 증가해 2016년 한 해 동안 1만7000여 명이 삶의 질 향상 클리닉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또한 2010년에는 삶의 질 향상 클리닉 환자의 90%가 평생건강클리닉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2016년에는 전체 환자의 65%가 평생건강클리닉을, 나머지 35%가 스트레스, 수면장애, 통증, 재활 관련 클리닉 등을 찾은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br/> <br/>삶의 질 향상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재발·전이 예방 목적을 넘어 스트레스, 수면장애, 암성통증 등 보다 다양한 삶의 질 관리를 위해 클리닉을 찾는 환자들의 비중 또한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다. <br/> <br/>특히 정신건강 관련 클리닉의 경우 2010년 개설 당시에는 276명이었던 것이, 7년이 지난 현재 연 3041명으로 11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br/> <br/>서울아산병원 암병원은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완화의료 클리닉을 비롯해 암 평생건강클리닉, 암 스트레스 클리닉, 암 수면장애 클리닉, 암 재활 클리닉, 암 만성질환 클리닉, 암성통증 클리닉, 그리고 암환자 상처관리 클리닉까지 총 8개의 삶의 질 향상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br/> <br/>임석병 서울아산병원 암통합진료센터 책임교수(대장항문외과 교수)는 “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삶의 질 향상 클리닉을 찾는 환자들이 급증하는 동시에 보다 다양한 클리닉에 대한 환자들의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암 스트레스, 재활, 평생건강 클리닉을 확대하고 치료시기를 놓친 암 환자들을 위한 완화의료 클리닉도 새로 개설하는 등 완치를 넘어 환자들의 ‘삶의 질’까지 보듬어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94.txt

제목: 마지막까지 불사르고… 46년 연기인생 김영애 떠났다  
날짜: 20170410  
기자: 박지훈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10210255001  
ID: 01100201.20170410210255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암으로 투병하면서도 연기 투혼을 불태웠던 배우 김영애(66·사진)씨가 9일 끝내 세상을 떠났다. <br/> <br/> 1951년 부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71년 MBC 공채 탤런트 시험(3기)에 합격하면서 배우의 길에 들어섰다. 드라마 ‘당신의 초상’ ‘엄마의 방’ ‘빙점’ ‘가을여자’ ‘장희빈’ ‘달려라 울엄마’ ‘로열 패밀리’ 등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큰 사랑을 받았다. <br/> <br/> 2012년 췌장암 선고를 받은 뒤에도 연기 활동은 계속됐다. 투병 중에도 드라마 ‘내 사랑 나비부인’ ‘킬미 힐미’, 영화 ‘변호인’ ‘우리는 형제입니다’ ‘카트’ 등에 출연해 명불허전의 연기력을 보여줬다. <br/> <br/>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영된 KBS 2TV 주말극 ‘월계수양복점 신사들’(50부작) 촬영 당시에는 병세가 악화된 상태인데도 촬영에 임했다. 지난해 10월 말 입원한 고인은 병원에서 ‘외출증’을 끊어가며 촬영장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진통제를 맞아가며 버텼지만 마지막 4회분에는 출연하지 못했다. 당시 드라마에서 그는 시골로 요양을 간 것으로 그려졌다. <br/> <br/> 고인은 2001년 황토 화장품 회사 ‘참토원’을 설립해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한 사업가였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07년 한 방송이 황토팩의 중금속 논란을 제기하면서 타격을 입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표했지만 마음고생이 심했던 고인은 사업에서 손을 뗐다. <br/> <br/> 백상예술대상 신인상, SBS연기대상 최우수연기상, 백상예술대상 최우수연기상, 대종상 여우조연상 등을 수상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이민우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1일(02-227-7500). <br/> <br/>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95.txt

제목: 김영애 드라마 촬영 현장 떠나는 마지막 모습 (영상)  
날짜: 20170409  
기자: 박효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09174644001  
ID: 01100201.20170409174644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배우 김영애의 유작이 된 KBS2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의 마지막 촬영 현장 영상이 공개됐다. <br/> <br/>9일 연합뉴스TV는 고인의 유작이 된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 차인표가 직접 찍은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다. <br/> <br/>차인표는 9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이 영상은 선생님이 50회 촬영을 마지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촬영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자로서 책임과 소임을 다하신 김영애 선생님 같은 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귀감이란 생각이 든다</span>"고 말했다. <br/> <br/>영상보기  <br/> <br/> <br/> <br/>영상에는 고인이 극심한 통증에 고통스러운 듯 대기실 벽을 한 손으로 짚은 채 허리를 숙여 신음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모습을 지켜보며 함께 출연했던 배우 신구와 라미란 등이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보인다. <br/> <br/>영상을 찍은 차인표는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김영애를 배웅했다. <br/> <br/> <br/> <br/> <br/> <br/>차인표는 "김 선생님이 촬영 초 분장실에서 '나는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50회가 끝날 때까지만 살아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부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같이 일하는 제작진이나 연기자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누가 안됐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br/> <br/>이어 "선생님께서 너무나 고생하셨다"면서 "중간 중간 암이 전이됐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드라마를 끝까지 무사히 마쳐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면서 ”드라마와 다른 배우들에게 폐를 끼칠까, 그것만 걱정하셨다"고 전했다. <br/> <br/> <br/> <br/>김영애는 지난해 8월부터 KBS 주말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에서 양복점 대표의 아내 최곡지 역으로 출연했다. 10월 말 갑자기 병세가 악화돼 진통제로 버텨가며 드라마 촬영에 임했던 그는 50부 출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연기 투혼을 불살랐다. <br/> <br/>특히 드라마 녹화 날에는 “정신이 명료해야 한다”며 진통제를 맞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월계수 드라마는 인기에 힘입어 4회 연장됐지만 고인은 병세 악화로 참여하지 못했다. <br/> <br/>김영애는 2012년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촬영 도중 황달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췌장암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그는 주변에 투병 사실을 숨긴 채 드라마 촬영을 끝냈다. 그 뒤에도 수술과 치료를 병행하며 드라마 ‘닥터스’ ‘킬미 힐미’ 등과 영화 ‘변호인’ ‘카트’ 등에 출연하며 연기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br/> <br/>영상보기  <br/> <br/> <br/> <br/>지난 2월 열린 영화 '특별수사' 시사회에서 그는 “살아온 날 보다 살아갈 날이 더 짧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제가 카메라 앞에 서서 연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말했다. <br/> <br/>1951년 부산에서 태어난 김영애는 1971년 MBC 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40여 년간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오가며 100편이 넘는 드라마, 70편에 가까운 영화에 출연하며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배우다. <br/> <br/>김영애의 장례식장은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11일, 장지는 분당 메모리얼 파크다. <br/> <br/>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96.txt

제목: 배우 김영애씨 췌장암 별세…'수술 후 5년' 끝내 못버텨  
날짜: 20170409  
기자: 박효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09120644001  
ID: 01100201.20170409120644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배우 김영애씨가 9일 오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췌장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66세. <br/> <br/>김영애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영된 KBS 2TV 주말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 양복점 주인 이만술의 부인 최곡지 역을 맡아 열연했고, 이 작품은 유작이 됐다. 2012년 췌장암 수술을 받았던 김씨는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촬영 중 췌장암이 재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김씨는 2012년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촬영을 마친 뒤 췌장암 투병 사실을 고백했었다. 당시 9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 이후 완치 판정을 받고 영화 '변호인' '카트' '특별수사:사형수의 편지' 등에 출연하며 왕성한 활동을 벌였지만, 암 치료에 중요한 고비인 '5년'을 넘기지 못한 채 재발했다. <br/> <br/>김씨는 '월계수 양복점 사람들'의 마지막 4회 분량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당초 50회 출연 계약을 했고, 이후 연장분에도 출연 요청이 있었지만 건강 문제로 체력이 저하돼 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97.txt

제목: 두 손 모으고…대장암 검사 결과 기다리는 유상무 [영상]  
날짜: 20170409  
기자: 박효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09113344001  
ID: 01100201.201704091133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은 개그맨 유상무가 암 검진 결과를 확인하러 갔을 당시 '절친' 유세윤도 함께였다. 유상무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유상무 TV'에 병원에서 대장암 검사 결과를 함께 기다리던 유세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br/> <br/> <br/> <br/>영상에서 유세윤과 유상무는 '대장암센터' 앞 의자에 앉아 있다. 유세윤은 "<span class='quot0'>어제 (유상무가) CT촬영을 했고, 오늘은 의사 선생님과 결과 상담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유세윤의 뒤로는 초조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기도하듯 두 손을 모은 유상무의 모습이 담겼다. 수척한 얼굴의 유상무는 긴장을 풀어보려는 듯 자신을 촬영하는 유세윤에게 "(휴대폰에 화면) 잘 나오고 있어? 잘 나와야 할 텐데..."라고 말했다. <br/> <br/>유상무가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은 이날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최근 유상무가 암센터에서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며 "8일 입원해 수술 준비에 들어간다. 수술 예정일은 월요일(10일)"이라고 밝혔다. <br/> <br/> <br/> <br/>유세윤은 같은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냉무야(상무야) 사람들이 알아버렸다. 다들 너무 고맙다, 그치. 여름에 놀러가자. 고기 잡아주라. 넌 고기 잡을 때가 정말 멌있어♥”라는 글과 함께 유상무가 낚시망을 들고 해맑게 낚시하러 달려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br/> <br/> <br/> <br/>유상무는 10일 수술을 앞두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 “웃음을 드리고 싶어 개그맨이 됐는데... 걱정만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꼭 웃겨드릴게요~”라며 건강하게 돌아올 것을 약속했다. <br/> <br/>소속사 측은 "비교적 빨리 발견돼 수술하면 완치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 현재도 건강은 양호하다. 다만 수술 후 항암치료 등을 병행해야 한다. 안심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br/> <br/>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98.txt

제목: 갑상샘유두암종을 더 이상 암이라 부르지 말라고? 한국인 2%뿐… 단정은 안돼  
날짜: 20170407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07050059001  
ID: 01100201.20170407050059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지난해 4월 미국 국립암연구소(NCI) 의뢰로 구성된 국제전문가위원회는 “<span class='quot0'>갑상샘암의 10∼20%는 암세포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성질이 달라 위험하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0'>더 이상 암이라고 부르지 말고 추가 수술이나 치료도 불필요하다</span>”고 발표했다. 또 이런 유형을 기존 ‘갑상샘유두암종’이라는 진단명 대신 암이 아닌 ‘비침습종양(NIFTP)’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때문에 국내에서도 갑상샘암 과잉진단과 치료의 새로운 논란을 불러왔다. <br/> <br/> 그런데 서구에서 흔한 NIFTP가 우리나라 갑상샘암 환자에게는 매우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병리과 정찬권, 유방갑상선외과 배자성 교수팀은 갑상샘유두암종 환자 6269명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NIFTP 유형이 2%(105명)뿐이었다고 6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북미병리학회지에 공식 발표됐다. <br/> <br/> 연구팀은 또 암 발생 관련 주요 유전자 돌연변이를 분석, 위원회가 제시한 NIFTP 진단 기준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더 엄격한 진단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으로 NIFTP를 진단하지 않으면 주위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로 전이할 수 있는 암을 놓칠 수 있다는 것도 규명했다. <br/> <br/> 정 교수는 “<span class='quot1'>예후가 매우 좋은 갑상샘암 환자에게 불필요한 추가 치료를 받게 하거나 반대로 진정한 암이 있는데도 필요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인의 갑상샘암 특성에 맞는 새로운 진단 및 치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span>”고 설명했다. 최근 대한갑상선학회는 초음파 검사로 확인된 갑상샘 결절(혹) 크기가 1㎝ 이상이며 추가 검사 결과 암으로 진단되면 수술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599.txt

제목: [200자 읽기] 암과 투병하는 사람들을 취재한 책  
날짜: 201704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07050056002  
ID: 01100201.20170407050056002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2007년 일본 ‘문예춘추’ 1∼10월호에 연재된 글들을 한 권에 묶었다. 암과 투병하는 각계각층 사람들을 취재한 책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암을 마주하고 죽음을 준비하는지 다룬다. 1936년생인 저자는 일본 기록문학 장르의 대표적인 저술가 중 한 명이다. 김성연 옮김, 472쪽, 1만6500원.

언론사: 국민일보-3-600.txt

제목: 암 환자 10명 중 6명 "치료후 스마트 기기로 건강관리 원해"  
날짜: 20170406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06092444001  
ID: 01100201.201704060924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암환자 10명 가운데 6명은 암 치료 후 인터넷이나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길 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br/> <br/>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윤영호 교수, 심진아 연구원팀은 2012년 서울대병원과 국립암센터 암환자 625명을 대상으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인터넷·모바일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br/> <br/> 암환자의 63%는 암치료 후 프로그램 사용을 원한다고 답했다. 매우 원한다는 응답도 32%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용화 됐을 때 실제로 사용할지(70%), 효과가 있을지(63.9%)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br/> <br/> 암환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관리의 효율성(52.6%)과 암정보 획득(20.9%) 및 의료진과 의사소통(23.2%)의 편이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br/> <br/> 단,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는 사회경제적 배경, 건강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났다. <br/> <br/> 소득수준이 높거나(1.7배) 치료결정 과정에서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경우(2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프로그램을 원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 인지능력(2.9배)과 식욕(1.8배) 등 삶의 질이 떨어진 경우에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br/> <br/> <br/>최근 암도 치료 못지않게 꾸준한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암 경험자를 대상으로 치료 후 건강관리를 돕는 ICT 기반의 프로그램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이나 스마트기기와 결합해 암환자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특히 환자 주도적 관리를 가능케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의료현장에서는 시행 사례를 찾기 어렵다. <br/> <br/> 윤영호 교수는 “우리나라는 스마트기기 사용률과 ICT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점을 잘 활용하면 암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모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며 “단 사회경제적 수준과 삶의 질에 따라 그 필요성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가격 및 기술 장벽을 낮춰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br/> <br/> 이번 연구결과를 정신 종양학 분야 국제학술지 ‘사이코 온콜로지(Psycho Oncology)’ 온라인판 최신호에 발표됐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3-601.txt

제목: 암 사망률 낮추는 아스피린 "무턱대고 먹으면 곤란"  
날짜: 20170404  
기자: 태원준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04123844001  
ID: 01100201.201704041238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미국 연구팀이 아스피린을 꾸준히 복용하면 암 사망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매사추세츠종합병원 임상-중개역학 연구실의 차오인 박사 팀은 여성 8만6206명과 남성 4만3977명 등 13만여 명을 대상으로 32년간 진행한 조사 자료를 분석해 3일(현지시간) 미국암연구학회 연례회의에서 발표했다.  <br/> <br/>조사 기간에 여성 8271명, 남성 4591명이 각종 암으로 사망했는데, 아스피린을 꾸준히 복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스피린이 암 사망 확률을 남성의 경우 15%, 여성의 경우 7% 낮춰준다는 것이다.  <br/> <br/>아스피린 효과가 가장 큰 것은 대장암이었다. 아스피린을 복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대장암 사망률이 여성 31%, 남성 30% 낮았다. 또 유방암 사망률은 11%, 전립선암 사망률은 23%, 폐암 사망률은 14%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br/> <br/>그렇다고 섣불리 아스피린을 복용해선 곤란하다. 차오 박사는 "<span class='quot0'>아스피린은 위 출혈, 출혈성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도 있는 만큼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미국질병예방특별위원회(USPSTF)는 50, 60대 연령층에 심혈관 질환과 대장암 예방을 위한 저용량(81mg) 아스피린 복용을 권하고 있다. <br/> <br/>▶[포착] 민주당 경선대회에 나타난 치어리더 박기량 <br/>▶“손연재에게 고소당했습니다” 하루 만에 2000명이 본 사연 <br/>▶박근혜 전 대통령, 3.2평 독방 앞에서 눈물 펑펑 <br/>▶"최순실, 구치소에서도 '누구 데려오라'며 지시…” <br/>▶'503번 박근혜' 앞으로 편지 보내는 쉬운 방법 <br/>▶취준생에 자괴감 준 '대통령 구치소 생활' 사진 <br/> <br/>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